

2025년 국립창원대학교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2025. 12.

국립창원대학교 자체평가연구위원회

차 례

I. 자체평가 개요	1
1. 자체평가의 근거	3
2. 자체평가의 추진배경	3
3. 자체평가의 목적	3
4. 자체평가의 방향	4
5. 자체평가 결과 활용	4
6. 대학자체평가 연구위원회 구성	4
II. 평가지표 체계 및 평가방법	5
1. 평가지표 체계	7
2. 자체평가의 절차	14
3. 자체평가 추진경과	16
4. 개선사항	17
III. 자체평가 결과	18
III-1. 평가결과 총괄	20
III-2. 영역별 평가결과	22
1. 학생	22
2. 교원	34
3. 교육여건	44
4. 연구	65
5. 재정	95
6. 산학협력	110
7. 국제화여건	152
8. 기타	170

Ⅳ. 종합 및 제언	176
1. 평가성적 분석	178
2. 평가결과 종합 및 활용계획	190
3.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195
Ⅴ. 부록	205
1. 지표정의서	207
2. 28개 국립대학 및 유사규모대학과의 비교자료	267

I

자체평가 개요

1. 자체평가의 근거
2. 자체평가의 추진배경
3. 자체평가의 목적
4. 자체평가의 방향
5. 자체평가의 결과 활용
6. 대학자체평가 연구위원회 구성

I. 자체평가 개요

1. 자체평가의 근거

-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평가)
 -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함
-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 ☐ 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제98조(자체평가)

2. 자체평가의 추진배경

- ☐ 대학 외부 평가 제도의 중요성 증대
- ☐ 대학 외부 평가, 정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 ☐ 대학의 대외적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평가 모형 구축 필요
- ☐ 자가 진단 및 평가 시스템 정착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 필요
- ☐ 교육 수요자에 대한 대학 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 체제 확보 필요

3. 자체평가의 목적

- ☐ 내부 자체 진단을 통해 우리대학의 현 수준을 파악하여 지표 값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표관리 체제 정착
- ☐ 주요 대외평가 준비 및 정책사업 선정가능성 확대 등 대학의 대외 경쟁력 강화
- ☐ 대학의 현황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여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

4. 자체평가의 방향

- ☐ 주요 대외 평가 지표를 평가 준거로 활용하여 대내외 평가 및 정책사업에 대비
- ☐ 주요 외부 평가를 포괄하는 통합적 성과지표로 평가항목 개선
- ☐ 타 대학과 비교 가능한 대학정보 공시의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
- ☐ 평가 주기별 추세분석 및 비교를 위해 공통지표*를 선정하여 평가 대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평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수혜율, 교육비 환원율, 연구비 수혜실적 등 17개 지표

5. 자체평가 결과 활용

- ☐ 지표 값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 ☐ 대학 구성원들의 대학 현황에 대한 이해와 인식 공유에 활용
- ☐ 대학의 학사구조 및 정원조정 개선에 반영

6. 대학자체평가 연구위원회 구성

구분	소 속	직위(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기획처	처장	이희두	
부위원장	기획처	부처장	이종근	집필위원
	대학성과관리원	원장	정대운	집필위원
위원	입학취업처	부처장	최정인	집필위원
위원	교무처	부처장	백혜연	집필위원
위원	교육혁신처	부처장	정해성	집필위원
위원	대학원	부원장	김지미	집필위원
위원	연구처	부처장	이인환	집필위원
위원	사무국 재무과	과장	황승학	집필위원
위원	학생처	부처장	송상민	집필위원
위원	산학협력단	본부장	김태규	집필위원
위원	국제처	부처장	김영찬	집필위원



평가지표 체계 및 평가방법

1. 평가지표 체계 및 평가방법
2. 자체평가의 절차
3. 자체평가 추진경과

II. 평가지표 체계 및 평가방법

1. 평가지표 체계

□ 기본 원칙

- 주요 대외평가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표 활용
- 대학이 노력하여 개선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지표
- 정량적 측정 및 자료 획득이 가능한 지표
-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표

□ 평가지표 구성

- 주요 대외평가 및 정책사업 지표*, 대학정보공시 항목 등을 근간으로 현재 시점의 대외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지표

***대학기관평가인증, 국립대학육성사업, 글로벌대학사업, RISE사업 등**

- 타 대학과 비교 가능하여 우리 대학의 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 대학자체평가인 학과평가 결과 반영 지표

□ 평가지표 체계

- 평가영역은 각각의 영역에서 평가지표로 구분되며, 평가영역은 대학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영역에 해당됨
- 평가지표 체계 : 8개 평가영역, 49개 평가지표
 1. 학 생 : 4개 평가지표
 2. 교 원 : 3개 평가지표
 3. 교육여건 : 7개 평가지표
 4. 연 구 : 10개 평가지표
 5. 재 정 : 5개 평가지표
 6. 산학협력 : 12개 평가지표
 7. 국제화여건 : 6개 평가지표
 8. 기 타 : 2개 평가지표

□ 평가대상 기간

- 기준년도 : 2023년, 2024년도
- 단, 평가지표별 평가대상 기간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지표평가 점수 및 등급 부여방법

- 지역중심대학 순위 비교, 전체 국립대학 순위 비교 2가지의 방법으로 지표별 점수를 구함
- 평가지표 별로 5등급 구간으로 설정하고, 『평가지표별 산식』에 따라 산출된 값이 해당하는 구간의 점수를 취득점수로 하고, 등급 구분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정함
 - 지역중심대학 비교의 경우 : 산출 값이 거점대학*을 제외한 19개 국립대학 순위 기준으로 1위~4위 A등급, 5위~8위 B등급, 9위~12위 C등급, 13위~16위 D등급, 17위~19위 E등급을 부여함
- *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 국립대학 비교의 경우 : 산출 값이 28개 국립대학 순위 기준으로 1위~10위 A등급, 11위~15위 B등급, 16위~20위 C등급, 21위~25위 D등급, 26~28위 E등급을 부여함
- 산출 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지표작성의 일관성, 명료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표정의서 작성

- 지표정의서는 대학정보공시제도의 정의서를 근간으로 작성
- 각종 대학평가에 사용된 기준 지표정의를 준용하여 작성

□ 28개 국립대학 현황

거점국립대학

연번	학교명	비고
1	강원대학교	거점국립대학
2	경북대학교	거점국립대학
3	경상국립대학교	거점국립대학
4	부산대학교	거점국립대학
5	전남대학교	거점국립대학
6	전북대학교	거점국립대학
7	제주대학교	거점국립대학
8	충남대학교	거점국립대학
9	충북대학교	거점국립대학
10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1	국립경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2	국립공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3	국립군산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5	국립목포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6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7	국립부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8	국립순천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9	국립창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1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2	국립한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4	서울시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5	한경국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6	한국교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8	한국체육대학교	지역중심대학

□ 평가지표

평가 영역	평가지표	배점	지표산식	평가 방법	관련 부서	비고
1. 학생	1.신입생충원율	50	정원내 입학자수(명)/정원내 모집인원(명)×100	정량	입학과	기관평가인증
	2.재학생충원율	50	재학생 수(명)/ (학생정원(명)-학생모집정지인원(명) ×100	정량	교육학사과	
	3.중도탈락학생 비율	30	학부 제적학생수/학부재적생 수×100	정량	교육학사과	
	4.학부생비율	20	학부 재학생(명)/ (학부 재학생수(명) +일반대학원 재학생수(명))×100	정량	교육학사과	
소계		150				
2. 교직원	5.전임교원확보율	50	전임교원 수(명)/ 교원배정정원(재학생, 편제정원)(명)×100	정량	교무과	기관평가인증
	6.전임교원 1인 당 학생수	20	(학부+대학원 재학생 수)/전임교원 수	정량	교육학사과, 대학원, 교무과	
	7.직원 1인당 학 생수	30	(학부 정원내외+대학원)재학생수(명)/ 직원수(명)	정량	교육학사과, 대학원, 총무과	
소계		100				
3. 교육 여건	8.취업률	50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 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 직장가입제외대상자)}×100	정량	취업전략 센터	기관평가인증
	9.전임교원 강 의담당비율	20	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학점) /총 개설 강의학점(학점)×100	정량	교무과	
	10.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 율	20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총 개설 강의학점 × 100	정량	교무과	
	11.강의 규모의 적절성	20	0.4×(20명이하규모강의비율)+0.3 ×(21~50명규모강의비율)+0.2× (51~100명규모강의비율) +0.1×(101명 이상 강의비율)	정량	교육학사과	
	12.소규모강의	10	20명 이하 개설 강의(수)/ 총 개설 강의(수)×100	정량	교육학사과	
	13.대규모강의	10	101명 이상 개설 강의(수)/ 총 개설 강의(수)×100	정량	교육학사과	
	14.도서관 연간 자료 구입비	20	자료구입비/ (학부 정원 내외+대학원) 재학생수(명)	정량	재무과, 도서관	
소계		150				
4. 연구	15.전임교원 1인 당 등재(후보) 지 논문 실적	2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건수) /전임교원 수(명)	정량	연구진흥실	기관평가인증, 글로벌 대학 사업, RISE 사업

평가 영역	평가지표	배점	지표산식	평가 방법	관련 부서	비고
	16.전임교원 1인당 SCI급/SCOPUS 급 논문 실적	30	(SCI급+SCOPUS 학술지 게재)(건수) /전임교원 수(명)	정량	연구진흥실	기관평가인증, 국립대학 육성사업, 글로벌 대학사업, RISE사업
	17.전임교원 1 인당 저역서 실적	20	저역서수(건수)/전임교원 수(명)	정량	연구진흥실	기관평가인증
	18.전임교원 1 인당 교내· 교외 연구비	20	(교내·외연구비+교외대응자금)/ 전임교원수(명)	정량	연구진흥실 산학협력단	기관평가인증, 국립대학 육성사업, 글로벌 대학사업
	19.기술이전 건수	10	기술이전 계약건수	정량	산학협력단	RISE사업
	20.기술이전 수입료	20	기술이전 수입료	정량	산학협력단	
	21.국내특허 출원	10	특허청이 제공한 정보의 출원일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조사연도에 출원된 건 (정보공시 기준)	정량	산학협력단	기관평가인증, 국립대학 육성사업, 글로벌 대학사업, RISE사업
	22.국내특허 등록	10	특허청이 제공한 정보의 출원일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조사연도에 등록된 건 (정보공시 기준)	정량	산학협력단	
	23.국외특허 출원	10	개별 국가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 (정보공시 기준)	정량	산학협력단	
	24.국외특허 등록	10	개별 국가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 (정보공시 기준)	정량	산학협력단	
소계		160				
5. 재정	25.교육비 환원율	50	총 교육비/ 등록금수입총액×100	정량	재무과	기관평가인증
	26.장학금 지급률	50	교내외장학금/ 등록금수입총액×100	정량	학생과, 재무과	기관평가인증, RISE사업
	27.시간강사 강의 료 지급단가	10	(등급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 총 강의시간 수)의 총합/ 총 강의시간 수의 총합	정량	교무과, 재무과	기관평가인증
	28.등록금 비율	20	등록금/ 세입총액×100	정량	재무과	
	29.기부금 비율	20	기부금 총액/ 세입총액×100	정량	대학발전원	
소계		150				

평가 영역	평가지표	배점	지표산식	평가 방법	관련 부서	비고
6. 산학 협력	30.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수익	20	대학이 보유한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활용으로 2023.3.1.~2025.2.28. 기간에 입금된 운영 수익금의 총합. 산학협력단 회계, 교비회계, 국고회계, 기타회계 수익금의 총액	정량	재무과, 공동기기원 산학협력단	RISE사업
	31.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10	1.0×(채용형 전임교원 수)+0.25×(채용형 비전임교원 수)+0.2×(지정형 전임교원 수)	정량	산학협력단	
	32.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20	현장실습을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수/재학생 수×100	정량	산학협력단	
	33.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10	사업단 참여학과의 캡스톤디자인 이수 학생수/재학생 수×100	정량	산학협력단	
	34.교원창업 건수	10	교원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기업의 총 수	정량	산학협력단	
	35.교원창업 기업 수익	10	교원창업기업의 매출액(원) (해당연도의 1월~12월의 매출액 대상)	정량	산학협력단	
	36.창업 강의 수	10	창업 강의 수	정량	산학협력단	기관인증평가
	37.창업 재정 지원	10	창업동아리 지원 + 학생 창업 기업 지원 + 기타 학생 창업 지원 금액	정량	산학협력단	
	38.창업공간지원	10	창업동아리 공간 + 예비창업 전용공간 + 학생창업 기업공간	정량	산학협력단	
	39.창업지원인력	10	창업 전담교수 + 창업 전담 행정 인력	정량	산학협력단	
	40.교수1인당 산 업체 공동연구 과제 수	10	민간산업체, 연구소 등 민간, 외국에서 지원한 연구과제 수/전임교원 수	정량	산학협력단	
	41.교수1인당 산 업체 공동연구 비	10	민간산업체, 연구소 등 민간, 외국에서 지원한 연구비 총액/전임교원 수	정량	산학협력단	
소계		140				
7. 국제화	42.외국인 전임 교원 비율	30	외국인 전임교원 수/전체 전임교원 수 × 100	정량	교무과	학과평가
	43.외국인 학생 비율	10	외국인 학생 수/(학부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100	정량	국제협력실	
	44.교환학생 비율	10	해외 파견 교환학생 수+외국인 교환학생 수)/(학부 재학생 수+대학원재학생 수)×100	정량	국제협력실	기관평가인증
	45.해외 파견 학생수	20	타 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정량	국제협력실	

평가 영역	평가지표	배점	지표산식	평가 방법	관련 부서	비고
	46.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20	해당 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한 타 대학교 학생 수	정량	국제협력실	
	47.외국인 유학 생의 다양성	10	1-(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전체 유학생 수) ×100	정량	국제협력실	
소계		100				
8. 기타	48.교사시설 확 보율	30	(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 시설(㎡))/기준면적(㎡) ×100	정량	기획과	기관평가인증
	49.기숙사수용률	20	수용인원(명)/(학부 정원 내외+대학원(주간)) 재학생 수(명)×100	정량	학생생활관, 기획과	
소계		50				
총계		1000				

2. 자체평가의 절차

우리대학의 자체평가는 (1) 자체평가의 준비단계, (2) 자체평가 자료의 분석 단계, (3) 자체평가 연구보고단계, (4)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다음은 각 단계별로 자체평가의 절차를 설명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는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2. 1. 자체평가의 준비단계

우리대학은 자체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와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1)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자체평가 기획위원회는 대학 규정에 의거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본부의 처·국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도서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담 당 역 할
위원장	기획처장	이 희 두	총 괄
위 원	교무처장	조 영 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설정
위 원	학생처장	진 병 진	"
위 원	사무국장	이 동 찬	"
위 원	대학원장	이 유 한	"
위 원	교육혁신처장	김 혜 정	"
위 원	연구처장	유 선 진	"
위 원	국제처장	김 태 식	"
위 원	도서관장	정 연 길	"
위 원	인문대학장	김 선 희	"
위 원	사회과학대학장	이 주 형	"
위 원	경영대학장	전 형 준	"
위 원	자연과학대학장	김 세 영	"
위 원	공과대학장	송 태 권	"
위 원	예술대학장	김 유 섬	"
위 원	글로벌첨단과학기술대학장	김 석 호	"

자체평가기획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방향과 전략 수립
- ② 자체평가연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③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대학관리 중점과제의 추진을 총장에게 자문
- ④ 대학구성원들의 자체평가 참여 유도

(2) 자체평가 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본 대학의 보직 교수들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실무위원은 해당 부서의 팀장이 맡았다.

구분	소 속	직위(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기획처	처장	이희두	자체평가연구위원
부위원장	대학성과관리원	원장	정대운	
부위원장	기획처	부처장	이종근	
위원	교무처	부처장	백혜연	
위원	학생처	부처장	송상민	
위원	사무국 재무과	과장	황승학	
위원	교육혁신처	부처장	정해성	
위원	입학취업처	부처장	최정인	
위원	연구처	부처장	이인환	
위원	산학협력단	본부장	김태규	
위원	국제처	부처장	김영찬	
위원	대학원	부원장	김지미	
실무위원	교무과	팀장	백승필	자체평가실무위원
실무위원	학생과	팀장	김진선	
실무위원	재무과	팀장	최준희	
실무위원	교육학사과	팀장	김병준	
실무위원	입학과	팀장	정영미	
실무위원	연구진흥실	팀장	박성화	
실무위원	산학협력단	팀장	김소희	
실무위원	국제협력실	실장	윤경환	

자체평가 연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평가편람의 개발과 연구
- ② 자료 수합을 위한 서식 개발 및 자료 분석
- ③ 자체평가 실시 및 자체평가연구보고서의 집필
- ④ 자체평가결과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등

2. 2 자체평가의 실시단계

자체평가는 8개 평가영역별로 해당 영역의 연구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자체평가를 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첫째, 주요 대외평가 및 정책사업 평가지표 분석

둘째, 평가 지표별 관련부서 파악 및 업무 협조 요청
셋째, 자료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정리
넷째, 정보공시 항목 자료 수집 및 정리 <타 국립대학과의 비교표 작성>
다섯째, 평가위원은 각종 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2. 3 자체평가의 보고단계

자체평가 연구위원회는 자체 개발된 모형(안)을 자체평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자체평가모형에 따라 담당영역별로 보고서의 내용을 집필하여 종합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우리대학 대학정보공시센터의 대학알리미에 탑재하여 자체평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대학의 수요자들에게 공시하였다.

2. 4 자체평가의 활용단계

- 주요 외부평가와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지표를 분석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대학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지표 이해도 제고와 지표 향상 노력을 유도
- 대학의 자체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대학의 역량과 강점을 홍보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학생·학부모·기업·사회기관 등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자체평가 추진경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의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대학자체평가의 진행일정 및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진행일정 및 과정

일 자	진행일정 및 과정
2025. 10.	○ 2025년 국립창원대학교 자체평가 추진계획 수립 ○ 자체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팀 구성
2025. 10. ~ 12.	○ 자체평가 모형 의견수렴 ○ 자체평가 기본계획 및 모형 심의 - 자체평가 기획위원회 ○ 자체평가 모형 확정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보고
2026. 1.	○ 대학홈페이지 및 대학알리미 사이트 탑재 ○ 학내 전부서 배포

※ 참고자료

□ 타대학 비교자료 : 정보공시로 확보할 수 있는 평가지표 49개 지표

4. 개선사항

- 자체평가의 실시부터 분석, 결과 활용 및 환류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 평가 업무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산 기반 평가관리 시스템 개발 및 도입
-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체계적 개발 및 지속적 보완
- 구성원들의 외부기관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다양한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표 향상 활동 참여 유도



자체평가 결과

III-1. 평가결과 총괄

III-2. 영역별 평가결과

1. 학 생
2. 교 원
3. 교육여건
4. 연 구
5. 재 정
6. 산학협력
7. 국제화여건
8. 기 타

Ⅲ-1. 평가결과 총괄

□ 평가결과

(기준: 2024년)

영역	평가지표	지표배점	28개 국립대학 취득점수	19개 지역중심 취득점수
1. 학생	1. 신입생 충원율	50	20	20
	2. 재학생충원율	50	30	30
	3. 중도탈락학생비율	30	12	12
	4. 학부생비율	20	16	8
소계		150	78	70
2. 교원	5. 전임교원확보율	50	30	30
	6. 전임교원1인당 학생수	20	8	8
	7. 직원1인당 학생수	30	12	6
소계		100	50	44
3.교육여건	8. 취업률	50	20	10
	9.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20	8	8
	10.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20	8	8
	11. 강의 규모의 적절성	20	16	12
	12. 소규모강의 비율	10	8	6
	13. 대규모강의 비율	10	6	4
	14. 도서관 연간자료구입비	20	12	12
소계		150	78	60
4. 연구	15.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20	20	20
	16.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	30	18	18
	17.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20	12	8
	18. 전임교원 1인당 교내·교외 연구비	20	8	8
	19. 기술이전 건수	10	6	8
	20. 기술이전 수입료	20	16	16
	21. 국내특허 출원	10	6	8
	22. 국내특허 등록	10	8	8
	23. 국외특허 출원	10	6	8
	24. 국외특허 등록	10	6	6
소계		160	106	108



영역	평가지표	지표 배점	28개 국립대학 취득점수	19개 지역중심 취득점수
5. 재정	25. 교육비 환원율	50	40	40
	26. 장학금 지급률	50	50	30
	27.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	10	8	6
	28. 등록금 비율	20	16	16
	29. 기부금 비율	20	12	12
소계		150	126	104
6. 산학협력	30.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	20	16	16
	31.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10	6	6
	32.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20	20	16
	33.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10	10	10
	34. 교원창업 건수	10	6	6
	35. 교원창업 기업 수익	10	8	8
	36. 창업 강의 수	10	8	8
	37. 창업 재정 지원	10	6	6
	38. 창업공간지원	10	10	10
	39. 창업지원인력	10	8	10
	40.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 수	10	10	10
	41.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	10	10	8
소계		140	118	114
7. 국제화	42.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30	24	30
	43.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10	8	8
	44. 교환학생 비율	10	6	6
	45. 해외 파견 학생수	20	16	16
	46.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20	12	12
	47.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0	8	8
소계		100	74	80
8. 기타	48. 교사시설확보율	30	24	18
	49. 기숙사수용률	20	12	12
소계		50	36	30
2025 대학자체평가 점수 합계		1000	666	610

Ⅲ-2. 영역별 평가결과

1. 학생(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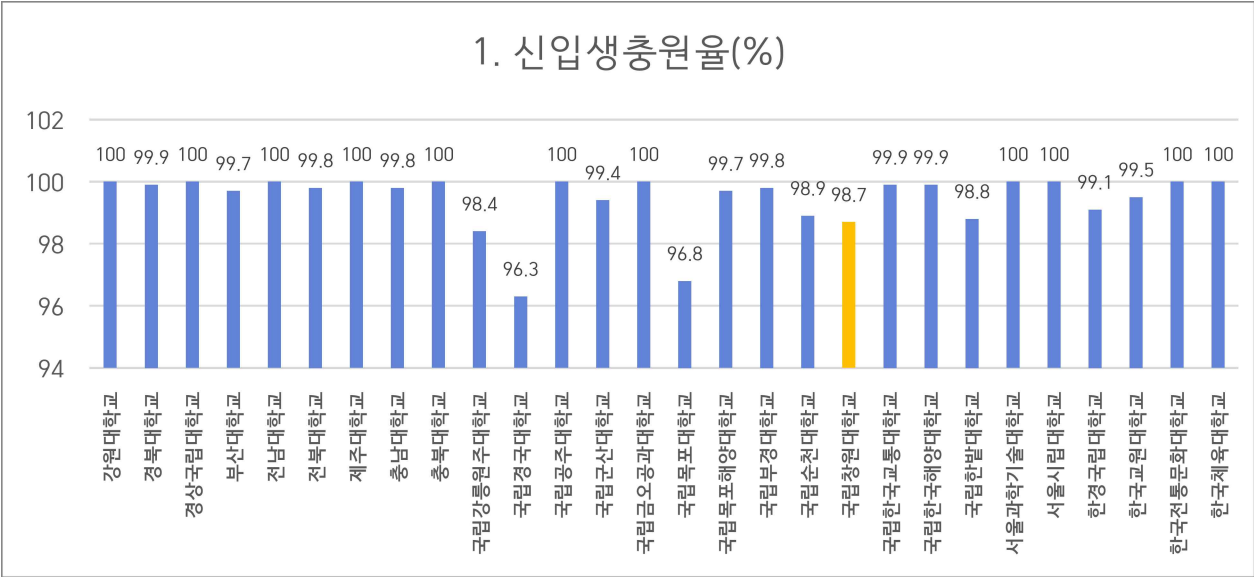
1.1 신입생 충원율(5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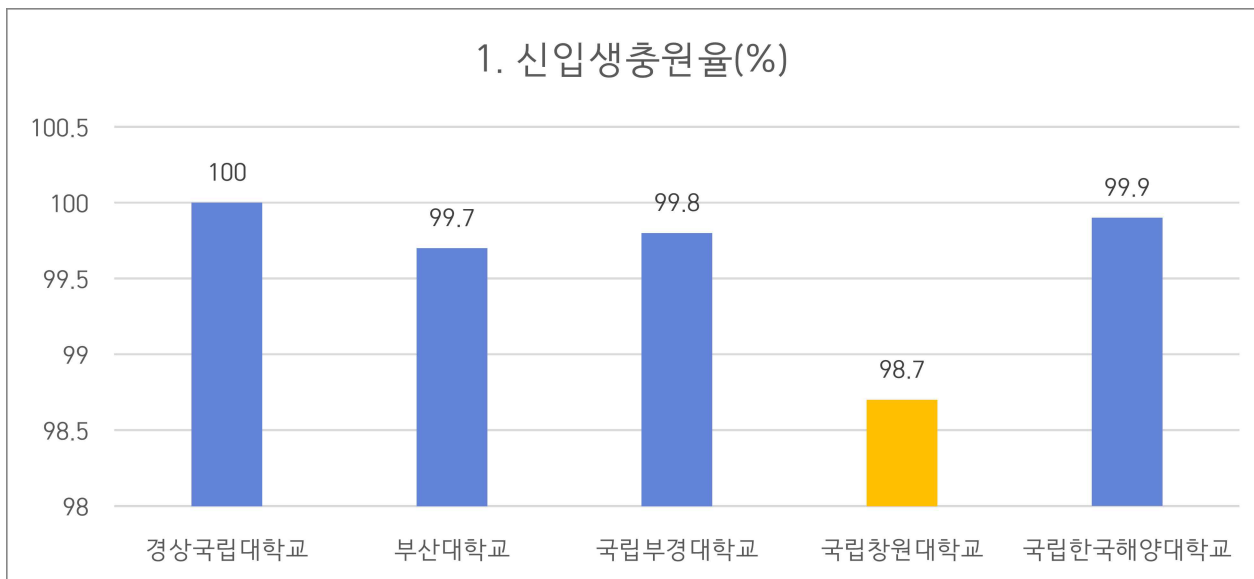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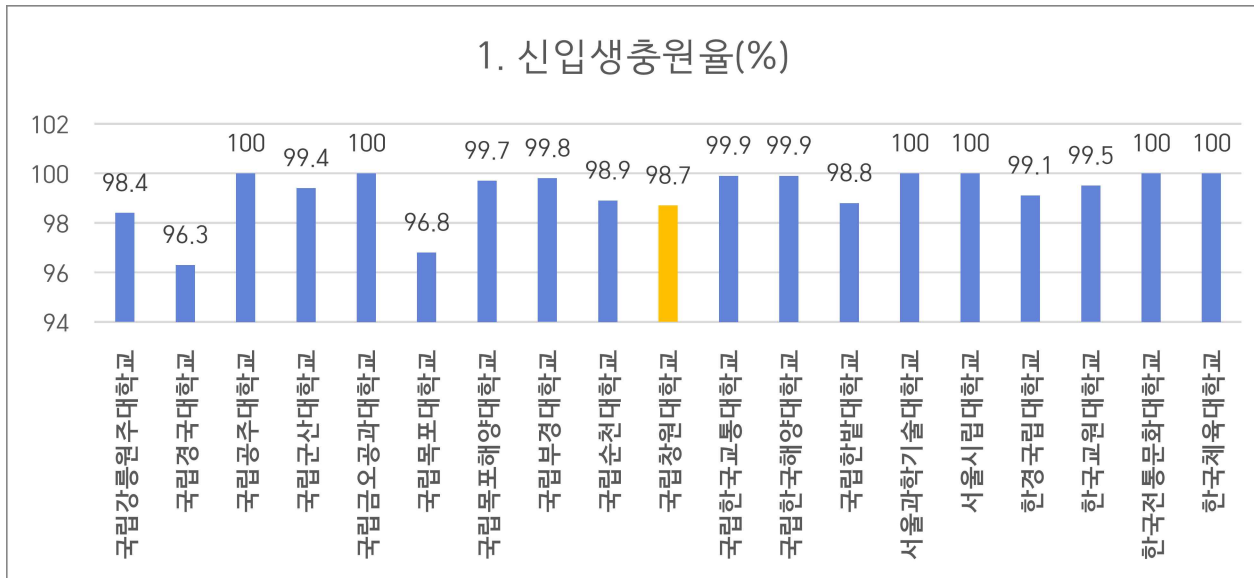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 분	입학 정원 (A)	모집인원			입학자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 D= (C/B) ×100
		계	정원내 (B)	정원외	계	정원내 (C)		정원외		
						남	여	남	여	
2023	1,754	1,994	1,764	230	1,873	941	792	77	63	98.2
2024	1,738	2,020	1,746	274	1,919	932	791	116	80	98.7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신입생충원률	50점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6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25위





□ 현황분석

- 우리 대학의 최근 2개년 신입생 충원율은 2023년 98.2%, 2024년 98.7%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며 98%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다만, 2024년 기준 전국 국립대학 28개교 중 25위, 지역 국립대학 19개교 중 16위로 상대적 경쟁력이 다소 낮은 수준이다.
-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광역권 대학 쏠림 현상에 따라 지역 대학 간 신입생 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홍보 전략 및 전형 운영의 체계화가 요구된다.
- 입학정보 제공 방식, 연구 및 취업 성과 홍보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개선방안

- 대표 전공 및 특성화 분야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성과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자들의 전공 선택 동기 및 진로 전망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입학 홍보 채널을 다변화하고, 진로연계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목표집단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지원자가 많은 경남 지역을 넘어 부산·울산권 등 주요 학령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자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 복수전공 및 전과 기회 확대, 기숙사 및 장학 혜택 등 입학 경쟁력 요소를 강화하고 가시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취업 및 지역산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취업의 질이 높은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재학생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입소문 홍보 효과를 유도해야 한다.
- 입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전형체계 개선을 통해 충원 리스크를 사전 진단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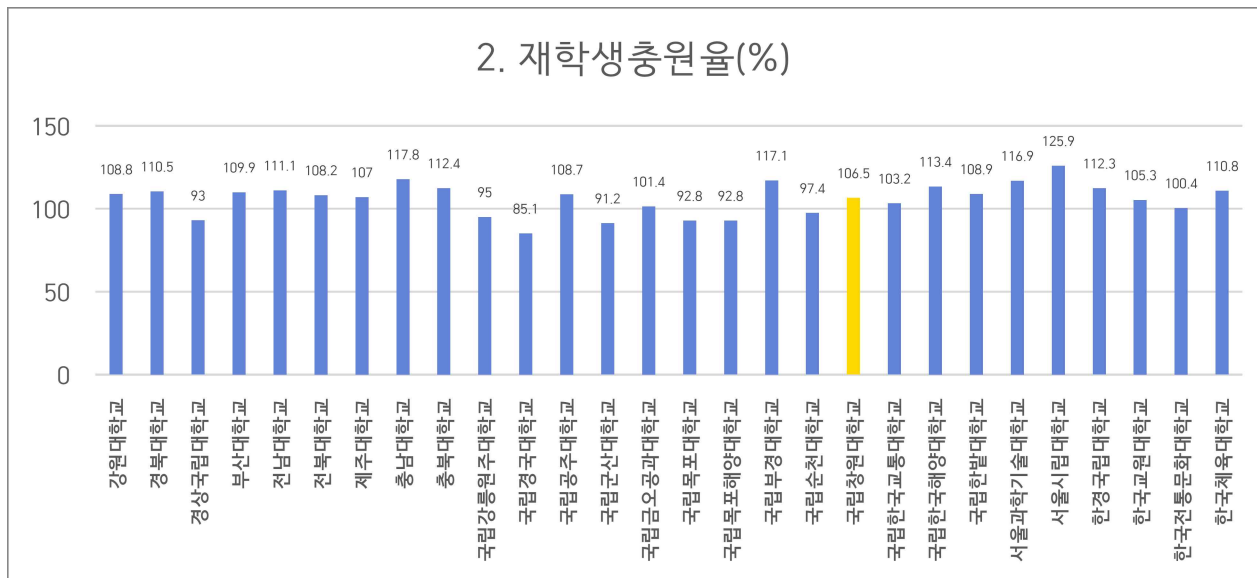
1.2 재학생 충원율(5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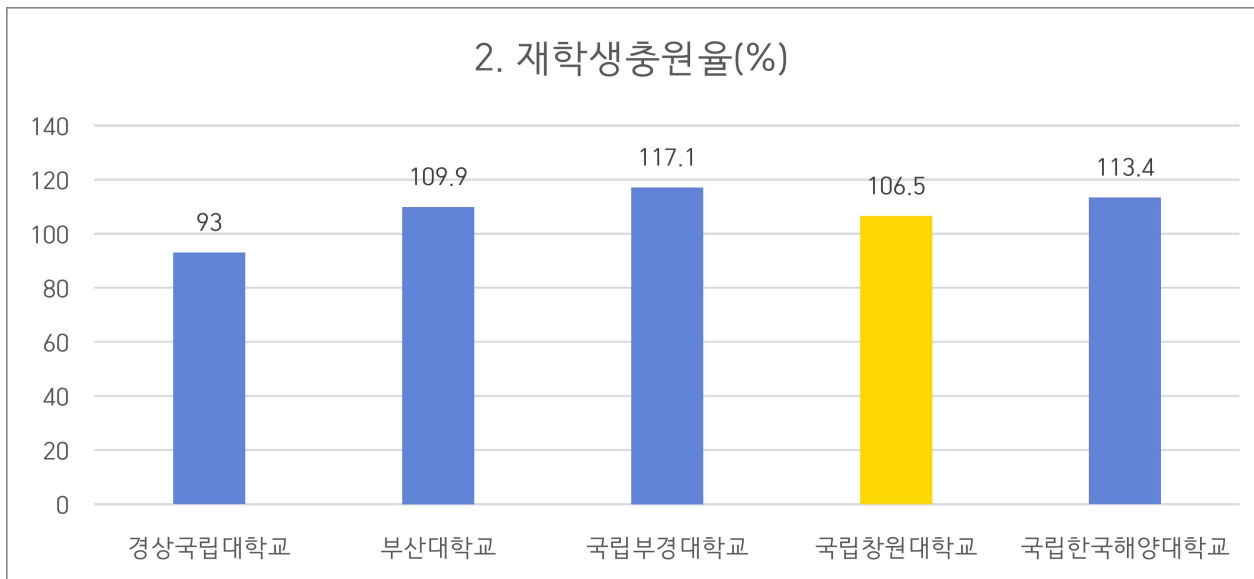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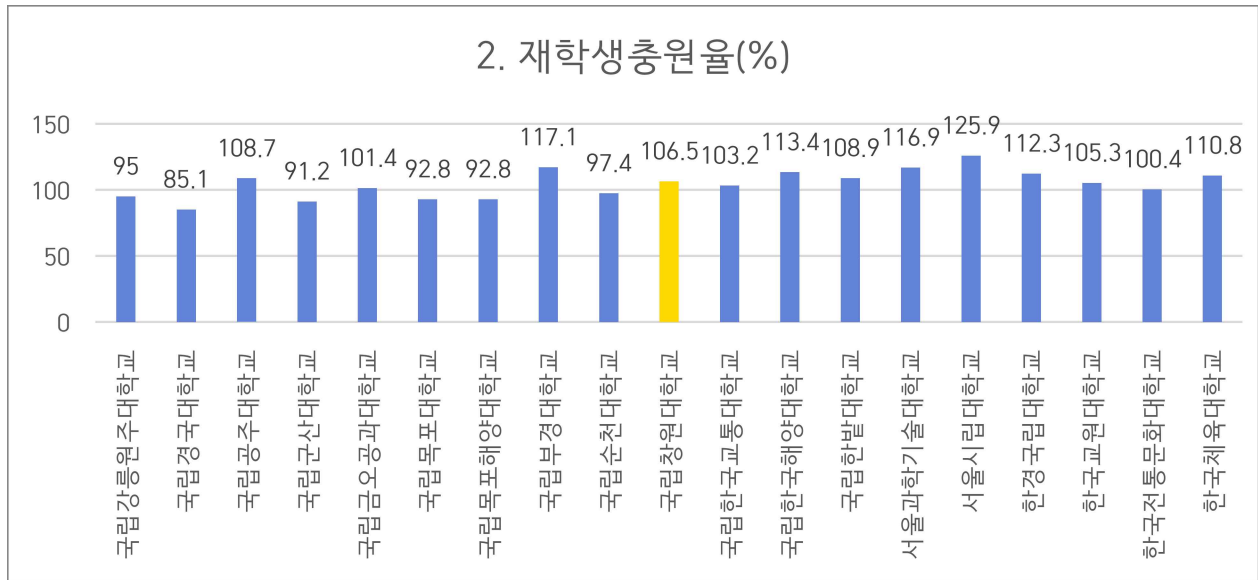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 분	계열별	학생정원(A)	학생 모집정지 인원(B)	재학생			재학생 충원율(%) $D=C/(A-B) \times 100$
				계(C)	정원내	정원외	
2023	인문사회계열	3,024	0	3,366	3,000	366	104.3
	자연과학계열	1,122	0	1,035	986	49	90.3
	공학계열	2,245	0	2,519	2,282	237	105.7
	예체능계열	640	0	561	556	5	82.7
	합계	7,037	0	7,481	6,824	657	106.3
2024	인문사회계열	3,006	0	3,339	2,952	387	111.1
	자연과학계열	1,112	0	1,011	968	43	90.9
	공학계열	2,253	0	2,473	2,240	233	109.8
	예체능계열	650	0	656	643	13	100.9
	합계	7,021	0	7,479	6,803	676	106.5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재학생 충원율	50점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9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7위







□ 현황분석

- 2023년도의 경우 정원 내 6,824명 그리고 정원외 657명으로 총 재학생이 7,481명이며, 학생 정원 7,037명을 고려하였을 때 재학생 충원율이 106.3%를 기록하였다.
- 2024년도의 경우 정원 내 6,803명 그리고 정원외 676명으로 총 재학생이 7,479명이며, 학생 정원 7,021명을 고려하였을 때 재학생 충원율이 106.5%를 기록하였다.
- 2023년도 106.3%에서 2024년도 106.5%로 0.2% 증가하였으며, 28개 국립대학 기준으로 현재 17위 정도로 다소 미흡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개선방안

- 국립창원대학교의 재학생 충원율은 2023년 106.3%, 2024년 106.5%로 안정적이지만, 중도탈락률이 5.8% 수준으로 다소 높아 충원율을 더 높이는 데 제한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중도탈락을 감소다. 학업부진·전공부적합·진로 미정 학생을 조기에 파악해 상담과 학습지원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만들고, 전과 절차를 유연하게 운영해 학생 맞춤 전공 선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국립창원대학교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이점을 살릴 필요도 있다. 창원산단 기업과 연계한 실습·프로젝트·인턴십을 강화하면 학업 동기와 취업 가능성이 높아져 학생 유지 효과가 커진다. 동시에 대학원의 연구 및 교육 경쟁력을 높여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을 유도하면 구조적으로 충원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학생 경험을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취업지원 강화, 비교과 프로그램 확충, 기숙사·학사행정 서비스 개선 등은 학생 만족도를 높여 이탈을 줄이는 핵심 요소다. 마지막으로 지역 고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전략학과 집중 육성 등으로 대학 브랜드를 강화하면 우수 신입생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요약하면, 중도탈락 관리 강화, 산학 연계 교육 확대, 학생 경험 개선, 대학원 경쟁력 강화, 입시 경쟁력 제고가 창원대학교의 재학생 충원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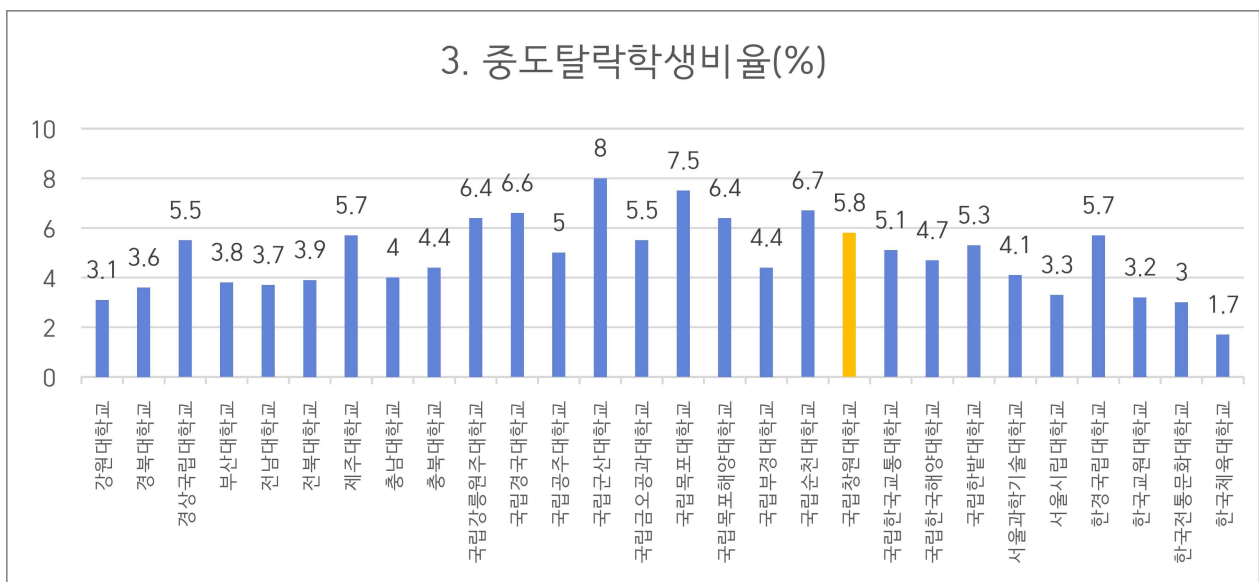
1.3 중도탈락학생비율(30점)(역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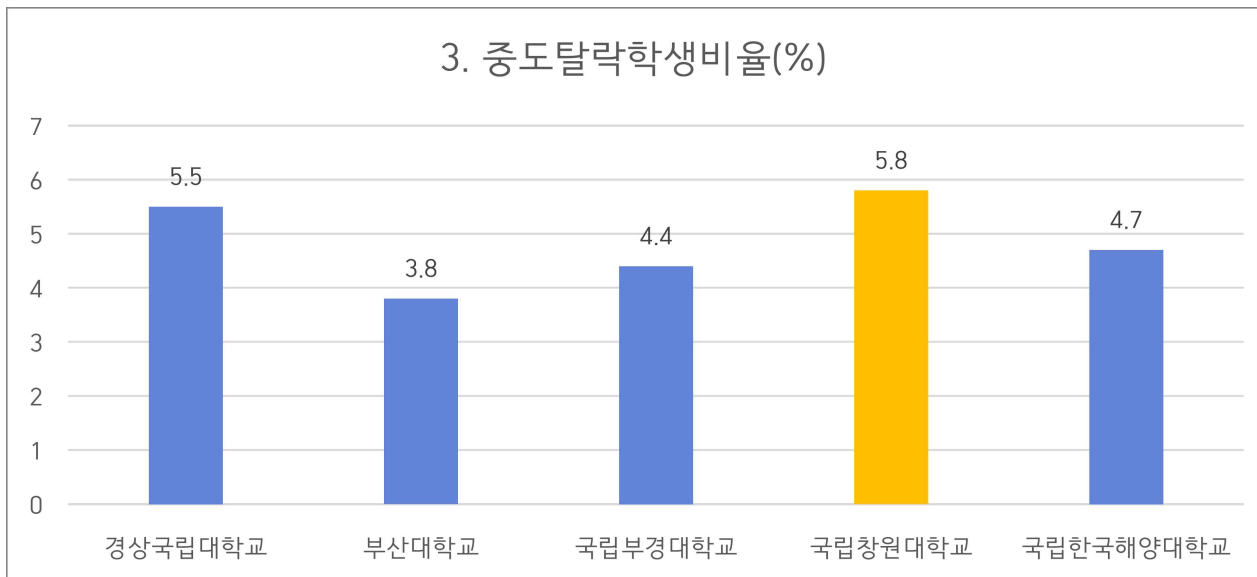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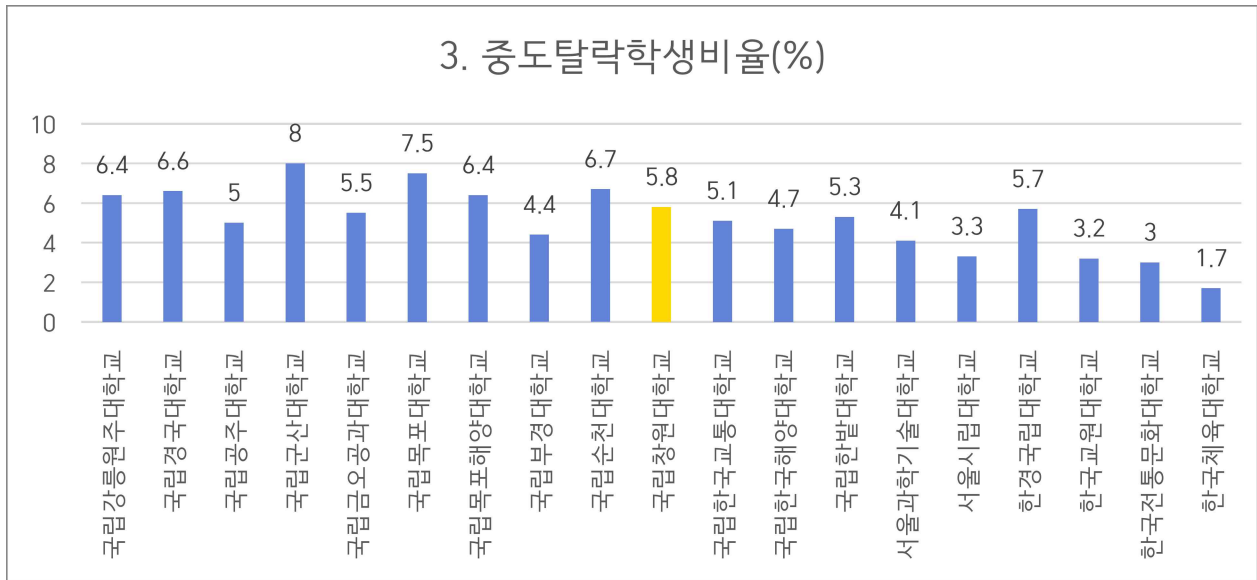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 분	재적학생 (A)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중도탈락률(%) C=(B/A)×100
		계(B)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 경고	학생 활동	유급 제적	수업연한 초과	기타	
2023	10,423	589	49	135	401	0	0	0	0	4	5.7
2024	10,279	593	11	157	390	0	0	0	0	35	5.8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중도탈락학생비율	30점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3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22위





□ 현황분석

- 국립창원대학교의 최근 중도탈락률은 2023년 5.7%, 2024년 5.8%로, 지역중심국립대 평균(약 6.0~6.2%)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중도탈락률이 4~5% 수준을 유지하는 공주대·부경대·한국해양대 등 대학들과 비교하면 약 1~1.5%p 높아, 학생 유지율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 여지가 존재한다.
- 특히 국립창원대학교의 탈락 사유를 분석하면 자퇴가 전체 탈락자의 약 66~68%를 차지하고, 미복학도 23~26%에 달해, 학업 실패보다는 전공 적응 부족, 진로 혼란, 생활·심리적 어려움, 학사 정보 전달의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 개선방안

- 현황 분석을 고려할 때 국립창원대학교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자퇴와 미복학을 줄여 중도탈락률을 현재의 5.8% 수준에서 4%대 중반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공 적응과 진로지도를 강화해 학생의(특히 1~2학년) 전공 탐색 기회를 넓히고, 전과 절차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전공 부적합으로 인한 이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미복학으로 인한 탈락률이 동일 규모 대학보다 높은 만큼, 휴·복학 일정 안내를 자동화하고 복학 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사 과정의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학생 경험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실습·인턴십을 늘리면 학생의 소속감과 학업 지속 의지가 높아진다. 진로 상담과 심리 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면 자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더불어 출석, LMS 접속, 학업 활동 등을 기반으로 위험학생을 조기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자퇴·휴학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종합하면, 국립창원대학교의 중도탈락률은 평균 대비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공주대·부경대·한국해양대 등 대학과 비교해 여전히 개선해야 할 영역이 명확하다. 전공·진로 지원 강화, 휴·복학 관리 체계 개선, 학생 경험 향상, 경제적 지원 확대, 위험학생 조기관리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경우 중도탈락률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재학생 충원율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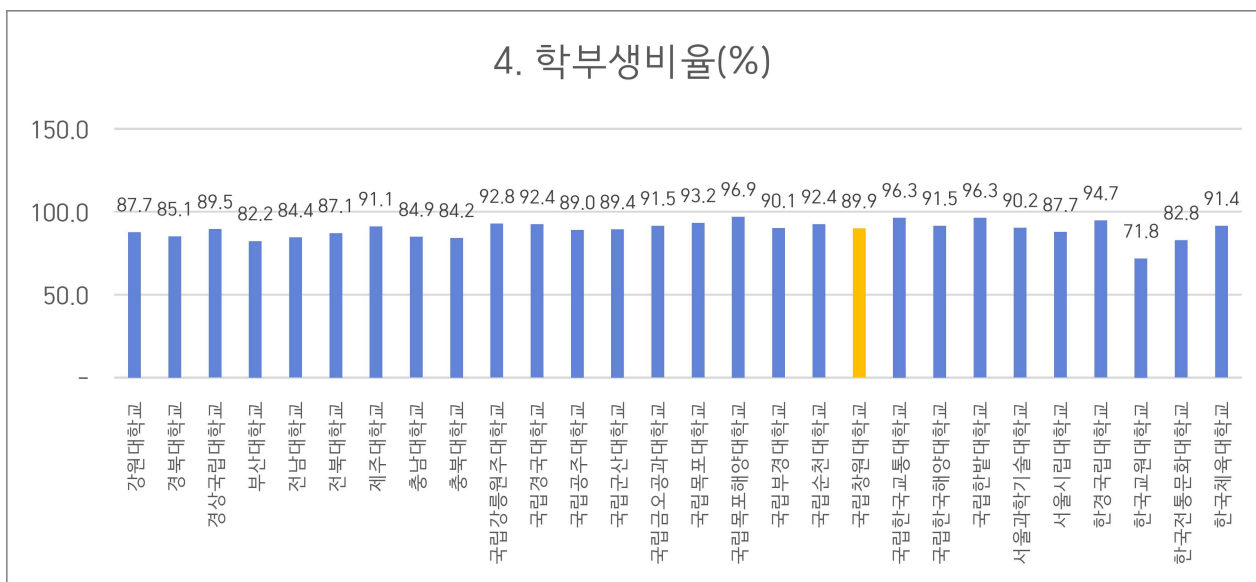
1.4 학부생비율(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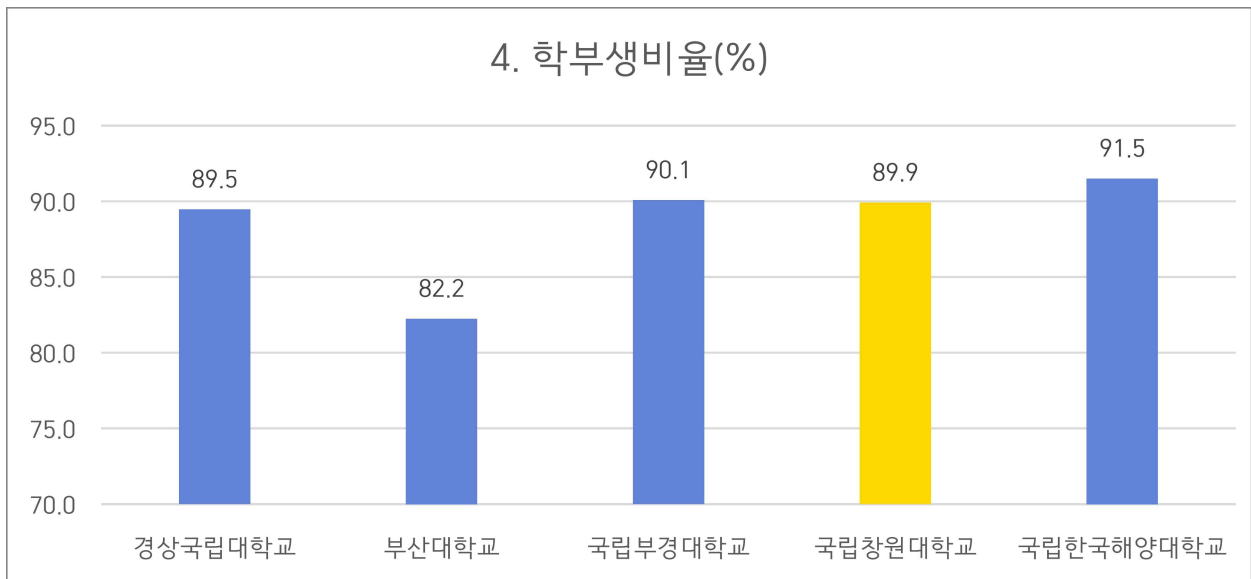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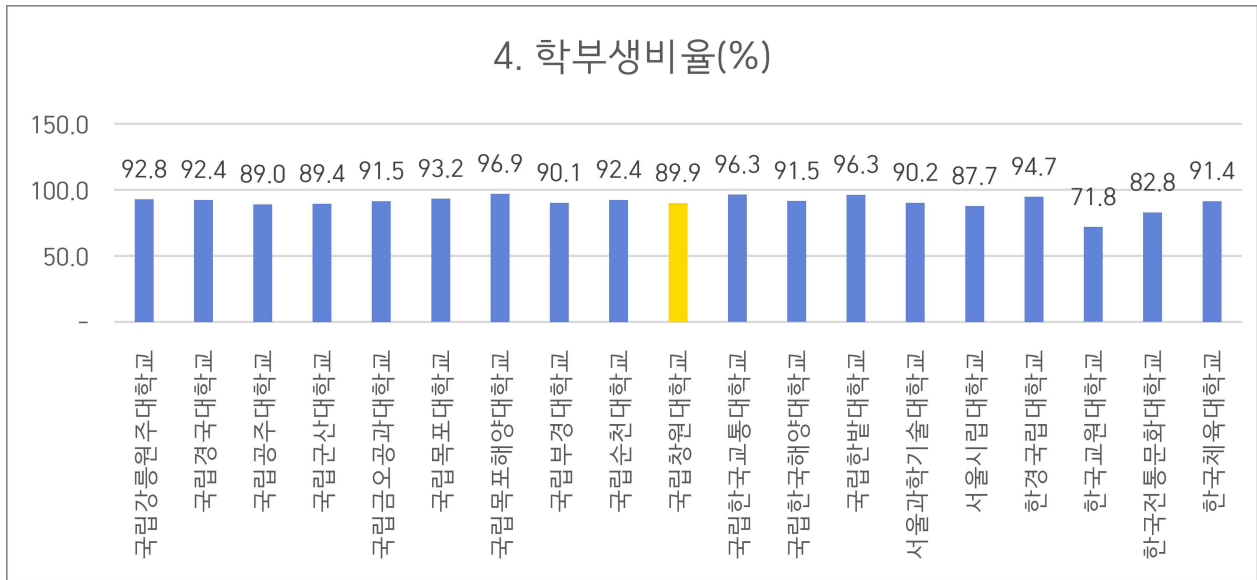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 분	학부 재학생(A)	일반대학원 재학생 수(B)	학부생 비율(%) $C=A/(A+B)$
2023	7,481	730	91.1
2024	7,479	839	89.9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학부생비율	20점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4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5위





□ 현황분석

- 국립창원대학교의 학부생 비율은 2023년 91.1%, 2024년 89.9%로 최근 2년간 약 90%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중심국립대 대부분이 85~95% 범위에서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 이상 수준이며, 부경대(90.1%), 공주대(89.0%), 금오공대(91.5%) 등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 특히 교육 중심성을 중시하는 지역중심국립대 평가에서는 학부생 비율이 높은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창원대학교는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 더불어 대학원 재학생 수가 2023년 730명에서 2024년 839명으로 증가했음에도 전체 비율은 약 10%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학이 여전히 학부 중심의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교육 중심 국립대학교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가는 데 유리한 지표라 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이러한 강점을 유지하면서 학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부 정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입생 모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고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부별 특성화 전략을 강화하면 신입생 충원율을 높여 학부생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학부생의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해 자퇴·미복학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공 부적응 학생을 위한 전과 지원과 학업 상담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학부생의 이탈을 줄여 학부 비중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학부 교육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전공 탐색 프로그램과 비교과 활동을 확대하고, 창원국가산단과 연계한 현장 실습 및 직무 기반 교육을 강화하면 학생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부 과정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학부 선호도를 높여 학부생 비율 유지로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인턴십 및 캡스톤디자인 과정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국립창원대학교가 현장중심 실용적 교육을 목표로 하는 대학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수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생 중심의 교육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며, 대학의 브랜드를 “지역 산업 연계 교육 중심 허브”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학부 중심 구조의 장점을 더욱 강화하고 대학 전체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교원(100점)

2.5 전임교원확보율(50점)

☐ 실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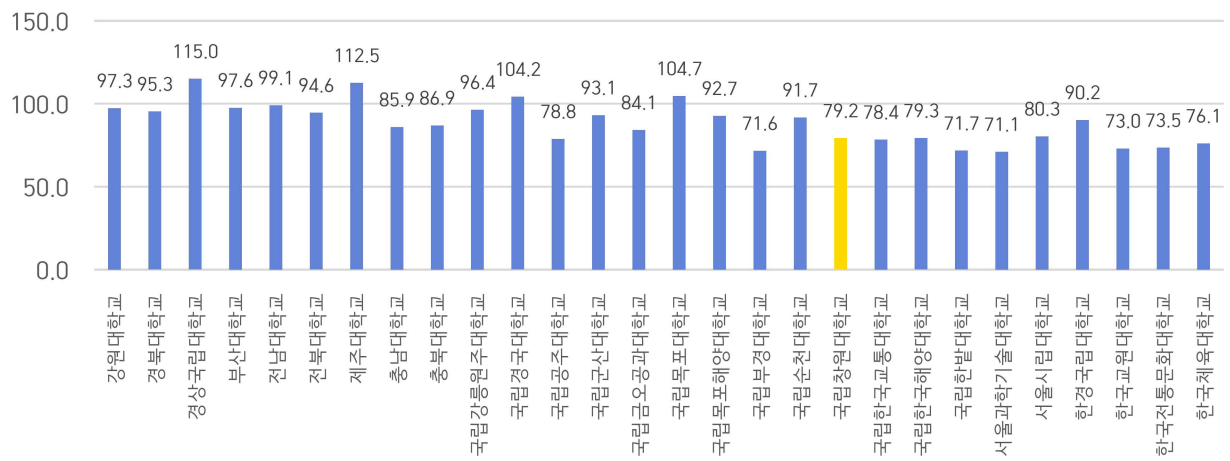
구 분	계 열	학생현황						교원 법정정원 (B)		전임 교원 (C)	교원확보율 (D=C/B)	
		학부		대학원		계 (A)						
		편제 정원	재학생	편제 정원	재학생	편제 정원	재학생	편제 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편제 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2023	인문사회계열	3,024	3,366	1,259	735	4,283	4,101	172	165	134	77.91	81.21
	자연과학계열	1,128	1,035	416	278	1,544	1,313	78	66	58	74.36	87.88
	공학계열	2,245	2,503	919	685	3,164	3,188	159	160	128	80.5	80
	예·체능계열	640	561	208	147	848	708	43	36	25	58.14	69.44
	합계	7,037	7,465	2,802	1,845	9,839	9,310	452	427	345	76.33	80.8
2024	인문사회계열	3,006	3,339	1,271	747	4,277	4,086	172	164	136	79.07	82.93
	자연과학계열	1,112	1,011	371	288	1,483	1,299	75	65	55	73.33	84.62
	공학계열	2,253	2,445	951	762	3,204	3,207	161	161	126	78.26	78.26
	예·체능계열	650	656	219	193	869	849	44	43	26	59.09	60.47
	합계	7,021	7,451	2,812	1,990	9,833	9,441	452	433	343	75.88	79.21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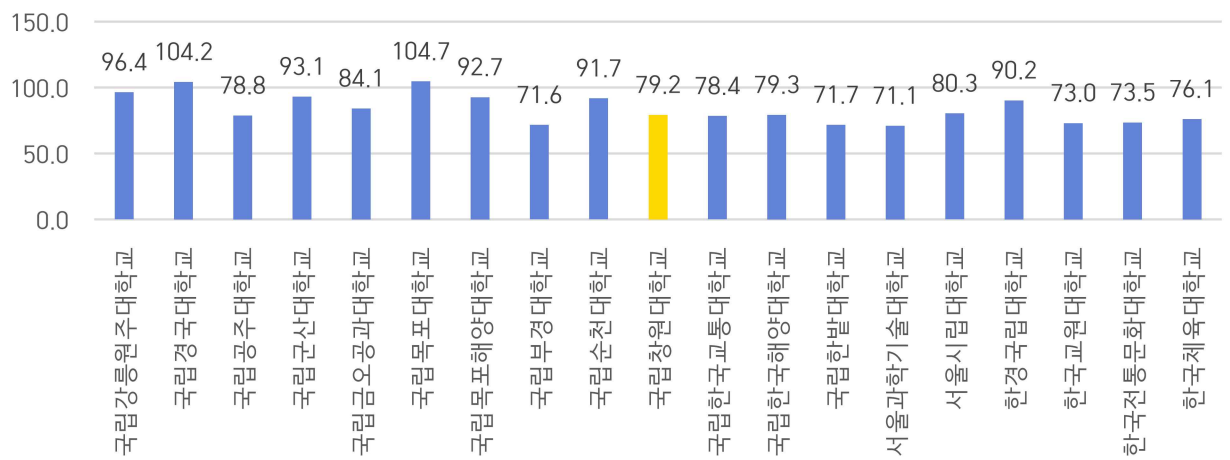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전임교원확보율	50점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1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2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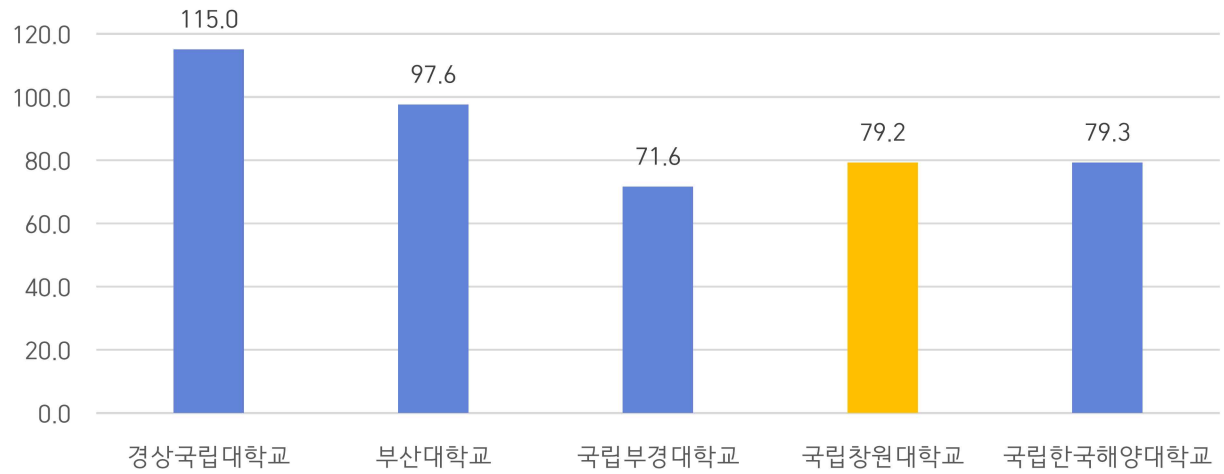
5. 전임교원확보율_재학생 기준(%)



5. 전임교원확보율_재학생 기준(%)



5. 전임교원확보율_재학생 기준(%)





□ 현황분석

-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확보율은 2023년 편제정원 기준 76.33%, 재학생 기준 80.8%에서 2024년 각각 75.88%, 79.21%로 소폭 하락하여 70%대 후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4년 기준 19개 지역중심대학 중 11위, 28개 국립대학 중 20위로, 법정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 수준은 중하위권에 해당한다.
- 계열별로 보면 인문사회와 예·체능계열은 편제정원 기준 확보율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자연과학·공학계열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확보율이 다소 하락하였다. 특히 예·체능계열은 편제정원 기준 확보율이 60% 전후에 그쳐 계열 간 교원 배치의 불균형이 확인되며, 일부 계열에서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 개선방안

- 우선, 전임교원확보율이 70%대 후반에 머무르면서 국립대 전체 순위가 20위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전임교원 정원 확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타 국립대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와 연구 수요를 반영한 목표 확보율(예: 80% 중반 이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증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계열 간 교원 확보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구조적인 교원 수급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 자연과학·공학계열의 확보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반면 인문사회 및 일부 계열은 상대적으로 개선된 양상이 나타나는 만큼, 신설·축소·통폐합 학과의 중장기 계획과 연동하여 계열별 교원 수요를 재산정하고, 신규 임용·전보·겸임·초빙 교원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별 교원 배치의 적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전임교원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사업, 정부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플랫폼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 성과를 전임교원 확충과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연구 실적, 산학협력 활동 등 다른 지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재정 확보와 교원 확충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중장기 재정·인력 운영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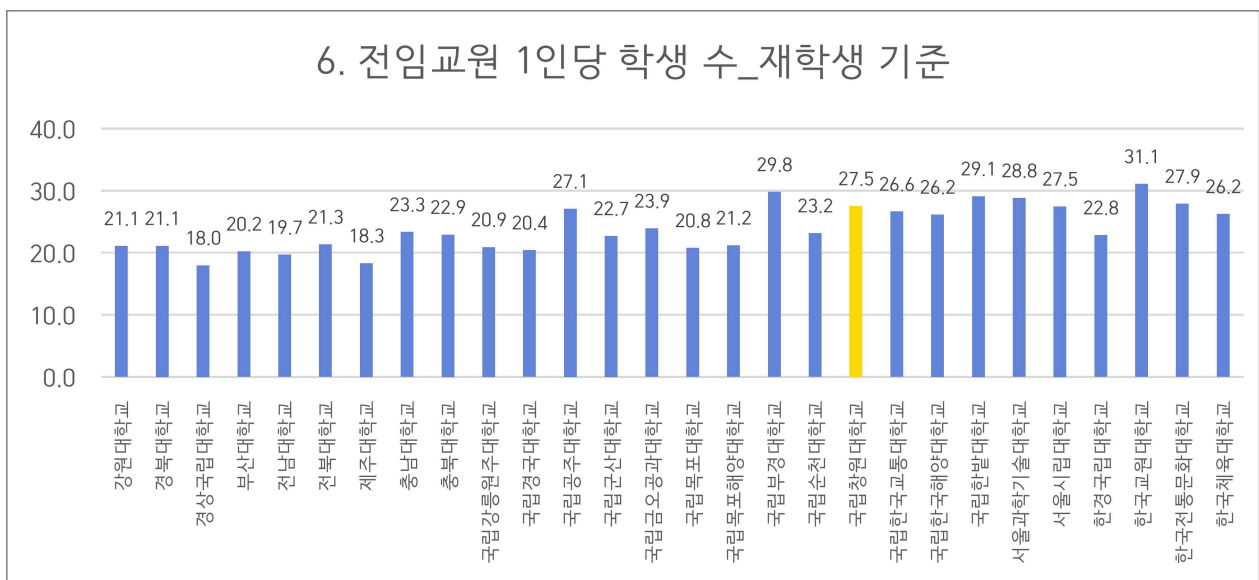
2.6 전임교원1인당 학생 수(20점)(역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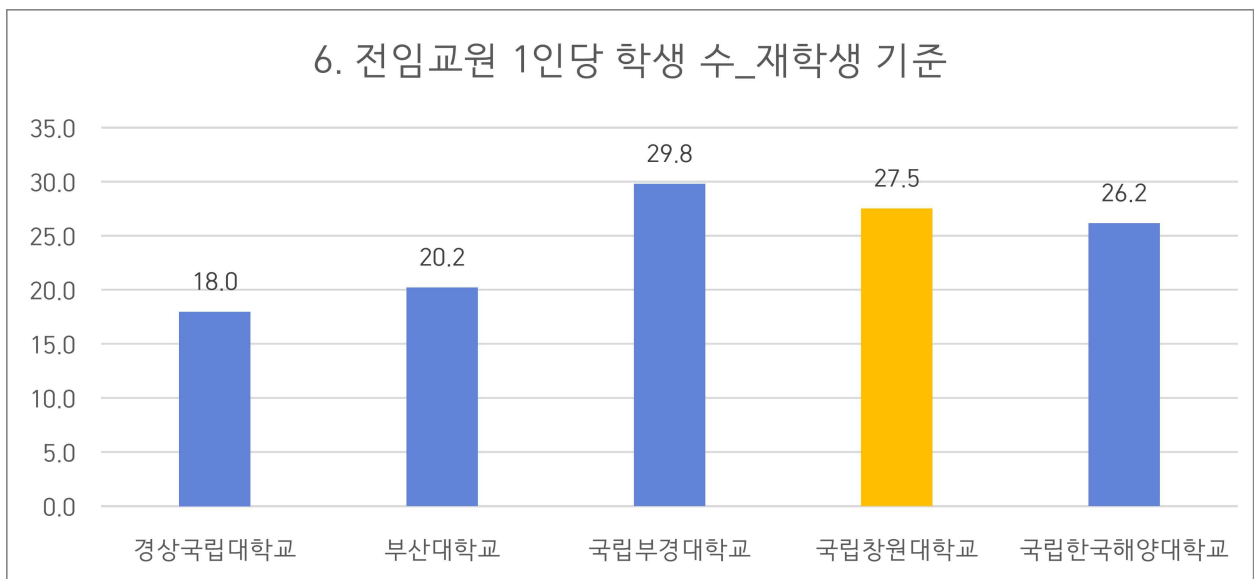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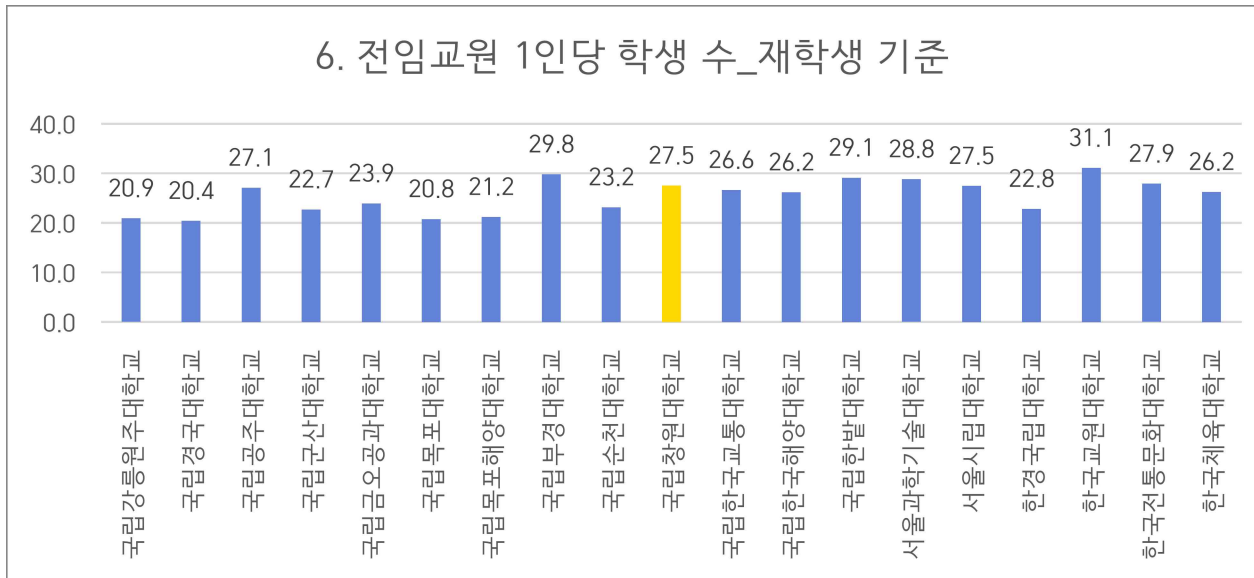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 분	계열	학생현황						전임교원 수(B)	전임교원	1인당
		학부		대학원		계(A)			학생 수(명)	C=A/B
		학생 정원	재학생	학생 정원	재학생	학생 정원	재학생		학생정원	재학생
2023	인문사회계열	3,024	3,366	1,259	735	4,283	4,101	134	31.96	30.6
	자연과학계열	1,128	1,035	416	278	1,544	1,313	58	26.62	22.64
	공학계열	2,245	2,503	919	685	3,164	3,188	128	24.72	24.91
	예·체능계열	640	561	208	147	848	708	25	33.92	28.32
	합계	7,037	7,465	2,802	1,845	9,839	9,310	345	28.52	26.99
2024	인문사회계열	3,006	3,339	1,271	747	4,277	4,086	136	31.45	30.04
	자연과학계열	1,112	1,011	371	288	1,483	1,299	55	26.96	23.62
	공학계열	2,253	2,445	951	762	3,204	3,207	126	25.43	25.45
	예·체능계열	650	656	219	193	869	849	26	33.42	32.65
	합계	7,021	7,451	2,812	1,990	9,833	9,441	343	28.67	27.52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전임교원1인당 학생 수	20점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4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23위





□ 현황분석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3년 학생정원 기준 28.52명, 재학생 기준 26.99명에서 2024년 각각 28.67명, 27.52명으로 소폭 증가하여,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 부담이 전년에 비해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문사회·예체능계열에서 30명 이상의 수치를 보이며 계열 간 격차가 확인된다.
- 2024년 기준 대학 간 비교에서는 19개 지역중심대학 중 14위, 28개 국립대학 중 23위로,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동종 국립대 평균 대비 다소 높은 편에 속한다. 국립대간 비교에서 살펴보면, 우리 대학(27.52명)이 부산대와 경상국립대보다 높고, 부경대보다 낮은 중하위권 위치로 나타난다.

□ 개선방안

- 국립대 전체와 비교했을 때 상위권 수준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최근 1년 사이 지표가 소폭 악화된 만큼 향후 학생 수 감소 추세와 연계한 전임교원 정원 및 충원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전체 재학생 수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전임교원 감축보다는 교육과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해 적정 수준의 교원 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인력 운영 원칙을 재정비해야 한다.
- 계열별 교원 부담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 수요 기반의 전임교원 배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은 30명 이상으로 평균 대비 높은 편이며, 공학·자연과학 계열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계열 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임교원 신규 임용 시 계열 간 수요 기반 배분, 분반 운영 기준 정비 등 세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단순한 수치 관리가 아니라 교육의 질과 연계된 지표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험·실습 교과의 경우 안전과 개별 지도가 필수적인 만큼 적정 수강 인원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실험실습 조교 확대, 강의실 시설 개선, 분반 운영 예산 지원 등을 체계화해야 한다. 이는 공학·자연과학계열의 교육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비교 대학 분석을 기반으로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지역중심대학 14위, 국립대 23위로 중하위권에 해당하므로, 중기적으로는 국립대 평균 수준(약 25명 내외)에 근접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교원 수급과 학생 정원 조정 전략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 관리는 대학기관평가인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어 대학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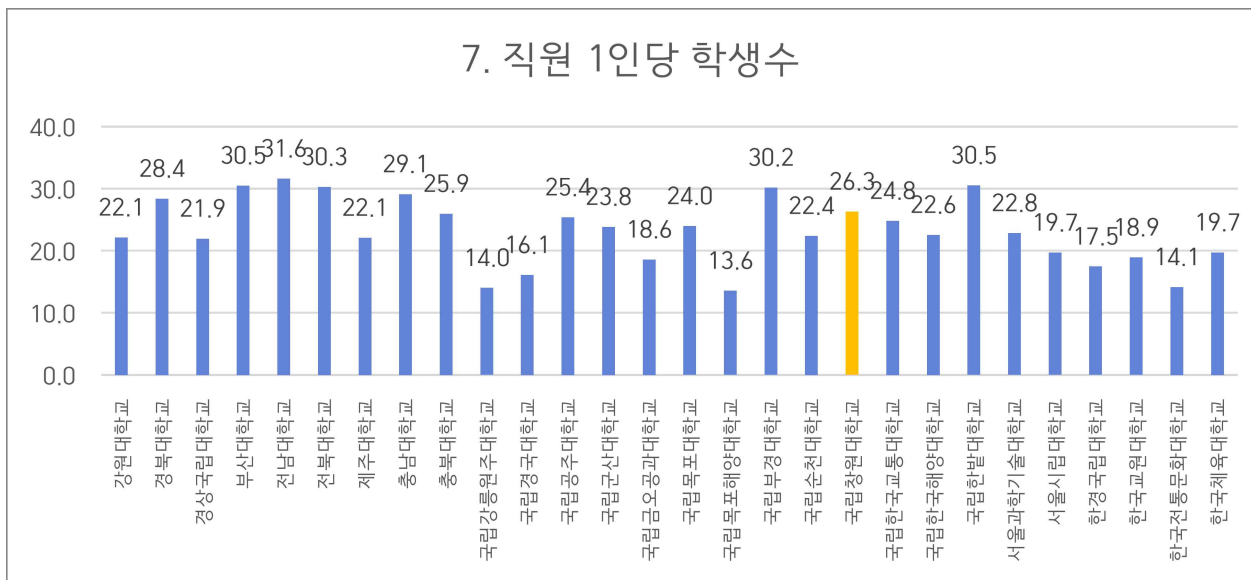
2.7 직원1인당 학생 수(30점)(역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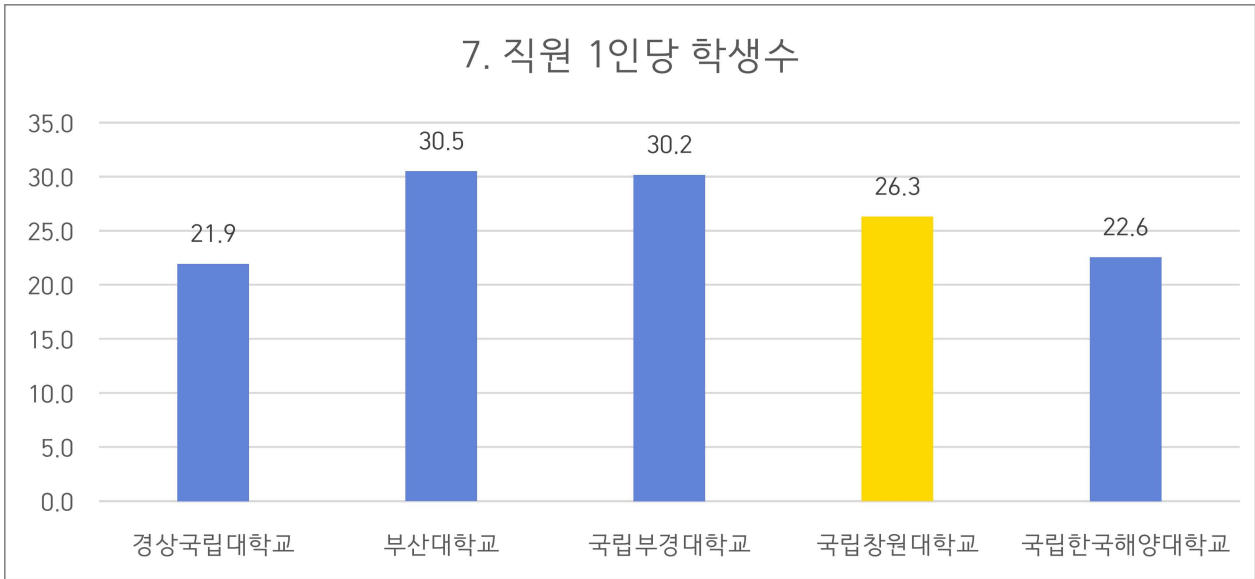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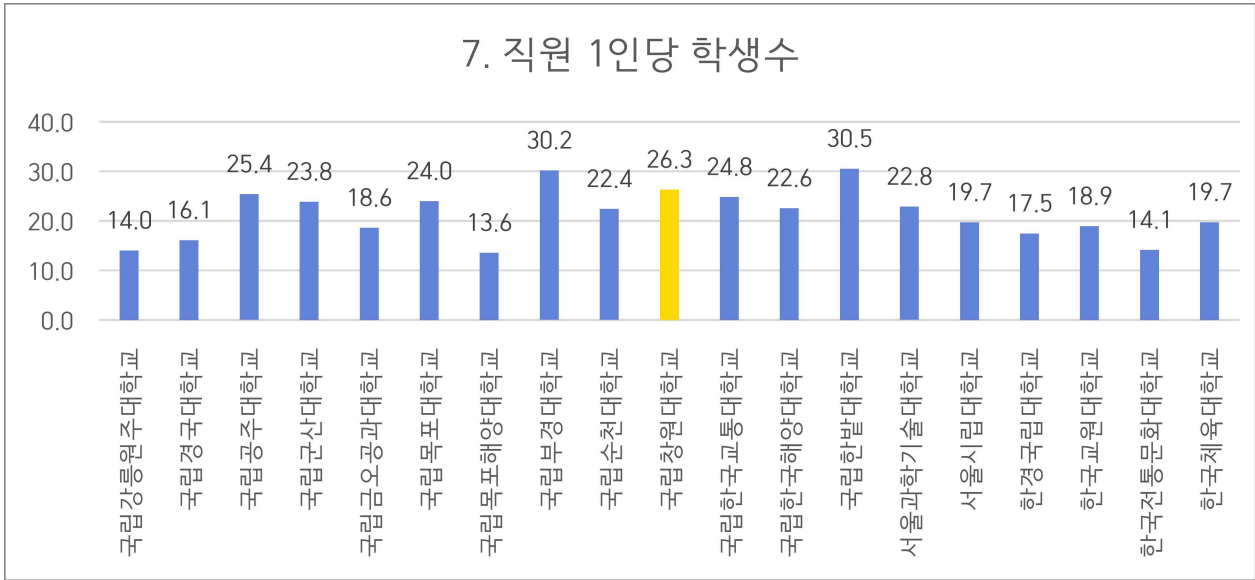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 분	재학생 수 (A)	직원 수(B)	직원 1인당 학생 수 C=A/B
2023	9,310	355	26.225
2024	9,441	359	26.298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직원1인당 학생 수	30점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7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21위







□ 현황분석

- 2024년 기준 직원 1인당 학생 수는 19개 지역중심국립대학 중 17위, 28개 국립대학 중 21위로, 상대적 순위가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 직원 1인당 학생 수가 높다는 것은 행정 인력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많음을 의미하며, 이는 학사·학생지원·행정서비스 전반에서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특히 학령인구 감소, 행정업무의 복잡화, 학생 요구의 다양화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지표로 판단된다.

□ 개선방안

- 직원 1인당 학생 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신규 인력 확충보다는 업무 효율화와 행정 프로세스 개선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정형적 업무에 대해서는 전산 시스템 활용을 확대하고, 부서 간 유사·중복 업무를 점검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구조개편, 학사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인력 배치를 합리화하고, 학생 수 변화 추이에 따른 탄력적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또한 학생지원·학사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단순 인력 확대가 아닌 서비스 품질 중심의 행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직원 1인당 학생 수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효율성과 학생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교육여건(15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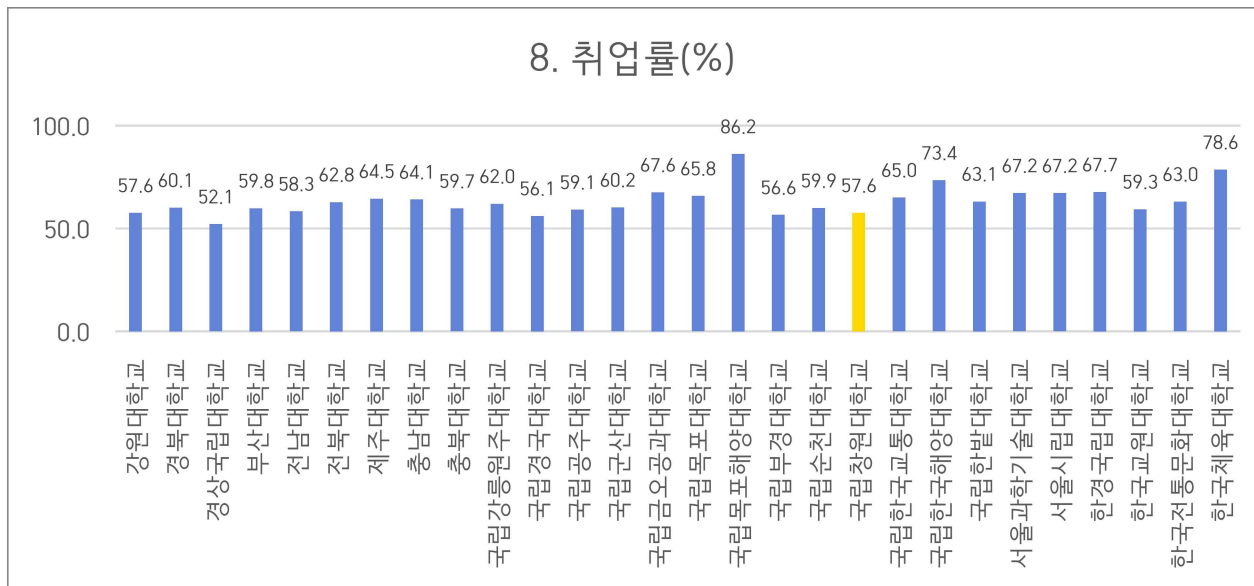
3.8 취업률(5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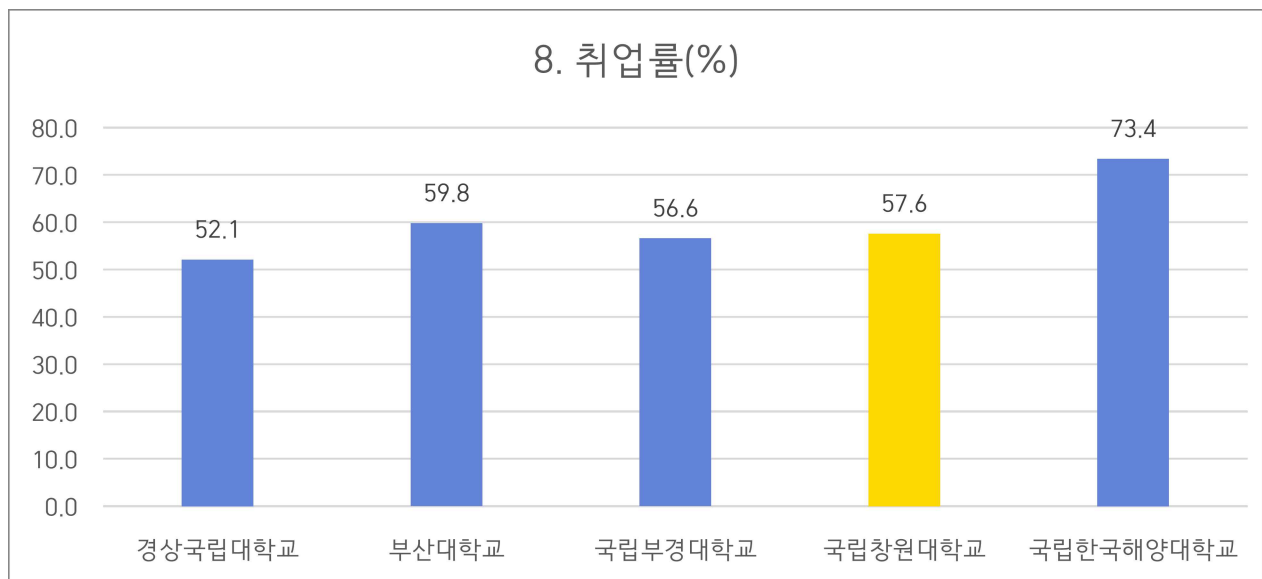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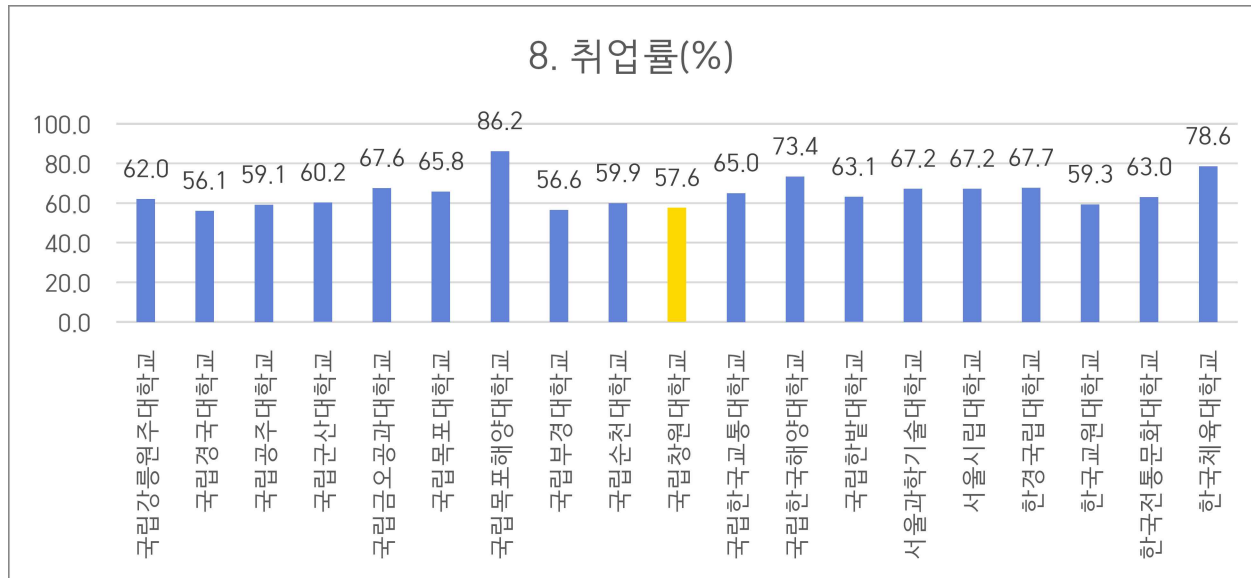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분	졸업자(A)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B)		해외 취업자(C)		1인(창) 사업자(D)		프리랜서(E)		진학자(F)		입대자(G)	취업 불가능자(H)		외국인 유학생(I)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자(J)	취업률(%) $I = [B+C+D+E / \{A - (F+G+H+I+J)\}] \times 10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23	887	933	455	452	1	1	9	12	25	53	67	43	1	0	0	5	14	14	60.1
2024	853	866	452	359	3	1	8	14	27	38	66	59	7	0	0	3	14	4	57.6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취업률	50점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7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24위





□ 현황분석

- 2024년 취업률은 57.6%로 전년(60.1%) 대비 2.5%p 감소하여 다소 하락세를 보인다.
- 최근 2개년 데이터를 비교할 때, 여학생 취업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전공 분야 취업연계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반 취업자 외에 프리랜서, 창업, 해외 취업 등 비정규 고용 형태 비중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취업률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 지역 산업 기반이 제조업 중심으로 특정되어 있어 비이공계 계열에 대한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전공 특화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된다.
- 2024년 기준 국립대학 28개교 중 24위, 지역중심대학 19개교 중 17위로, 대학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취업률 지표 자체 개선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단계이다.
- 다만 취업자 중 약 절반이 대기업 취업자로 구성되는 등 취업의 질이 매우 높은 수준임. 이는 지역 산업체뿐 아니라 전국 단위·대기업 취업 경쟁에서도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개선방안

- 취업률이 낮은 전공 중심으로 전공-직무 매칭 기반 취업로드맵을 설계하고, 현장실습 및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계열별 취업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 대기업 취업 강점을 홍보하여 우수 학생 유치 및 진로동기 제고에 적극 활용해야 하며, 현장실습 및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계열별 취업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 제조·기계·방산 분야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려하여 전략산업 특화 트랙을 학과와 연계해 운영하고, 채용을 전제로 한 기업 교육과 공동교과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 비이공계 및 취약계열 중심의 현장실습 및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계열별 취업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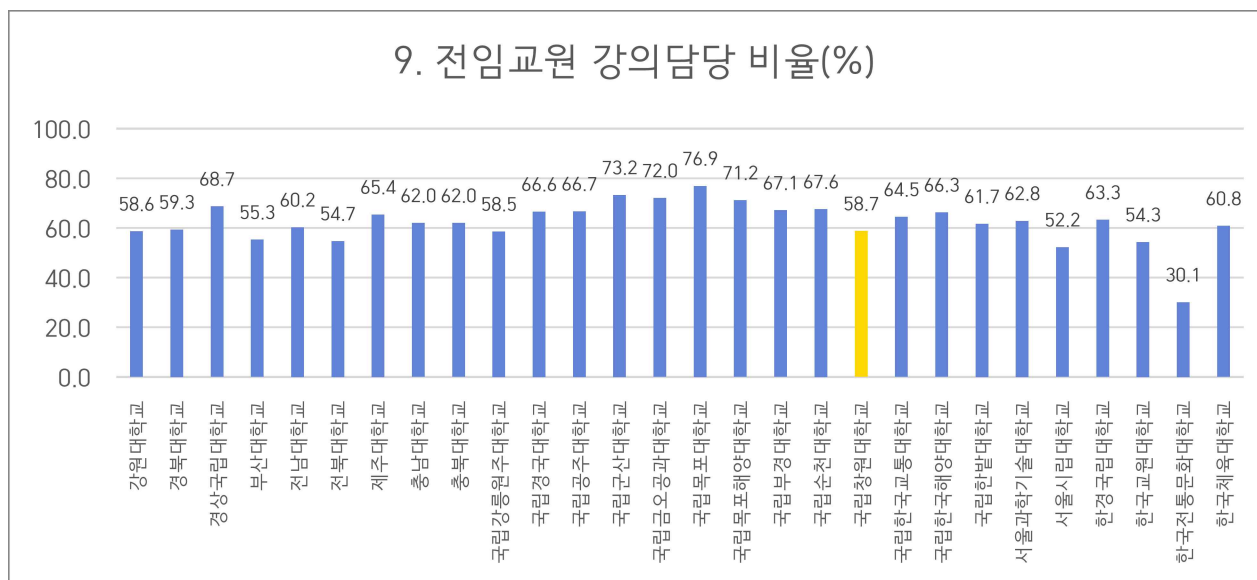
3.9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20점)

□ 실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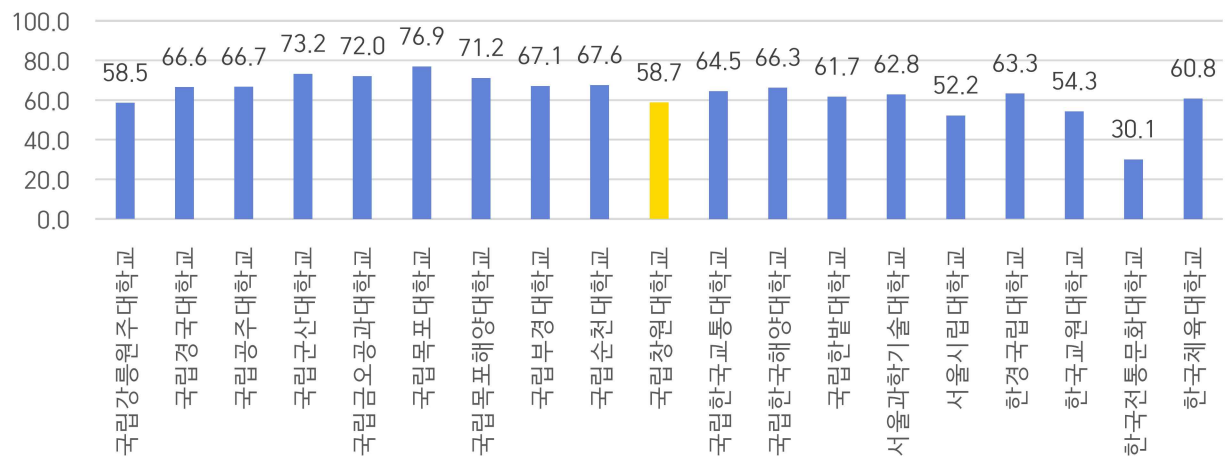
구 분	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총 개설강의 학점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C=(A/B) \times 100$
	1학기	2학기	계(A)	1학기	2학기	계(B)	
2023	2421.5	2404.5	4,826	4041	3945	7,986	60.43
2024	2431.8	2,251.5	4,683	4,111.1	3,861	7,972	58.75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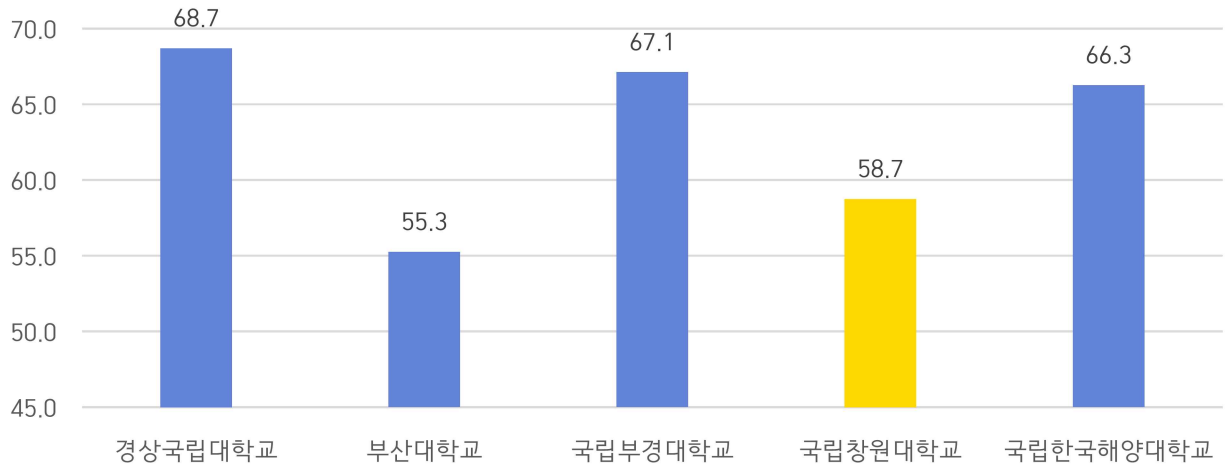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20점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5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21위



9.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9.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현황분석

- 국립창원대학교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2023년 60.43%, 2024년 58.75%로 최근 2년간 소폭 하락하였다. 이는 전임교원 담당 학점이 2023년 4,826학점에서 2024년 4,683학점으로 감소한 반면, 전체 개설강의 학점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데 따른 결과다.
- 2024년 기준 지역중심국립대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보면, 국립군산대 73.2%, 국립목포대 76.9%, 국립금오공대 72.0% 등은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국립창원대는 58.7%로 지역중심국립대 평균(대략 60~65% 범위)보다 다소 낮은 편에 해당한다. 다만 서울시립대(52.2%), 한국교원대(54.3%) 등 일부 대학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중하위권이 아닌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평가 결과에서도 창원대학교는 지역중심국립대 및 전체 국립대 기준 '중위'로 분류되어, 교육 여건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 개선방안

-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규 교원 확충보다는 기존 전임교원의 강의 참여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향이 현실적이다. 전임교원 연구·행정 부담이 큰 학과를 중심으로 강의 배분을 조정하고, 전임교원 1인당 최소 강의학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비전임교원 의존도가 높은 기초·교양 및 대형 강좌 일부를 전임교원 책임강의 형태로 전환하면 단기간 내 지표 개선이 가능하다. 학부생 비율이 높은 창원대학교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학부 강의의 질 제고를 위한 전임교원 강의 확대는 교육 중심 국립대로서의 정체성과도 부합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학과 정원 조정 및 강의 규모 적정화와 연계해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60% 중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는 교육 여건 개선과 대학 평가 대응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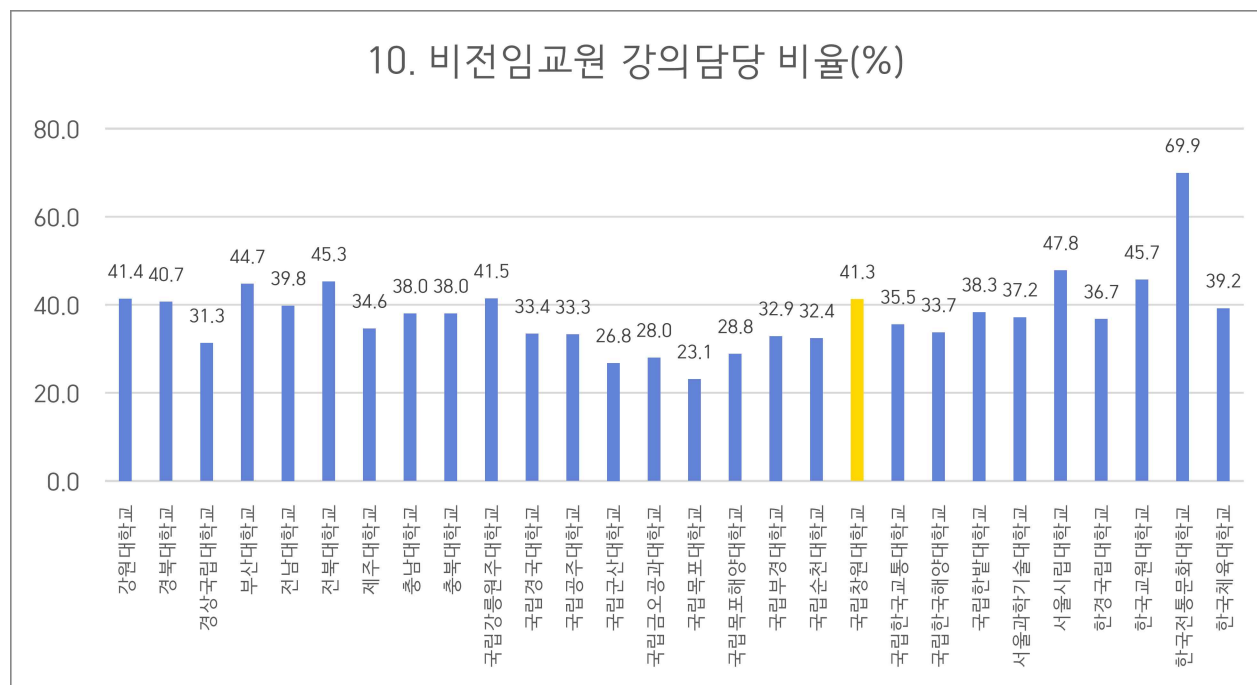
3.10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20점)(역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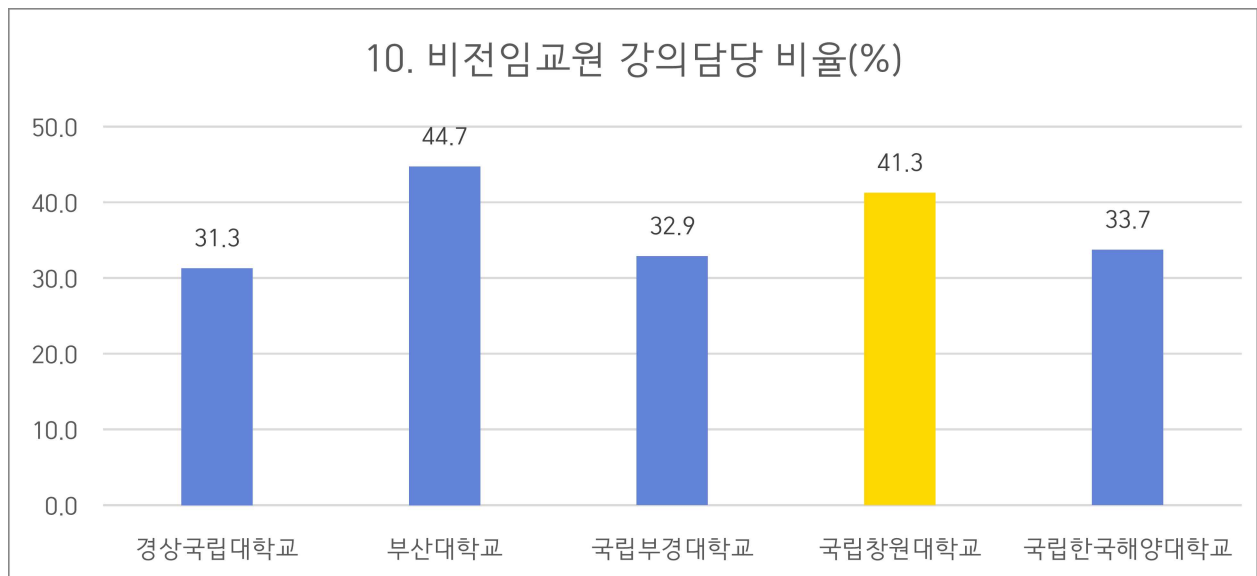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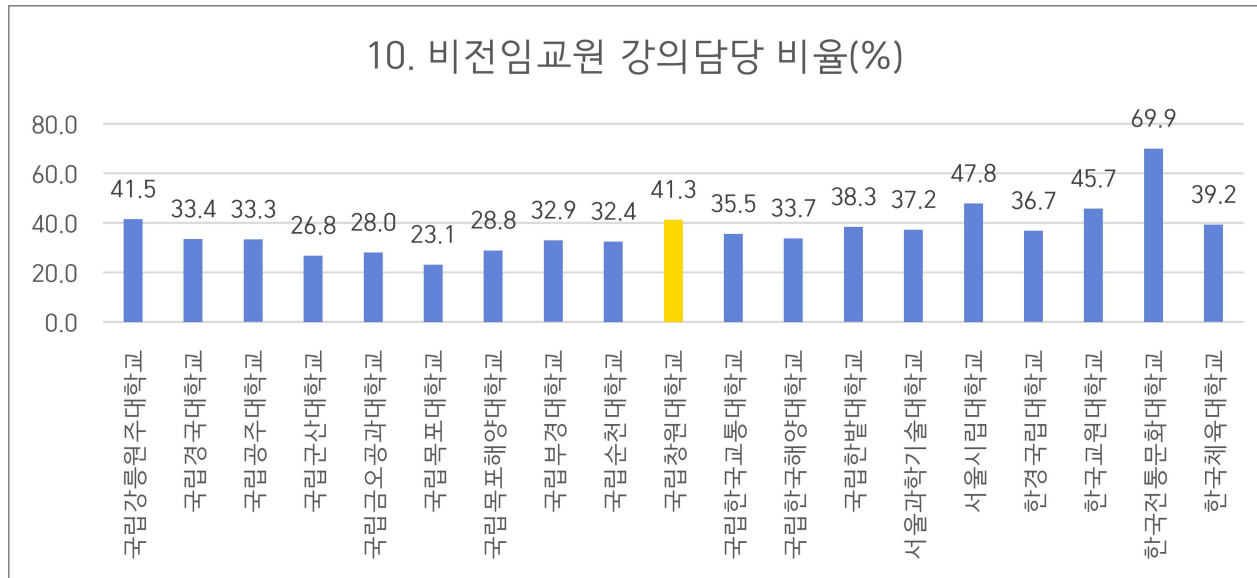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분	학기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총 개설강의 학점(B)	비전임교원강의담당 비율(%) C=(A/B)X100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 비전임교원	계(A)		
2023	1	113	99.5	1,300	107	1,619.5	4,041	40.07
	2	109	105.5	1,213	113	1,540.5	4,078	37.77
	합계	222	205	1,301.21 3	220	3,160	8,119	77.84(39.6)
2024	1	104	79.3	1231	265	1679.3	4111.1	40.84
	2	97	76.5	1298	138	1609.5	3861	41.68
	합계	201	155.8	2529	403	3288.8	7972.1	82.52(41.26)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20점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5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21위





□ 현황분석

- 국립창원대학교의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2023년 39.6%, 2024년 41.3%로 최근 2년간 약 40% 내외 수준을 보이며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하락에 따른 상대적 증가로 해석된다.
- 2024년 기준 전체 국립대학의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보면, 지역중심국립대 다수는 30~35% 수준에 분포하고 있으며, 국립군산대(26.8%), 국립목포대(23.1%), 국립금오공대(28.0%) 등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창원대학교의 41.3%는 지역중심국립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울시립대(47.8%), 한국교원대(45.7%)보다는 낮지만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다.
-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평가 결과에서도 창원대학교는 지역중심국립대 및 전체 국립대 기준 '중위'로 분류되어, 비전임교원 의존도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나 개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개선방안

-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교원 증원보다는 강의 구조 조정과 전임교원 강의 확대 전략이 효과적이다. 우선 비전임교원 비중이 높은 교양 및 반복 개설 전공 강좌를 중심으로 전임교원 책임강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부생 비율이 높은 창원대학교의 특성을 고려하면, 핵심 학부 강좌에서 전임교원 강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교육의 질 제고와 직결된다.
- 또한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중 일부를 팀티칭이나 전임교원-비전임교원 협력 강의 형태로 전환하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학과별 강의 수요 분석을 통해 강의 규모를 적정화하고,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회복함으로써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3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교육여건 지표 개선과 함께 교육 중심 국립대학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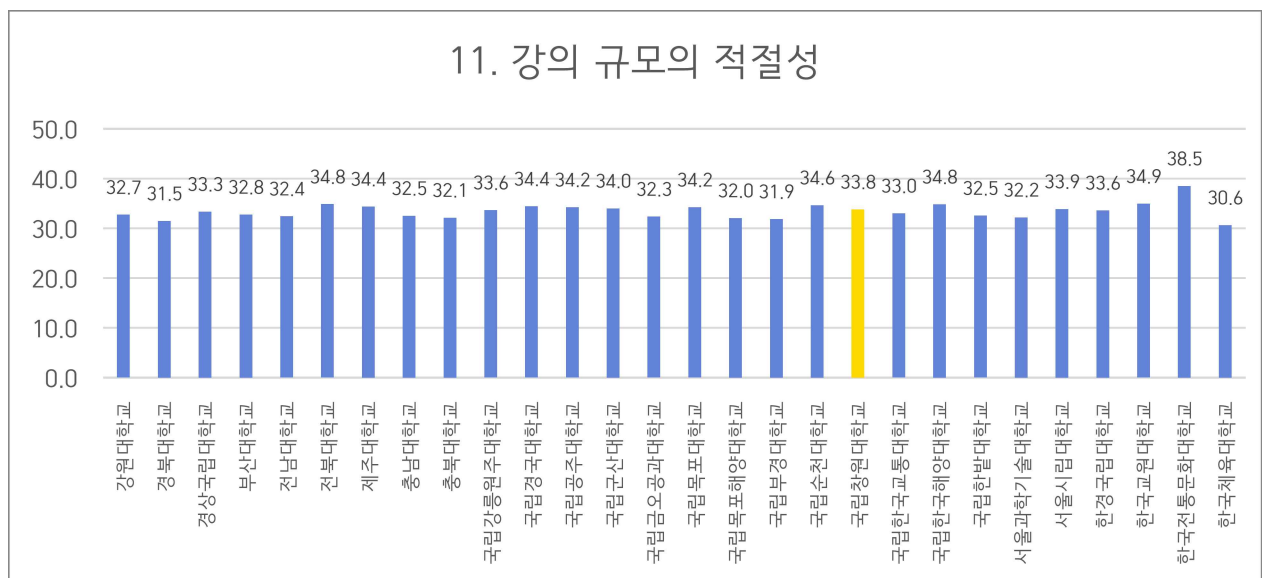
3.11 강의규모의 적절성(20점)

□ 실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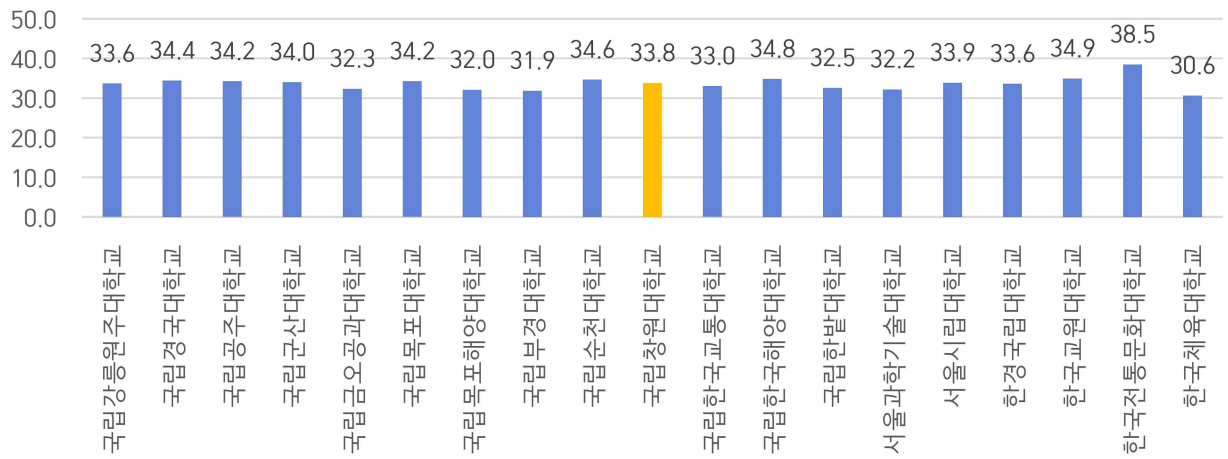
구분	학기	학생 규모별 강의 수				전체 강의수 (E)	강의 규모의 적절성 $F=0.4 \times (A/E \times 100) + 0.3 \times (B/E \times 100) + 0.2 \times (C/E \times 100) + 0.1 \times (D/E \times 100)$
		20명 이하(A)	21~50명 (B)	51~100명 (C)	101~200명 (D)		
2023	1	675	836	91	15	1,617	33.4
	2	687	827	74	13	1,601	33.6
	합계	1,362	1,663	165	28	3,190	33.5
2024	1	760	893	90	15	1,758	33.6
	2	814	818	75	13	1,720	34.1
	합계	1,574	1,711	165	28	3,478	33.8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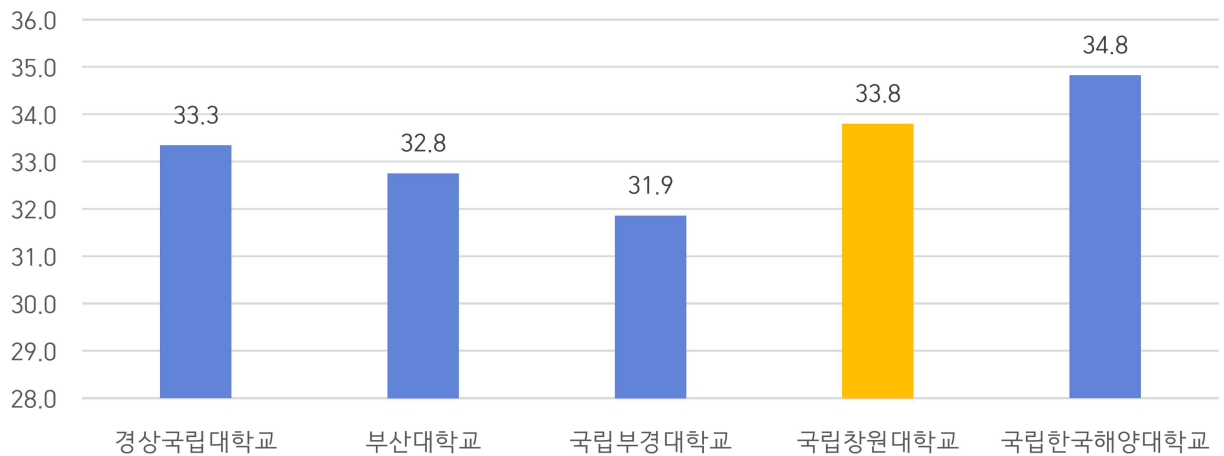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강의규모의 적절성	20점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0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2위



11. 강의 규모의 적절성



11. 강의 규모의 적절성



□ 현황분석

- 국립창원대학교의 강의규모 적절성 점수는 2023년 33.5점, 2024년 33.8점으로 최근 2년간 소폭 개선되었다. 2024년 기준 전체 강의 수는 3,478강좌이며, 이 중 20명 이하 강의가 1,574강좌(45.2%), 21~50명 강의가 1,711강좌(49.2%)로 전체 강의의 약 94%가 50명 이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51~100명 강의는 165강좌(4.7%), 101~200명 강의는 28강좌(0.8%)에 불과해 대규모 강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전체 국립대학 강의규모 적절성 분포와 비교하면, 국립창원대학교는 지역중심국립대 및 전체 국립대 기준 모두 ‘중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강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대학처럼 최상위권 수준의 구조적 우수성을 확보한 단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정량적으로 볼 때 국립창원대학교는 소·중규모 강의 중심의 교육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대학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강의규모 적절성 지표가 이미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만큼, 향후에는 대규모 구조 조정보다는 질적 개선과 미세 조정 중심의 관리 전략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강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일부 교양 및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분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51명 이상 강의 비중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또한 20명 이하 강의 비중이 높은 학과의 경우에는 교육 효과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강의 통합이나 공동 강의 운영을 검토해 강의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토론·실습 중심 수업은 소규모 강의로 유지하여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학과별 수강 수요 분석을 정례화하고, 강의 규모 관리 기준을 내부 지침으로 고도화해 강의규모 적절성 점수를 35점 이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선은 교육여건 지표 관리뿐 아니라, 교육 중심 국립대학으로서 창원대학교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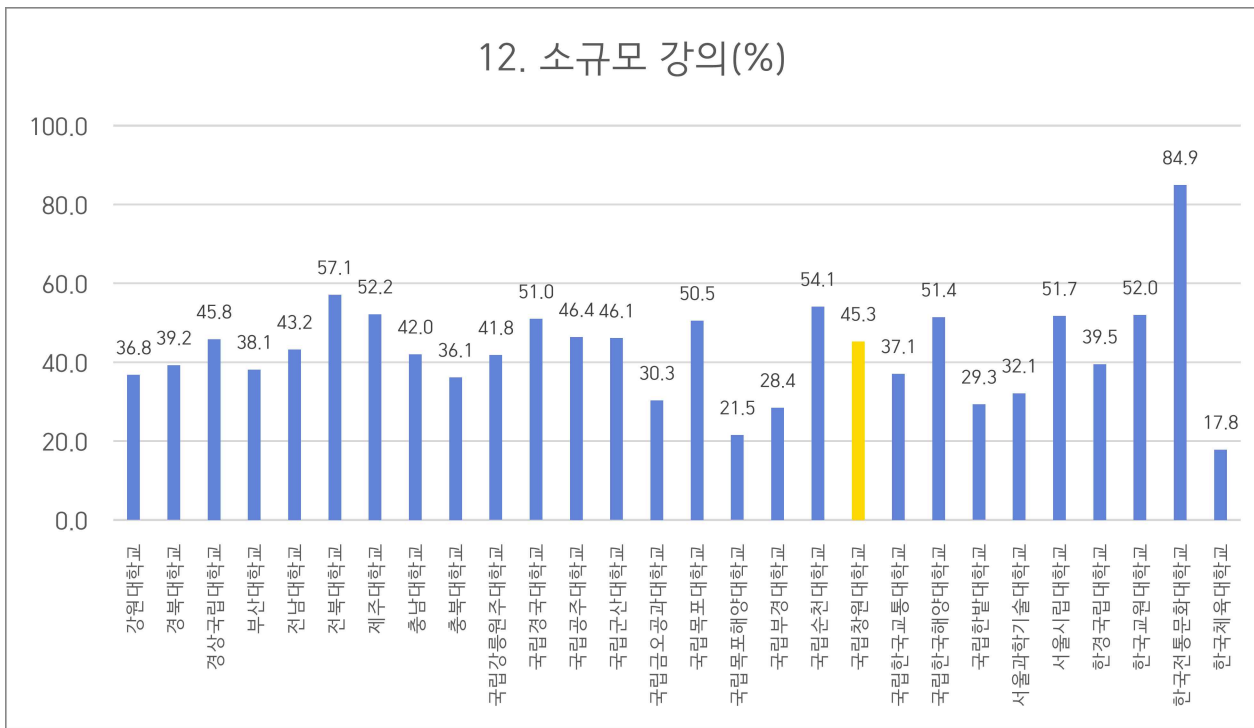
3.12 소규모강의 비율(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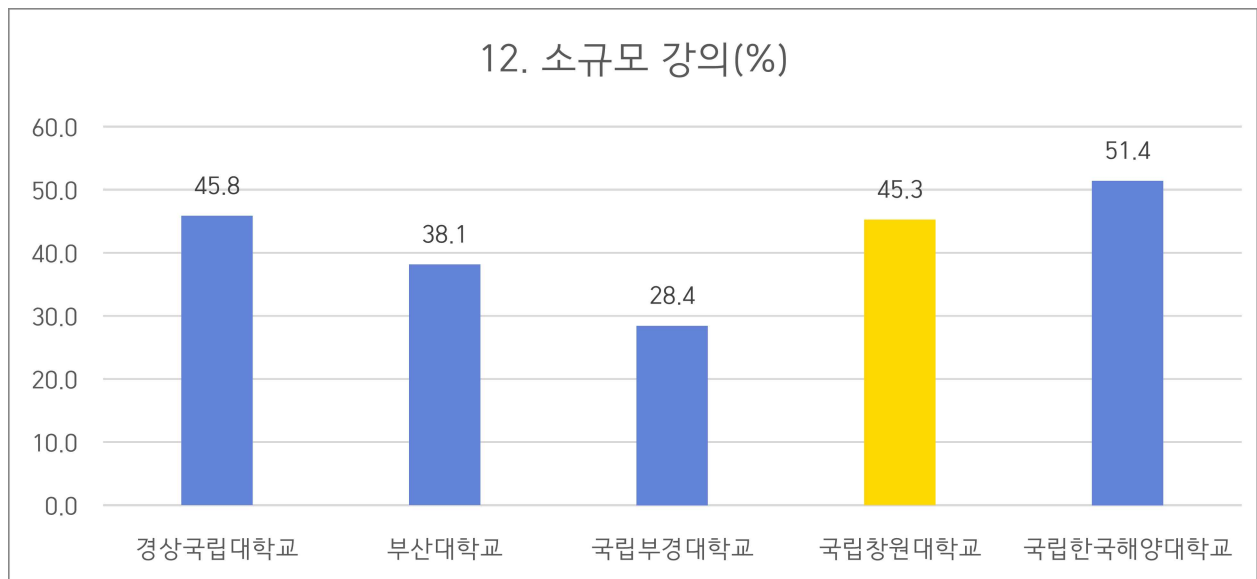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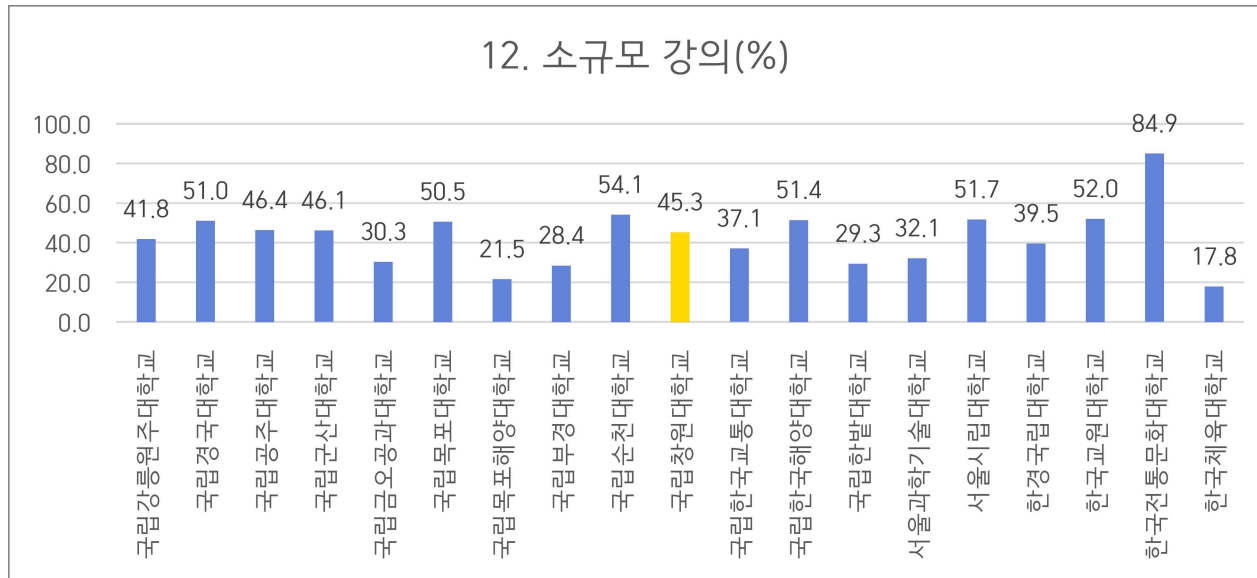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분	소규모 강의 수(A)	전체 강의 수(B)	소규모강의 비율(%) $C = (A/B) \times 100$
2023	1,362	3,218	42.32
2024	1,574	3,478	45.26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소규모강의 비율	10점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0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3위





□ 현황분석

- 국립창원대학교의 소규모강의 비율은 2023년 42.3%(1,362강좌/3,218강좌)에서 2024년 45.3%(1,574강좌/3,478강좌)로 약 3.0%p 상승하였다. 이는 전체 강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소규모강의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 전체 국립대 현황과 비교하면, 소규모강의 비율은 대체로 40% 내외에 분포하며, 창원대학교의 2024년 수치는 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평가 결과에서도 국립창원대학교는 지역중심국립대 및 전체 국립대 기준 모두 '중위'로 분류되어, 소규모강의 운영이 구조적으로 안정된 대학으로 평가된다. 정량적으로 볼 때 국립창원대학교는 학부생 비율이 높은 대학임에도 소규모·학생 참여 중심 강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나타난다.

□ 개선방안

- 국립창원대학교의 소규모강의 비율은 이미 국립대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으므로, 향후 정책 방향은 단순한 비율 확대보다는 소규모강의의 질적 고도화와 체계적 운영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토론·실습·프로젝트 중심 교과목에 소규모강의를 우선 배정해, 강의 규모와 교수법이 일치하도록 교과 편성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소규모강의 운영으로 인한 교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반 기준과 시수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고, 팀티칭이나 조교 활용을 확대해 교육 효과를 유지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일부 학과에서 과도하게 소규모강의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학과별 소규모강의 비율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강의 통합이나 중규모 강의 전환을 병행하는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
- 아울러 소규모강의의 성과를 학생 만족도, 수업 참여도, 학습 성취도 등과 연계해 정량적으로 관리하면 교육여건 개선 효과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규모강의 운영 기준을 내부 지침으로 정착시켜 45% 내외의 소규모강의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국립창원대학교의 산학 협력 교육 중심 대학 이미지 강화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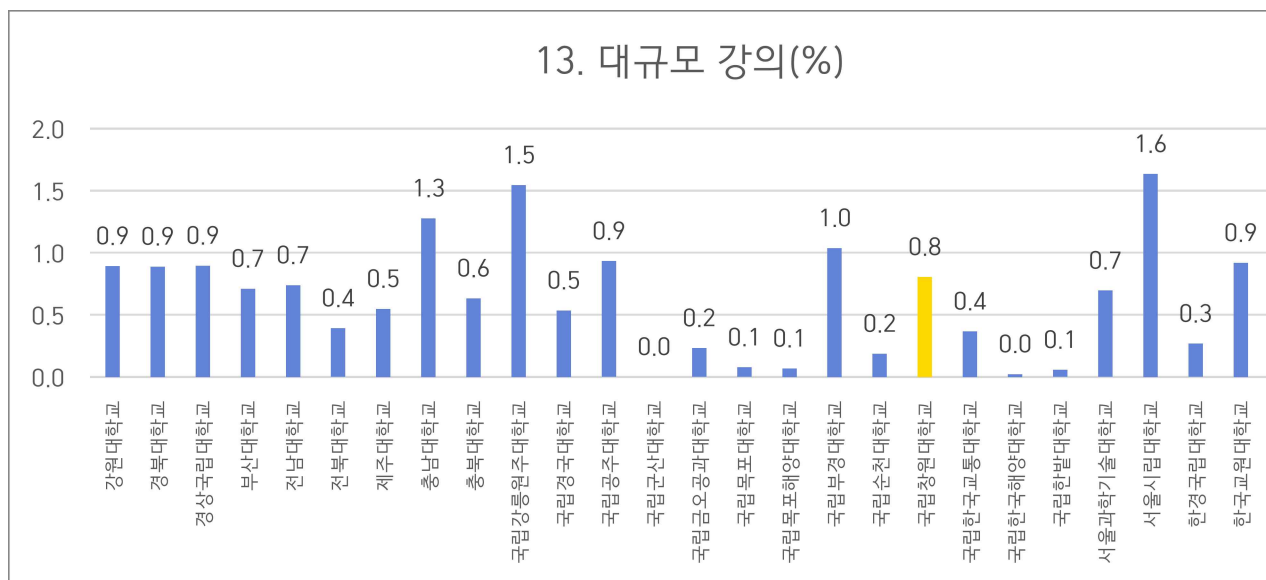
3.13 대규모강의(10점)**(역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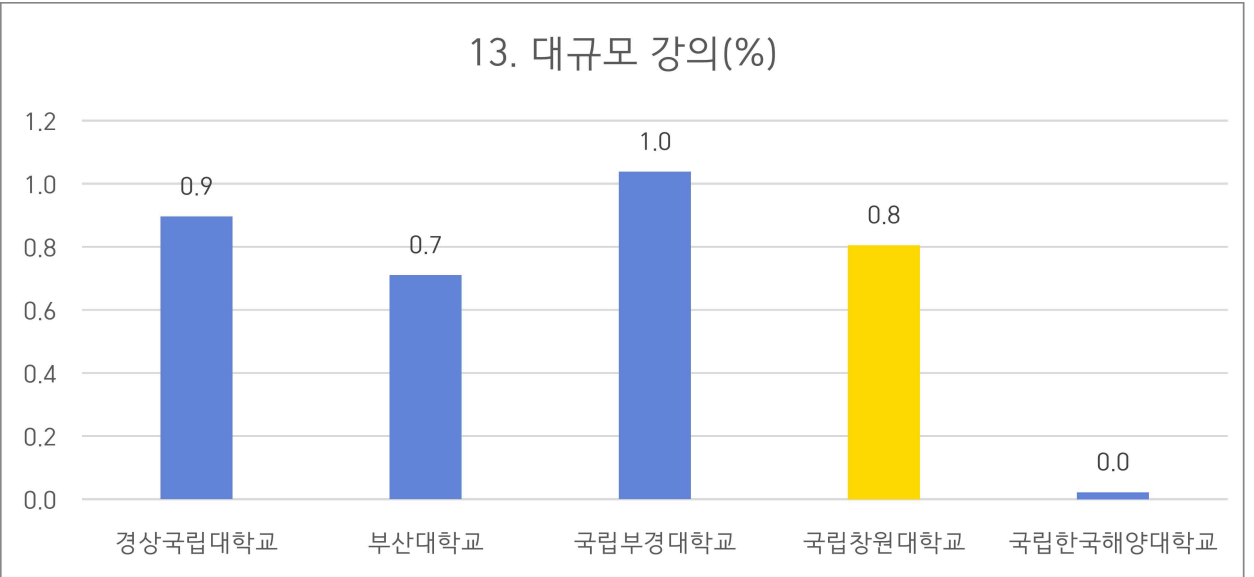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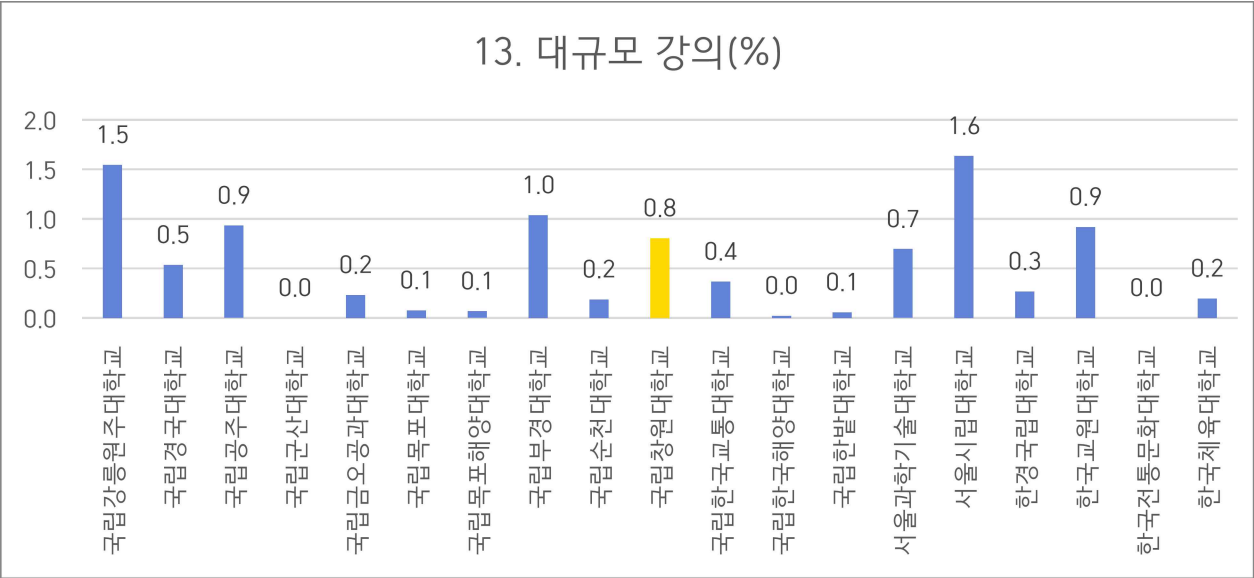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분	대규모 강의 수(A)	전체 강의 수(B)	대규모강의 비율(%) $C=A/B \times 100$
2023	28	3,218	0.87
2024	28	3,478	0.81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대규모강의 비율	10점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4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9위







□ 현황분석

- 국립창원대학교의 대규모강의 비율은 2023년 0.87%(28강좌/3,218강좌), 2024년 0.81%(28강좌/3,478강좌)로, 최근 2년간 1% 미만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강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대규모강의 수가 증가하지 않아 비율이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결과다.
- 교육여건 파일에 제시된 전체 국립대 현황과 비교하면, 다수 국립대가 1~3% 내외의 대규모강의 비율을 보이는 것과 달리, 창원대학교는 대규모강의 운영을 최소화한 대학에 해당한다. 평가 결과에서도 창원대학교는 지역중심국립대 및 전체 국립대 기준 ‘중위’ 수준으로 분류되며, 대규모강의로 인한 교육여건 저하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량적으로 볼 때, 창원대학교는 학부 중심 대학임에도 소규모·중규모 강의 위주의 운영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국립창원대학교의 대규모강의 비율은 이미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향후 정책 방향은 비율 축소보다는 질 관리와 구조적 안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대규모강의로 분류된 교양 및 일부 필수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 인원 증가 시 자동으로 분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반 운영에 필요한 강의 시수와 강의실을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대규모 수강이 불가피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팀티칭, 조교 확충, 온라인 보조 강의 병행 등을 통해 학생-교수 간 상호작용 부족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 특히 학부생 비율이 높은 창원대학교의 특성을 고려하면, 토론·실습 중심 수업을 확대하고 중규모 강의 위주의 편성을 유지하는 것이 교육 만족도 제고에 효과적일 것이다.
- 아울러 학과별·학년별 수강 패턴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특정 과목에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교과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공 필수 과목의 이수 시기를 분산하거나 유사 과목을 병렬 개설하면 대규모강의 발생을 구조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중장기적으로는 강의 규모 관리 기준을 내부 지침으로 정착시켜 대규모강의 비율을 1% 이하 수준으로 지속 관리하고, 이를 교육여건 개선 성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창원대학교가 교육 중심 국립대학으로서 강점인 소규모·밀착형 교육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14 도서관 연간 자료구입비(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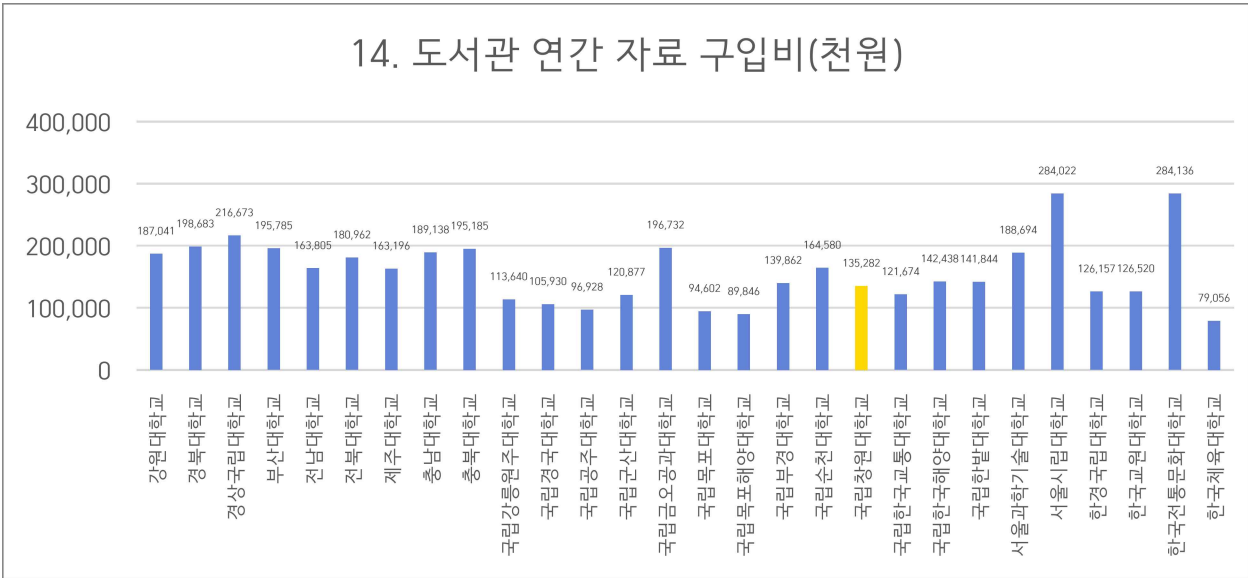
□ 실적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재학생 수(A)	자료구입비(B)	도서관 연간 자료구입비(C=B/A)
2023	8,716	1,159,419	133,021
2024	8,828	1,194,270	135,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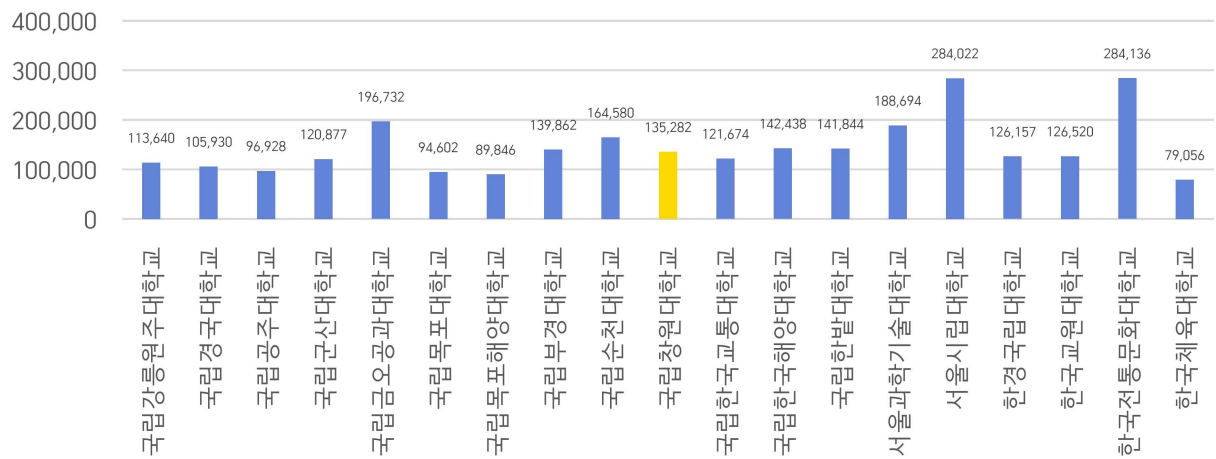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도서관 연간 자료구입비	20점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9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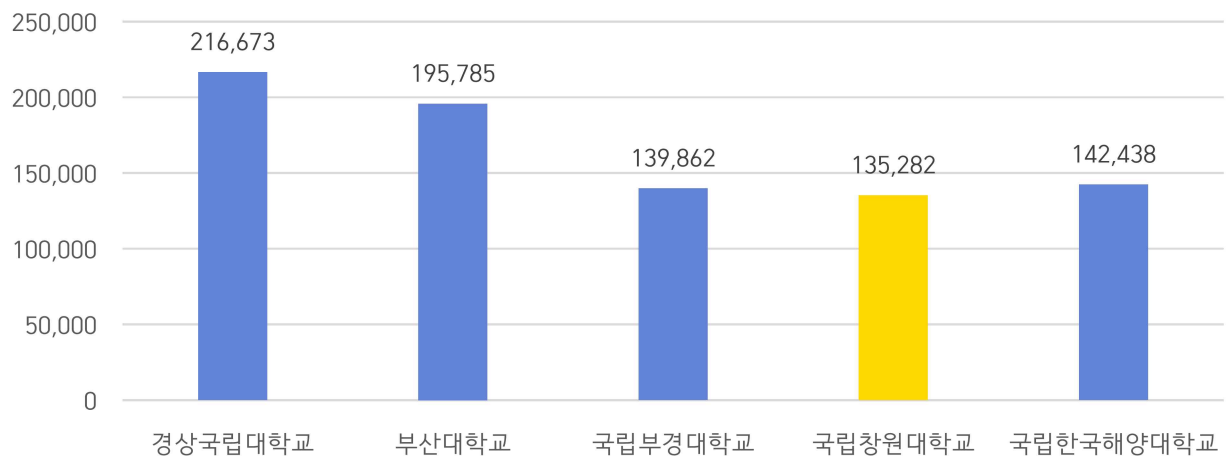




14. 도서관 연간 자료 구입비(천원)



14. 도서관 연간 자료 구입비(천원)



□ 현황분석

- 도서관 연간 자료구입비는 2023년 재학생 1인당 133,021천원에서 2024년 135,282천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이는 재학생 수가 증가한 상황에서도 자료구입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2024년 기준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19개 지역중심국립대학 중 9위, 28개 국립대학 중 18위로, 전체 국립대학 대비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타 국립대학과 비교할 때, 자료구입비 규모가 현저히 낮은 수준은 아니며, 교육·연구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도서관 자료 확충 여건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개선방안

- 도서관 연간 자료구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자료구입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연구 수요가 높은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한다.
- 전자저널, 전자책 등 디지털 자료 구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확대하여 자료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 통계 기반의 자료구입 체계를 정착시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학과 및 연구자 의견을 반영한 수요 기반 자료구입 절차를 강화하여 교육과정 및 연구 활동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 중장기적으로는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교육여건 핵심 지표로 인식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항목으로 관리함으로써 재학생 및 교원의 학습·연구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4. 연구(15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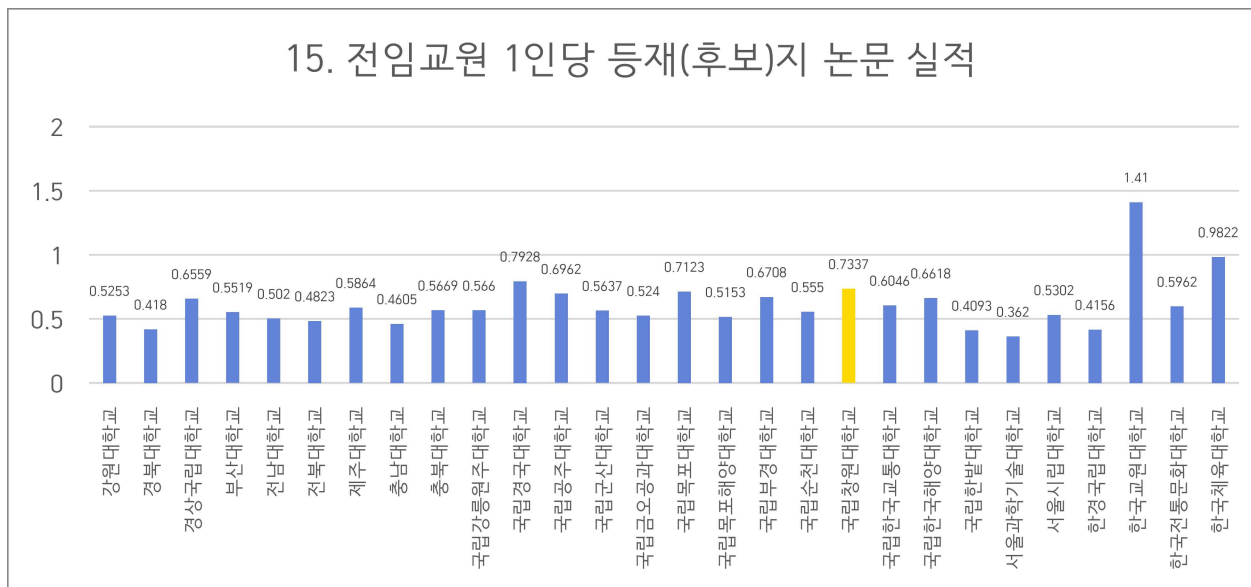
4.15 전임교원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20점)

□ 실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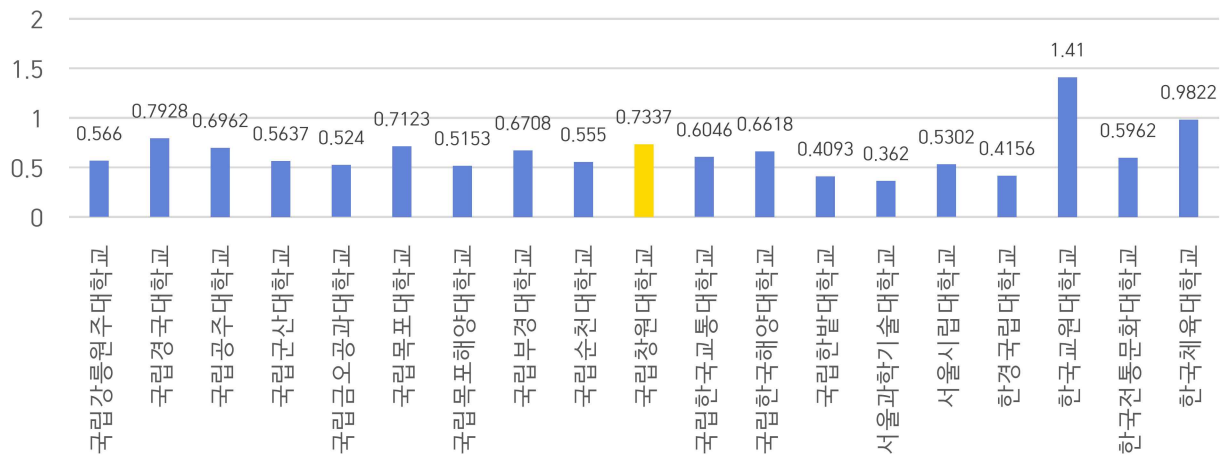
구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건수 (A)	전임교원 수(B)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건) (C=A/B)
2023	214.8478	345	0.6227
2024	253.1155	345	0.7337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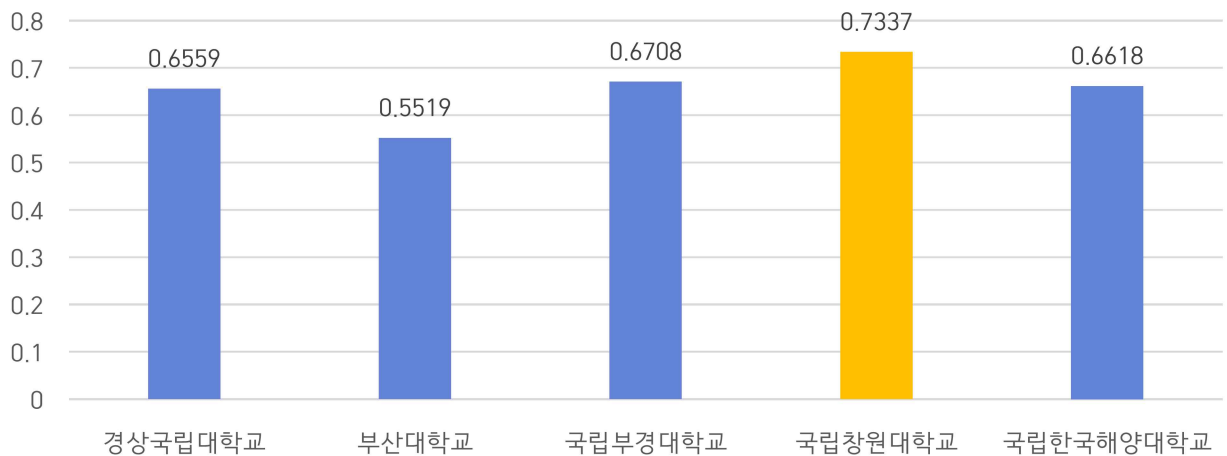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20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4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4위



15.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15.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 현황분석

-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은 2023년 0.6227편에서 2024년 0.7337편으로 증가하여, 전임교원 1인당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2년 연속 동일한 전임교원 수(345명)를 기준으로 할 때, 게재 건수가 증가한 것이 지표 향상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 2024년 기준 19개 지역중심대학 및 28개 국립대학에서 모두 4위를 기록하여, 동종 국립대학 대비 상위권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대학의 수치가 0.7편 대 중반으로 표시되어 다수의 국립대 평균(0.61)을 상회하나, 일부 최상위 대학(1편 이상)과는 여전히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

□ 개선방안

-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이 0.7편을 상회하고 있는 점은 우리 대학의 강점으로, 이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2년간 증가 추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교내 연구비 지원, 연구 인프라(연구공간·장비·행정 지원) 강화 등 기존 연구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성과가 높은 분야에는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 외부 연구재원과 연계된 연구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통해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연구과제, 기업·공공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연구비를 확보하고, 이들 과제 수행 결과가 국제·국내 학술지 논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과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목표 논문 수, 대상 학술지, 공동저자 구성 등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대학 차원의 연구문화 조성 및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연구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우수 논문에 대한 성과급·승진 가점, 연구실적 우수학과 포상, 연구 윤리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 등을 병행함으로써, 단기적 실적 향상뿐 아니라 장기적인 연구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동시에 교육·연구·사회봉사 등 교원업적 전 영역을 균형 있게 평가하여, 교육과 연구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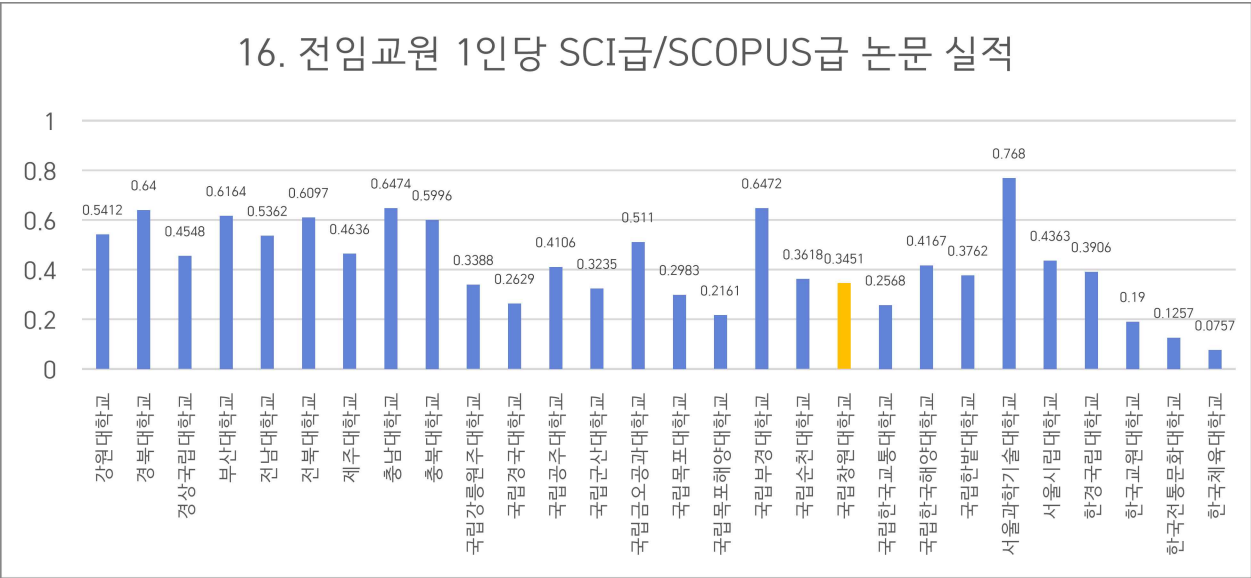
4.16 전임교원 1인당 SCI급/Scopus급 논문 실적(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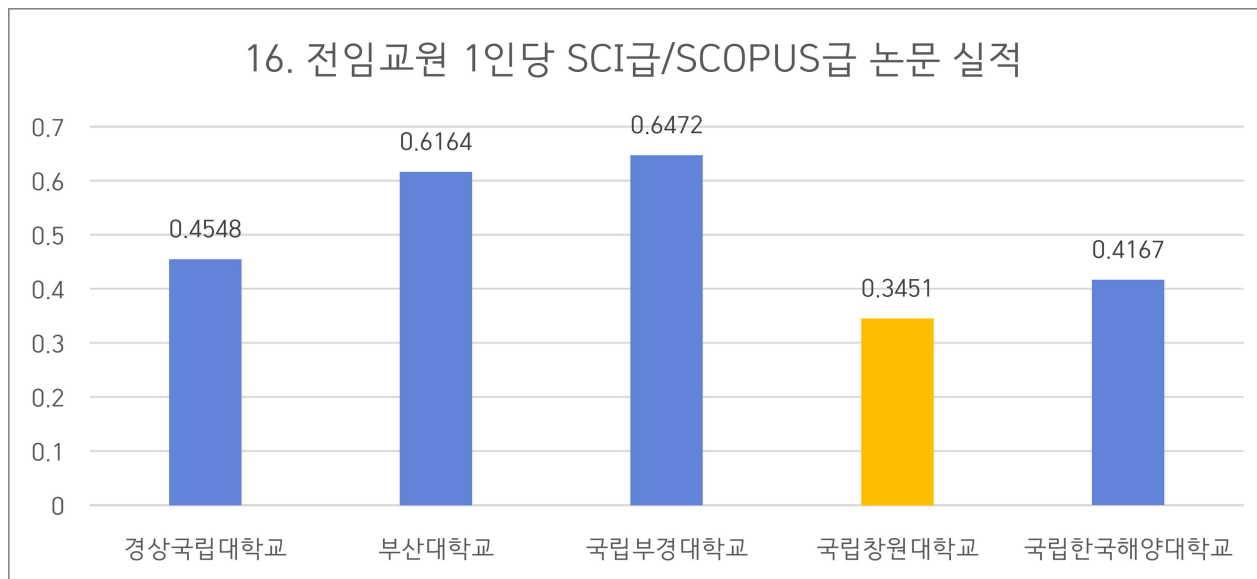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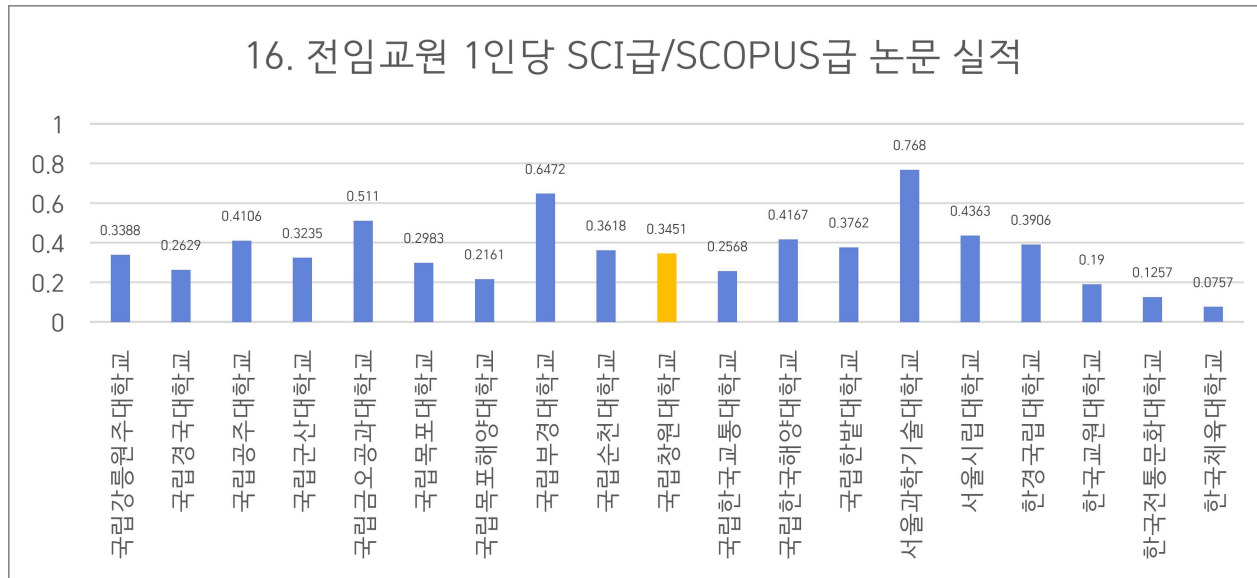
실적현황

구분	SCI급/Scopus급 학술지 게재(건수) (A)	전임교원 수(B)	전임교원 1인당 SCI급/Scopus급 논문 실적 (C=A/B)
2023	99.6312	345	0.2888
2024	119.3244	345	0.3451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	20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0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9위





□ 현황분석

- 전임교원 1인당 SCI급/Scopus급 논문 실적은 2023년 0.2888편에서 2024년 0.3451편으로 증가하여,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생산성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 전임교원 수가 345명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게재 건수 증가가 지표 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 그러나 2024년 기준 19개 지역중심대학 중 10위, 28개 국립대학 중 19위로, 국내 등재(후보)지 실적에 비해 국제학술지 실적은 상대적으로 중하위권 수준이다. 국립대학의 평균은 약 0.42편이며, 0.6~0.7편 이상의 실적을 보이는 상위 국립대와는 아직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 개선방안

- 국제학술지 게재 실적이 국내 등재(후보)지 실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 학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국제공동연구 기획 지원, 해외 학자 초청 세미나,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및 논문게재료 지원을 확대하고, SCI·Scopus 등재 학술지 투고 경험이 많은 교원을 중심으로 논문 작성·게재 전략에 대한 내부 워크숍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 연구 분야별로 국제학술지 게재가 용이한 영역과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역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자연과학·공학·보건의료 등 국제학술 교류가 활발한 분야는 대형·중형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인문사회·예술계열은 국제학술지와 더불어 SSCI·A&HCI·SCOPUS 등 다양한 색인 저널을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술정보 제공과 번역·교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 대학 차원의 국제화 전략과 연계하여 해외 대학·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교환교수·방문연구 제도, 공동학위·복수학위 프로그램, 해외 연구기관과의 MOU를 기반으로 장기·단기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SCI급·Scopus급 논문을 공동 저자로 발표하는 사례를 증가시켜야 한다. 특히 외국인 전임교원 및 해외연구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심으로 국제 공동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국제학술지 실적을 교원 업적평가와 인사·보상 체계에 적절히 반영하여 동기 부여를 강화해야 한다. 다만, 연구의 질과 영향력을 함께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등재지·국외 SCI급 논문·저역서·연구비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균형 있게 인정하는 종합 평가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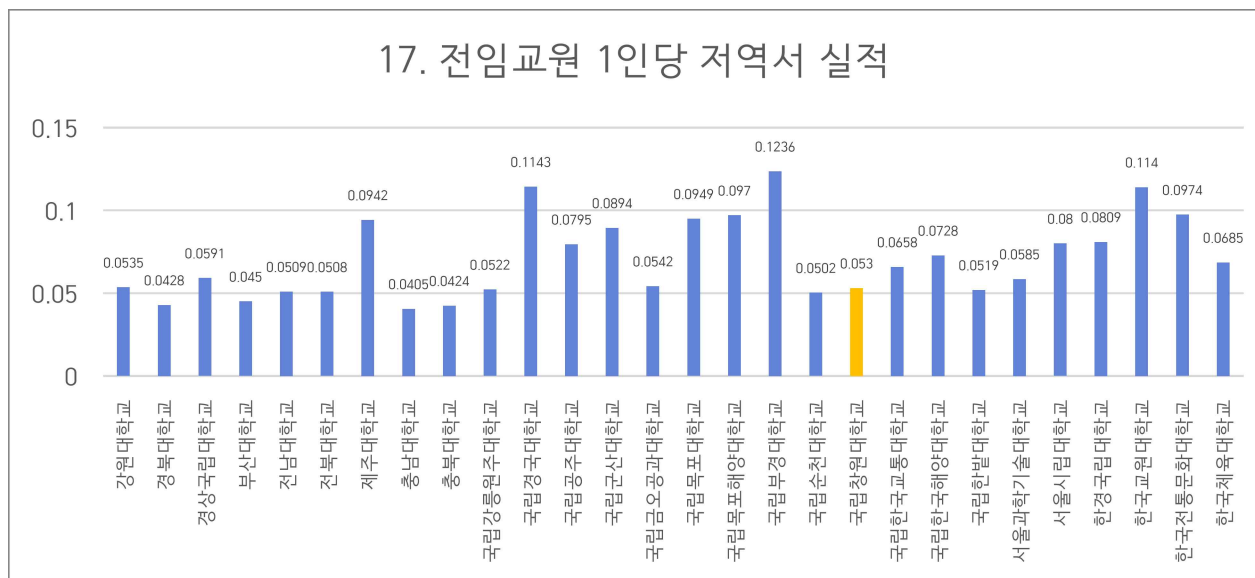
4.17 전임교원1인당 저역서 실적(20점)

□ 실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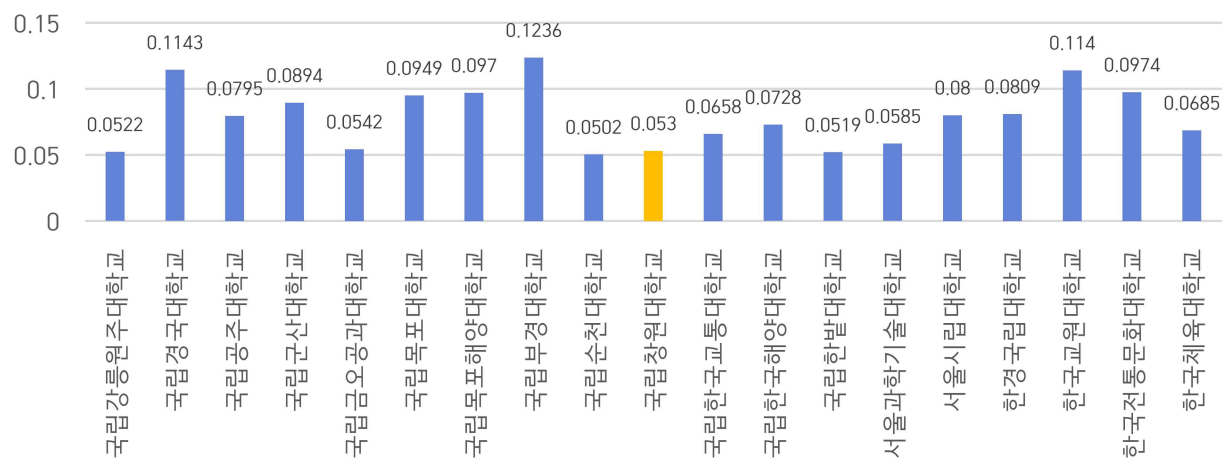
구 분	전임교원 수(A)	저역서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건) C=B/A
		계(B)	저서	역서	
2023	345	11.3371	11.3371	-	0.032
2024	345	18.3	14.8	3.5	0.053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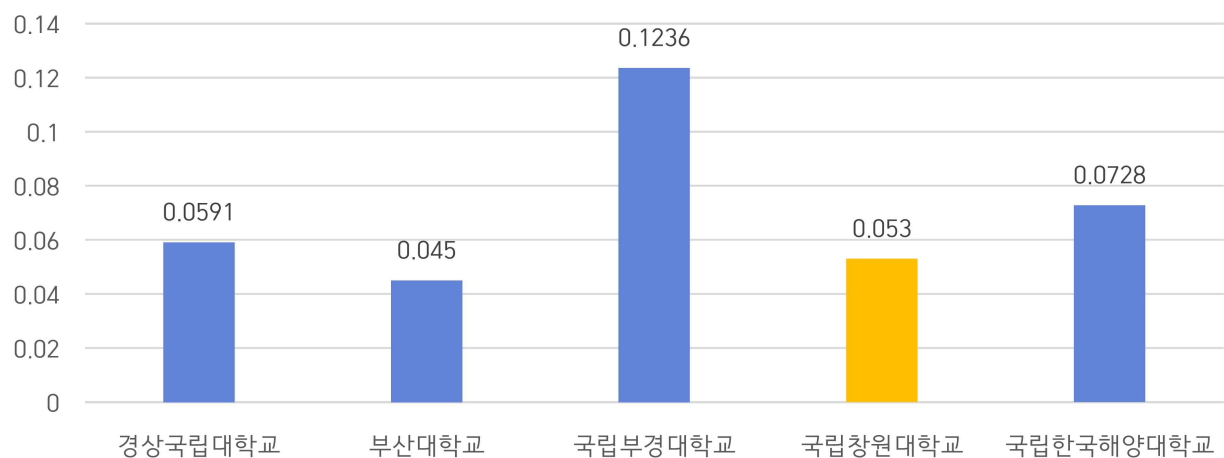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20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6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9위



17.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17.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 현황분석

-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은 2023년 0.032편에서 2024년 0.053편으로 증가하여, 저서·역서 출판 활동이 일정 부분 활성화되고 있다. 2024년에는 저역서 총 18.3권(저서 14.8권, 역서 3.5권)이 345명의 전임교원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 그러나 2024년 기준 19개 지역중심대학 중 16위, 28개 국립대학 중 19위로,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은 여전히 하위권에 속한다. 우리 대학이 0.05편대에 머무르는 반면, 국립대학 평균은 약 0.07편, 일부 대학은 0.1편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저역서 분야에서의 외형적 성과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 개선방안

- 중장기적으로 저역서 출판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학문 후속세대 양성과 교육·연구의 토대를 제공하는 교재·전문서·연구서 발간을 장려하기 위해, 저역서 출판에 대한 연구년 인정, 출판비 지원, 업적평가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계열별 특성과 출판 관행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인문사회·예술계열은 장기간 연구를 통해 단행본·역서로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기 프로젝트형 연구비 지원, 번역·편집 지원, 대학출판부와의 협업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저역서 발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연과학·공학계열은 실험·실습 교재, 전문 교과서, 융합교양 교재 개발을 통해 저역서 실적을 동시에 늘리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 대학 차원에서 저역서 발간에 대한 인식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성과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 우수 저역서에 대한 시상과 저자 인터뷰, 대학 홈페이지·학내 소식지 홍보, 지역사회·중·고교와 연계한 저자 특강 등을 통해, 저역서가 대학의 학문적 브랜드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임을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교원들이 저역서 발간을 장기적인 학문 활동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저역서 실적을 다른 연구 지표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특정 지표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단기간 내 실적 양적 확대보다 연구의 심화와 학문적 기여를 중시하는 평가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4.18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 연구비(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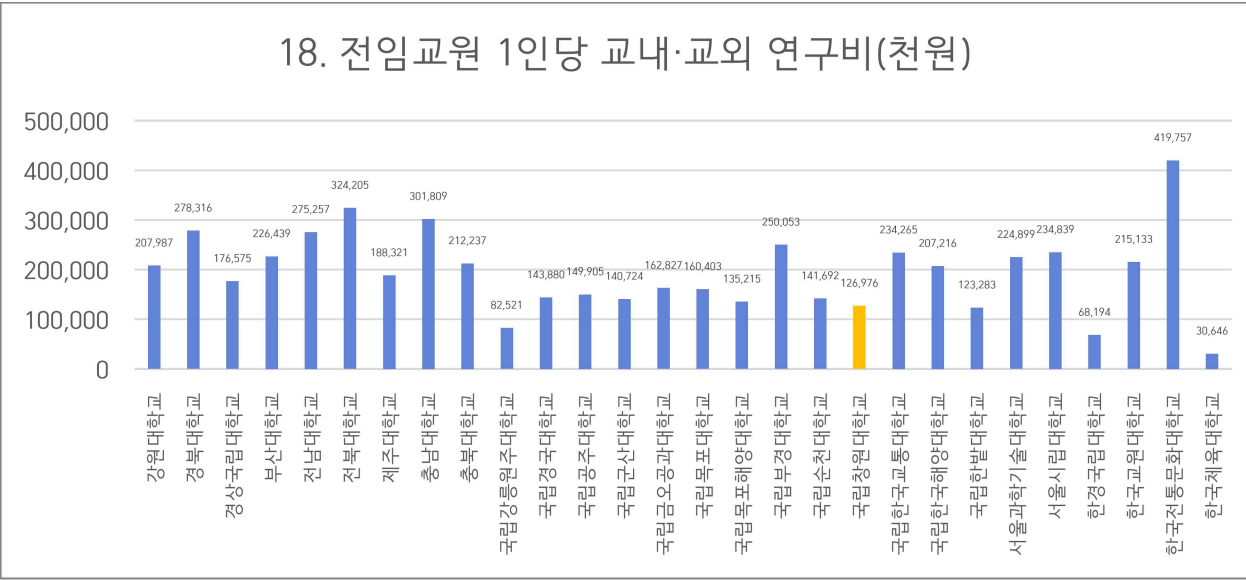
☐ 실적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임교원 (A)	연구비 자원						대응자금 (연구비) (C)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D=(B+C)/A
		계(B)	교내	교외					
				중앙정부	자체	민간	외국		
2023	345	35,485,520	758,400	27,067,465	1,161,408	6,141,494	356,753	1,309,750	156,140
2024	345	29,330,122	1,328,464	22,777,286	848,922	3,761,248	614,202	1,212,750	126,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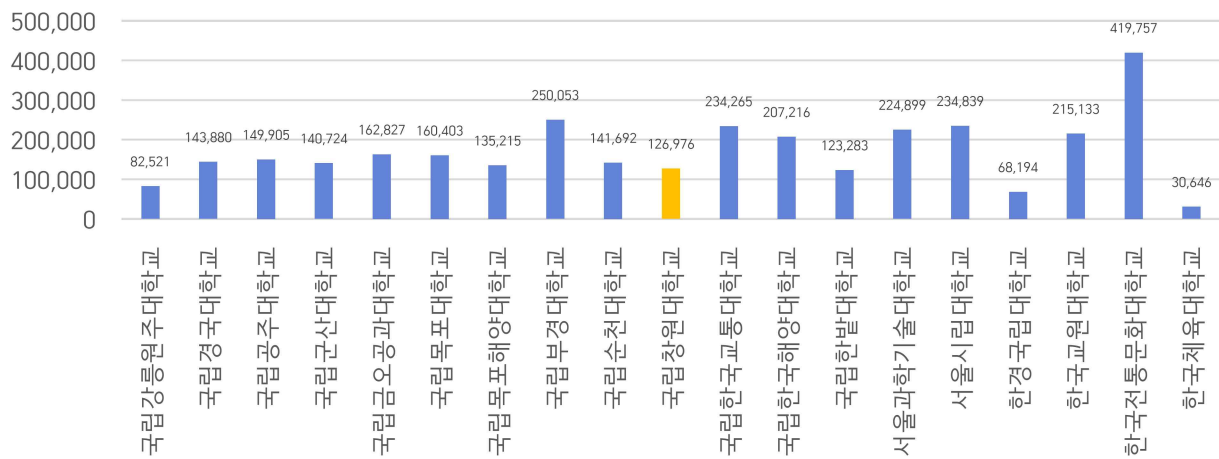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 연구비	20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5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2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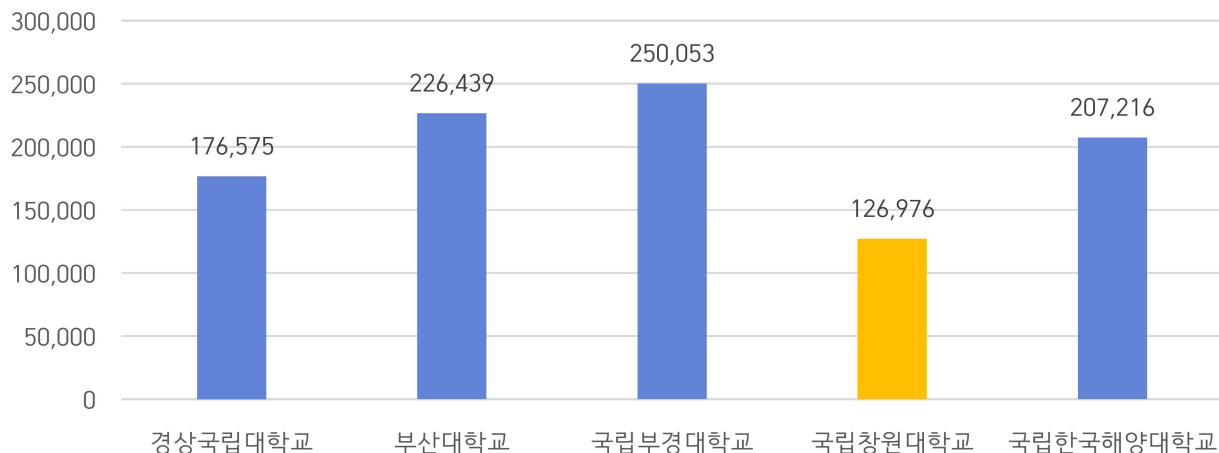




18. 전임교원 1인당 교내·교외 연구비(천원)



18. 전임교원 1인당 교내·교외 연구비



□ 현황분석

-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2023년 156,140천원에서 2024년 126,975천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 전체적으로 교외 연구 수주 실적이 감소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자체, 민간 연구용역 전체적으로 연구 수주 실적이 감소 하였으며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 순위에 있어서 전국 28개교 국립대학과 비교하여 24위로 국립대학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19개교 지역 중심대학과 비교하여 15위로 지역중심 평균과 비교하여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개선방안

-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는 28개 국립대학 및 19개 중심대학 평균에 비하여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 중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교외 연구비 수주실적에 대한 년도별·단과대학·직급별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지원이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 수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단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 관리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연구자에게 교외연구비 지원에 관한 각종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보다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과제 발굴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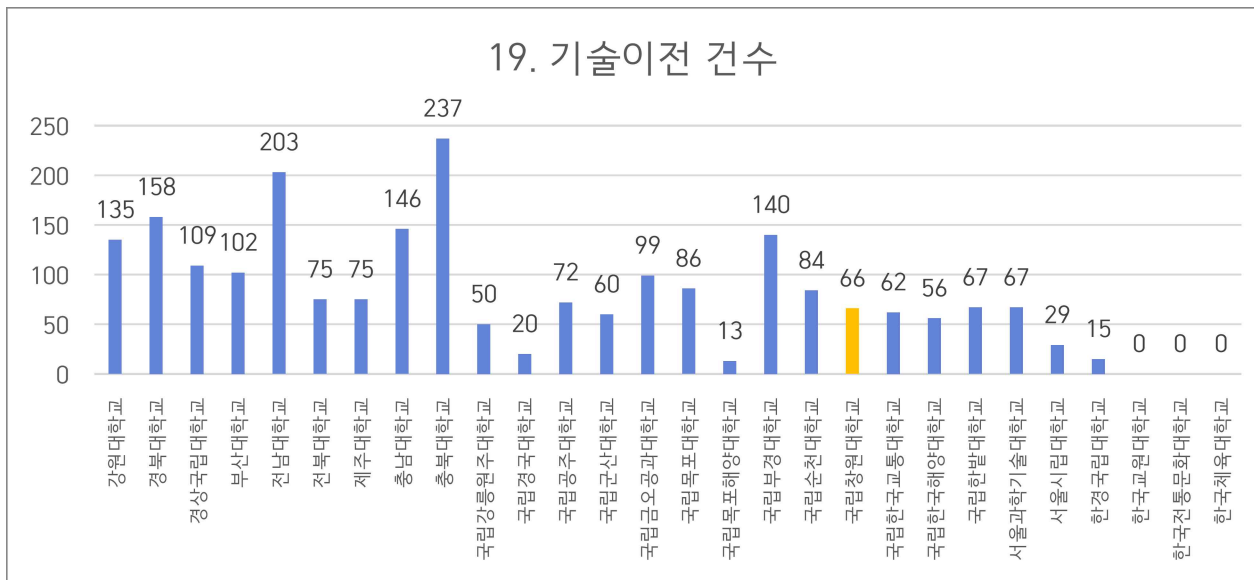
4.19 기술이전 건수(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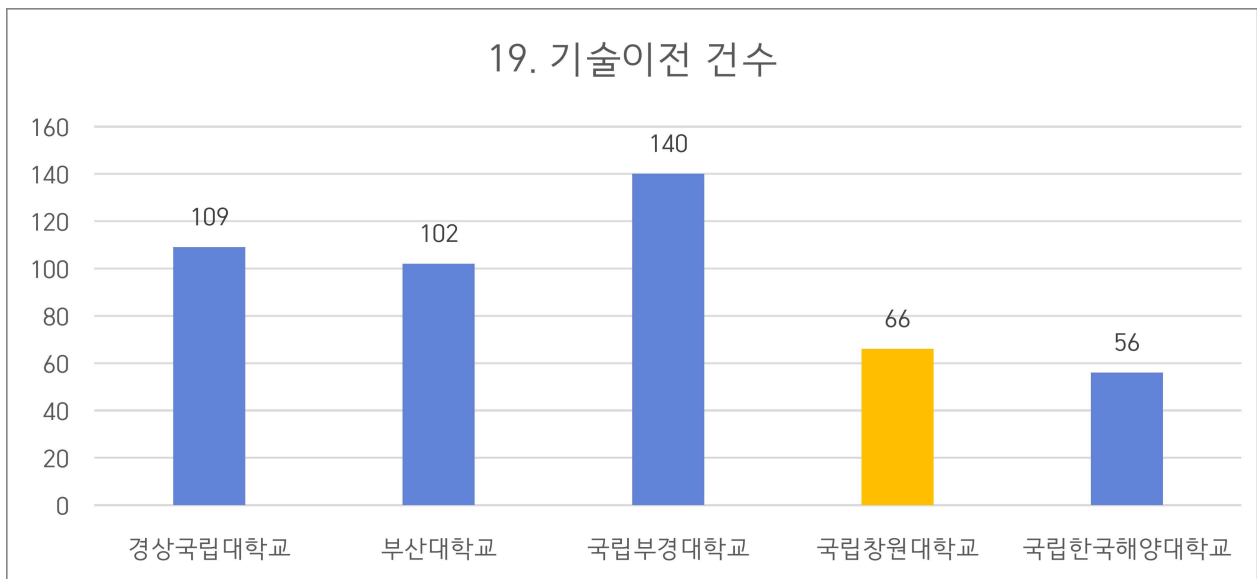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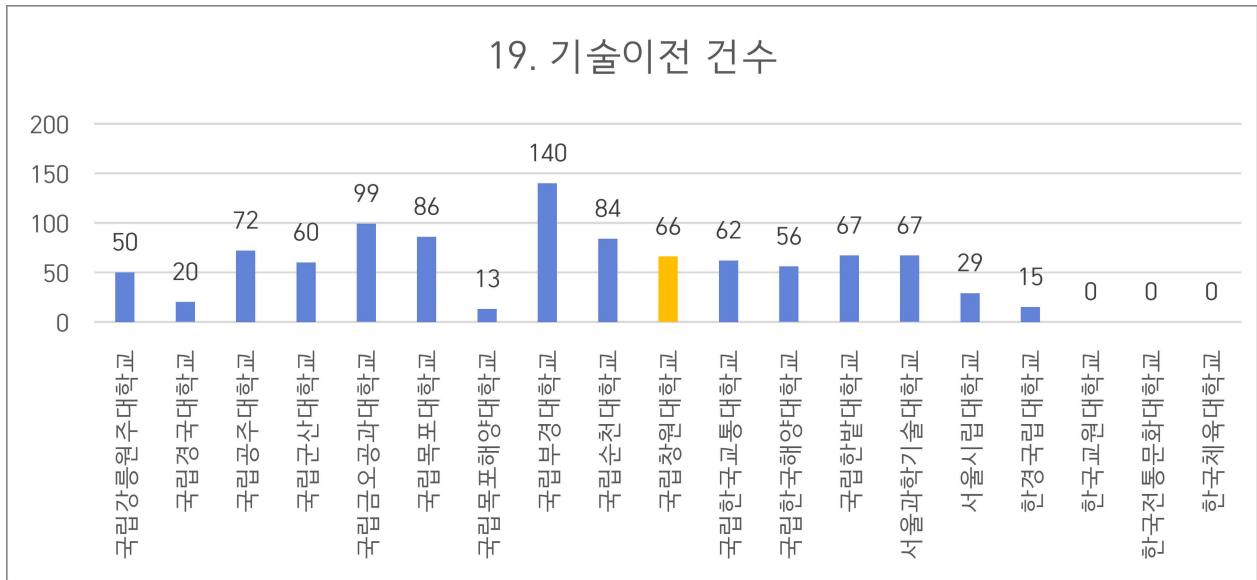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분	건 수(A)	수입료	비고
2023	74	487,396	
2024	66	635,781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기술이전 건수	10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8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7위







□ 현황분석

- 2023년 기술이전 건수는 74건, 2024년에는 기술이전 건수가 66건으로 전년 대비 8건 감소하였다.

□ 개선방안

- 다음 표는 2024년 기준 교수 1인당 기술이전 건수를 비교한 현황이다.

대학	기술이전 건수	전임교원수	1인당 기술이전 건수
경상국립대학교	109	1,050	0.104
부산대학교	102	1,442	0.071
국립부경대학교	140	630	0.222
국립창원대학교	66	345	0.191
국립한국해양대학교	56	282	0.198

- 2023년 대비 2024년 기술이전 건수는 감소했으나, 교수 1인당 기준으로는 여전히 지역·국립대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교수 1인당 기준에서는 여전히 국립대 내 중상위권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실험실 보유 기술을 기업 수요기술과 매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 수요 기반 R&D 과제 기획 연동으로 기술이전 건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과별 보유 특허를 상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0 기술이전 수입료(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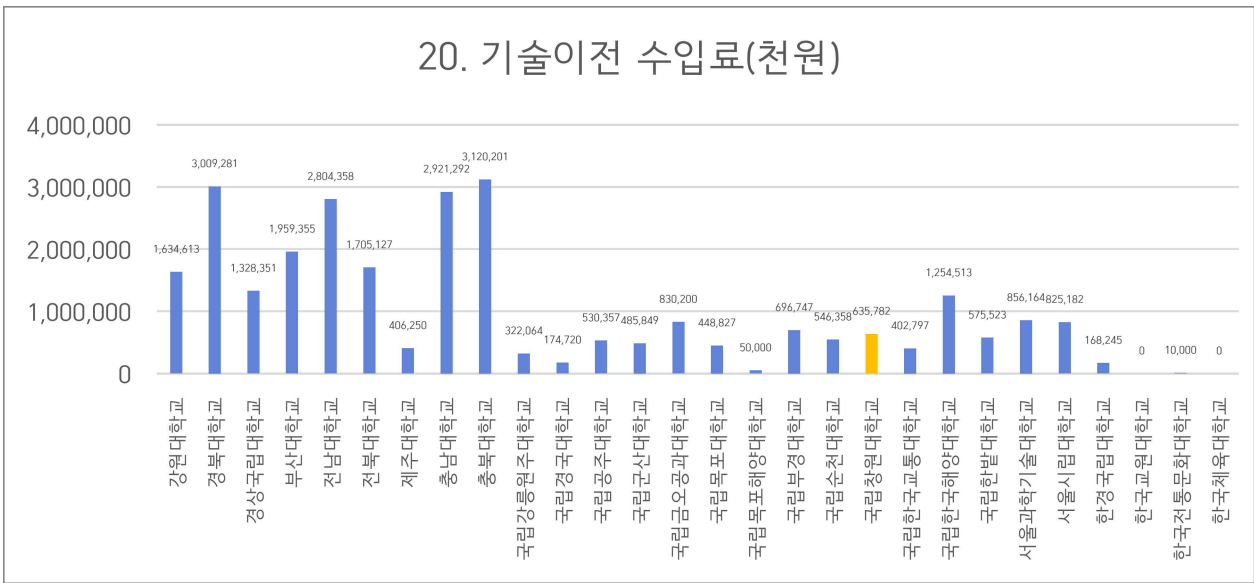
□ 실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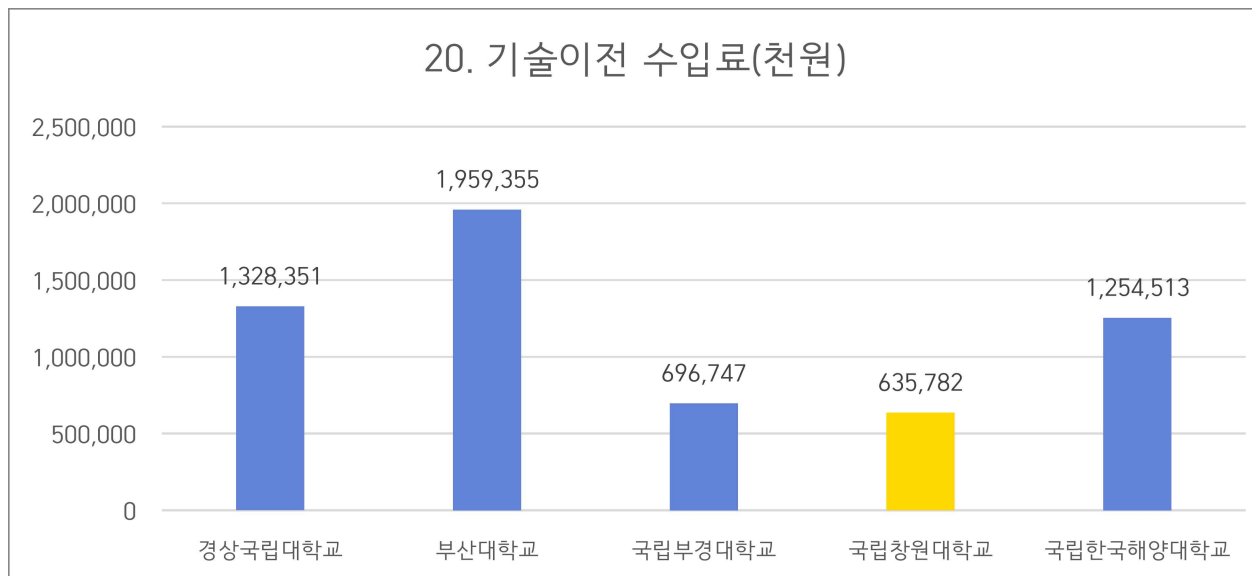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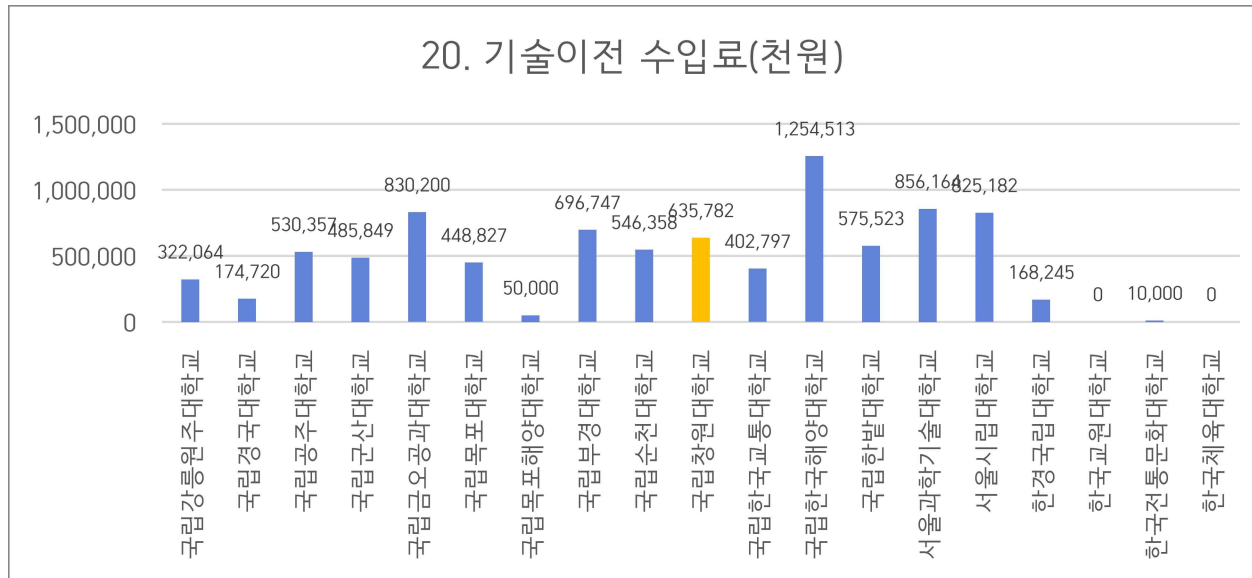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분	건 수	수입료 (A)	비고
2023	74	487,396	
2024	66	635,781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기술이전 수입료	20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6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4위





□ 현황분석

- 2023년도 기술료는 487,396천원, 2024년도 기술료는 6,35,781천원으로 기술료 수익이 30% 증가하였다.
- 또한 2023년도 1건당 기술료는 6,586천원이지만, 2024년도는 1건당 기술료가 9,633천원으로 기술이전 건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수익이 크게 증가하여, 기술의 질적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 개선방안

- 다음 표는 2024년 기준 교수 1인당 기술이전 건수를 비교한 현황이다.

대학	기술료(천원)	전임교원수	1인당 기술료
경상국립대학교	1,328,351	1,050	1,265천 원
부산대학교	1,959,355	1,442	1,359천 원
국립부경대학교	696,747	630	1,106천 원
국립창원대학교	635,781	345	1,843천 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1,254,513	282	4,447천 원

- 2024년 국립창원대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635,781천 원으로 전임교원 345명 대비 교수 1인당 1,843천 원을 기록하였다.
-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부산대학교는 1,359천 원, 경상국립대는 1,265천 원, 국립부경대는 1,106천 원으로 나타나, 국립창원대는 세 대학 대비 1.3~1.6배 높은 교수 1인당 기술료 생산성을 확보했다. 이는 대규모 연구 인력 기반을 가진 부산대나 경상국립대와 비교해도, 교수 개인 단위의 기술 상업화 성과에서 창원대가 더 효율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고부가 기술 중심의 전환, 패키징 계약 확산, 기업 수요 기반 기술 개발 강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질적 성과 확대 전략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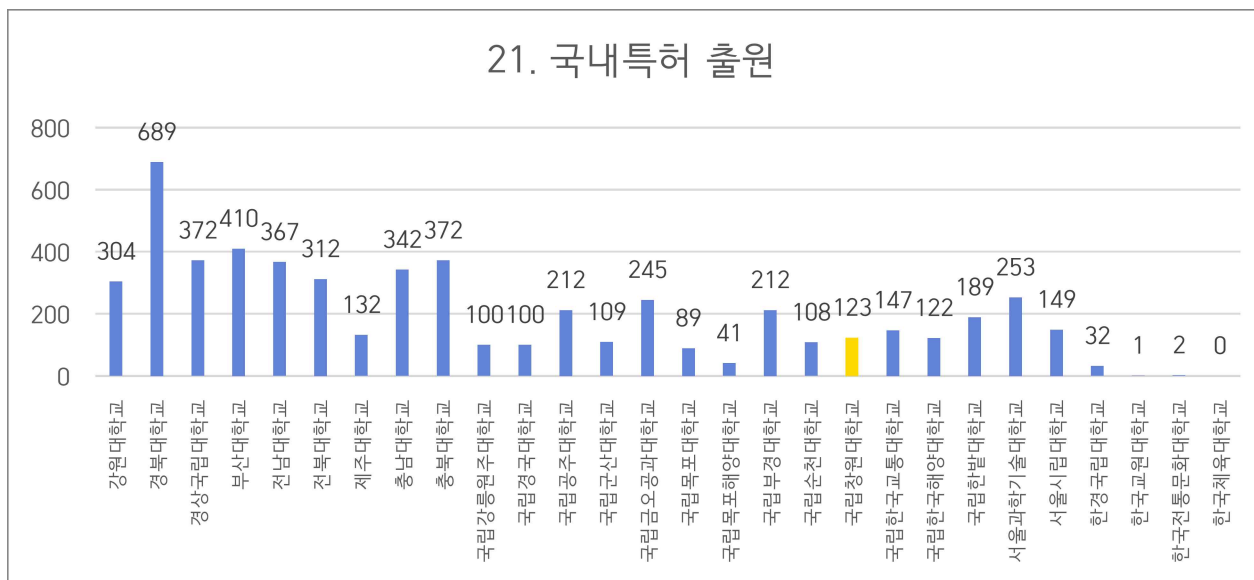
4.21 국내특허 출원(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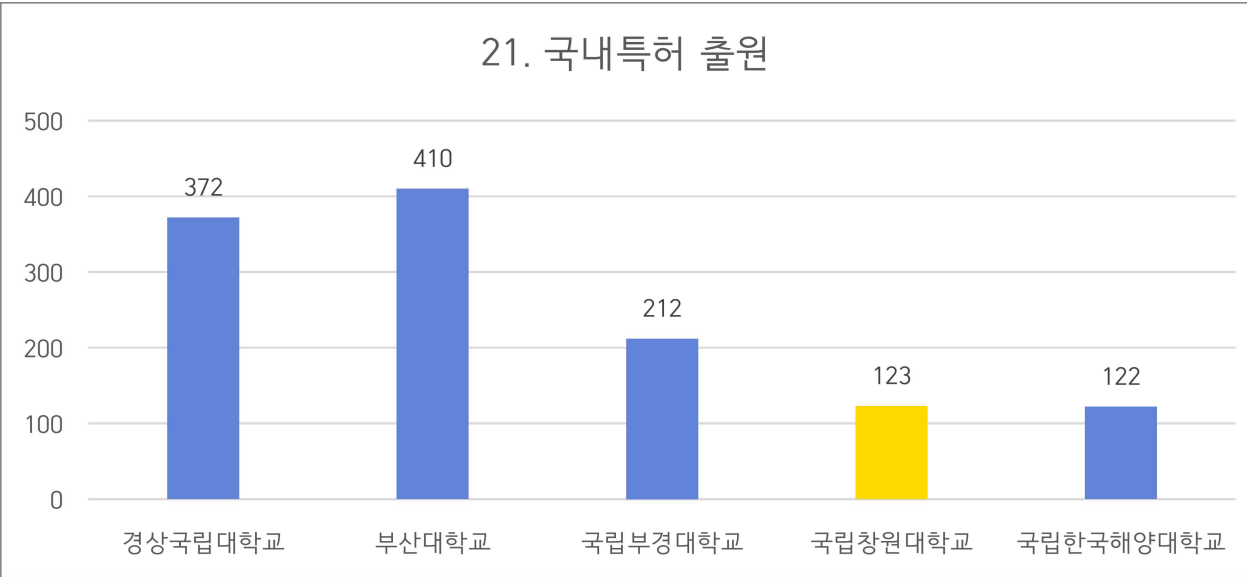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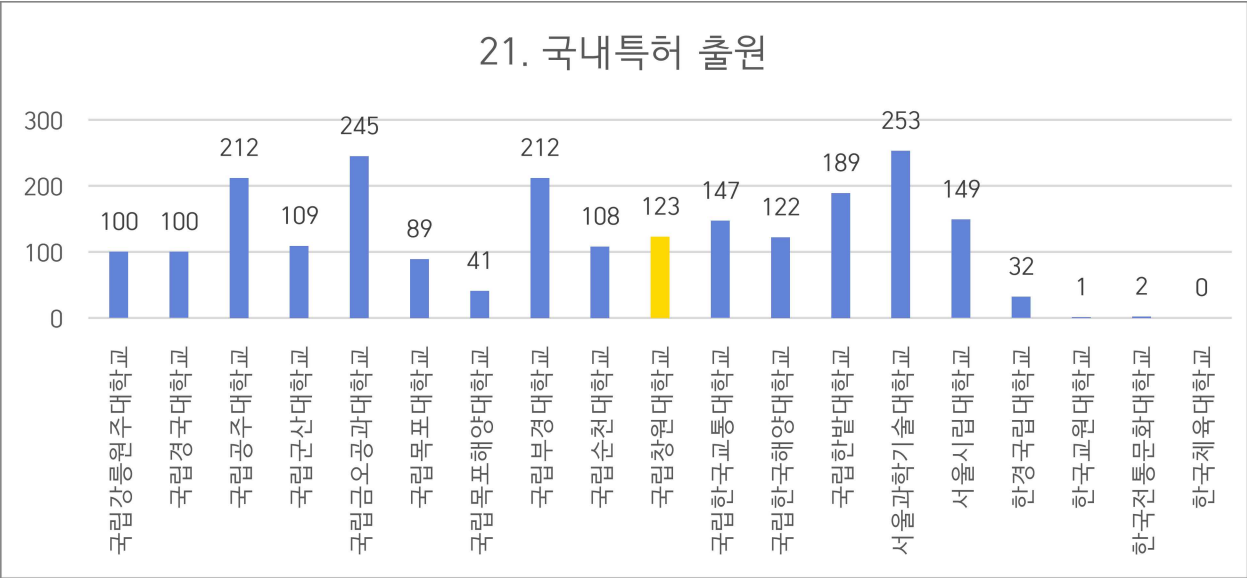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분	국내특허		비고
	출원(A)	등록	
2023	124	55	
2024	123	81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국내특허 출원	10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8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7위







□ 현황분석

- 우리 대학의 국내 출원 건수는 2023년 124건, 2024년 123건으로 1건 감소하였다.
- 전국 28개교 국립대학교 비교하여 17위로 평균건수 보다 조금 낮고, 19개교 지역 중심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8위로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개선방안

- 국내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상황으로, 전체 출원건수는 28개교 국립대학 및 19개교 지역중심 대학의 평균에 비하여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이다.
-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전략적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특허로 연결할 수 있는 초기 인식 제고를 위한 신입교원 대상 지식재산권 컨설팅 진행
 - 특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발명, 출원현황, 연차료 관리 등 전자 관리체계 마련
- 다만, 국내특허 출원에 있어 단순 건수 확대보다는 등록 가능성과 기술 활용도가 높은 발명을 중심으로 출원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발명신고 단계에서 신규성/진보성/사업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술평가 및 출원 승계 절차를 강화하여 고품질 특허 출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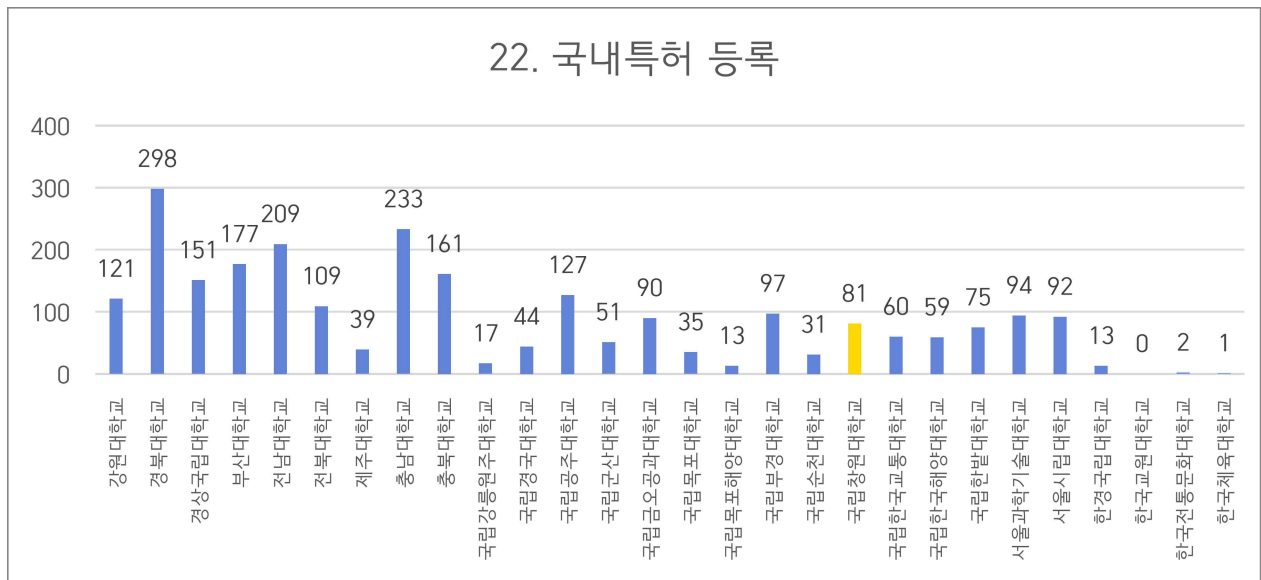
4.22 국내특허 등록(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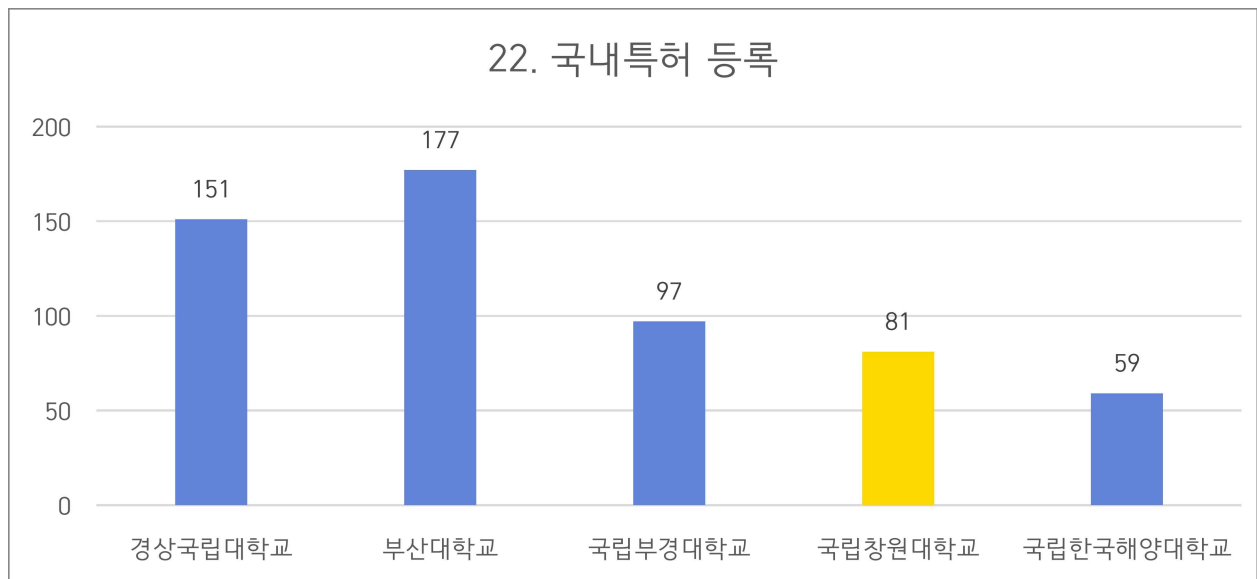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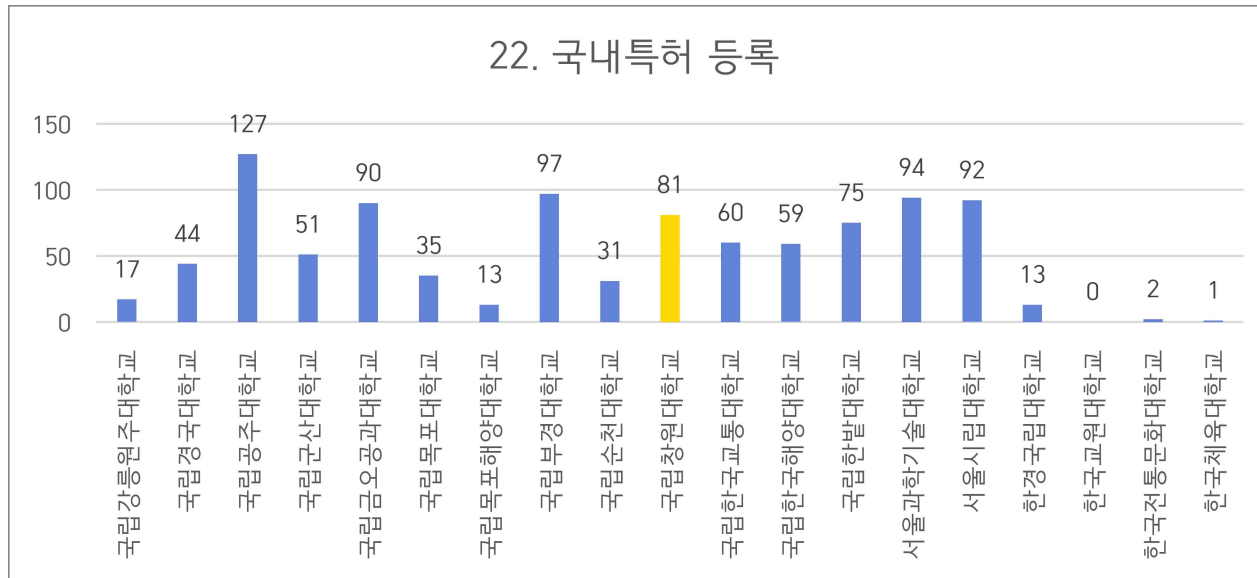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분	국외특허		비고
	출원	등록(A)	
2023	124	55	
2024	123	81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국내특허 등록	10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6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4위





□ 현황분석

- 우리 대학의 국내 등록 건수는 2023년 55건, 2024년 81건으로 26건(47.3%)이 증가하였다.
- 2024년 기준 국내특허 등록 실적은 전국 28개교 국립대학교 비교하여 14위, 19개교 지역 중심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6위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개선방안

- 현재 출원 건수는 유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 건수를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향후 무분별한 출원 확대보다는 고품질 특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출원 이후 등록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심사 대응 및 후속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출원대비 등록 전환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등록 특허를 기반으로 연속/개량 출원 및 기술이전 연계 출원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출원 및 등록 성과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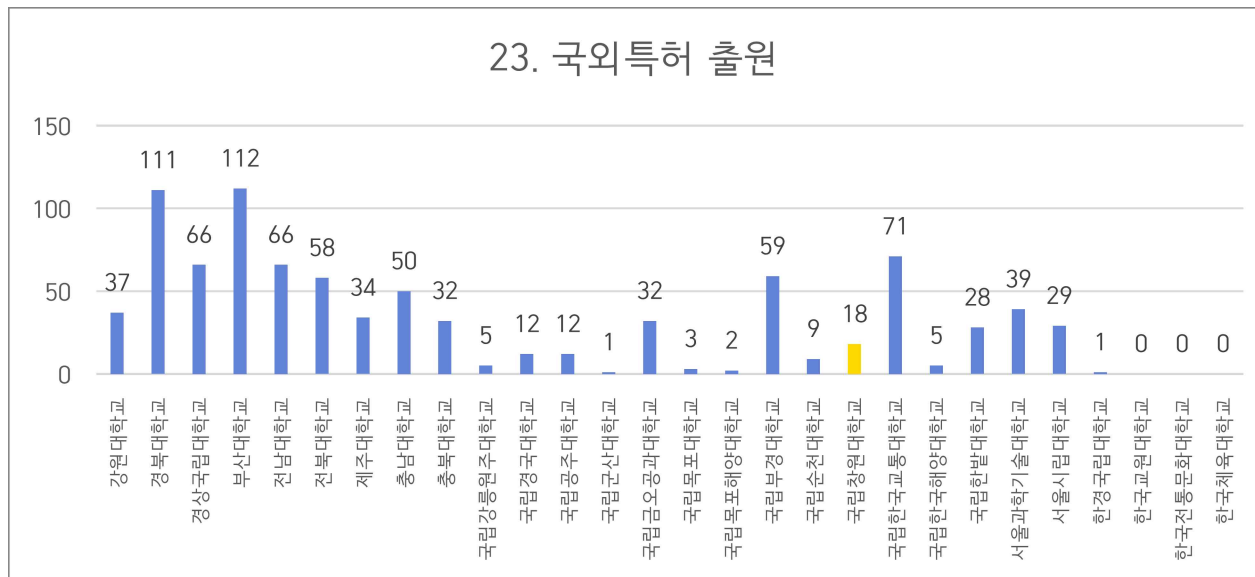
4.23 국외특허 출원(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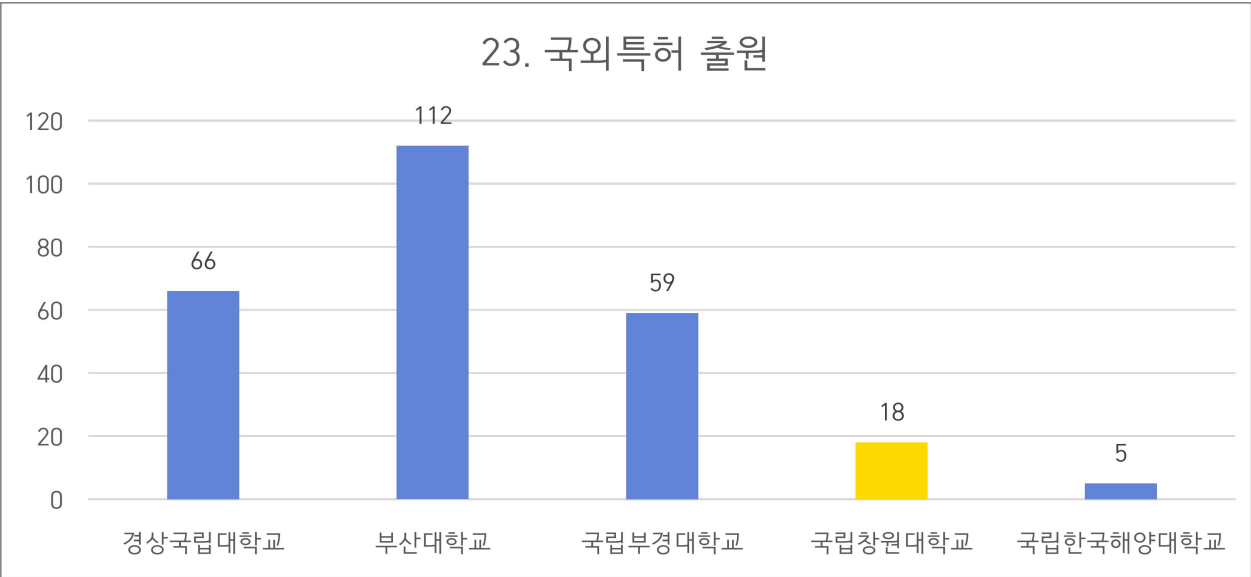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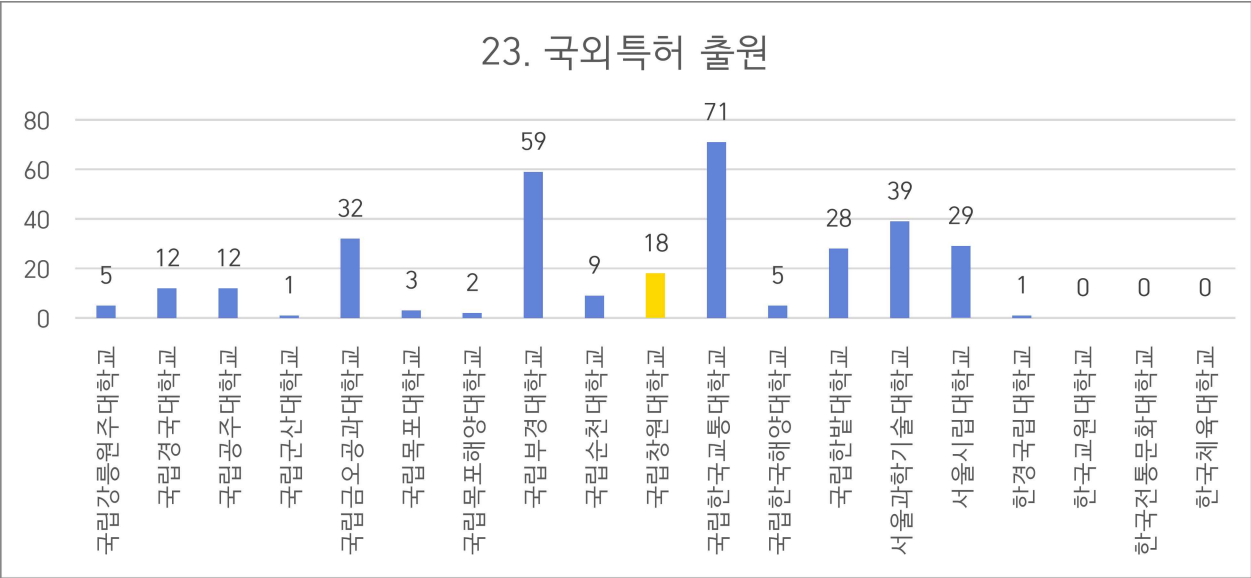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분	국외특허		비고
	출원(A)	등록	
2023	11	1	
2024	18	1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국외특허 출원	10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7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6위







□ 현황분석

- 우리 대학의 국외특허 출원 건수는 2023년 11건, 2024년 18건으로 7건이 증가하였다.
- 2024년 기준 국외특허 출원 실적은 전국 28개교 국립대학교 비교하여 16위, 19개교 지역 중심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7위로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개선방안

- 국외특허 출원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학 연구성과의 글로벌 권리화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해외특허의 경우 국내 특허에 비해 행정적인 노력과 기한적인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전략적 가치가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TLO추천 해외출원 후보를 선정하여 국외특허 출원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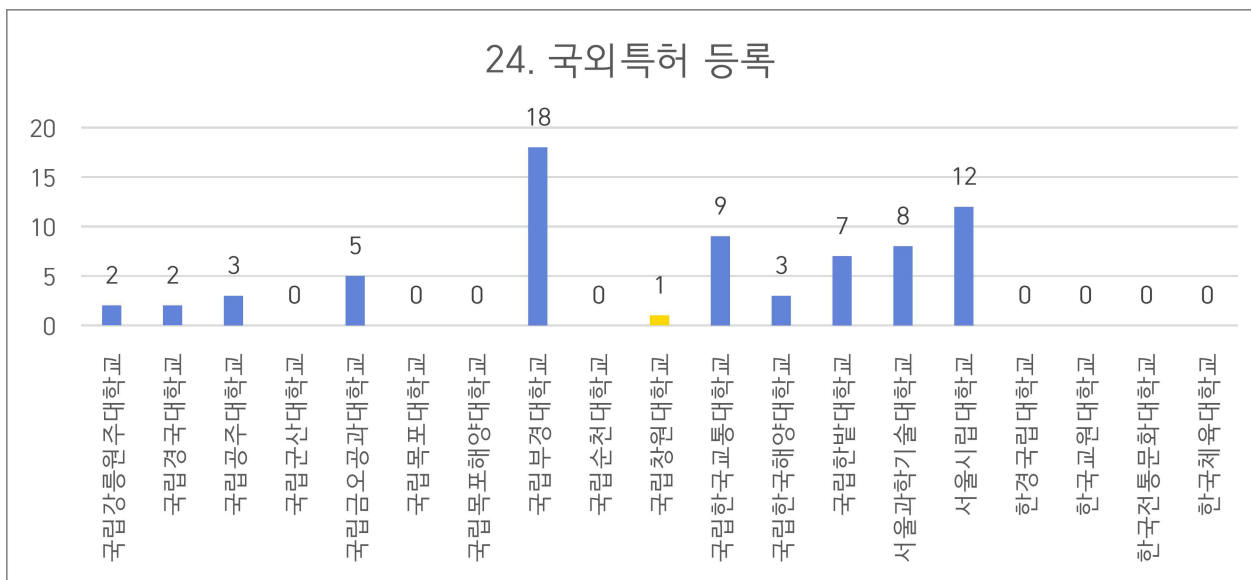
4.24 국외특허 등록(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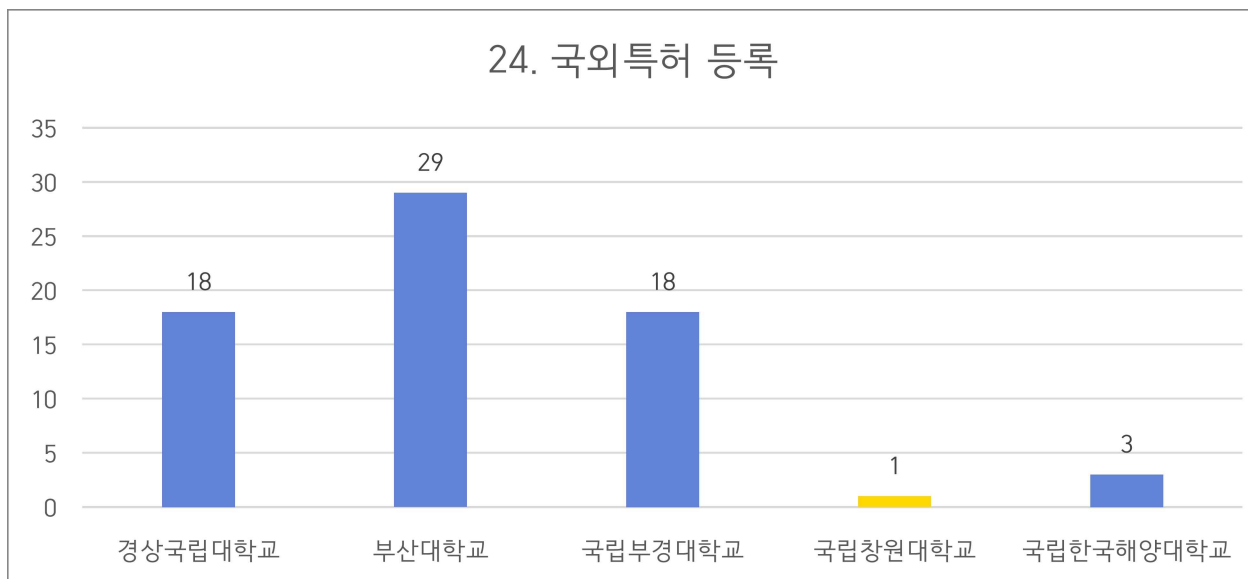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분	국외특허		비고
	출원	등록(A)	
2023	11	1	
2024	18	1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국외특허 등록	10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1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20위





□ 현황분석

- 우리 대학의 국외특허 등록 건수는 2023년 1건, 2024년 1건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 2024년 기준 국외특허 등록 실적은 전국 28개교 국립대학교 비교하여 20위, 19개교 지역 중심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11위 수준이다.

□ 개선방안

- 국외 특허등록 건수는 중하위권으로 중위권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최소 2~3건의 등록 건수가 필요하다.
- 국외특허 출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등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수준으로 국외 특허는 비용 부담 및 장기간의 심사 절차로 인해 국가단계 진입 또는 등록유지가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 따라서, 국외 심사 대응 및 등록 전략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국외특허 출원 단계에서부터 등록 목표 국가를 명확히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5. 재정(150점)

5.25 교육비 환원율(5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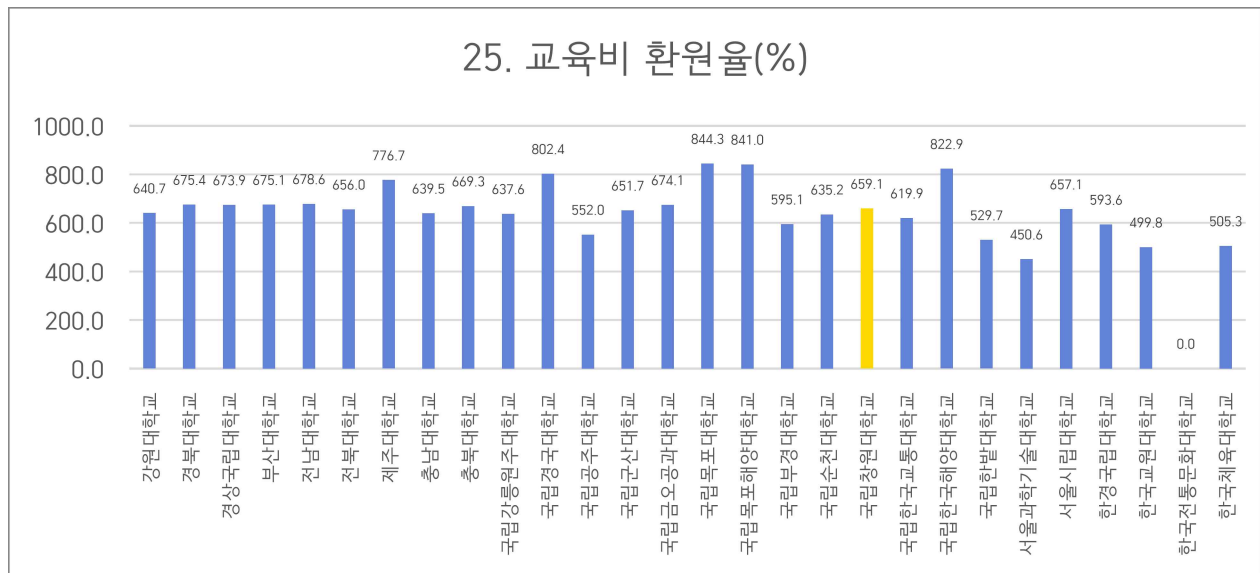
☐ 실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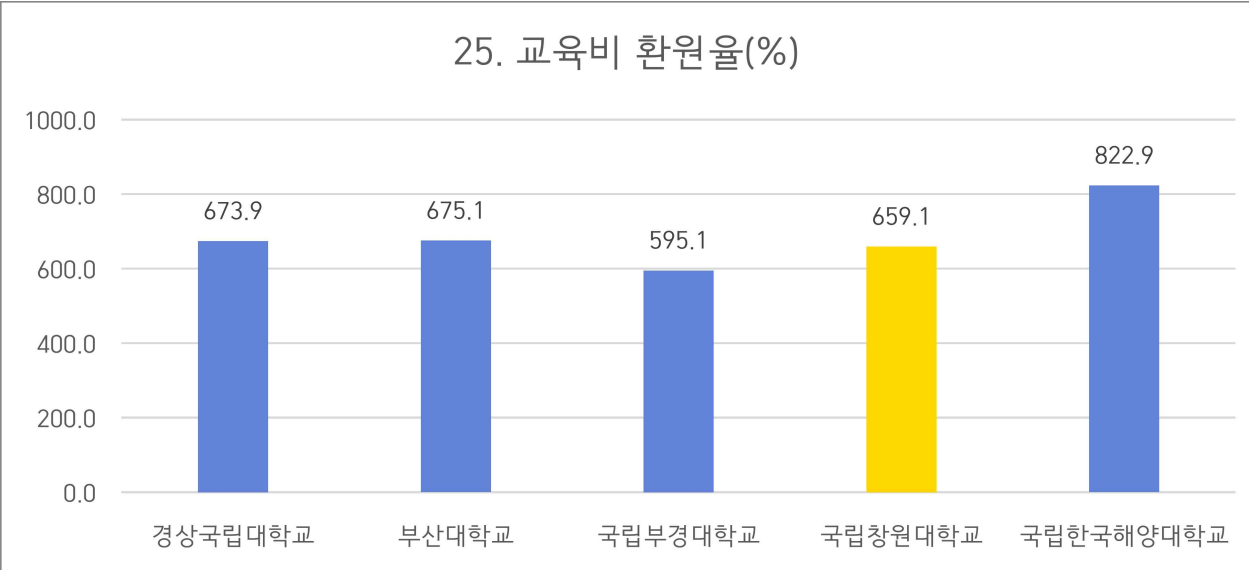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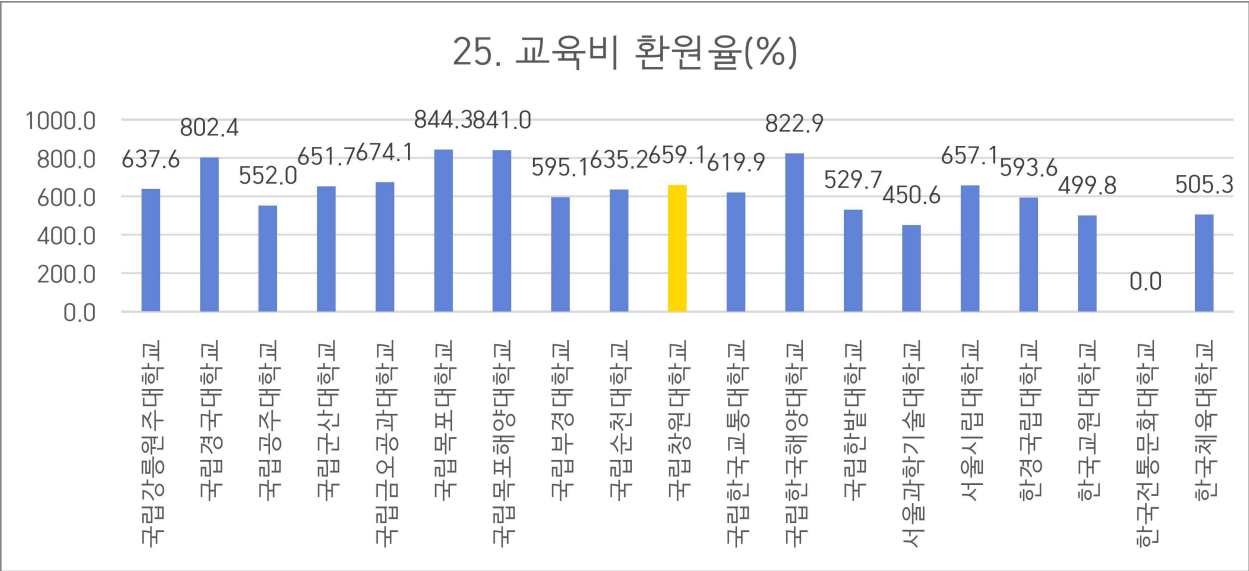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구분	등록금총수입(A)	교육비(B)	교육비환원율 $C=B/A \times 100$
2023	28,885,347	193,982,506	671.6
2024	29,054,271	191,502,777	659.1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교육비 환원율	50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 6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2위







□ 현황분석

- 교육비 환원율은 2023년 671.6%에서 2024년 659.1%로 소폭 하락하였다. 이는 등록금 총수입이 증가한 반면, 교육비 지출이 다소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 그러나, 2024년 기준 교육비 환원율은 19개 지역중심국립대학 중 6위, 28개 국립대학 중 12위로, 비교적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이는, 등록금 수입 대비 교육·연구·학생지원 분야에 재원이 충분히 재투자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립창원대학교는 전반적으로 교육 중심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최근 2년간 환원율이 소폭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비 투자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개선방안

- 교육비 환원율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교육·연구·학생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핵심 교육비 지출 항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 해야 한다.
- 단순 지출 확대보다는 교육성과와 직접 연계되는 항목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여, 교육비 환원율이 교육의 질 향상으로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시 교육비 환원율을 핵심 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등록금 수입 변화, 국고·지방비 지원, 외부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해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 중심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안정적 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26 장학금 지급률(5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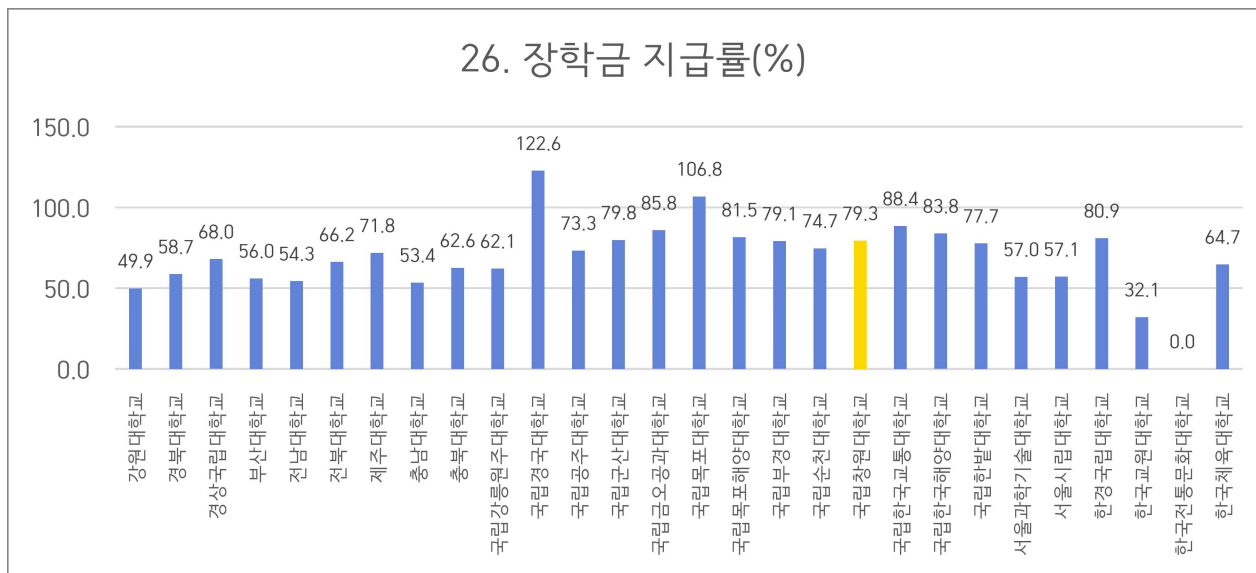
□ 실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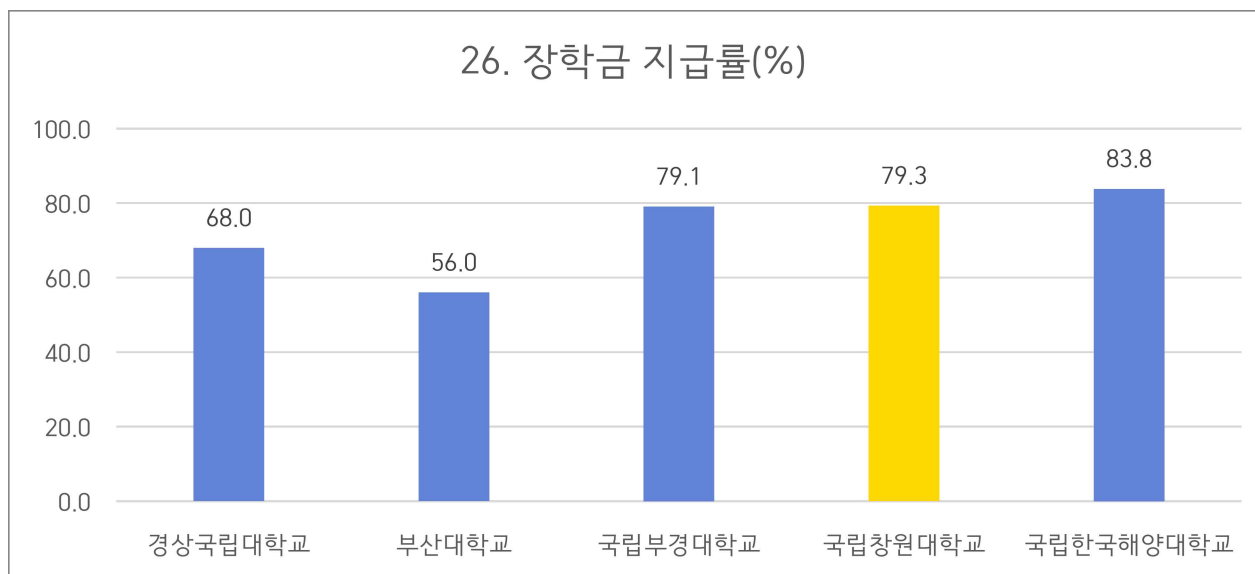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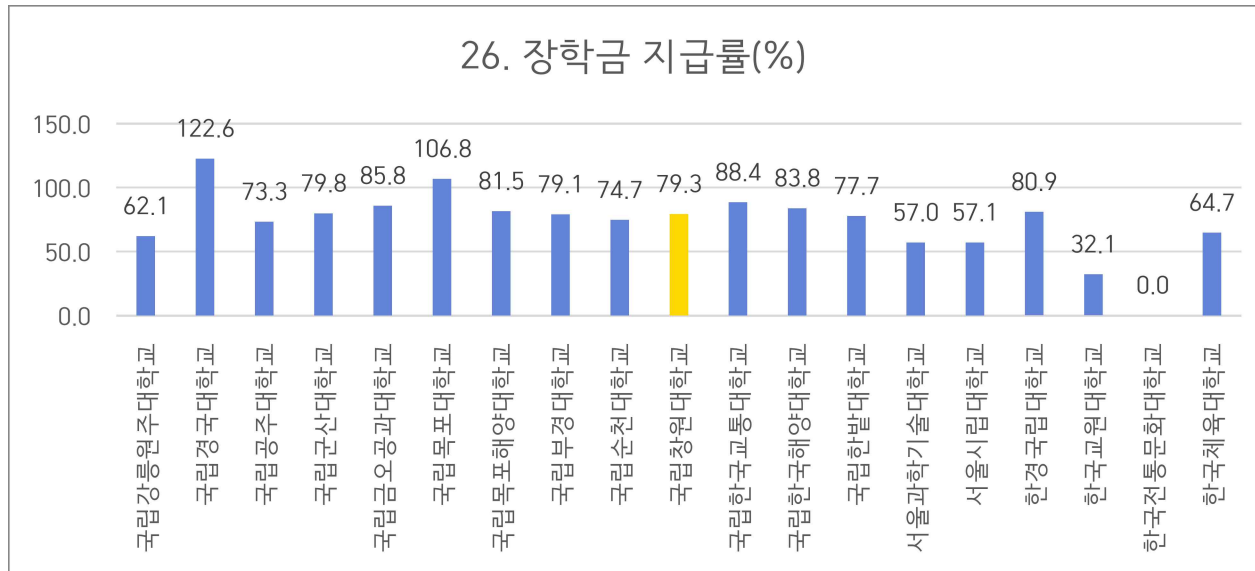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구분	등록금 수입총액(A)	교내.외 장학금(B)	장학금 지급률 $C=B/A \times 100$
2023	28,885,347	21,638,516	74.9
2024	29,054,271	23,036,121	79.3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장학금 지급률	50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 9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9위





□ 현황분석

- 2023년도의 경우 등록금 수입총액 28,885,347 대비 교내.외 장학금 21,638,516 (단위:천원) 으로 장학금 지급률은 74.9%를 기록하였다.
- 2023년도 장학금 지급률은 74.9%에서 2024년도 79.3%로 4.4%p 증가하였으며, 28개 국립대학 기준으로 현재 9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개선방안

- 다음 표는 2023 대비 2024년 장학금 시행세칙 개정이다.

구분		2023	2024	비고
명칭변경		■ 브레인창원 (수능 4개영역 평균2 등급이내)	■ 입학성적우수 I (수능 4개영역 평균2 등급이내)	
		■ 미래글로벌인재 (수능2%, 모집단위3%, 계열3%)	■ 입학성적우수 II (수능2%, 모집단위3%, 계열3%)	
		■ 봉림인재 (모집단위 10%, 단과대학 10%)	■ 입학성적우수 III (모집단위 10%, 단과대학 10%)	
장학신설		-	■ 입학성적우수 IV (모집단위 30% / 수업료1 해당액 / 한 학기)	
추가 지원	2023브레인 창원 입학성적 우수 I	■ 등록금 전액(수업연한) ■ 기숙사 우선배정	■ 등록금 전액(수업연한) ■ 기숙사 우선배정 ■ 교재구입비 100만원(1회) ■ 본교 대학원(석사) 등록금 전액지원(수업연한)	■ 최근 3년 등록자 는 없으나 우수 학생 유치 노력 을 위한 상징적 수단
	미래글로벌 인재 입학성적 우수 II	■ 등록금 전액(2년) ■ 기숙사 우선배정	■ 등록금 전액(2년) ■ 기숙사 우선배정 ■ 교재구입비 50만원(1회) ■ 본교 대학원(석사) 등록금 전액지원(수업연한)	■ 등록률(평균 : 40~45%)

- 입학성적우수 장학금인 ‘브레인창원’, ‘미래글로벌인재’, ‘봉림인재’ 장학명칭 인지의 어려움으로 입학성적우수 장학생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 대학 신입생 유치 및 중도탈락 방지를 위하여 차상위권 입학성적 우수자를 위한 한 학기 장학금 신설 등 지속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 최상위권 장학학생에 대한 추가지원 전액 등록금 지원과 기숙사 우선배정은 타 대학에 비해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유인책으로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개선해야 한다.
- 가계곤란 생활비성 장학예성 추가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신설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 국가근로장학 참여로 학생들의 방학 중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하계.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편성으로 근로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 국가근로장학에서 교외근로기관의 매칭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 근로 연계로 이동 부담을 줄여 근로 만족도를 높이는 등 국가근로제도의 실효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교외장학금 확대를 통한 학비부담 완화 및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 교외장학금 ('23년) 5,511명 16,341,573천원 → ('24년) 5,716명 17,648,100천원

** 국가근로장학금 ('23년) 469명, 1,027,962천원 → ('24년) 505명, 1,514,950천원



5.27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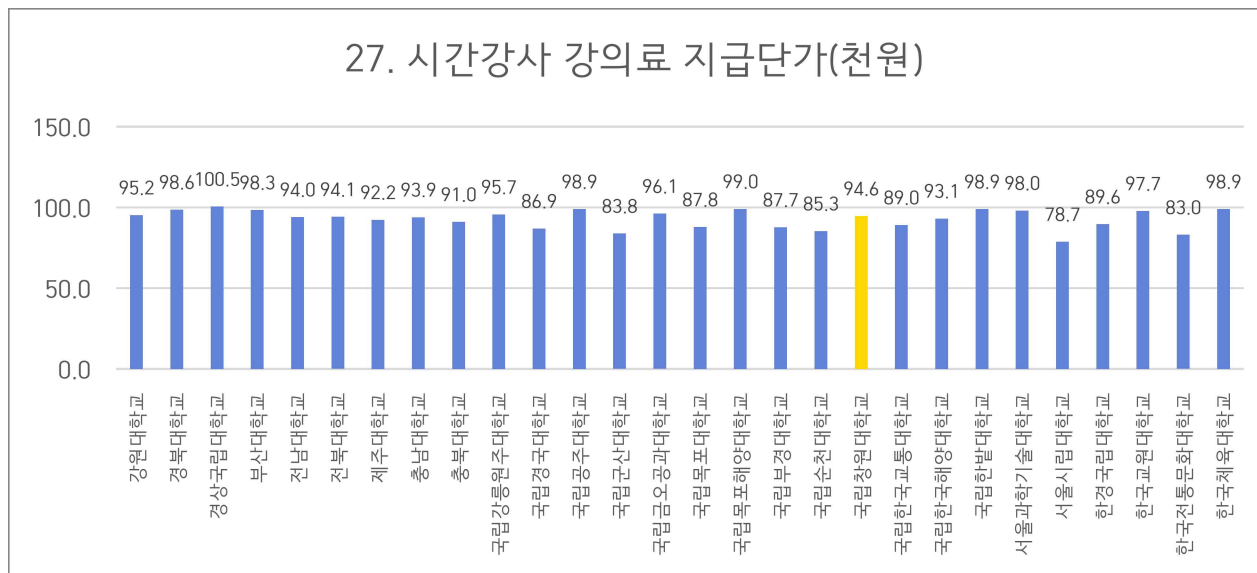
□ 실적현황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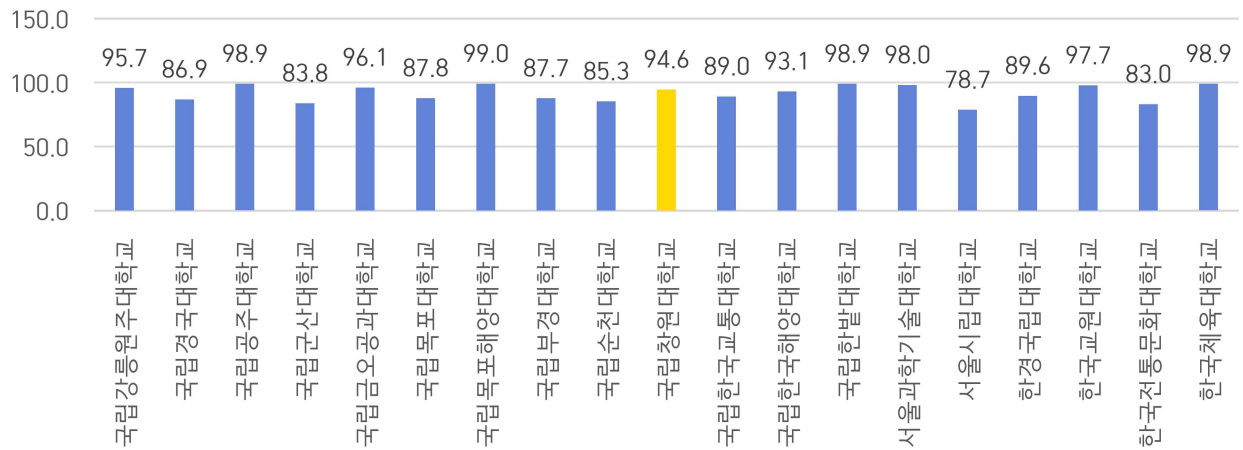
구분	등급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A)	총 강의시간 수(B)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 $\Sigma(A \times B) / \Sigma B$
2023	48.2	1,260	93.1
	68.3	360	
	96.5	17,712	
	96.5(야간)	1,275	
2024	32.9	540	94.6
	49.4	900	
	65.9	360	
	98.9	18,120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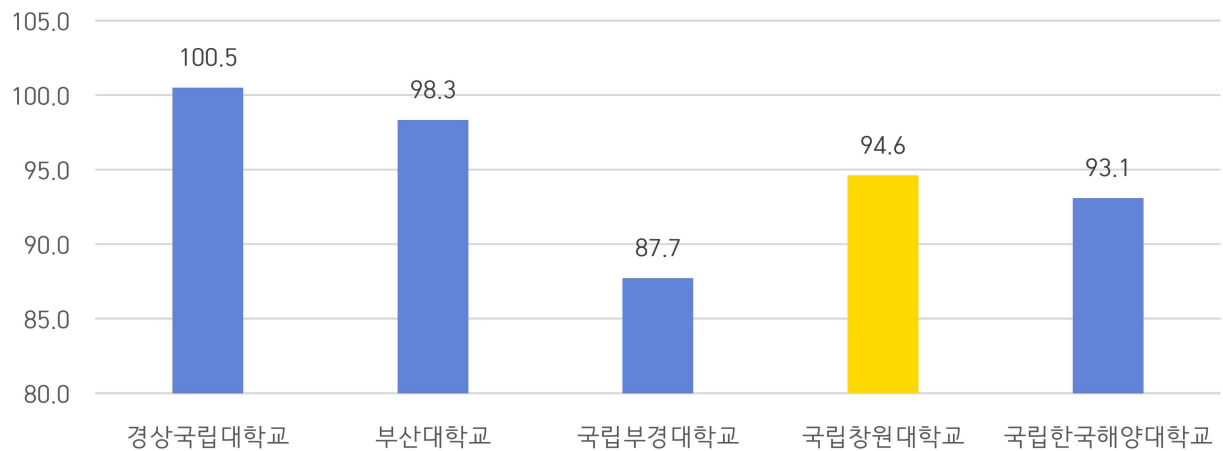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	10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 9위
		28개교 국립대 중 13위



27.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



27.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





□ 현황분석

- 국립창원대학교의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는 2023년 93.1, 2024년 94.6으로 나타나, 최근 2년간 소폭 상승하였다. 2024년 기준 이 수치는 지역중심국립대 평균 범위(대략 90~95 수준)에 해당하며, 국립공주대(98.9), 국립금오공대(96.1), 국립한밭대(98.9)보다는 낮지만, 국립군산대(83.8), 국립순천대(85.3), 부경대(87.7)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 재정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립창원대학교의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는 지역중심국립대 및 전체 국립대 기준 모두 '중위'로 평가되며, 최저 수준은 아니지만 상위권과는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는 국립창원대학교가 시간강사 처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 투자 측면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 개선방안

- 국립창원대학교의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는 지역중심국립대 중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급격한 단가 인상보다는 구조적·단계적 개선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시간강사 의존도가 높은 교양 및 기초과목을 중심으로 강의료 지급단가를 우선적으로 조정해 교육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 과목을 반복적으로 담당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근속 기간이나 강의 실적을 반영한 차등 지급 방식을 도입하면서 강의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 또한 강의 평가 결과, 학생 만족도, 수업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한 성과 연계형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제한된 재정 범위 내에서도 우수 강사의 교육 몰입도를 높이고 강의 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아울러 야간·집중 이수 강의 등 부담이 큰 강의 유형에 대해 가산 단가를 적용하면 강사 확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비전임교원 강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관리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시간강사 처우 개선으로 환류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시간강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학부 중심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28 등록금 비율(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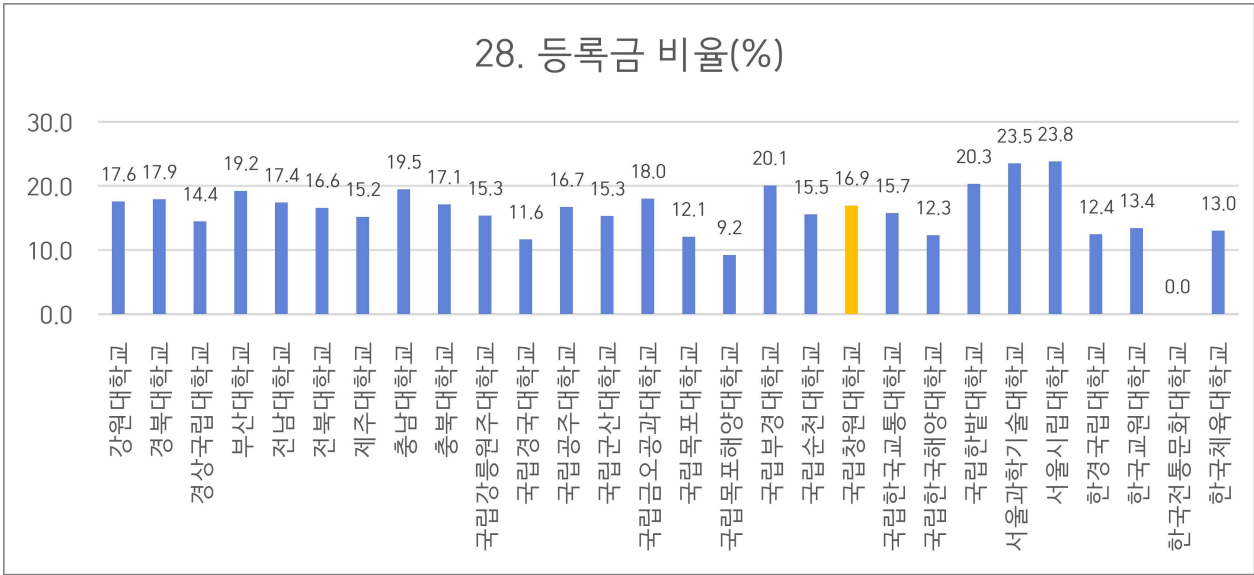
☐ 실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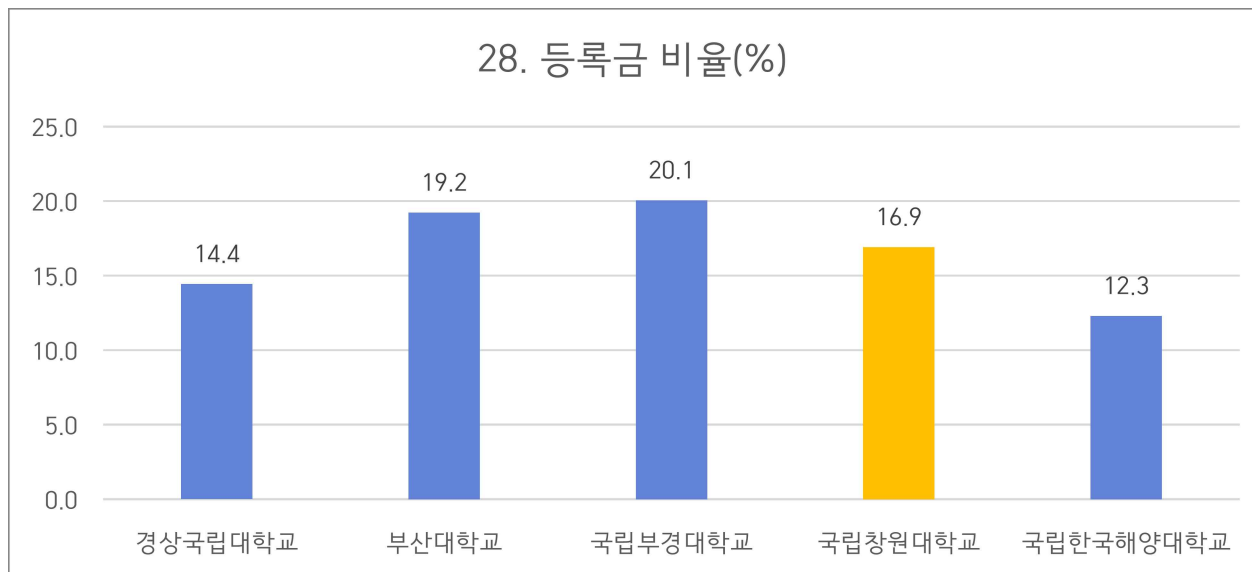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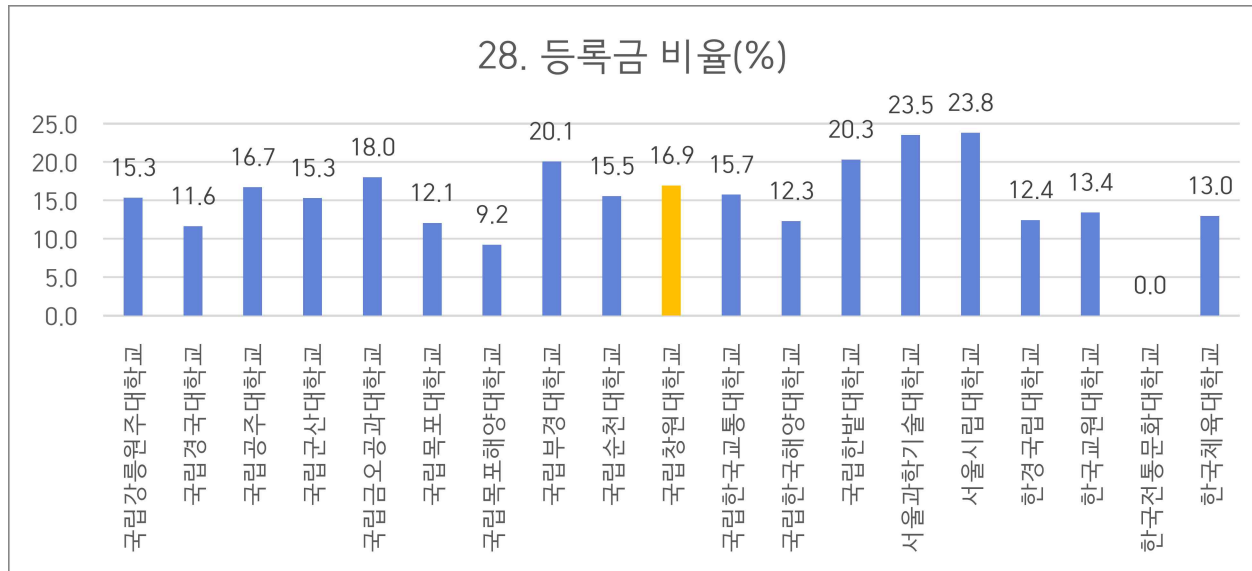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구분	등록금(A)	총 세입(B)	등록금 비율 A/B×100
2023	28,885,347	179,230,860	16.1
2024	29,054,271	171,747,346	16.9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등록금 비율	20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 6위
		28개교 국립대 중 12위





□ 현황분석

- 국립창원대학교의 등록금 비율은 2023년 16.1%에서 2024년 16.9%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총 세입 규모가 감소한 상황에서 등록금 수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 2024년 기준 등록금 비율은 19개 지역중심국립대학 중 6위, 28개 국립대학 중 12위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등록금 비율이 과도하게 높지 않다는 점은 국고보조금, 자체수입 등 다양한 재원에 기반한 재정 구조가 일정 부분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다만, 최근 등록금 비율이 소폭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등록금 의존도가 확대되지 않도록 재정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개선방안

- 등록금 비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지방비, 산학협력 수입, 기부금 등 비등록금 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재정 운용 시 등록금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등록금 비율 변동 추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교육·연구 성과와 연계된 외부재원 유치 전략을 강화하여, 등록금 인상이나 의존도 확대 없이도 교육여건 개선이 가능하도록 재정 구조를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 이를 통해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중시하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29 기부금 비율(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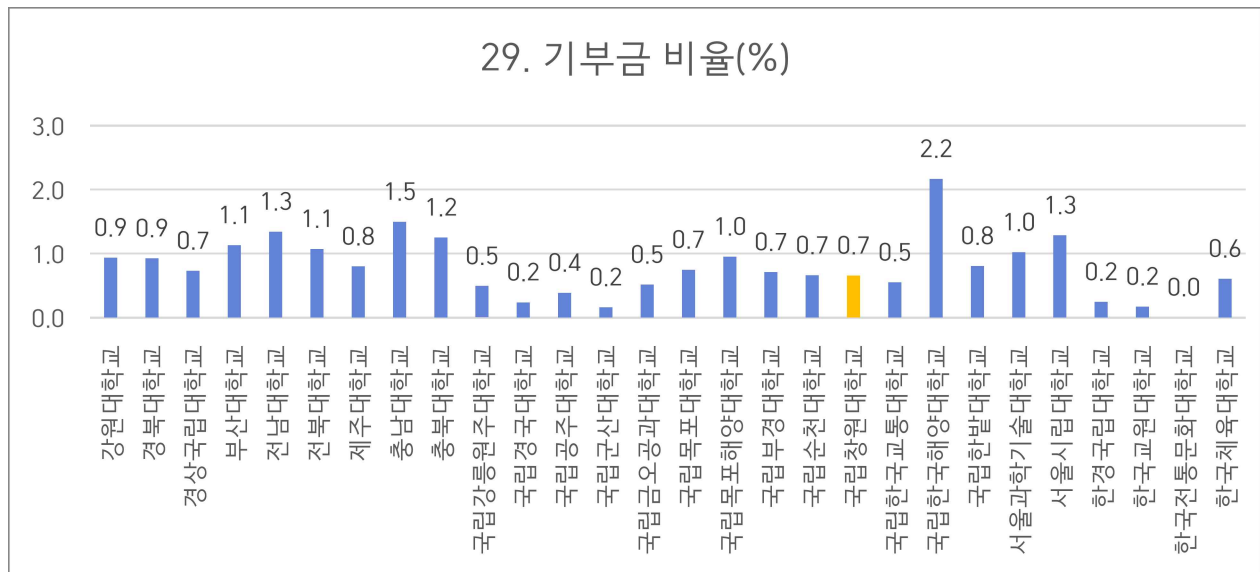
□ 실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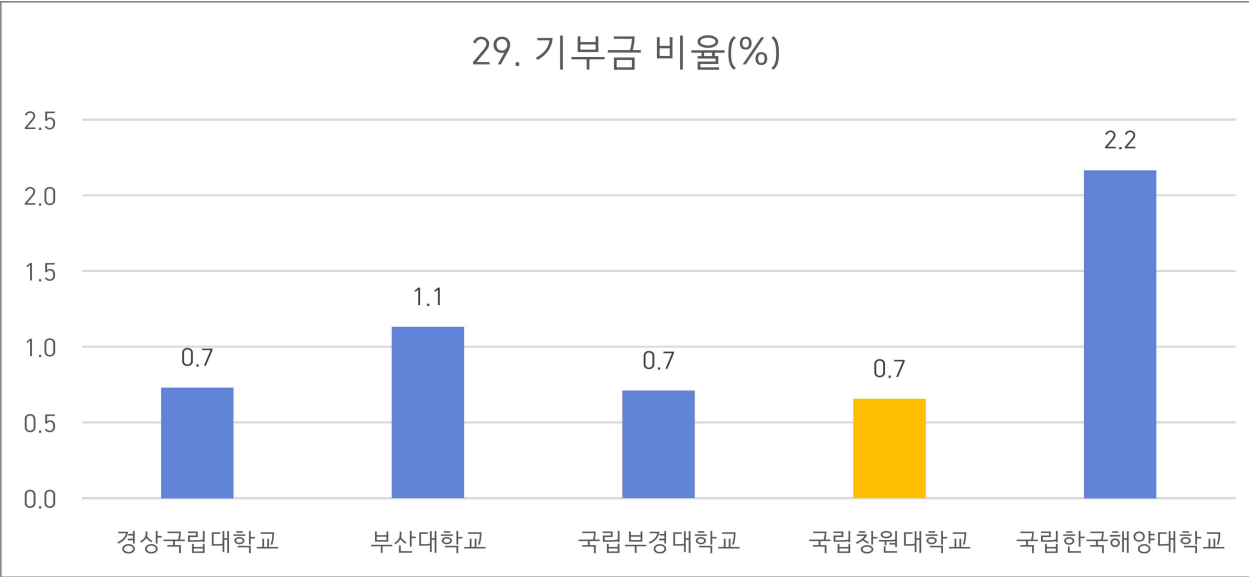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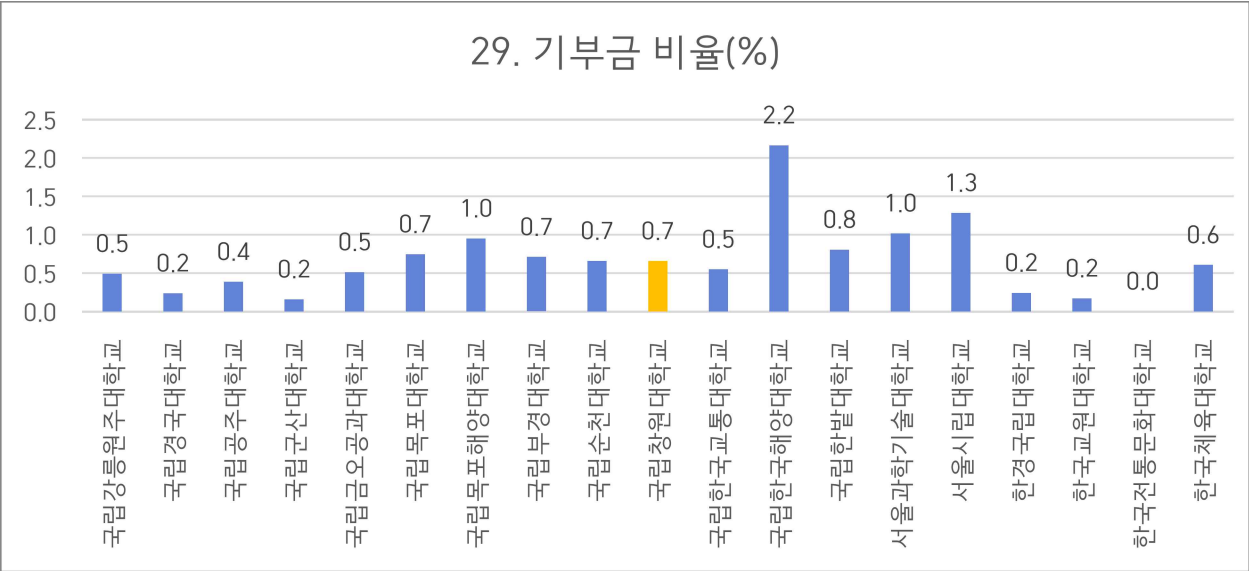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구분	기부금 총액(A)	세입총액(B)	기부금 비율 $C=A/B \times 100$
2023	983,178	179,230,860	0.54
2024	1,125,540	171,747,346	0.65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기부금 비율	20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 9위
		28개교 국립대 중 18위







□ 현황분석

- 기부금 비율은 2023년 0.54%에서 2024년 0.65%로 증가하여, 최근 2년간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발전기금 조성 노력과 기부금 유치 활동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4년 기준 기부금 비율은 19개 지역중심국립대학 중 9위, 28개 국립대학 중 18위로, 전체 국립대학 대비 중위권 수준에 해당한다.
- 절대적인 기부금 규모와 비율은 아직 높지 않은 편이나, 등록금 외 재원 확보 측면에서 기부금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기부금 비율 제고를 위해 동문, 지역 기업,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대학발전기금의 활용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정기 기부, 목적형 기부, 소액 다수 참여형 기부 등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 지역 산업체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산학협력 기반 기부금 유치 모델을 발굴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성과와 연계된 기부금 사용 구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중장기적으로 기부금 비율을 대학 재정의 핵심 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기부금 유치 전략을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등록금 의존도를 완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6. 산학협력(150점)

6.30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10점)

☐ 실적현황

(단위 : 원)

구분	장비명	설비자산사용료 수익				
		합계(A)	일반회계	교비회계	산단회계	기타
2023	2ch 단축진동시험장비	0	0	0	0	0
2023	3D 표면 미세형상레이저 측정기	0	0	0	0	0
2023	3차원 정적 및 동적 측정시스템	32,340,000	0	0	32,340,000	0
2023	3차원측정기	13,600,000	0	0	13,600,000	0
2023	5축 고속머시닝센터	0	0	0	0	0
2023	5축 위치정밀도 분석시스템	0	0	0	0	0
2023	6자유도 진동내구성평가 시험장비	0	0	0	0	0
2023	DSC 열분석 시스템	547,080	547,080	0	0	0
2023	X-ray 3D CT Scanner	68,811,380	68,811,380	0	0	0
2023	X-ray 형광분석기 II	0	0	0	0	0
2023	X-ray 형광분석기(XRF)	15,844,690	15,844,690	0	0	0
2023	X-선 회절장치 II (분말용)	3,004,330	3,004,330	0	0	0
2023	X-선 회절장치 III	0	0	0	0	0
2023	X선 광전자분광기(XPS)	14,800,880	14,800,880	0	0	0
2023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GC-MSD)	15,190,465	15,190,465	0	0	0
2023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ECD)	185,050	185,050	0	0	0
2023	고분해능 X-선 회절분석기(HR/XRR/RMS/Stress/Texture)	20,250,000	20,250,000	0	0	0
2023	고분해능 전계방사 주사전자현미경	58,164,600	58,164,600	0	0	0
2023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FE-TEM/STEM/EDS/CCD/PIPS)	8,958,775	8,958,775	0	0	0
2023	고속 5축 가공기	32,260,000	0	0	32,260,000	0
2023	고온열분석기	0	0	0	0	0



2023	고진폭 진동시험평가 장비(복합환경챔버 포함)	18,240,000	0	0	18,240,000	0
2023	공초점레이저주사현미경	0	0	0	0	0
2023	광대역스캐너	5,005,000	0	0	5,005,000	0
2023	나노입자추적분석기	4,163,510	4,163,510	0	0	0
2023	다축 피로시험장비	0	0	0	0	0
2023	단백질 칩 분석기	0	0	0	0	0
2023	라만 분광광도계	616,140	616,140	0	0	0
2023	레오미터	560,000	560,000	0	0	0
2023	레이저 측정기	0	0	0	0	0
2023	리니어 모터의 이송속도 측정장치	0	0	0	0	0
2023	마이크로라만분광분석기	1,474,260	1,474,260	0	0	0
2023	만능인장시험기	0	0	0	0	0
2023	물성측정장치	386,800	386,800	0	0	0
2023	부식 전기화학분석기	0	0	0	0	0
2023	비표면적분석기(BET II)	280,000	280,000	0	0	0
2023	비표면적분석기(BET III)	6,868,060	6,868,060	0	0	0
2023	소리속도 측정 분석 시스템	0	0	0	0	0
2023	수직형머시닝센터	13,185,000	0	0	13,185,000	0
2023	스퍼터링시스템	0	0	0	0	0
2023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0	0	0	0	0
2023	액체삼광계수기	218,172	218,172	0	0	0
2023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15,140,100	15,140,100	0	0	0
2023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II	0	0	0	0	0
2023	에너지분산형 X-ray 형광분석기(EDXRF)	2,081,490	2,081,490	0	0	0
2023	열분석기	4,365,314	4,365,314	0	0	0
2023	열분석기 II	0	0	0	0	0
2023	영상 초음파 탐상기	20,000,000	0	0	20,000,000	0
2023	원소분석기(EA-CHNS/O)	0	0	0	0	0
2023	원소분석기(EA II)	1,958,220	1,958,220	0	0	0
2023	원자흡수분광광도계	0	0	0	0	0
2023	원자힘현미경(AFM)	1,988,005	1,988,005	0	0	0

2023	원평광 이색성 분광광도계	340,000	340,000	0	0	0
2023	웨이퍼 식각기	0	0	0	0	0
2023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ICP-OES)	575,365	575,365	0	0	0
2023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	0	0	0	0	0
2023	유전율/임피던스측정기	978,880	978,880	0	0	0
2023	이기종 설비 데이터 연계 컨트롤 시스템	0	0	0	0	0
2023	이동식 입체 형상 측정기	37,325,024	0	0	37,325,024	0
2023	입도분석기	1,355,120	1,355,120	0	0	0
2023	입도분석기	464,160	464,160	0	0	0
2023	입도분석기 III	0	0	0	0	0
2023	자동유세포분석기	0	0	0	0	0
2023	자외/가시선 분광광도계 II	1,677,560	1,677,560	0	0	0
2023	저전압주사전자현미경	11,043,485	11,043,485	0	0	0
2023	적외선분광분석기 II	3,859,810	3,859,810	0	0	0
2023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	11,017,980	11,017,980	0	0	0
2023	접촉각측정기	1,865,420	1,865,420	0	0	0
2023	정밀이온연마기	0	0	0	0	0
2023	주사전자현미경	1,277,330	1,277,330	0	0	0
2023	주축회전정밀도분석시스템	0	0	0	0	0
2023	증강현실(AR)기반 스마트공장 시스템	0	0	0	0	0
2023	진원도측정기	0	0	0	0	0
2023	초고속 측정용 일체형 밸런스 및 진동시험기	0	0	0	0	0
2023	충격시험기	0	0	0	0	0
2023	탄소 & 유황 분석기 (C.S)	863,400	863,400	0	0	0
2023	포토레지스트 노광기	0	0	0	0	0
2023	표면거칠기측정장치	1,425,000	0	0	1,425,000	0
2023	필드발란싱장치	0	0	0	0	0
2023	핵자기공명분광기	1,373,140	1,373,140	0	0	0
2023	형광-인광분석기	1,024,160	1,024,160	0	0	0
2023	회전체발란싱장치	0	0	0	0	0
소계		456,953,155				
2024	2ch 단축진동시험장비	0	0	0	0	0
2024	3차원 정적 및 동적 측정시스템	78,721,500	0	0	78,721,500	0
2024	5축 고속머시닝센터	0	0	0	0	0
2024	5축 위치정밀도 분석시스템	0	0	0	0	0
2024	6자유도 진동내구성평가 시험장비	0	0	0	0	0
2024	DSC 열분석 시스템	1,374,180	1,374,180	0	0	0
2024	X-ray 3D CT Scanner	42,228,650	42,228,650	0	0	0



2024	X-ray 형광분석기 II	10,719,820	10,719,820	0	0	0
2024	X-ray 형광분석기(XRF)	5,421,890	5,421,890	0	0	0
2024	X-선 회절장치 II (분말용)	90,000	90,000	0	0	0
2024	X-선 회절장치 III	3,452,170	3,452,170	0	0	0
2024	X선 광전자분광분석기(XPS)	18,968,230	18,968,230	0	0	0
2024	가스크로마토 질량분석기(GC-MSD) II	3,183,680	3,183,680	0	0	0
202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GC-MSD)	1,265,000	0	0	1,265,000	0
2024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ECD)	0	0	0	0	0
2024	고분해능 X-선 회절분석기(HR/XRR/RMS/Stress/Texture)	200,000	200,000	0	0	0
2024	고분해능 전계방사 주사전자현미경	37,644,080	37,644,080	0	0	0
2024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FE-TEM/STEM/EDS/CCD/PIPS)	96,700	96,700	0	0	0
2024	고분해능X선회절분석기	0	0	0	0	0
2024	고분해능투과전자현미경II	0	0	0	0	0
2024	고속 5축 가공기	64,480,000	0	0	64,480,000	0
2024	고진폭 진동시험평가 장비(복합환경챔버 포함)	20,600,000	0	0	20,600,000	0
2024	공초점레이저주사현미경	0	0	0	0	0
2024	광대역스캐너	8,327,000	0	0	8,327,000	0
2024	나노입자추적분석기	2,442,000	0	0	2,442,000	0
2024	나노입자추적분석기	145,050	145,050	0	0	0
2024	나노전자분무이온화인터페이스시스템	0	0	0	0	0
2024	다축 피로시험장비	0	0	0	0	0
2024	단백질 칩 분석기	0	0	0	0	0
2024	대형 3차원 측정기	23,920,000	0	0	23,920,000	0
2024	라만 분광광도계	2,276,110	2,276,110	0	0	0
2024	레오메터	0	0	0	0	0
2024	레이저 측정기	0	0	0	0	0
2024	마이크로라만분광분석기	231,000	0	0	231,000	0
2024	마이크로톰	0	0	0	0	0
2024	무기재료원소분석시스템	1,613,600	1,613,60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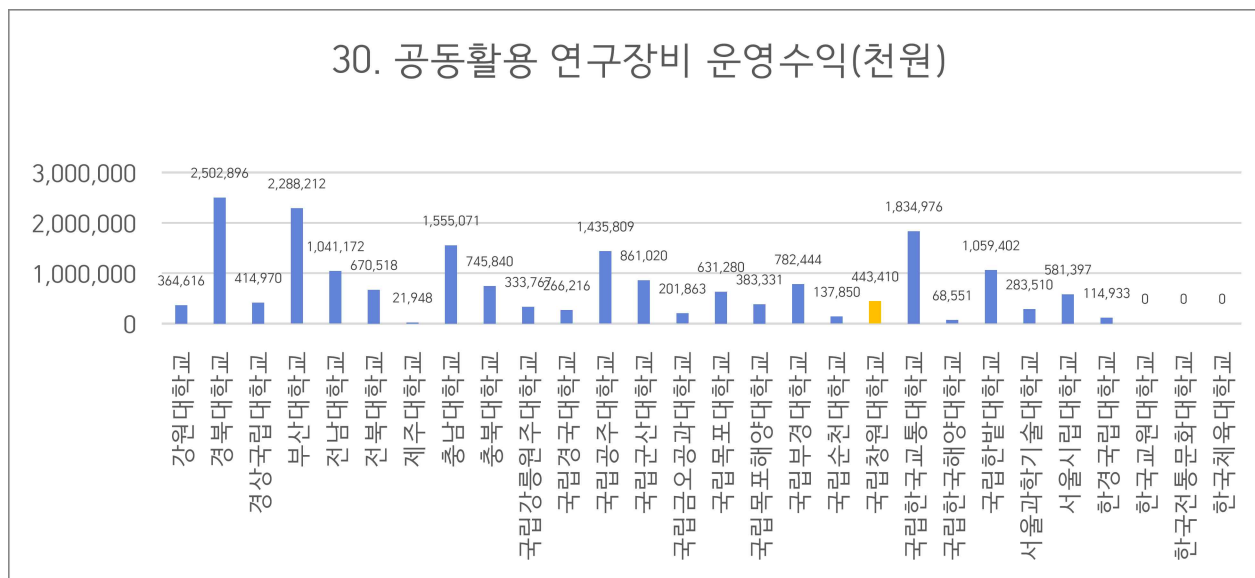
2024	물성측정장치	232,080	232,080	0	0	0
2024	부식 전기화학분석기	0	0	0	0	0
2024	비표면적분석기(BET II)	0	0	0	0	0
2024	비표면적분석기(BET III)	1,701,920	1,701,920	0	0	0
2024	비표면적분석기(BET III)	770,000	0	0	770,000	0
2024	소리속도 측정 분석 시스템	0	0	0	0	0
2024	수직형머시닝센터	18,810,000	0	0	18,810,000	0
2024	스퍼터링시스템	0	0	0	0	0
2024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0	0	0	0	0
2024	액체섬광계수기	0	0	0	0	0
2024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363,000	0	0	363,000	0
2024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II	96,700	96,700	0	0	0
2024	에너지분산형 X-ray 형광분석기(EDXRF)	3,058,040	3,058,040	0	0	0
2024	열분석기	464,160	464,160	0	0	0
2024	열분석기	1,039,500	0	0	1,039,500	0
2024	열분석기 II	3,819,440	3,819,440	0	0	0
2024	영상 초음파 탐상기	22,300,000	0	0	22,300,000	0
2024	원소분석기(EA II)	0	0	0	0	0
2024	원소분석기(EA II)	135,380	135,380	0	0	0
2024	원자흡수분광광도계	0	0	0	0	0
2024	원자힘현미경(AFM)	4,257,510	4,257,510	0	0	0
2024	원평광 이색성 분광광도계	682,000	0	0	682,000	0
2024	웨이퍼 식각기	0	0	0	0	0
2024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ICP-OES)	1,891,220	1,891,220	0	0	0
2024	유전율/임피던스측정기	2,552,610	2,552,610	0	0	0
2024	이기종 설비 데이터 연계 컨트롤 시스템	0	0	0	0	0
2024	이동식 입체 형상 측정기	16,456,000	0	0	16,456,000	0
2024	입도분석기	738,880	738,880	0	0	0
2024	입도분석기 III	0	0	0	0	0
2024	입도분석기II	1,054,920	1,054,920	0	0	0
2024	자동유세포분석기	0	0	0	0	0
2024	자외/가시선 분광광도계 II	352,000	0	0	352,000	0
2024	저전압주사전자현미경	8,915,370	8,915,370	0	0	0
2024	적외선분광분석기 II	1,306,770	1,306,770	0	0	0
2024	적외선분광분석기 II	0	0	0	0	0
2024	적외선분광분석기/FT-IR	690,760	690,760	0	0	0

2024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	6,501,030	6,501,030	0	0	0
2024	접촉각측정기	808,500	0	0	808,500	0
2024	정밀이온연마기	0	0	0	0	0
2024	주사전자현미경	681,520	681,520	0	0	0
2024	주축회전정밀도분석시스템	0	0	0	0	0
2024	증강현실(AR)기반 스마트공장 시스템	0	0	0	0	0
2024	진원도 측정기	0	0	0	0	0
2024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NGS	0	0	0	0	0
2024	탄소 & 유황 분석기 II	0	0	0	0	0
2024	포도레지스트 노광기	0	0	0	0	0
2024	표면 거칠기 측정기	15,312,000	0	0	15,312,000	0
2024	필드발란싱장치	0	0	0	0	0
2024	핵자기공명분광기	940,630	940,630	0	0	0
2024	핵자기공명분광기/ NMR	77,360	77,360	0	0	0
2024	형광-인광분석기	0	0	0	0	0
소계		443,409,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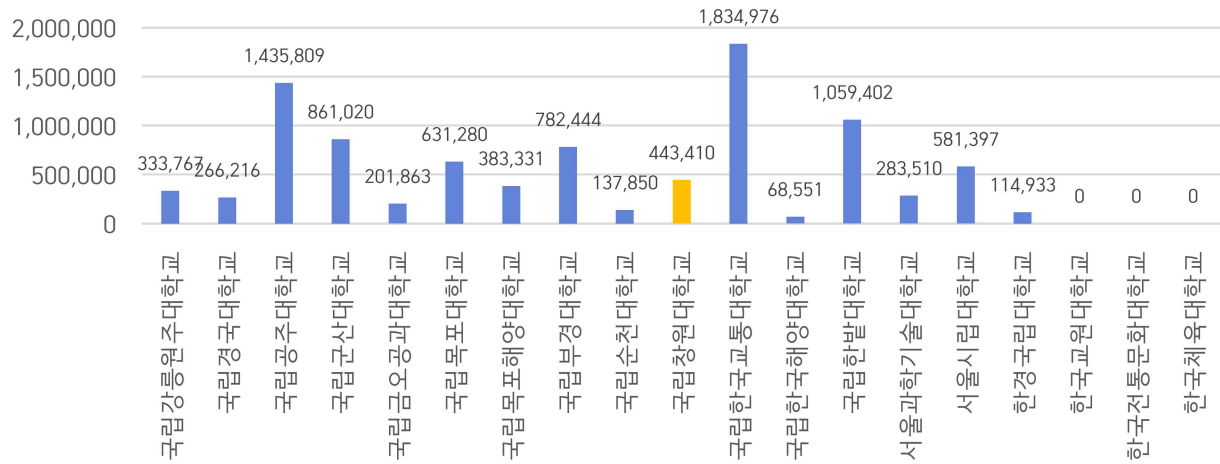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	20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 8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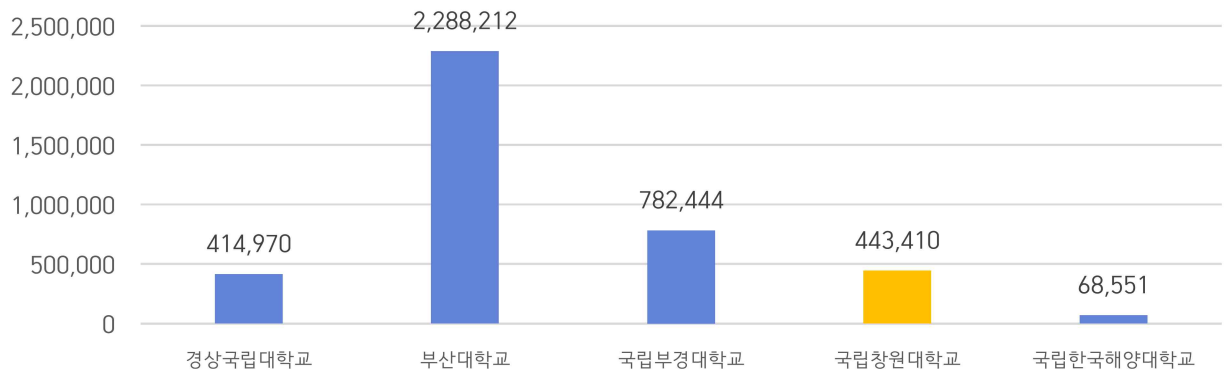
30.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천원)



30.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천원)



30.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천원)



□ 현황분석

- 2023~2024년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은 장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부 장비를 제외하고 다수 장비에서 활용 실적이 '0원' 수준을 기록하였다.
- 2024년 기준 지역중심대학 8위(19개교), 국립대학 14위(28개교)로 중위권 성과이지만, 상위권 대학 대비 성장세는 정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 특히 고수익 장비 중심의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장비 전체의 평균 활용도 및 운영수익 확대에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

□ 개선방안

- 2023~2024년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수익 현황 주요 특징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및 특징
전체 장비 수	82	87	· 신규 장비 5대 도입
수익 발생 장비 수(비율)	46 (56.1%)	51 (58.6%)	· 활용률 소폭 증가 · 미활용 장비 지속
수익 미발생 장비 수(비율)	36 (43.9%)	36 (41.4%)	· 미활용 장비의 구조적 저활용 지속
총 수익	456,953천원	443,409천원	· 전체 수익 소폭(-3%) 감소 · 상위 장비 의존도 확대
상위 10대 장비 수익	318,426천원 (69.7%)	344,128천원 (77.6%)	· 상위 장비 활용 집중도 '24년 77.6%까지 확대
상위 5대 장비	① X-ray 3D CT Scanner ② 고분해능 전계방사 주사 전자현미경 ③ 이동식 입체 형상 측정기 ④ 3차원 정적 및 동적 측정시스템 ⑤ 고속 5축 가공기	① 3차원 정적 및 동적 측정시스템 ② 고속 5축 가공기 ③ X-ray 3D CT Scanner ④ 고분해능 전계방사 주사 전자현미경 ⑤ 대형 3차원 측정기	· 산업체 수요가 있는 상위 장비로 활용도가 증가되어 수익금 발생 집중 경향 심화 · 지역 산업체의 기술 수요가 정밀측정·소재 특성평가에 집중
저활용 장비군 특징	· 수익 0원 장비 36대 · 광학·기초분석 장비 중심 저활용 지속	· 미활용 구조 동일하게 유지 · 신규 장비도 초기 활용 확보 부족	· 미활용 장비 36대 유지 · 구조적 저활용 지속, 장비 구조 개선 필요

○ 미활용 장비 해소를 위한 장비 재배치 및 집적화 추진해야 한다.

- 수익 미발생 장비 36대를 대상으로 노후화·수요 적합성 등을 재점검하여 활용 가능성을 재평가
- 활용도가 낮은 장비는 불용·이관·교육용 전환 등으로 재배치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

○ 장비 편중 완화를 위한 중위권 장비 활용도 제고시켜야 한다.

- 상위 장비에 집중된 수요를 완화하기 위해 기능 중복 장비의 역할 재정립
- 중위권 장비는 분석 서비스 확대, 테스트 분석, 사례 중심 홍보 등을 통해 활용률 확대

○ 신규 장비 도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신규 장비 도입 시 심사 기능을 공동기기원 중심으로 재편하여 중복·불필요 장비 도입 사전 예방
- 산업체 수요조사-활용도 예측-도입 후 성과 검증의 표준 절차를 마련하여 장비 구입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 공동기기원 중심의 전문 운영·관리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

- 장비군별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지보수·예방점검·고장 대응을 대비하여 장비 가동률 안정적 유지
- 공동장비활용센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장비 예약·정산·성과관리를 공동기기원에서 총괄하여 장비 운영 전주기 관리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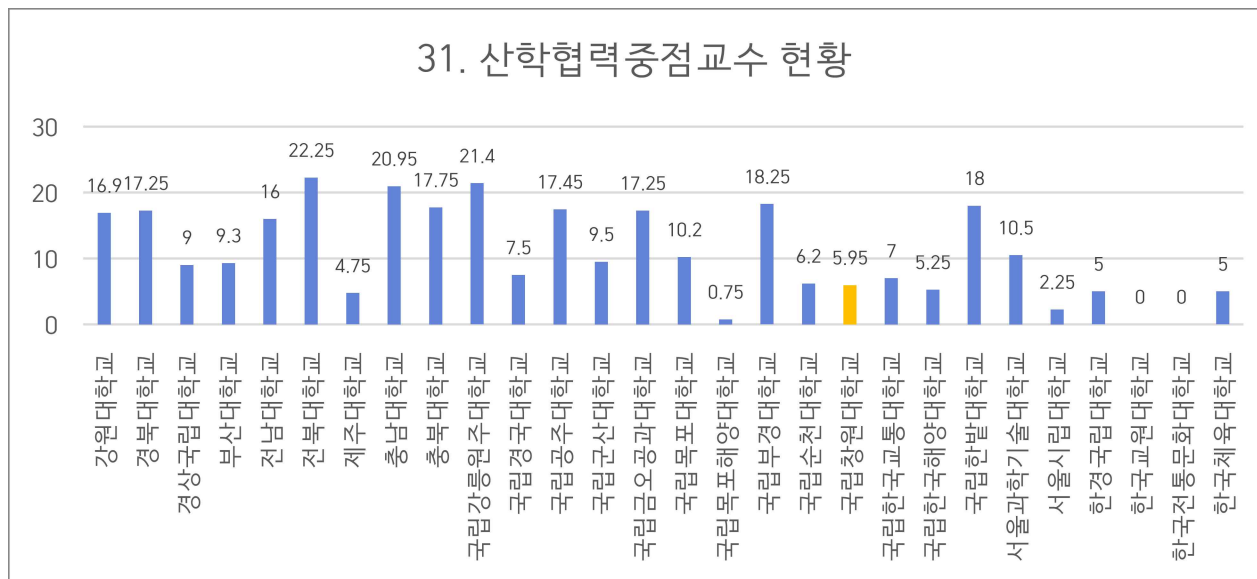
6.31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10점)

□ 실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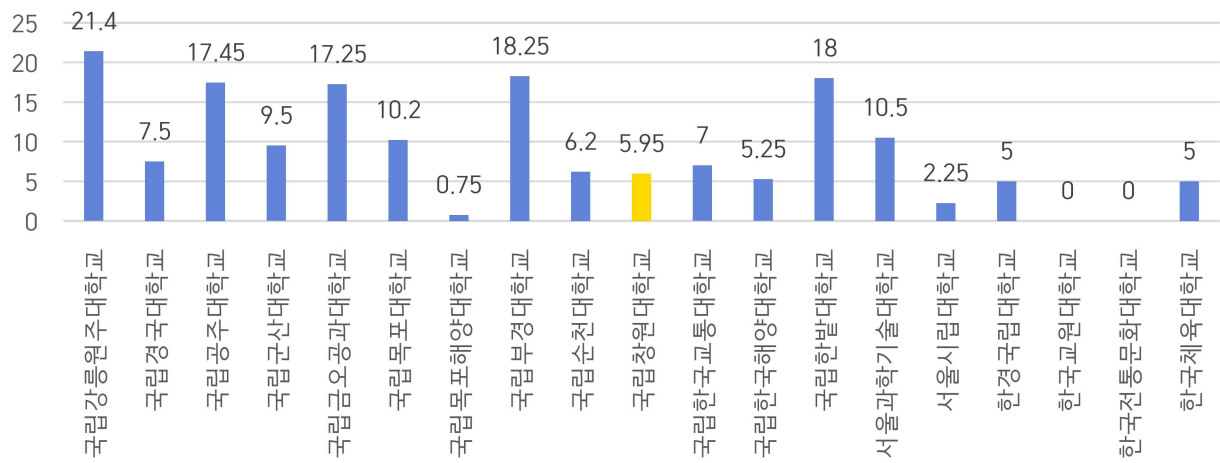
구 분	채용형(A)	비전임(B)	지정형(C)	산학협력 중점교수 현황 $D=(1.0 \times A)+(0.25 \times B)+(0.2 \times C)$
2023	4	9	0	6.25
2024	4	7	1	5.95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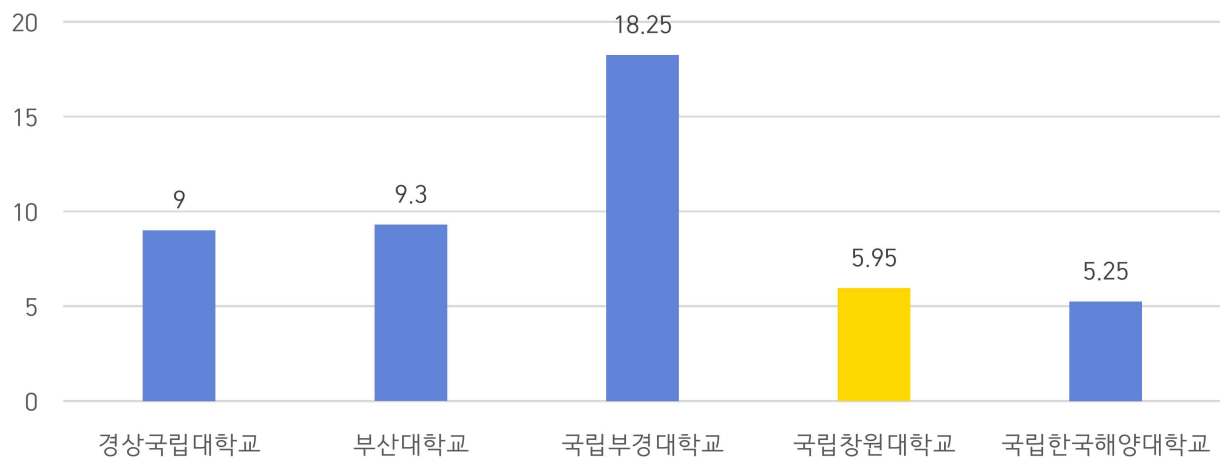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10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 12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20위



31.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31.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 현황분석

-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정값(D값)은 2023년 채용형 전임 4명, 비전임 9명, 지정형 0명을 바탕으로 6.25를 기록하였고, 2024년에는 채용형 전임 4명, 비전임 7명, 지정형 1명을 바탕으로 5.95로 소폭 감소하였다. 비전임 교원 수가 감소하면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정값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 2024년 기준 19개 지역중심대학 중 12위, 28개 국립대학 중 20위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지표는 전반적으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립대학 간 수치를 비교해보면 우리 대학 D값이 약 6 수준인 반면, 일부 대학은 10 이상, 최고 21.4 수준까지 나타나 산학협력에 특화된 인력 구성 측면에서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개선방안

- 산학협력중점교수 지표를 대학의 산학협력 중장기 전략과 연계된 핵심 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적정 목표치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지역 산업 구조와 대학 특성(공학·자연과학·인문사회·예술 등)을 고려하여, 향후 3~5년간 채용형 전임·비전임·지정형 교수의 목표 수를 설정하고, 정규 교원 신규 임용, 산학협력단 인건비 재배치,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인건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과 성과를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연구·창업·현장실습 등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 전반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각 단과대학·학과의 산학협력 책임자로 지정하여 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산업체 공동연구·현장맞춤형 교육과정 개편을 주도하도록 하고, 산업체 파트너 발굴과 프로젝트 수주 실적을 인사·성과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산학협력 성과가 지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 산업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활동 영역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전략산업(제조·에너지·항만·관광 등)과 연계된 산학협력위원회를 구축하고, 기업·연구소·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확대하여 공동연구, 현장실습, 인턴십, 주문식 교육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과 산업체 사이의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전담 인력 배치를 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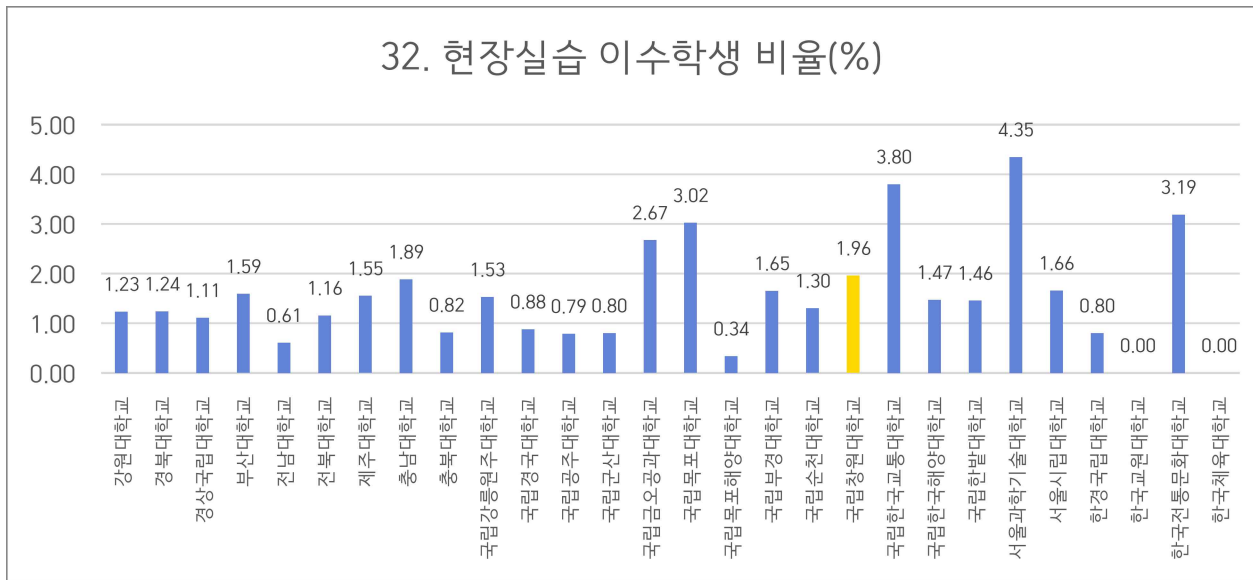
6.32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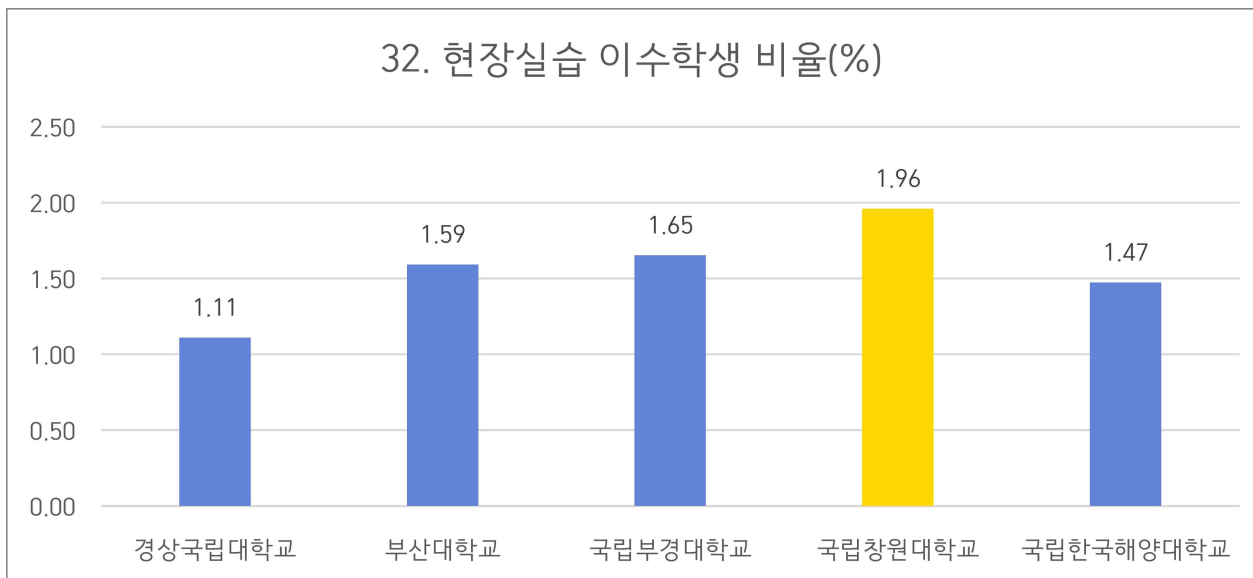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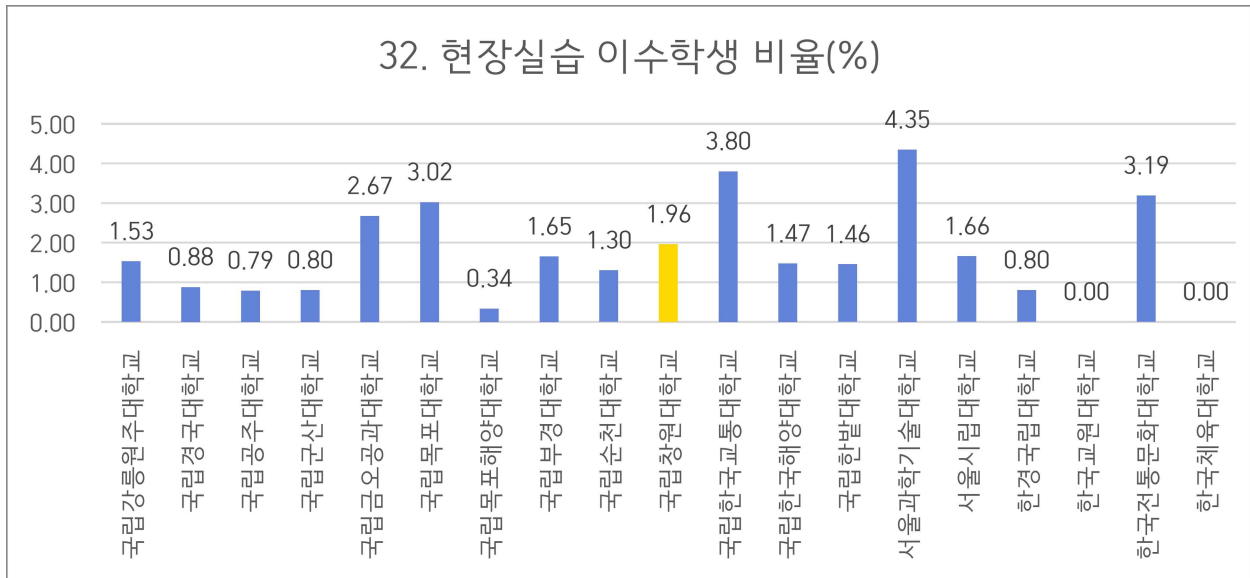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 분	재학생(A)	현장실습 이수 학생수(B)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 $C=B/A \times 100$
2023	9,310	130	1.40
2024	9,441	185	1.96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현장실습 이수 학생비율	20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 6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6위





□ 현황분석

- 본교의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은 2023년 1.40%에서 2024년 1.96%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기준, 지역중심대학 19개교 중 6위, 국립대학 28개교 중 6위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24년 기준 부울경 지역 대학 중 현장실습 이수율 1위를 기록하여, 부울경 지역 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개선방안

- 현장실습 기관 평가 체계 운영을 통해 실습기관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실습 교과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학생과 지도교수를 1:1로 매칭하여 지도교수가 실습 기간 중 1회 이상 실습 기관을 방문해 업무의 적정성과 실습 환경을 점검하는 1차 평가를 실시
 - 실습 종료 후 학생이 실습 기관을 2차 평가하는 다층 피드백 구조를 구축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습 기관을 상·중·하로 분류하고 차기 실습에 반영함으로써, 우수 실습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하위 기관에는 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선 요청으로 실습의 질적 향상 도모
- 정출연과 연계한 고도화된 실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국가 연구기관의 R&D 인프라를 활용한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이해도 및 연구 경험을 동시에 강화
 - 프로그램 전 단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구축하여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의 연장선으로 기능하도록 유도
- 지자체 협력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운영해 기업 참여율을 제고하고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저임금 100% 지급 기관에 실습지원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실습 참여 부담을 완화
 - 이를 통해 실습 참여 장벽을 낮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도를 함께 제고
 - 2023학년도 최저임금 100% 지급 기관 수는 68개였으나, 2024학년도에는 107개로 증가하여 지자체 협력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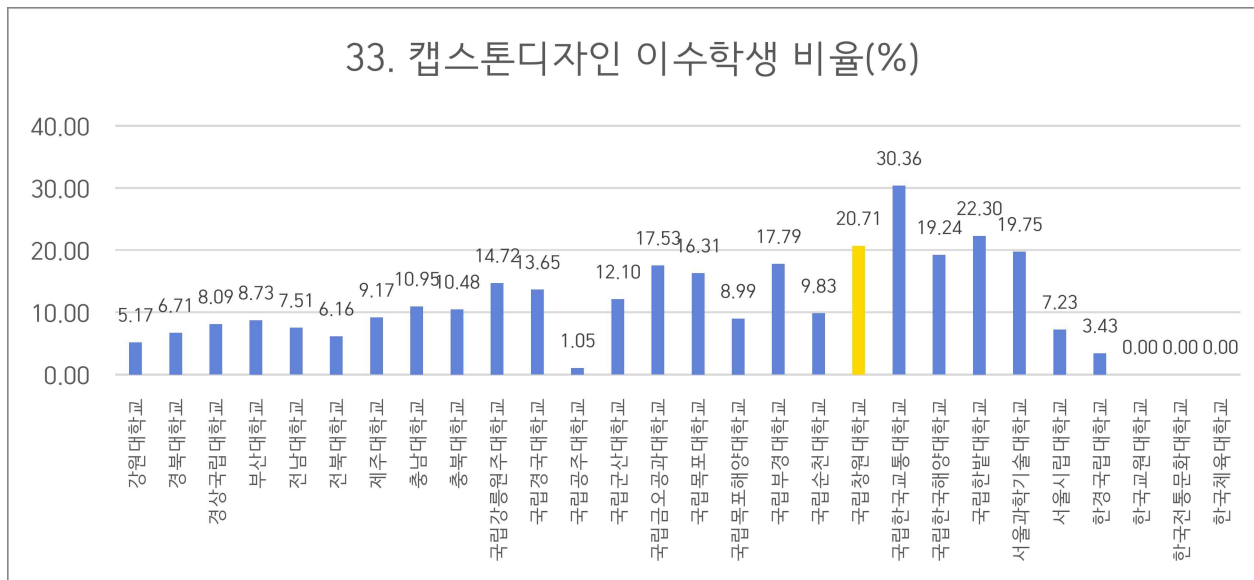
6.33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10점)

□ 실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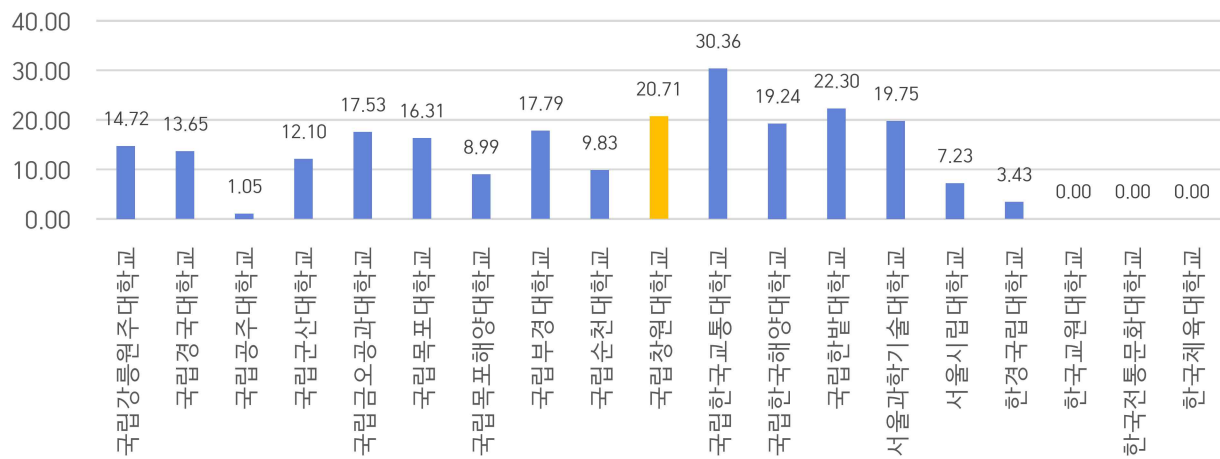
구 분	재학생(A)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수(B)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C=A/B \times 100$
2023	9,310	1,812	19.46
2024	9,441	1,955	20.71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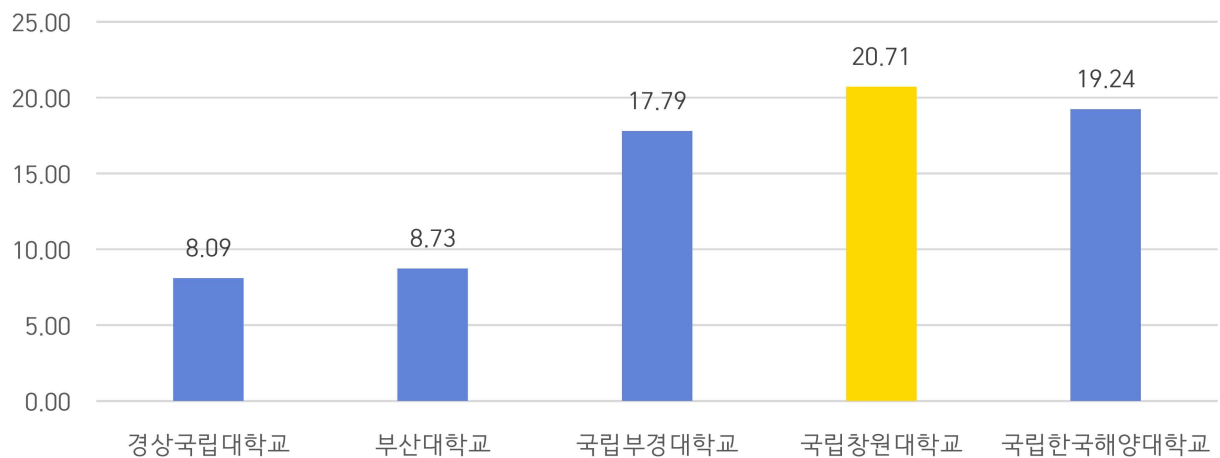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비율	10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 3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3위



33.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33.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 현황분석

- 2023년도 대비하여 1.25% 증가로, 캡스톤디자인 운영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 3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3위로 타 대학 대비 매우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경대 등 타 국립대와 비교했을 때 국립창원대는 20.7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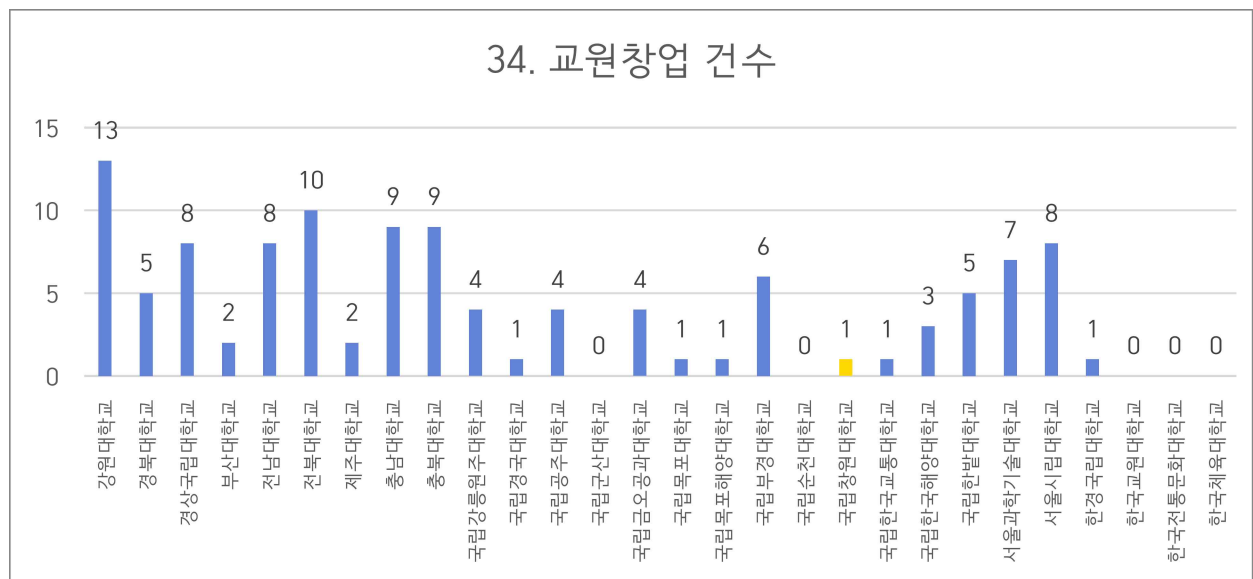
- 사업의 양적 확대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산학협력 연계 및 성과 창출 측면의 질적 성과는 추가적인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업 멘토링, 현장실습 연계 등을 포함한 패키지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질적 성과 확대를 도모
 - 지역 기업이 직접 현안 문제를 제안하는 산학 공동 프로젝트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학생 참여도와 관심도 제고
 - 우수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과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이 비이공계 학과의 참여가 저조하고, 특정 계열 중심으로 운영되는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이수 비율이 낮은 학과를 대상으로 전용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
 -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과제를 발굴하고, 계열 특성에 적합한 운영 방식 적용을 통해 교과목의 다양화 및 유연화를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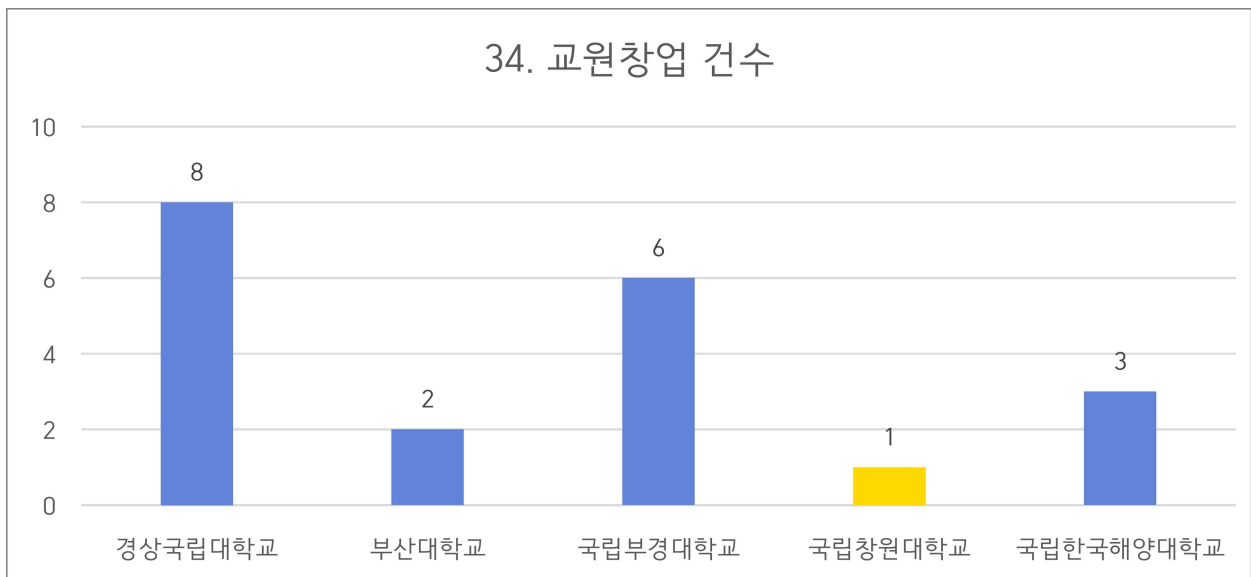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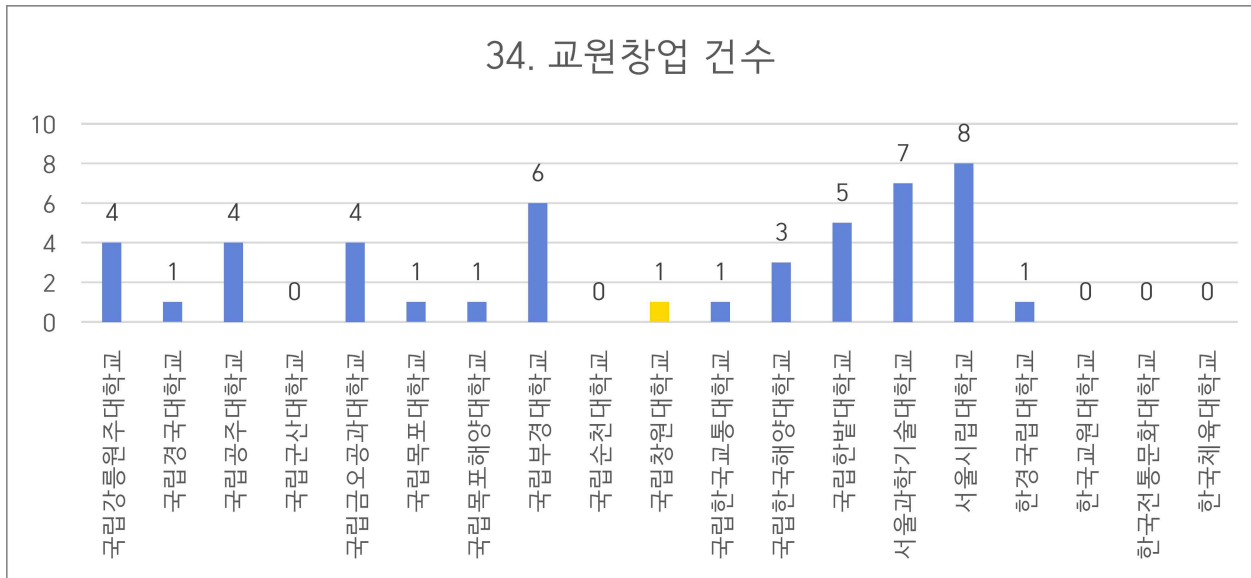
6.34 교원 창업 건수(10점)

구 분	교원창업 건수(A)	매출액(천원)	비고
2023	2	27,282	
2024	1	16,000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비율	10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 9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8위





□ 현황분석

- 교원창업 건수는 대학 간 편차가 크며, 경상국립대학교(8건)와 국립부경대학교(6건)가 비교적 활발한 창업 활동을 보이는 반면, 우리 대학은 1건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그래프 상 다수 대학이 최소 3건 이상을 유지하는 반면 우리 대학은 하위권 그룹에 속하며, 이는 교원 창업 참여 기반 자체가 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개선방안

- 다음 표는 교원창업 건수 비교표이다.

구분	교원창업 건수(건)	비고
경상국립대학교	8	최상위
부산대학교	2	중하위
국립부경대학교	6	중상위
국립창원대학교	1	하위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3	중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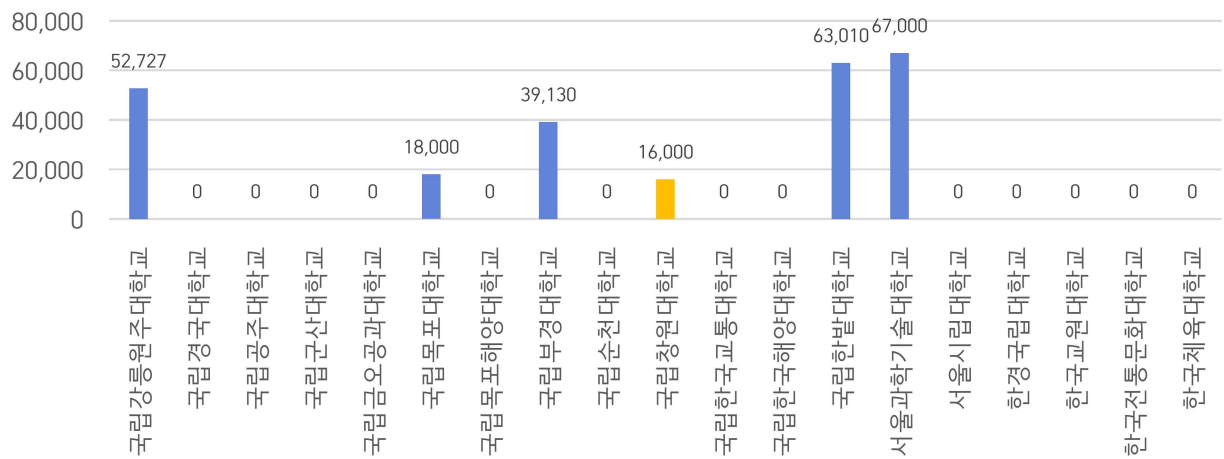
- 교원창업 건수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 창업 권장보다 창업 친화적 제도가 필요
 - 특히 전공 특화 창업트랙과 학과 단위 운영을 통해 참여 기반을 넓혀야 하며, 실적 중심보다 참여 기반 중심의 지원체계로 확대 전환이 필요
 - 교원창업의 저조한 참여는 환경적 제약과 지원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
-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Wolf Campus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 멘토링 등 지원 강화 필요

구 분	교원창업 건수(A)	매출액(천원)	비고
2023	2	27,282	
2024	1	1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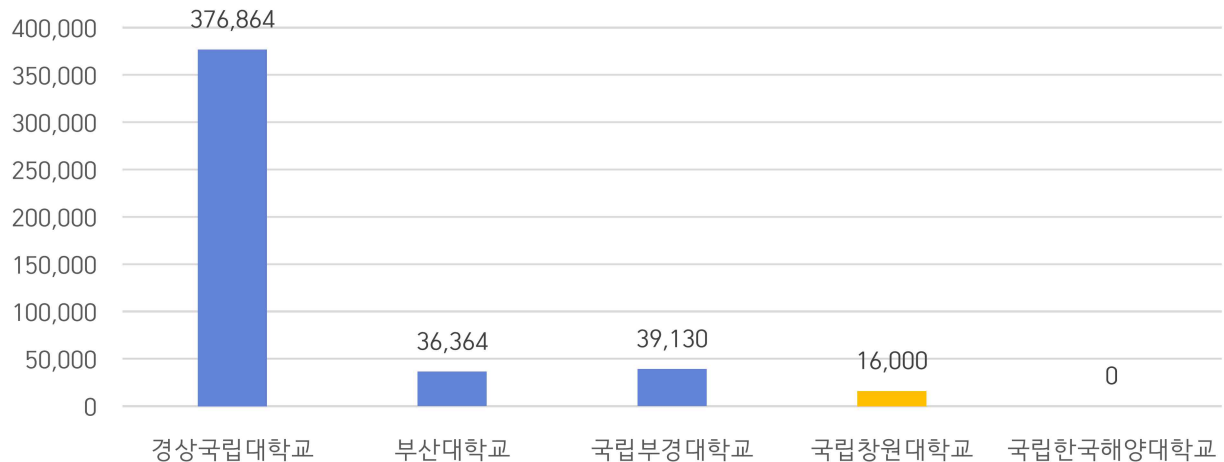
평가지표	배 점	2024년 기준 순위
창업 강의 수	10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 6위
		28개 국립대학 중 15위



35. 교원창업 기업 수익(천원)



35. 교원창업 기업 수익(천원)





□ 현황분석

- 교원창업 기업 수익은 타 대학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경상국립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등과 비교할 때 우리 대학은 현저히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 특히 경상국립대학교는 압도적 수익을 기록하며 동남권 지역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반면, 우리 대학은 하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대학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 개선방안

- 다음 표는 교원 창업 기업 수익 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구분	교원창업 수익(천원)	비고
경상국립대학교	376,864	최고 실적
부산대학교	36,364	중위권
국립부경대학교	39,130	중위권
국립창원대학교	16,000	하위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0	창업 수익 없음

- 교원창업 기업 수익이 타 대학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단순 창업 건수 증가가 아닌 교원 보유 기술의 시장성 제고와 매출 연계 전략이 필요
- 기술 보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수익성을 염두에 둔 시제품 개발, 시장성 검증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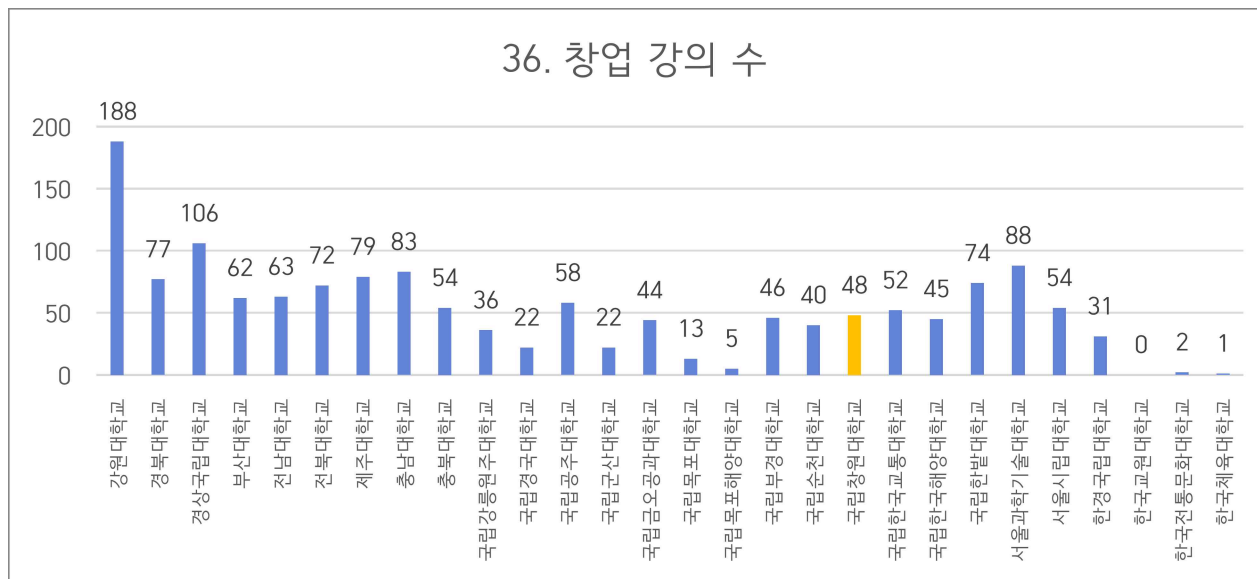
6.36 창업 강의 수(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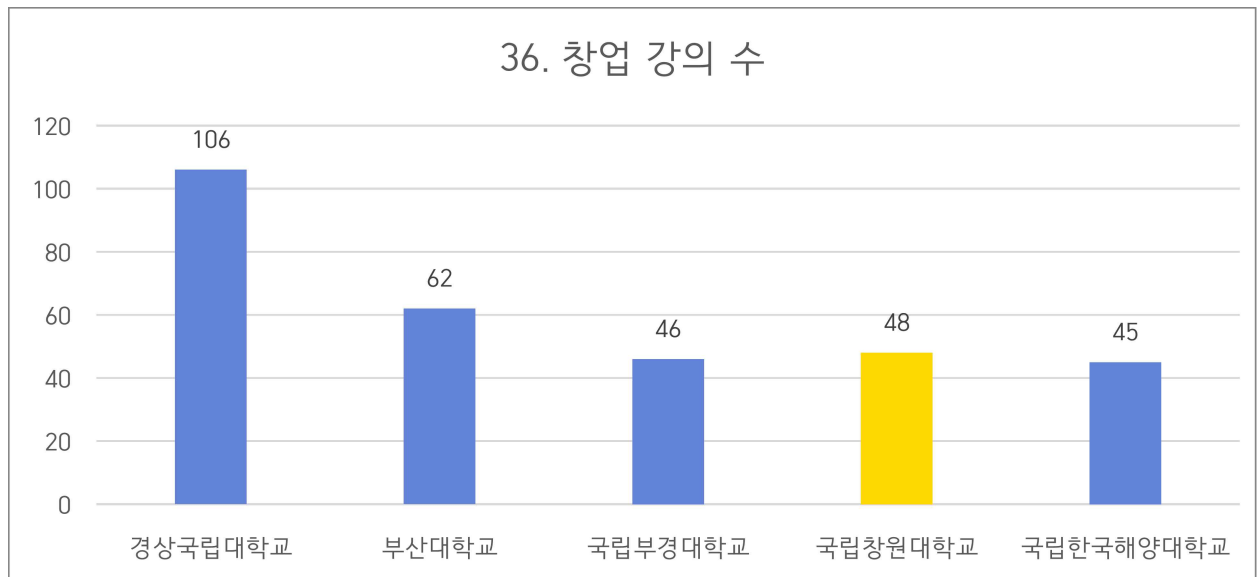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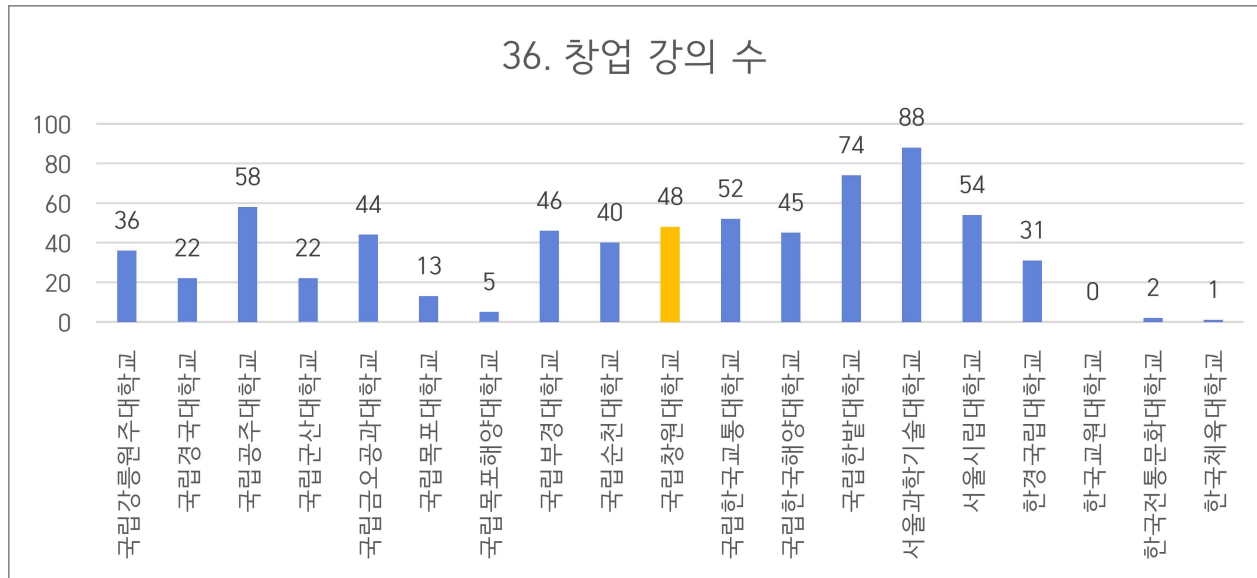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 분	창업강의 현황				창업 강의 수 C=A+B
	교양과목(A)		전공과목(B)		
	이론형 과목 강의 수	실습형 과목 강의 수	이론형 과목 강의 수	실습형 과목 강의 수	
2023	13	1	36	3	53
2024	12	0	36	0	48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창업 강의 수	10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 6위
		28개 국립대학 중 15위





□ 현황분석

- 국립창원대학교의 창업 강의 수는 2023년 53개, 2024년 48개로 집계되어 최근 1년간 소폭 감소하였다. 구성 측면에서 보면, 2023년에는 교양 창업강의 14개(이론 13, 실습 1), 전공 창업강의 39개(이론 36, 실습 3)로 이론 중심 구조가 뚜렷하며, 2024년에는 실습형 강의가 모두 사라져 교양·전공 모두 이론형 강의만 운영되었다.
- 평가 결과, 국립창원대학교의 창업 강의 수는 지역중심국립대 및 전체 국립대 기준 모두 '중위권'에 해당한다. 이는 최소 수준은 상회하지만, 창업교육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일부 대학들과 비교하면 양적·질적 측면에서 확장 여지가 존재함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특히 실습형 창업강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은 창업 친화적 교육환경 구축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창업 강의 수 확대는 단순한 과목 증설보다는 이론-실습 연계형 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기존 이론형 창업강의 중 일부를 프로젝트 기반 실습 과목으로 전환해, 창업 아이디어 도출, 사업계획서 작성, 시제품 기획 등 실질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산학협력단, 지역 창업지원기관, 테크노파크 등과 연계해 현장 기반 창업 강의를 공동 운영하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실습형 강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전공 교육과 연계한 전공 특화 창업강의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면 학부생 비율이 높은 국립창원대학교의 특성과도 부합할 것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창업 강의 수와 실습형 비중을 함께 관리하는 내부 지표를 설정해, 창업 강의 수 '중상위권', 실습형 강의 비중의 점진적 확대를 목표로 운영하는 것이 국립창원대학교의 산학·창업 교육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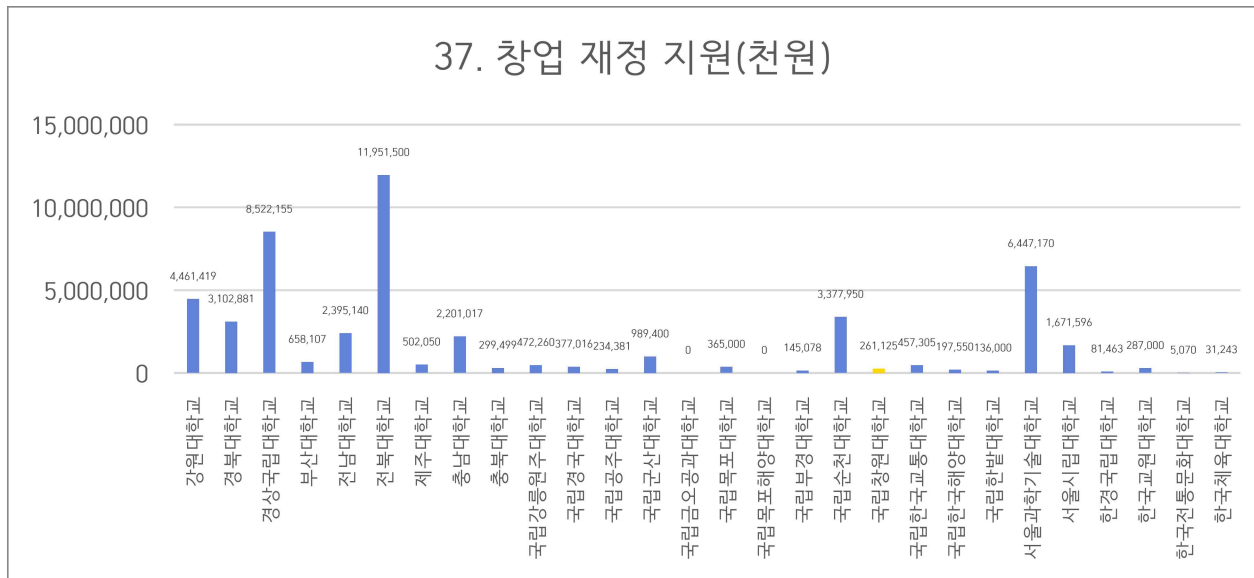
6.37 창업 재정 지원(20점)

□ 실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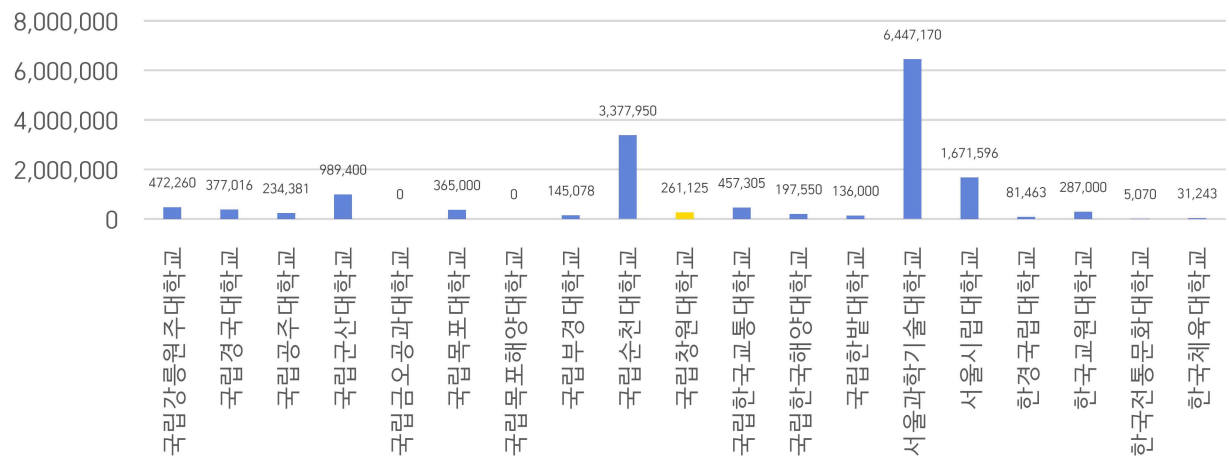
구 분	전용공간(㎡)	학생창업 지원 현황				
		지원액(천원)			창업 전담인력	
		교비	정부지원	계(A)	교원 수	직원 수
2023	2,987	0	127,485	127,485	4	9
2024	3,044	0	261,125	261,125	4	10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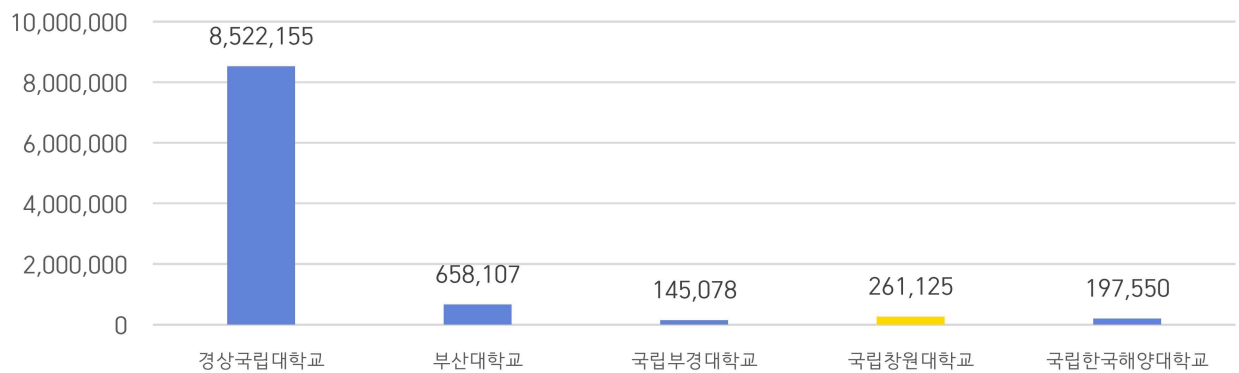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창업 재정 지원	20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 10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9위



37. 창업 재정 지원(천원)



37. 창업 재정 지원(천원)





□ 현황분석

- 정부 지원액 증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정부 지원액이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학생 창업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교비 지원액 부재: 2023년과 2024년 모두 교비 지원액이 0원으로, 학생 창업 지원이 100% 정부 지원액에 의존하고 있다.
- 2024년 국립대학 학생 창업 지원액 현황을 보면, 국립창원대학교는 총 지원액 261,125,302원으로 비교 대상 국립대학 중 하위권에 위치한다. 특히, 정부 지원액 규모가 큰 대학들은 창업 관련 국책 사업을 유치했거나, 교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 개선방안

- 학생 창업 지원 규모를 비약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창업 관련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RISE 사업과의 협의를 통한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창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다시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시급하며, 현재 0원인 교비 지원액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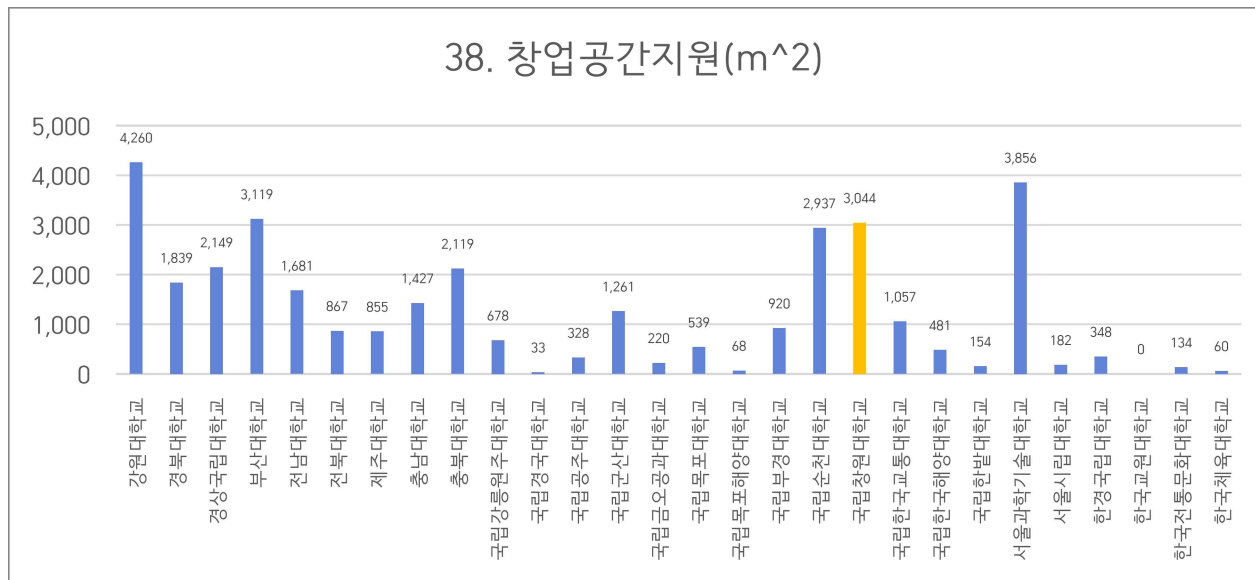
6.38 창업공간지원(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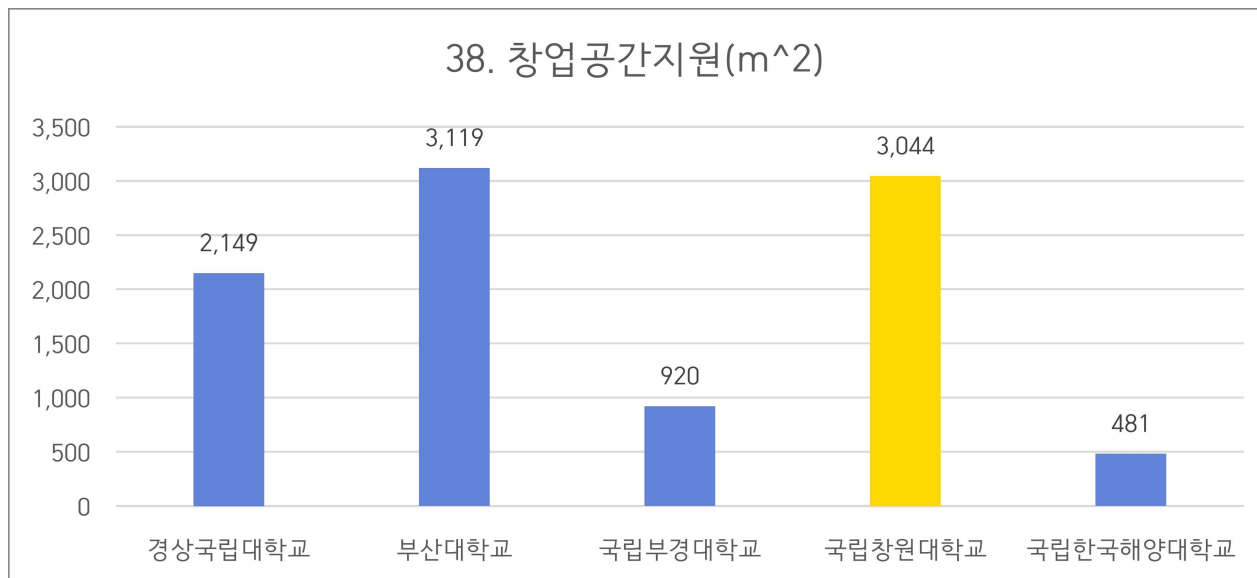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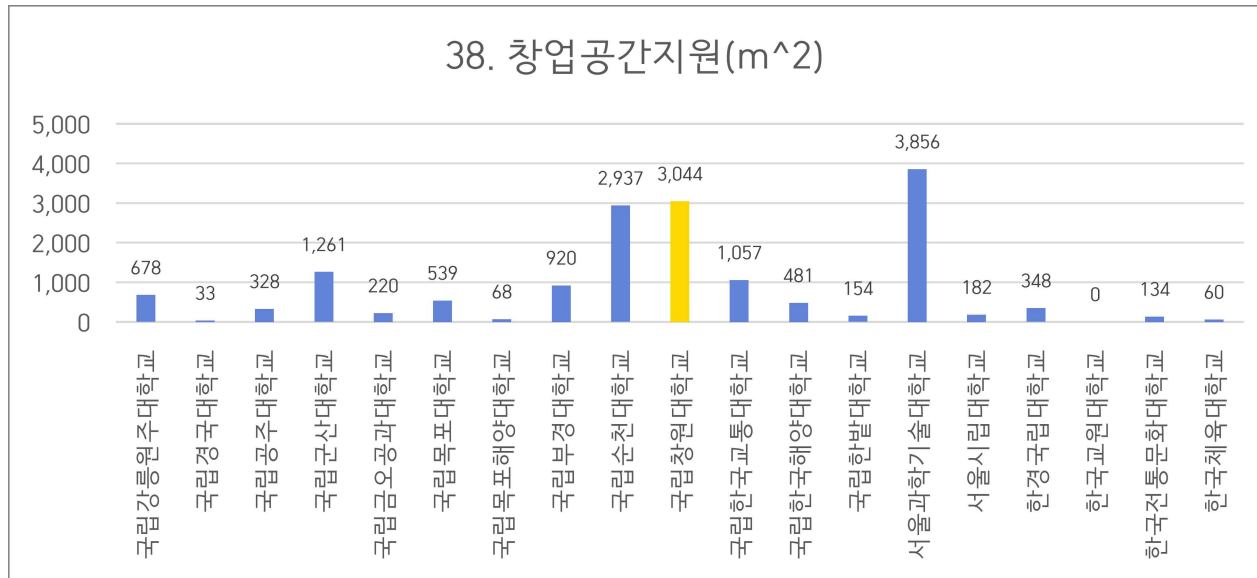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 분	전용공간 (㎡)	학생창업 지원 현황				
		지원액(천원)			창업 전담인력	
		교비	정부지원	계(A)	교원 수	직원 수
2023	2,987	0	127,485	127,485	4	9
2024	3,044	0	261,125	261,125	4	10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창업 공간 지원	10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 2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4위





□ 현황분석

- 창업 전용공간은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창업 공간 규모가 약 57m²로 소폭 확대되어, 창업 지원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창업 전담 인력 교원 4명 유지, 직원 9명에서 10명으로 1명 증가하여 인력 확충되었으며, 정부지원금은 105%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성장세 뚜렷하다.

□ 개선방안

국립창원대학교 WINGS 추진 전략

WOLF-UGRIC INNovative Global Start-up (대학·정부·연구·산업·지역 연계 글로벌 웹 혁신 창업)

비전	대학·지역·기업이 함께 만드는 Chang ² -up 연구 생태계 플랫폼 구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과 연구가 공존하는 개발형 스타트업 혁신 거점 공간 조성 창업 진화형 혁신 제도로 교원·학생 창업 활성화 대학 연구 성과와 글로벌 대기업을 연계한 미래형 글로벌 스타트업 환경 구축 		
세부 추진 전략	경남 창업 메카 공간 구축 WOLF 캠퍼스 공간 조성 <small>(이화리, 사동리, 양정리)</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형 융합 혁신 클러스터 구축 교원 창업, 국내외 우수 기업 연구소, 스타트업, 외국 대학 연구소 공간 마련 모듈형 벤처 오피스 조성 개발형 네트워크 조성 <small>(창원캠퍼스, 사동리)</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LF Festival, 네트워크 데이 개최 개발형 코워킹 하우스 운영 Open Testbed 지원 <small>(창원캠퍼스, 사동리, 양정리)</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제품 제작, 디지털 트윈 기반 제품 실증 하이퍼지트/공통기원 첨단 장비 지원 	창업·연구 핵심 환경 조성 교원 창업 유인 강화 <small>(창원캠퍼스, 사동리)</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및 후/중/선임 장학금 확대 창업 연구년/연차 등 인사제도 개선 창업 중점교수 지정 운영 창업진화형 학사제도 운영 <small>(창원캠퍼스, 사동리, 양정리)</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대학 학점 인정 가이드라인 마련 창업학점 교류제 시행, 창업특례 학제 운영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small>(창원캠퍼스, 사동리)</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학생 창업 기업 및 기술자주 지회사 국내 입주 공간 배정 창업기업 IP 사용, 공유 및 수익 배분 명확화 	창업·연구 생태계 서비스 지원 대기업 협력 Co-lab 프로그램 운영 <small>(창원캠퍼스, 사동리, 양정리)</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R&D 사전 공유를 통해 입주기업에 문제 해결에 도전 대기업 공급망 진입 + 공동 특허 확보 공동 R&D 방식으로 기업 혁신 촉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 <small>(창원캠퍼스, 사동리, 양정리)</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 매칭, 기술 매칭 지원, 창업 멘토(법률, 재무) 투자 실패 프로그램(해피 리탈 액셀erate 캠프) 기술자주회사+seed 투자 실행 글로벌 진출 지원 <small>(창원캠퍼스, 사동리, 양정리)</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지사 설립, 크라우드 펀딩, 전시회 참가 글로벌 현지화 컨설팅 및 투자보 창업 교육, 해외 창업 유학생 유치

- 국립창원대학교의 창업 공간은 권역·전국 기준 우수한 규모를 확보하고 있으나, 기존 공간의 분산 및 기능이 다소 미흡하여 창업·산학·연구 기능의 통합적 운영이 어려운 구조이다.
- 2026년 WOLF Campus 조성을 통해 창업 공간 및 기능을 근본적으로 고도화 할 계획이다.
 - 교원창업·학생창업·산학협력기업·외부 연구소가 공존하도록 재배치하여 창업·R&D·IP·교육 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
 - 기존 창업보육센터 중심의 사무형 공간에서 실험실 창업·시제품 제작·기업연구소가 공존하는 융합형 오픈랩으로 전환하고, HVAC 등 지역산업 특화 분야 실험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기술창업 지원 강화
 - 교수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교원창업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실제 창업이 가능한 물리적 기반 확보
 - 학생·교수·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심화형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실험·창업·투자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 WOLF Campus 입주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현장실습 운영으로 실험실창업·학생창업·취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시 순환 구조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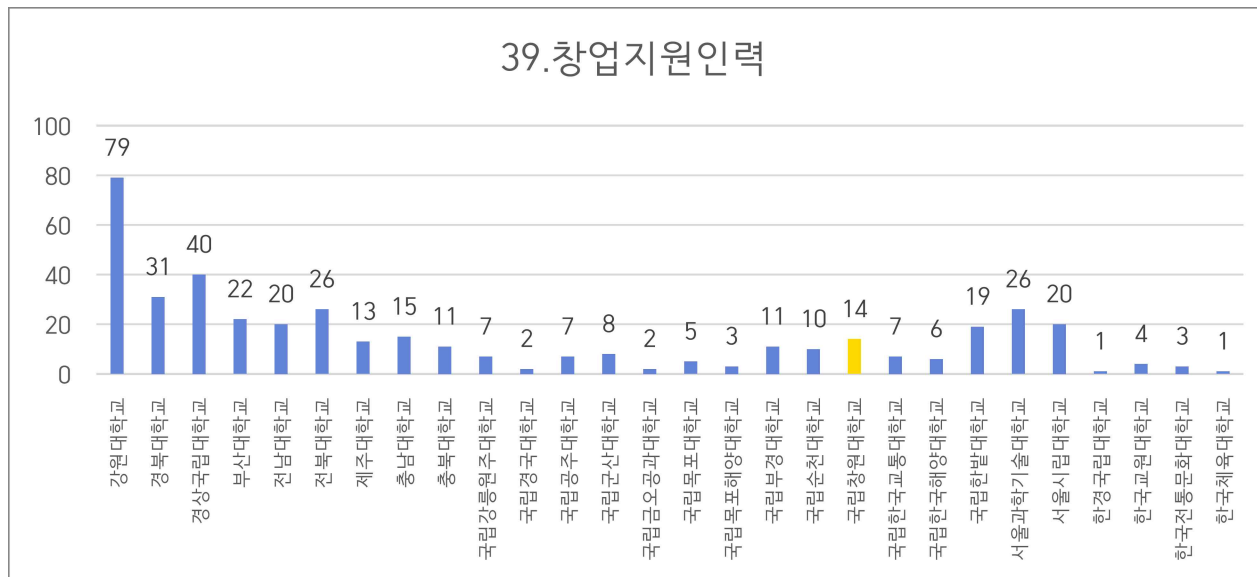
6.39 창업지원인력(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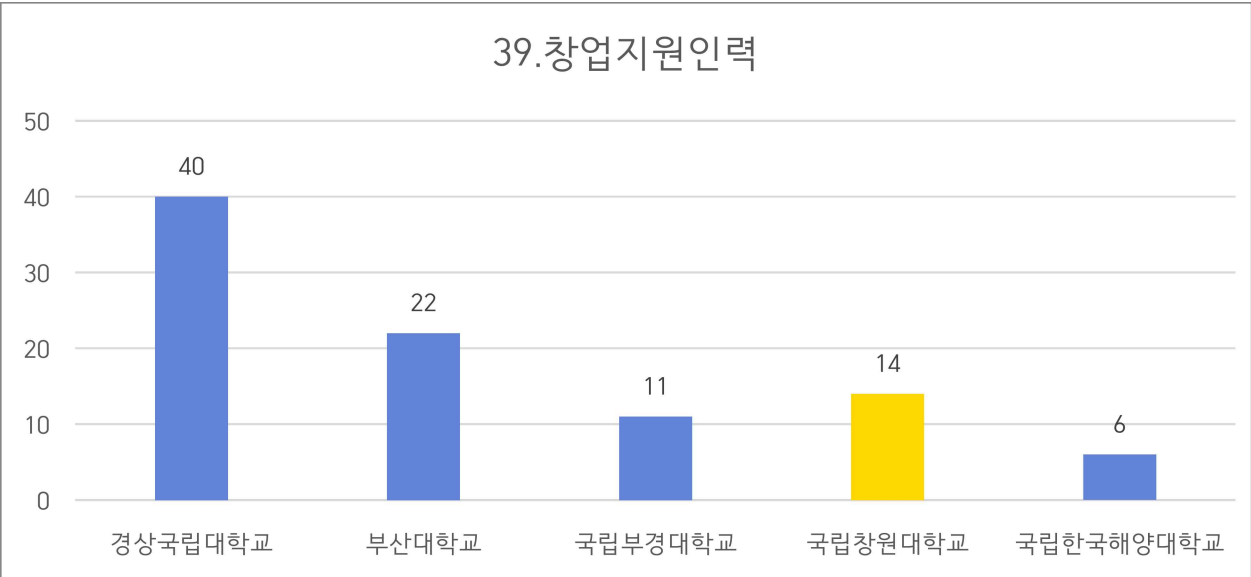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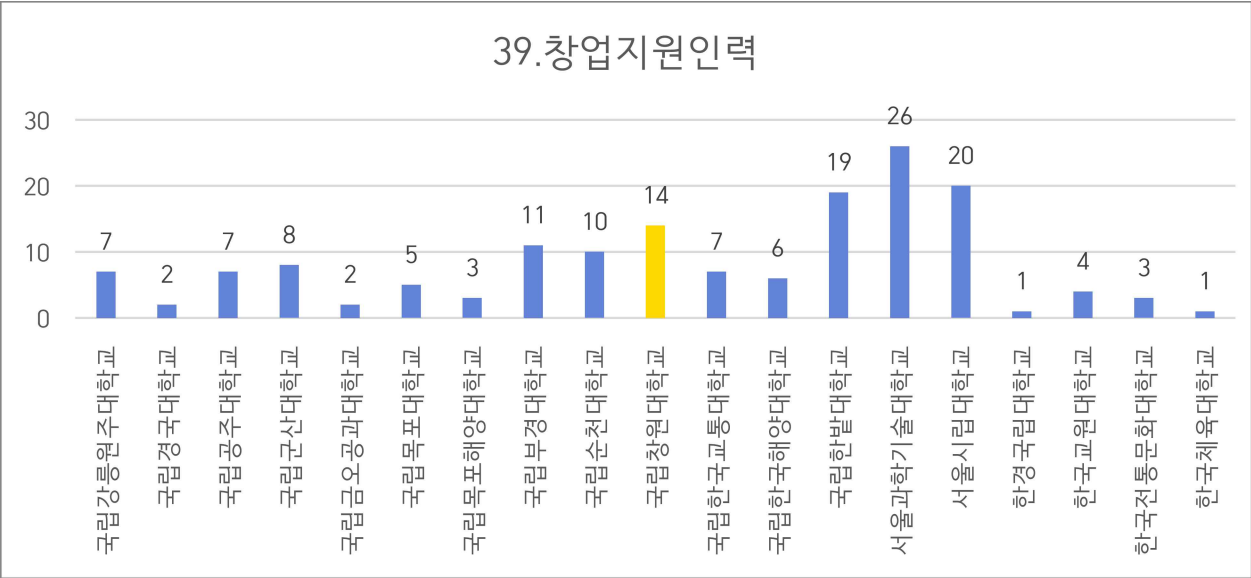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 분	전용공간 (㎡)	학생창업 지원 현황				
		지원액(천원)			창업 전담인력	
		교비	정부지원	계(A)	교원 수	직원 수
2023	2,987	0	127,485	127,485	4	9
2024	3,044	0	261,125	261,125	4	10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창업 지원 인력	10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 4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1위







□ 현황분석

- 2023년 대비 2024년에 직원 전담인력이 1명 증가하여, 총 인력은 14명으로 소폭 확대되었다.
- 2024년 기준, 국립창원대학교의 인력 규모(14명)는 창업 지원에 적극적인 타 국립대학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 개선방안

- 직원 인력 의존도: 국립창원대는 교원(4명) 대비 직원(10명)의 비중이 높아, 창업 혁신을 위한 기술 및 전문성 기반의 멘토링/교육보다는 행정 및 실무 지원에 인력이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창업 관련 국책사업 수주 시, 확보된 사업비를 활용하여 경력직 창업 전문 매니저(AC/VC 경력자)를 직원 전담인력으로 채용 필요하다. 현재 10명인 직원 인력을 타 대학 수준으로 확대하여 대규모 사업 운영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 창업혁신본부와 기술지주회사 간 인력 교류 또는 겸직을 통해, 직원의 투자 및 기술 사업화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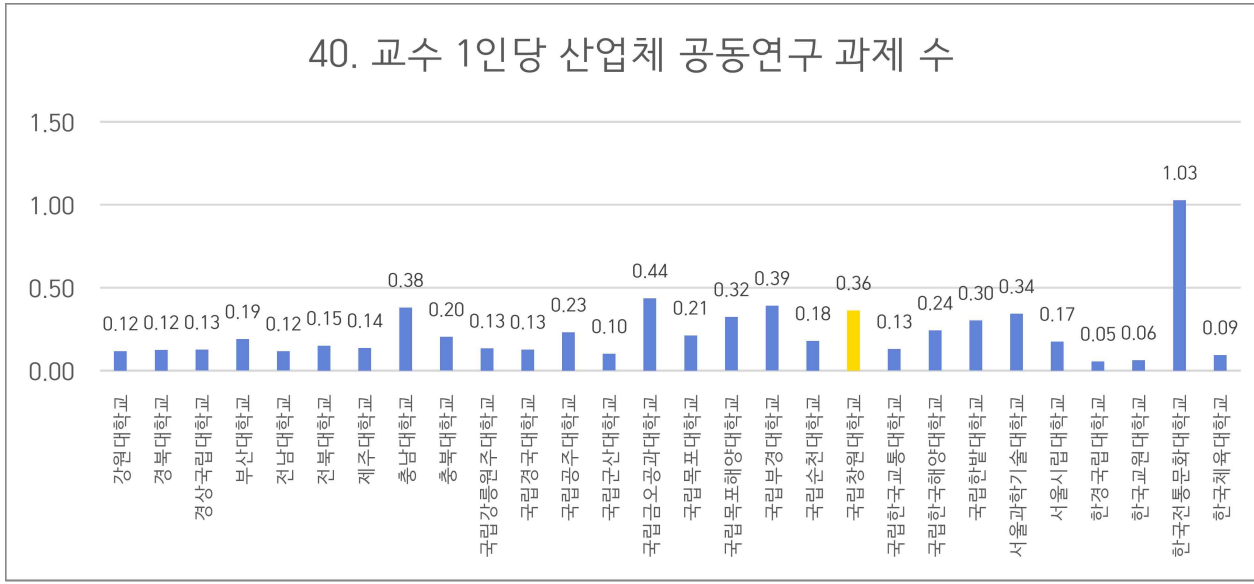
6.40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 수(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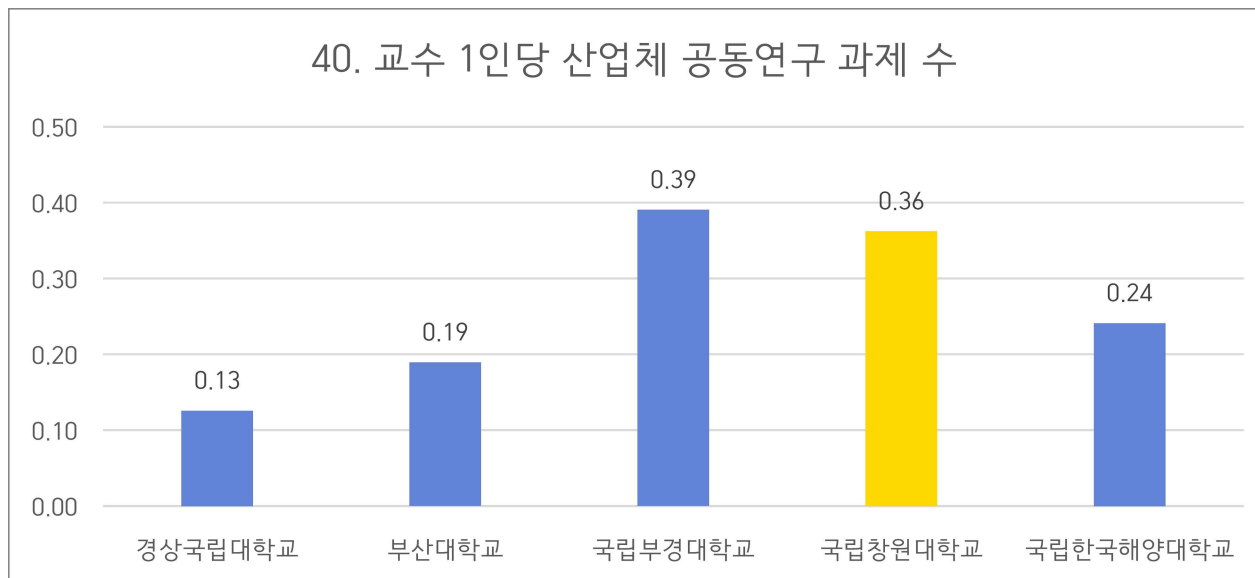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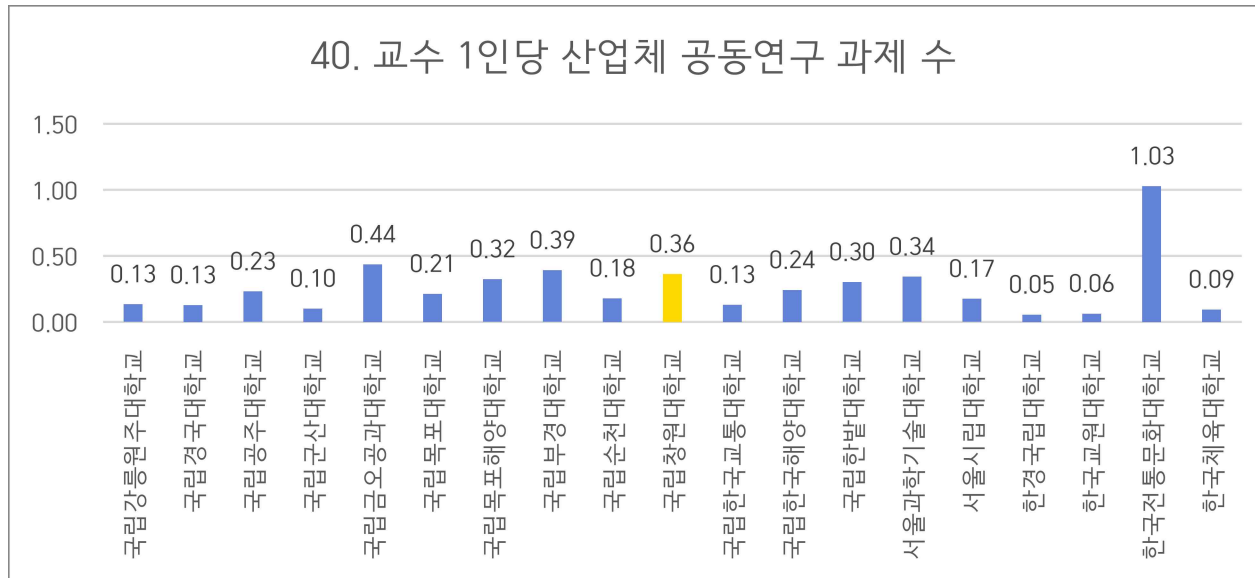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분	전임교원 (A)	교내		교외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 D=B+C/A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외국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B)	연구비	과제(C)	연구비	
2023	345	316	35,485	279	27,067	27	1,161	120	6,141	3	357	0.356
2024	345	335	1,328	229	22,777	22	848	122	3,761	3	614	0.359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	20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 4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5위





□ 현황분석

-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 수는 0.36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전국 국립대학군 평균(0.23건)과 지역중심대학군 평균(0.24건)을 약간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 개선방안

- 현황 분석을 통해 비교군 대비 우수한 측에 속하지만 개인별 과제건수 및 연구비 편차가 커 장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안정적 연구과제 수주를 위해 연구자 연구 분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연구자에게 산업체와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하여 이에 성과가 연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산업 수요 중심 매칭 시스템 구축, 교수 1인당 ‘대표 산업 파트너’ 제도 도입, 산업체 공동연구 실적의 평가·보상 강화, 과제 기획 전담 인력 및 사전 기획 지원, 소액·단기 공동연구 트랙 신설, 현장 파견·겸직 활성화를 통한 신뢰 축적 등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6.41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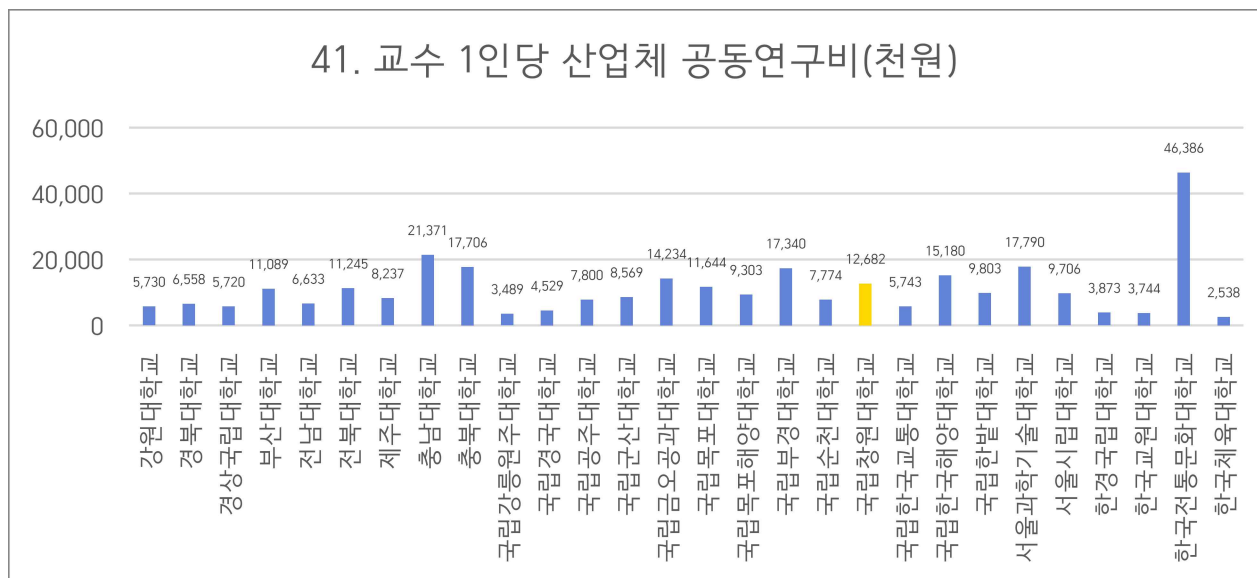
□ 실적현황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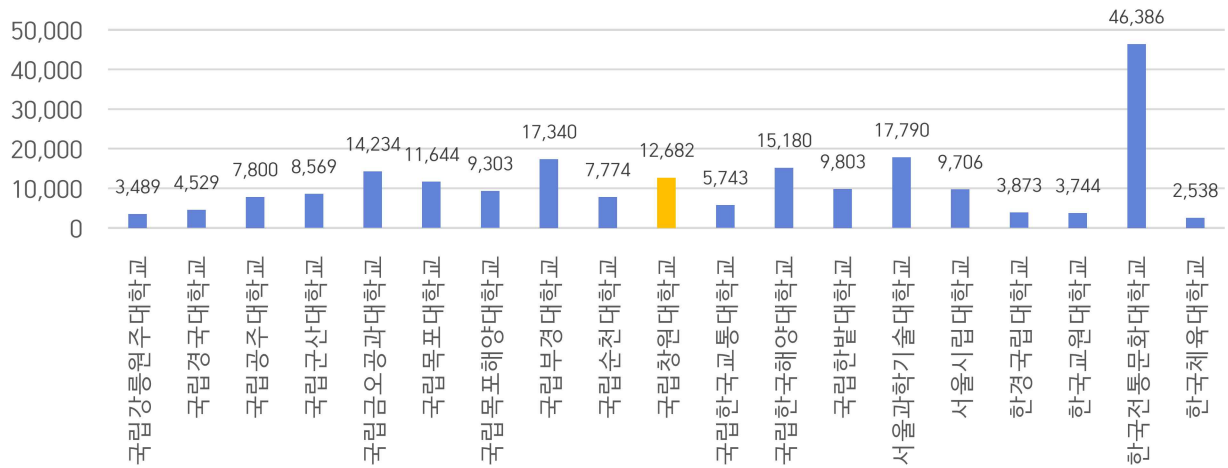
구분	전임 교원 (A)	교내		교외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비 D=(B+Q)/A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외국		
		과 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 제	연구비	과 제	연구비(B)	과 제	연구비(C)	
2023	345	316	758,400	279	27,067,465	27	1,161,408	120	6,141,494	3	356,753	18,835.5
2024	345	335	1,328,464	229	22,777,286	22	848,922	122	3,761,248	3	614,202	12,682.5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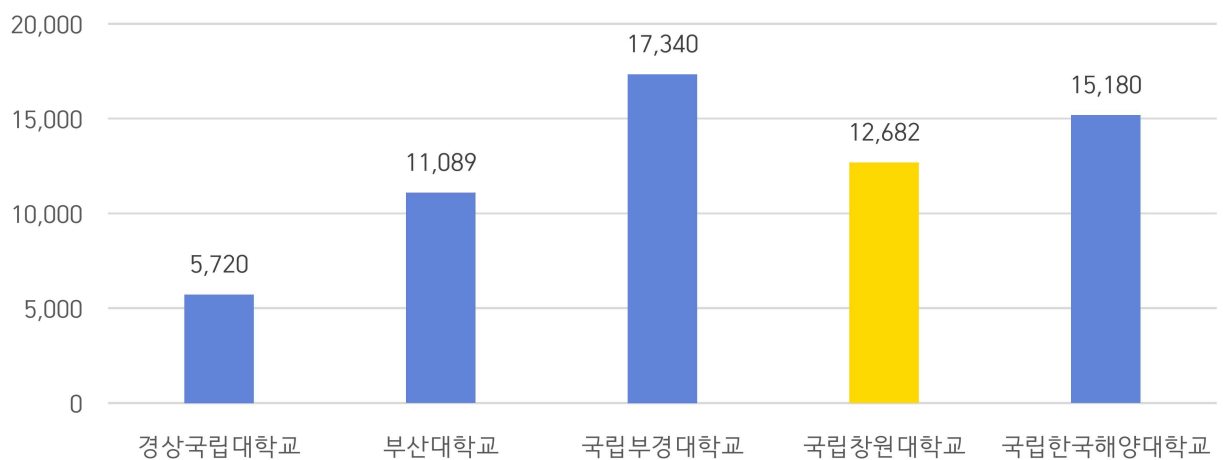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	20	19개교 지역중심대학 중 6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8위



41.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천원)



41.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천원)





□ 현황분석

- 2024년 우리대학의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는 12,382천원으로 전년 18,835천원 대비 34.3%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 전국 국립대학군 평균(10,943천원)과 지역중심대학군 평균(11,164천원) 대비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 신입교원이 늘고 기존 정교수님의 퇴직으로 다소 연구비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과제 수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분야 연구용역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산업체 연구비도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 개선방안

- 현황분석을 통해 비교군 대비 우수한 측에 속하지만 개인별 과제건수 및 연구비 편차가 커 장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 연구자에게 산업체와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하여 이에 성과가 연구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기업지원사업 또한 연구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연구자가 산업체와 공동 연구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 산업체 기술 수요를 반영한 중대형 공동연구 과제 기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교수-기업 간 장기 파트너십(전담 기업제) 구축을 통해 반복·누적 연구비 확보해야 한다.
- 산업체 공동연구 실적을 교원평가·성과급에 정량적으로 반영하여 참여유인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기술이전·시제품·실증 연계형 연구를 확대해 과제 단가 상향 유도해야 한다.
- 연구기획·계약·정산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강화해 교수의 행정 부담 경감해야 한다.
- 방산·원전·스마트제조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중심의 전략적 산학협력 추진해야 한다.

7. 국제화여건(15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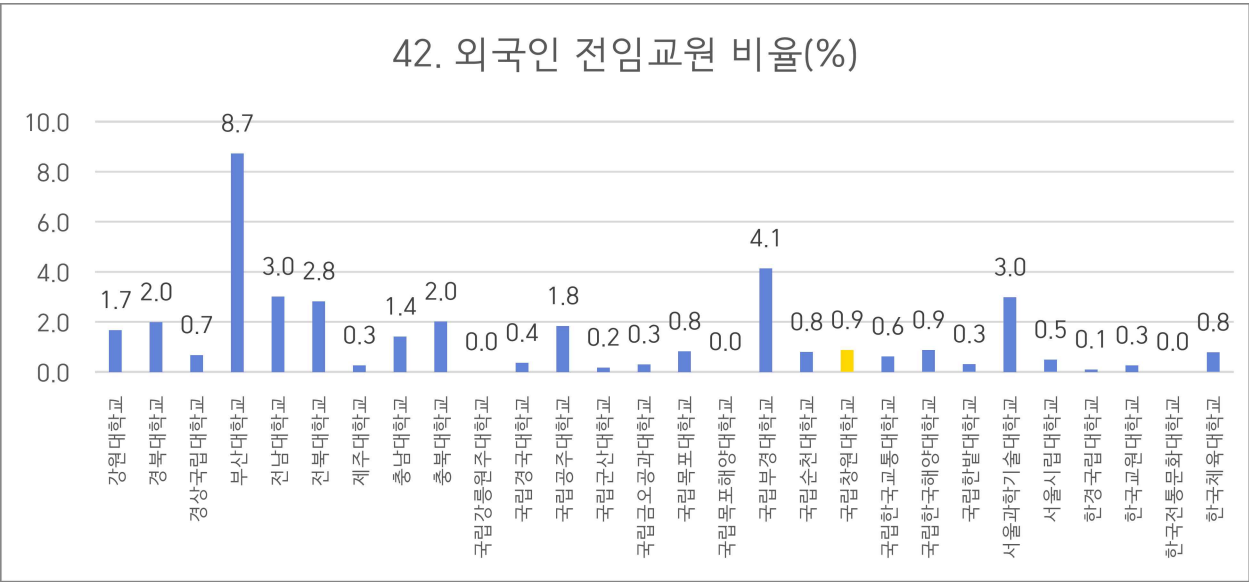
7.42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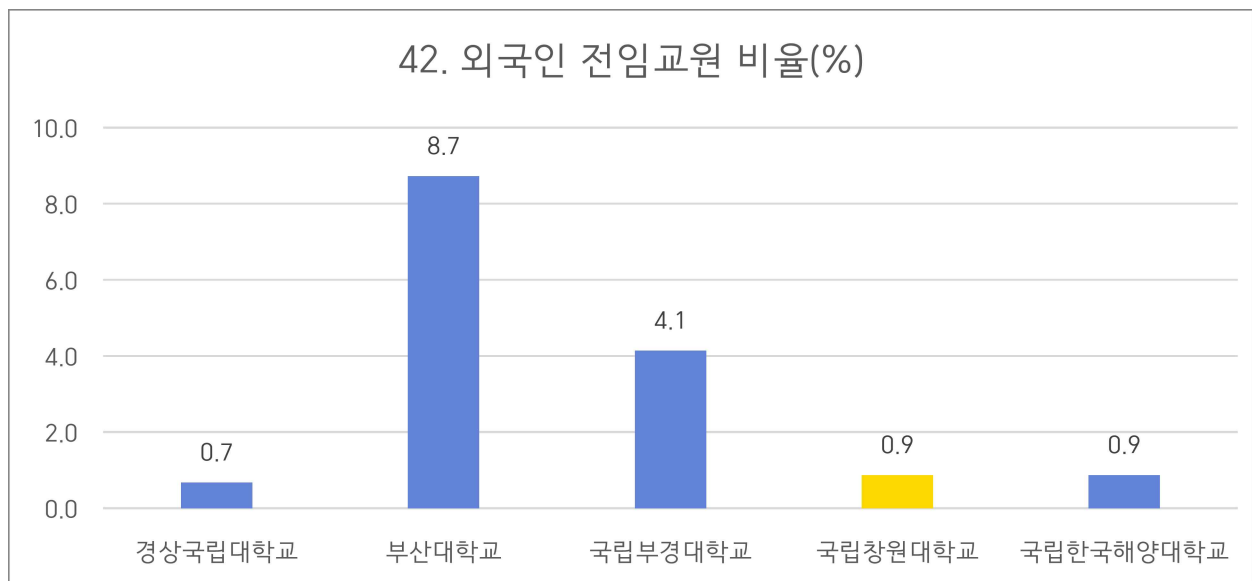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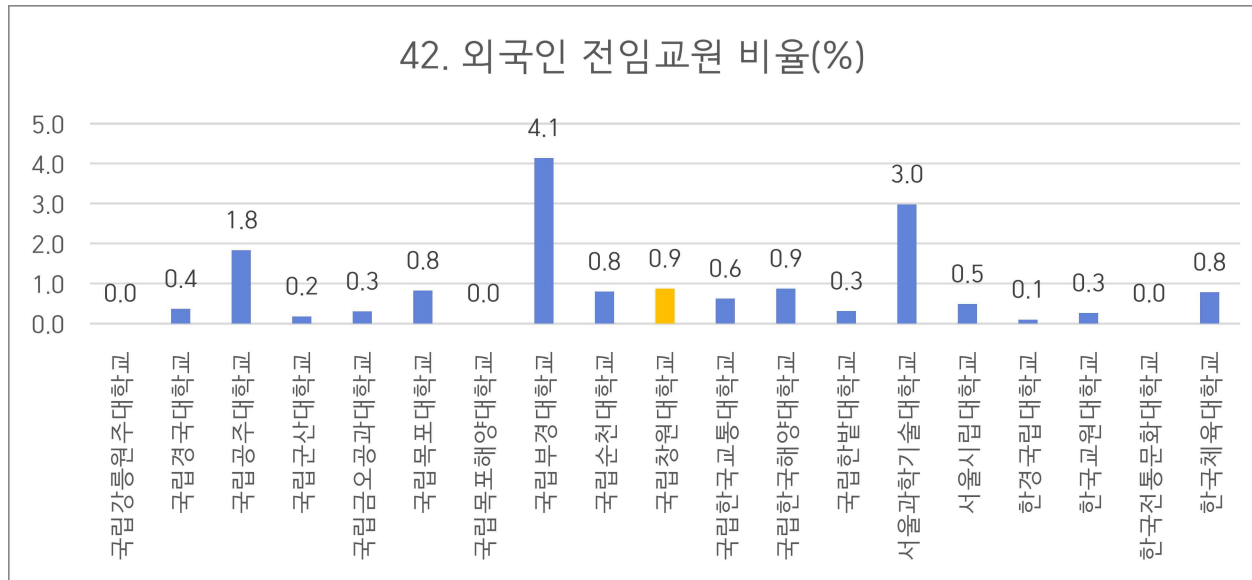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분	전임교원(A)	외국인 전임교원 수(B)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C=B/Ax100)
2023	345	3	0.869
2024	345	3	0.869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30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4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1위





□ 현황분석

-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전임교원 345명 중 3명으로 0.869%를 기록하여, 2년 연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전임교원 수가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전체 전임교원 수 변동이 없어 비율 역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2024년 기준 19개 지역중심대학 중 4위, 28개 국립대학 중 11위로,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은 동종 국립대 대비 중상위권 수준이다. 우리 대학의 비율이 1% 미만으로 국립대학 평균인 약 1.4%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제화 인력 구성 측면에서는 개선 여지가 존재한다.

□ 개선방안

-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이 중상위권 수준임에도 절대적인 수치가 1% 미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화 전략 차원에서 외국인 전임교원 확충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1~2% 수준, 중장기적으로는 3% 내외의 비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제 공동연구 및 영어전용강좌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우수 외국인 교원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외국인 전임교원 채용 시 학문 분야와 역할을 대학의 국제화·특성화 전략과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 공학·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구 중심 교원을, 인문사회·예술 분야에서는 외국어·문화·예술 교육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주도할 수 있는 교육·연구 교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등, 분야별 목표에 따라 채용 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
- 외국인 전임교원을 대학 국제화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외국인 교원이 참여하는 영어전용 전공·교양과목 개설, 해외 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국제화 비교과 프로그램(국제 서머스쿨, 글로벌 인턴십, 해외봉사 등)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이 축적될 경우,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지표뿐 아니라 국제화 관련 다른 정량·정성 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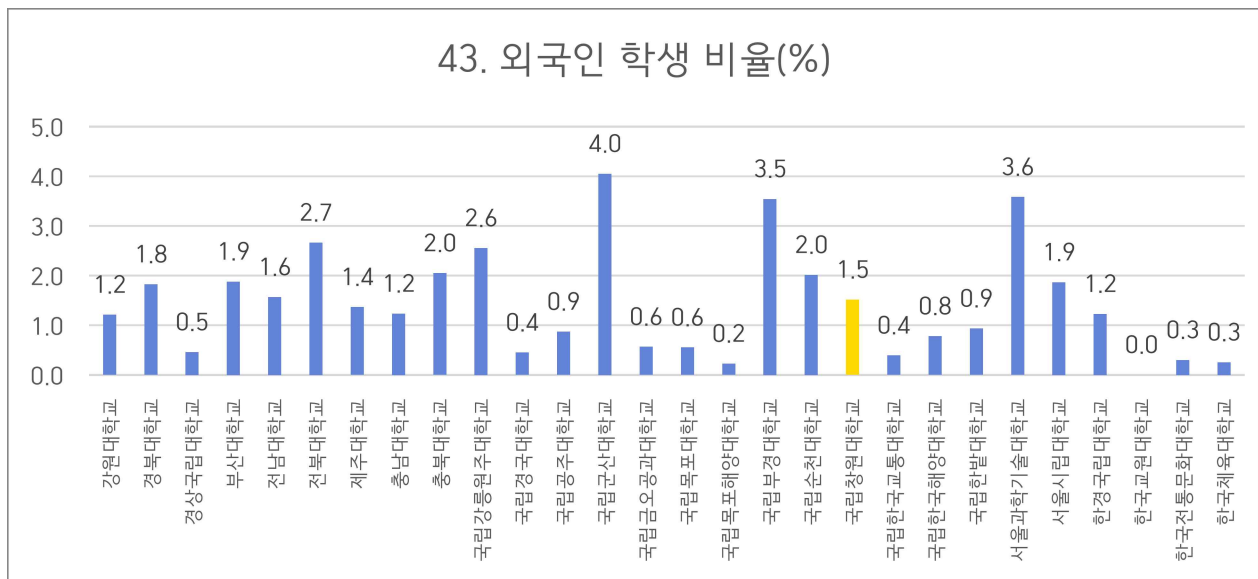
7.43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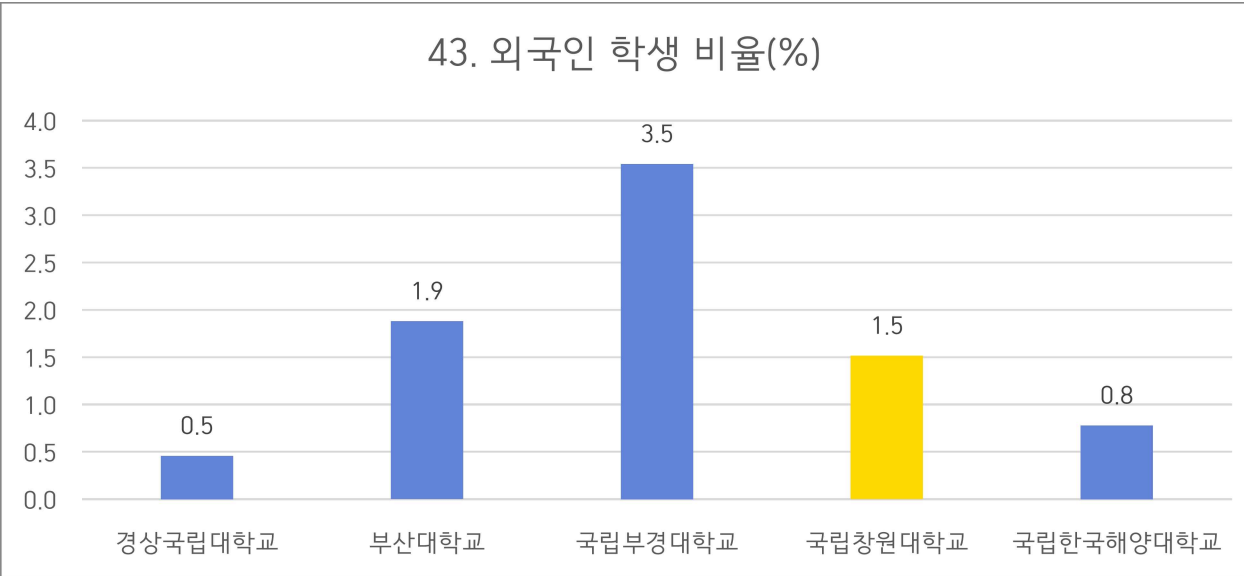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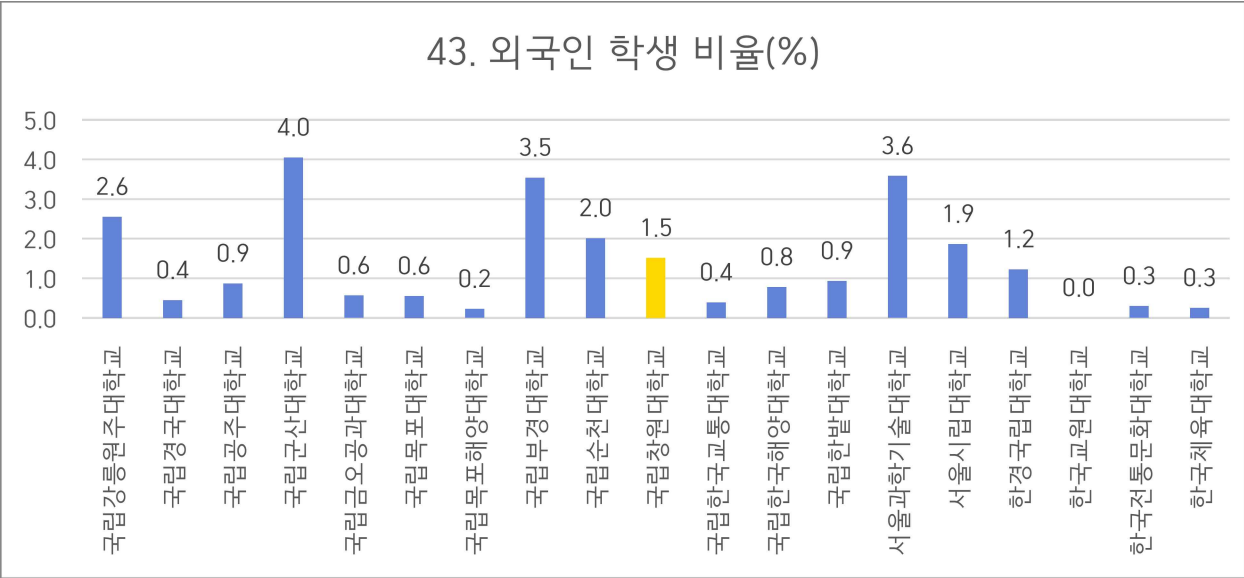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분	학위과정 외국인 학생 수(A)	재학생 수(B)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B/Ax100)
2023	117	9,310	1.256
2024	143	9,441	1.514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10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7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2위







□ 현황분석

- 우리 대학의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의 수는 2023년 117(1.26%)명에서 2024년 143(1.51%)명으로 전년 대비 약 22.2%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2015년 69명, 2016년 66명에 비하면 1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 2023년 기준 전국 28개 국립대학교 비교군 평균(1.42%) 및 순위(12위)와 19개 지역중심대학교 비교군 평균(1.3%) 및 순위(7위)와 비교하여 모두 상회하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 국립대학교 비교군 및 지역중심대학교 비교군 모두에서 상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개선방안

- 지표 개선을 위해서 외국 대학과의 교류·협정의 확대 및 홍보, 그리고 해외 현지사무소를 통하여 외국 학생의 유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해외 자매 대학과 복수학위·공동학위(1+3 또는 2+2)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전공별 수요가 높은 베트남, 중국 등의 국가에 특화된 홍보자료를 제작 배부할 필요가 있다.
- 단기 교환학생으로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수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위과정 전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진학을 유도해야 한다.
-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의 우수 고교를 대상으로 MOU를 체결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국립창원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필요하다.
- 어학연수과정생의 학위과정 진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우수 외국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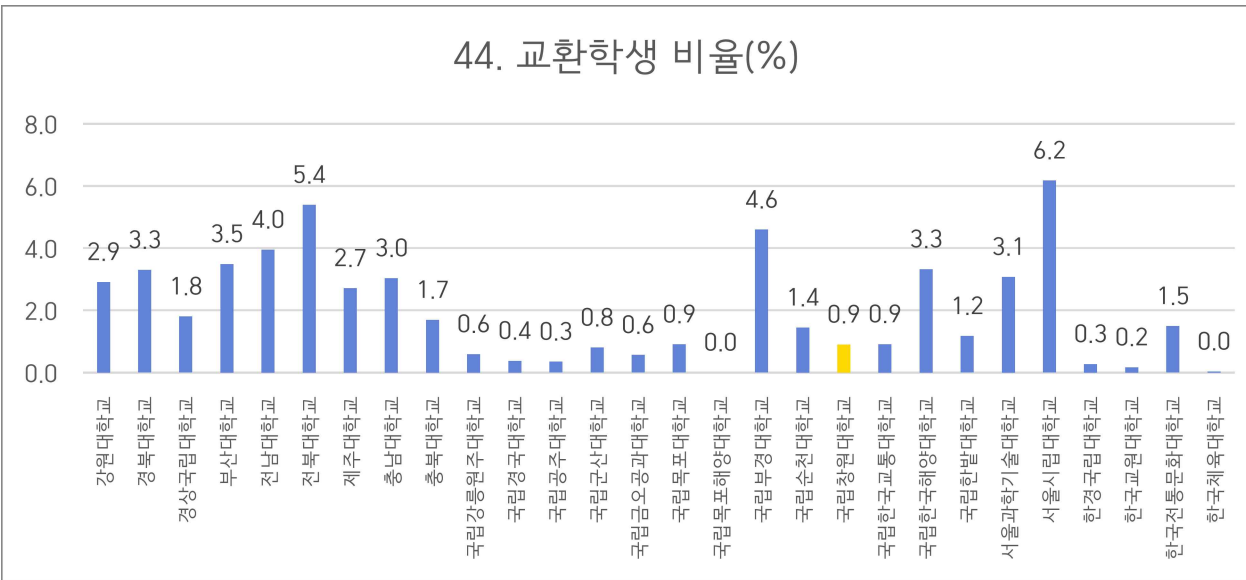
7.44 교환학생 비율(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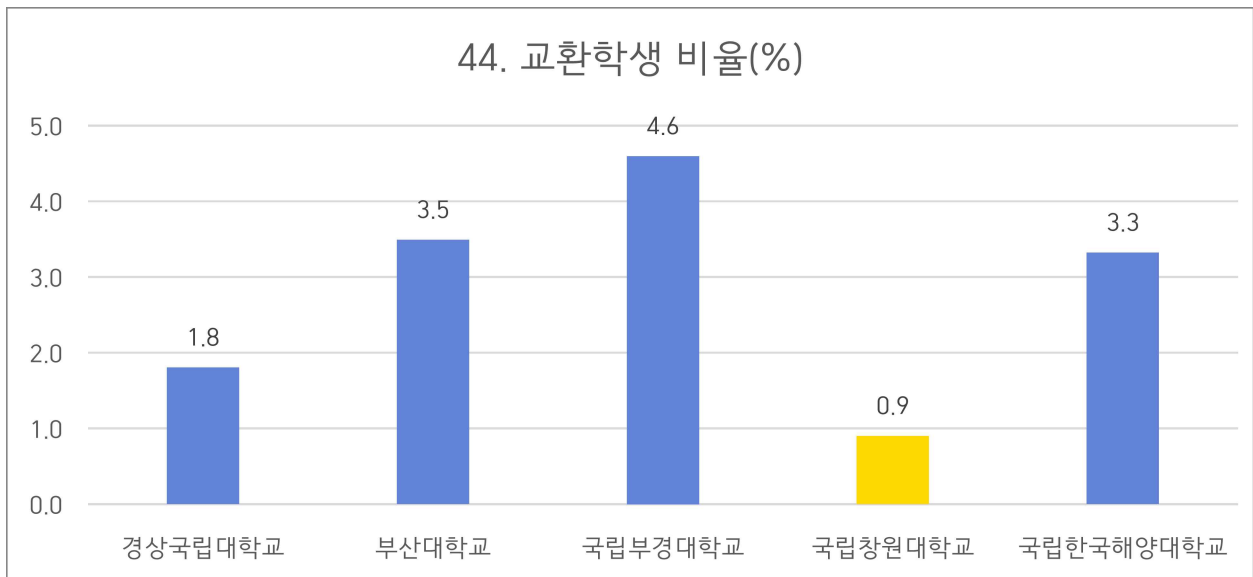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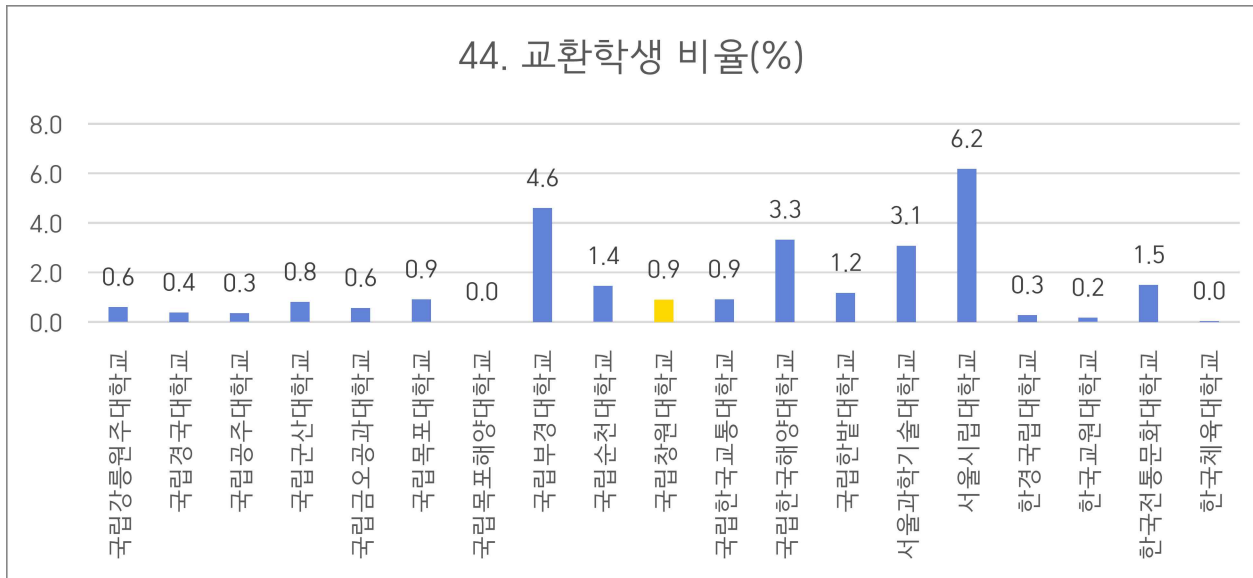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분	파견학생 수(A)	외국인 교환학생 수(B)	재학생 수(C)	교환학생 비율 ((A+B)/Cx100)
2023	49	51	9,310	1.07
2024	55	30	9,441	0.90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교환학생 비율	10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0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9위





□ 현황분석

- 우리 대학의 교환학생 수는 2023년 100명에서 2024년 85명으로 15명 감소하였으며, 교환학생 비율은 2015년 1.07%에서 2024년 0.9%로 소폭 감소하였다.
- 2023년 기준 전국 28개 국립대학교 비교군 평균(1.78%, 19위)과 19개 지역중심대학교 비교군 평균(1.25%, 10위)과 비교하여 모두 평균보다 하위권의 수준으로 분석됨.
- 특히 2024년의 경우 외국인 교환학생(30명) 대비 우리 대학의 해외파견학생(55명)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 개선방안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학으로 전체 외국인 교환학생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경향의 개선이 필요하다.
- 전공 특화형 교환 프로그램, 영어 강의 및 국제 교육과정 확대, 외국인 학생 전용 장학금·기숙사 패키지 제공, 지역 산업체·지자체 연계형 프로그램 강화, 교환학생 대상 '지역 체험형 가치 제공' 모델 구축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유치 필요하다.
- 지자체와 연계하여 외국인 교환학생의 지역행사 초청, 지역 체험프로그램 비용 일부 보조 또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지역기업과 협약을 통해 산업체 연계 단기간 인턴십 보장 및 현장실습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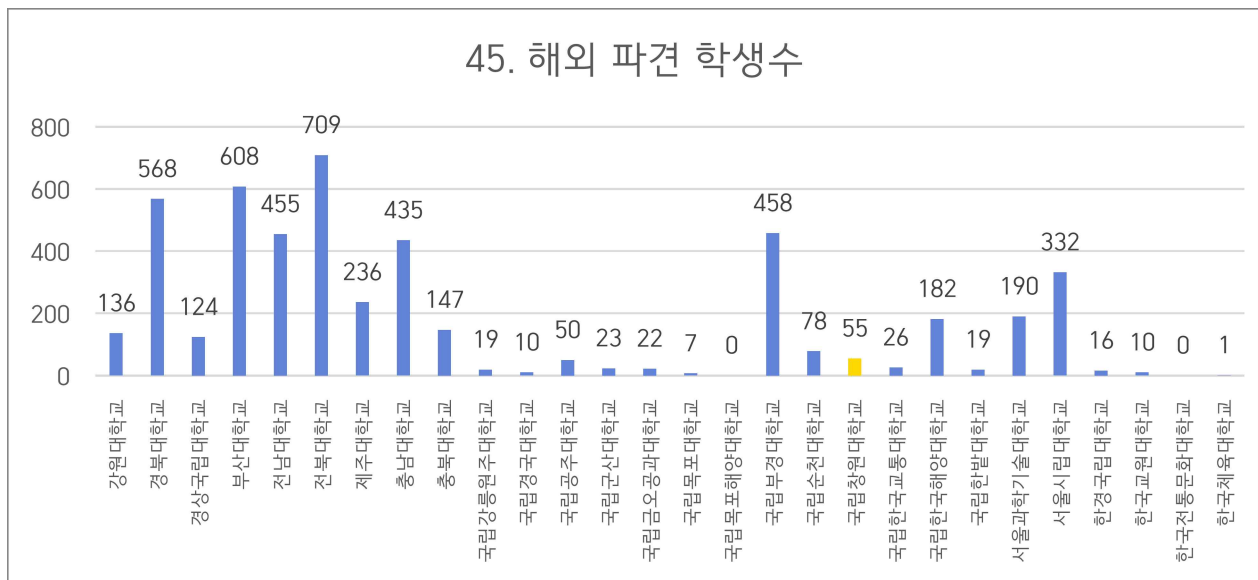
7.45 해외파견 학생 수(20점)

□ 실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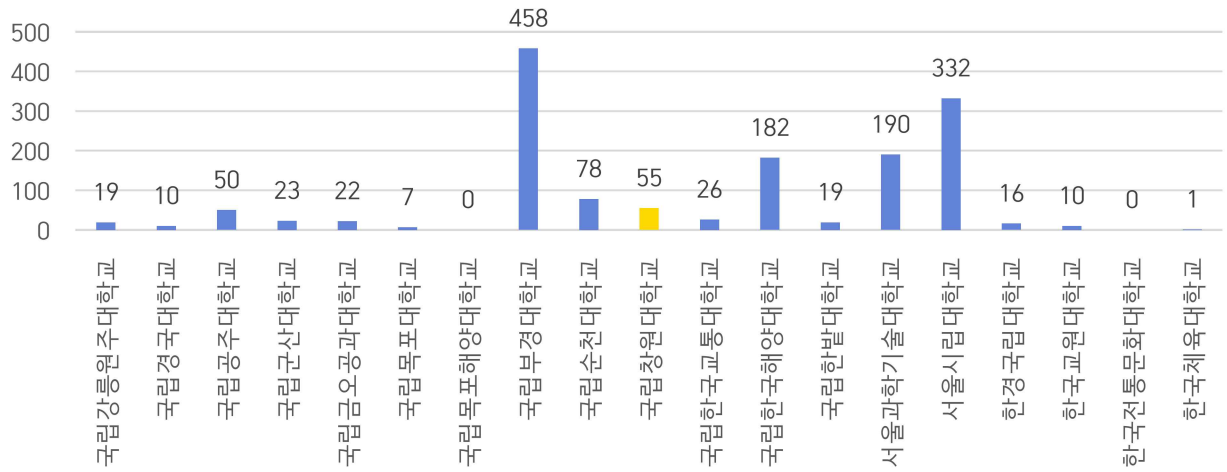
구분	파견학생 수(A) 자 대학교 → 타 대학교	교환학생 수 타 대학교 → 자 대학교	비고
2023	49	51	
2024	55	30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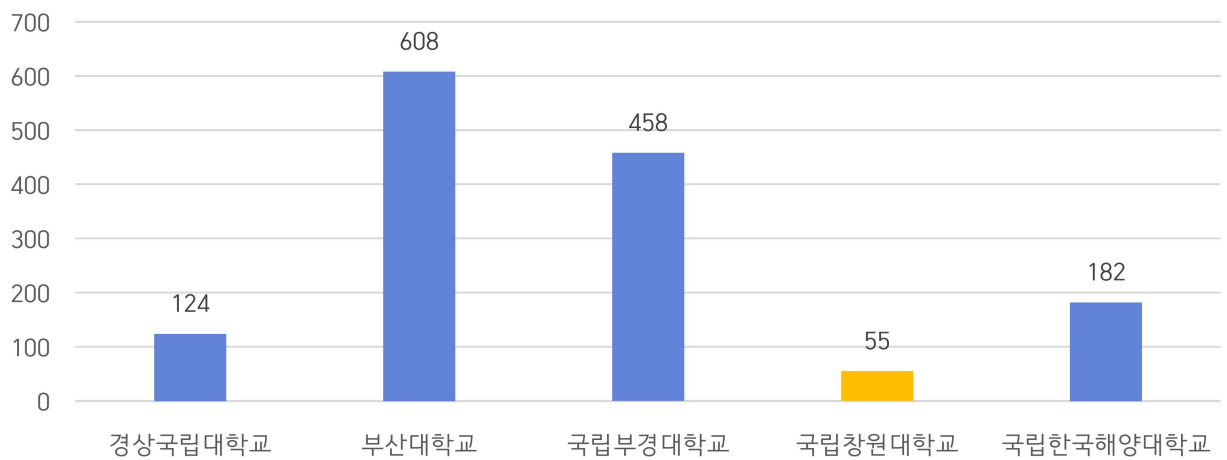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해외파견 학생 수	20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6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5위



45. 해외 파견 학생수



45. 해외 파견 학생수





□ 현황분석

- 우리 대학의 해외파견 학생 수는 2023년 49명에서 2024년 55명으로 6명 증가하였다.
- 2023년 기준 전국 28개 국립대학교 비교군 평균(172.4명)과 19개 지역중심대학교 비교군 평균(76.1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 해당 지표는 전체 재학생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해외파견 학생의 인원수를 이용한 절대기준으로, 재학생 규모가 많지 않은 지역중심대학이 거점국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 개선방안

- 어학 교육, 문화 및 전공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4~6주 해외 계절학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수 동반 현장학습이나 전공별 해외 필드스쿨 등, 교환·방문·복수학위 외에 중단기 모듈형(Micro mobility) 도입이 필요하다.
- 전공 맞춤형 교환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학생들의 ‘학점 인정 불안’을 낮추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해야 한다.
- 기존의 교류협정 체결 학교 이외에도, 지자체 해외 사무소 등의 개별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인턴십 경로를 확대하여 단기 온라인 글로벌 인턴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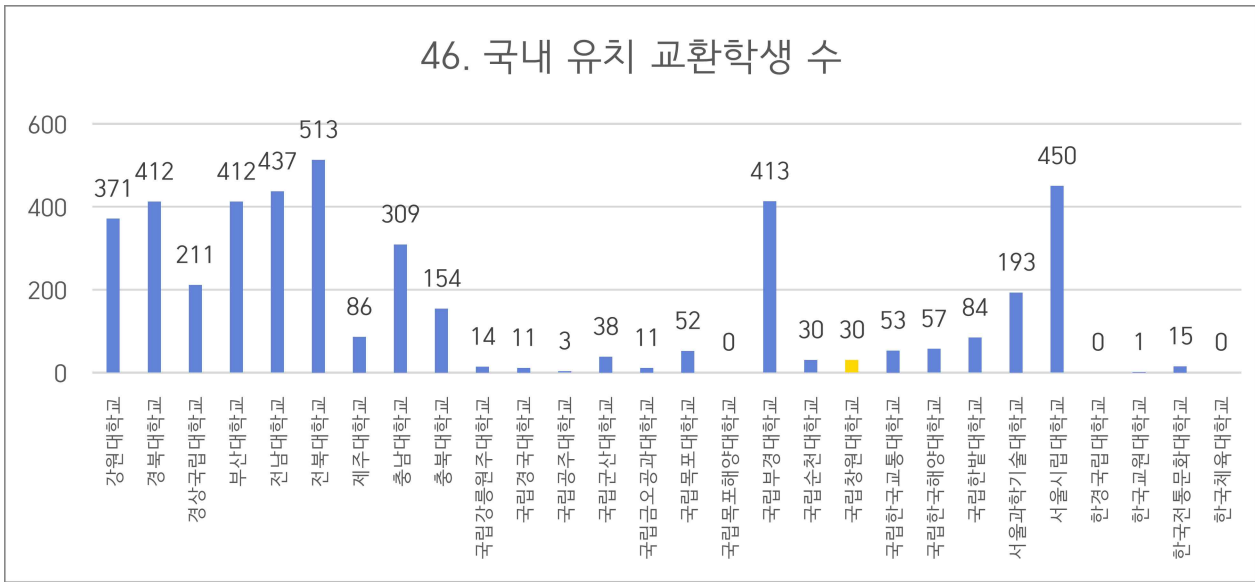
7.46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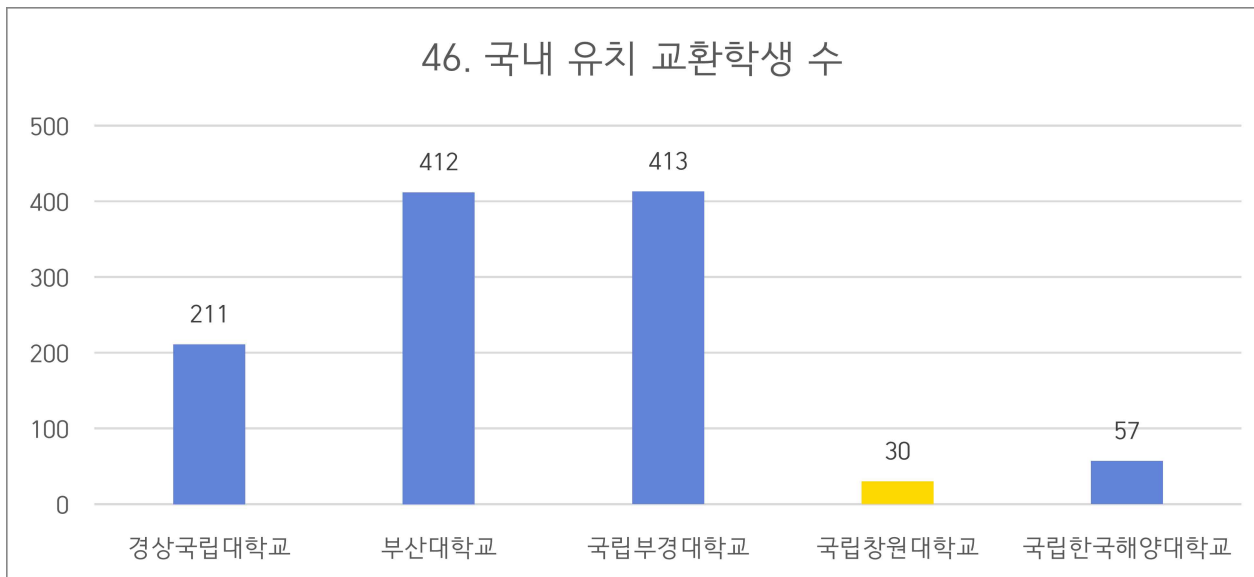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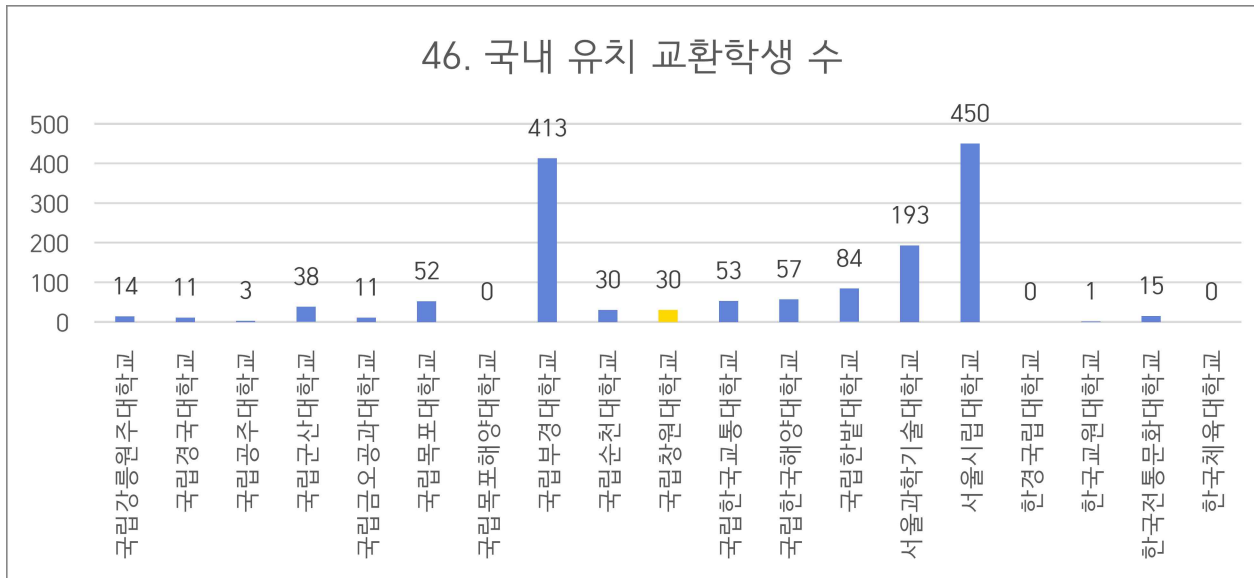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분	파견학생 수 자 대학교 → 타 대학교	교환학생 수(A) 타 대학교 → 자 대학교	비고
2023	49	51	
2024	55	30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20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9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8위





□ 현황분석

-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치학생 수는 2023년 51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21명 감소하였다.
- 2023년 기준 전국 28개 국립대학교 비교군 평균(141.9명)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나, 19개 지역중심대학교 비교군 평균(67.3명)과 비교하면 평균 대비 조금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 해당 지표는 전체 재학생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해외파견 학생의 인원수를 이용한 절대기준으로, 재학생 규모가 많지 않은 지역중심대학이 거점국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 개선방안

- 기계·자동차·소재공학(창원국가산단 연계)·전기·전자·AI·스마트제조 등 전공 특화 트랙(학기/계절학기)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영어강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20~30%까지 확대하고 교환학생 전용 수업 패키지를 구성하여 교환학생이 바로 신청 가능한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공항 픽업, 기숙사 우선 배정, 의료·보험·은행·휴대폰 개통 원스톱 안내, 주 1회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 운용, 창원·부산 문화체험 등 교환학생 초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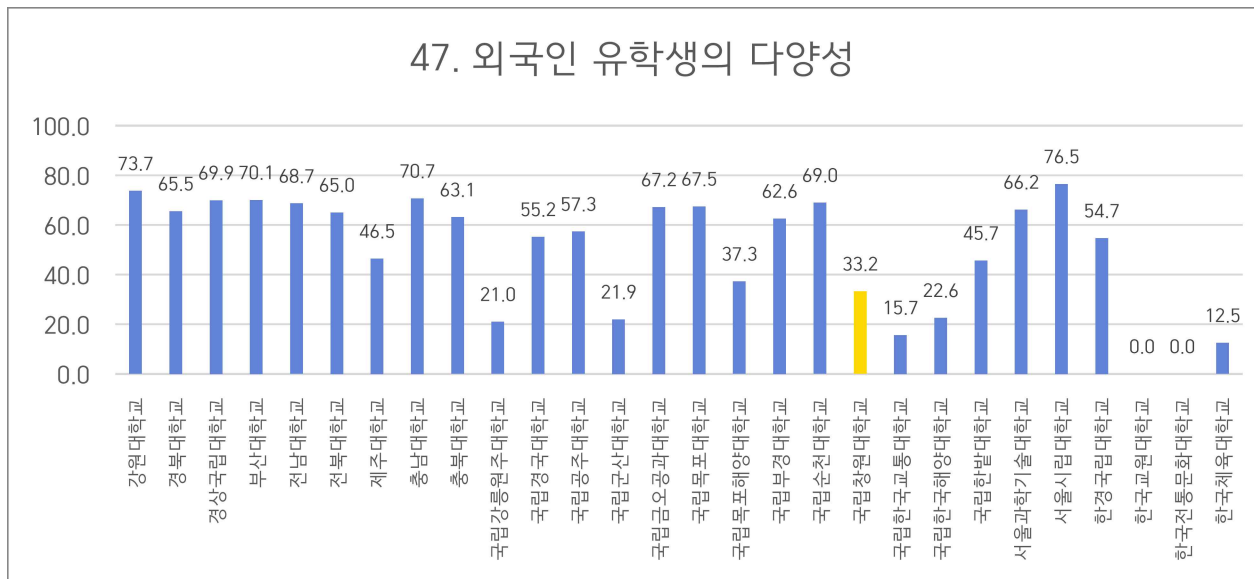
7.47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10점)

□ 실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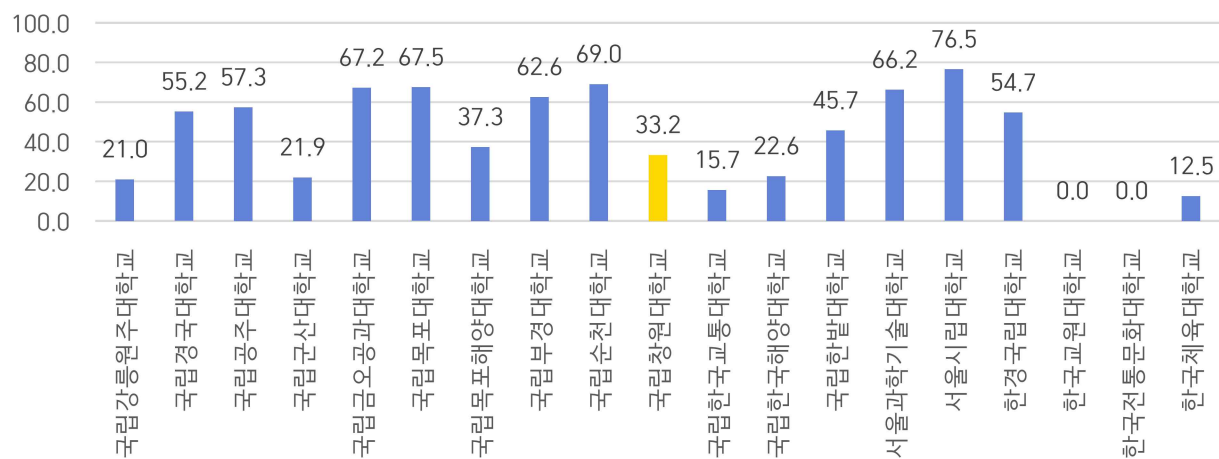
구분	유학생 최다 국가	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A)	전체 유학생 수(B)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C=1-(A/B) \times 100$
2023	베트남	205	283	27.6
2024	베트남	249	373	33.2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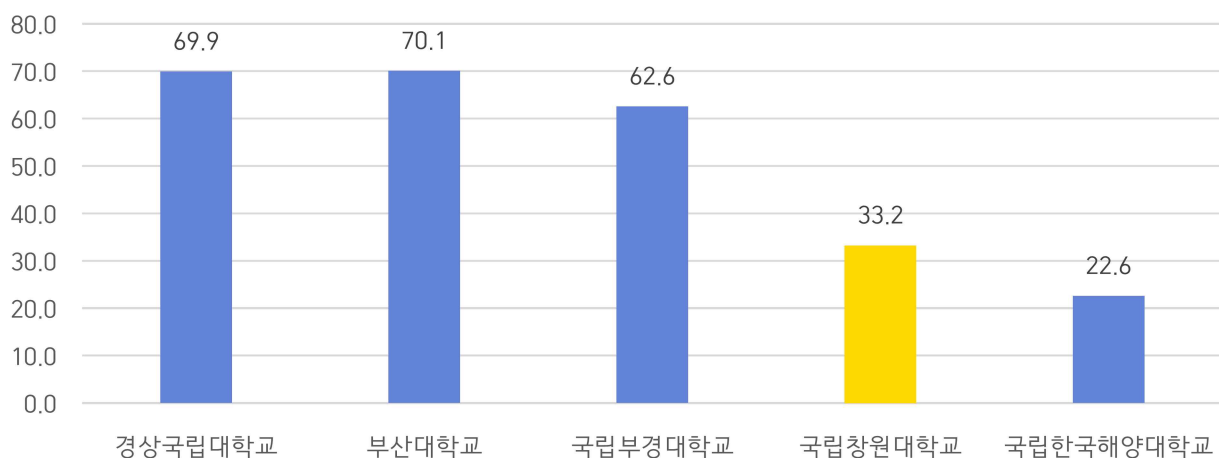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0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5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4위



47.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47.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 현황분석

-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은 2023년 27.60에서 2024년 33.28로 상승하였다.
- 2023년 기준 전국 28개 국립대학교 비교군 평균(50.2) 보다는 낮지만, 19개 지역중 심대학교 비교군 평균(42.3)에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 최상위 수준 대학의 경우 76.5% 수준의 다양성 지표를 보이므로, 특정 국가출신 학생들에 대한 편중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지표개선 노력 필요하다.

□ 개선방안

- 기존에 상위권을 차지하는 베트남, 중국 등의 안정화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및 프랑스 등의 유럽권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협정의 확대 및 홍보를 통하여 외국인 교환학생 유치 방안 강구해야 한다.
- 아시아권(인도·동남아) 국가 학생들을 위한 IT·AI·소프트웨어·스마트제조·기계·전기전자·경영학, 또 동유럽권 국가 학생들의 방위·기계·에너지 등의 전공 매칭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 유치가 필요하다.
-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와 MOU 체결을 확장하여, 유학생 국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GKS 유학생 및 KOICA 장학생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8. 기타(5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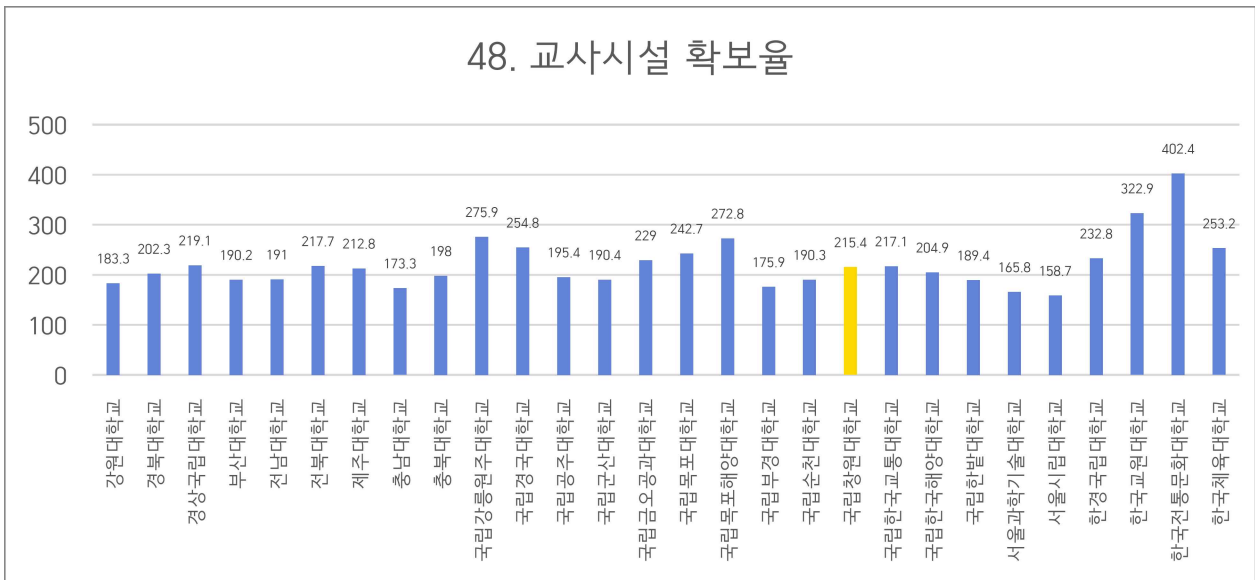
8.48 교사시설확보율(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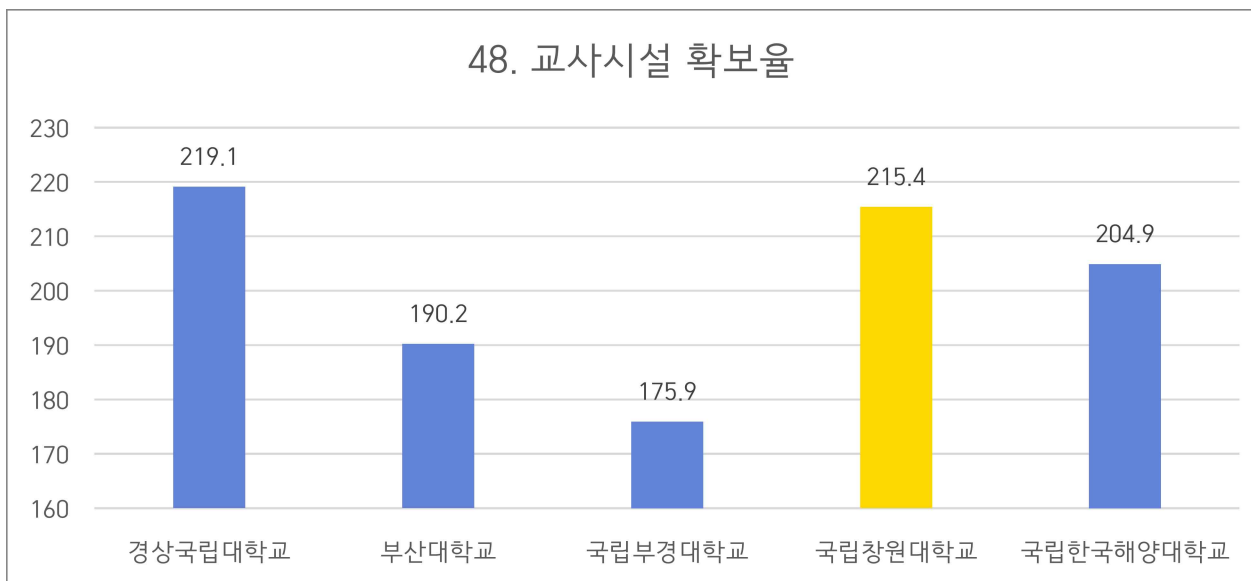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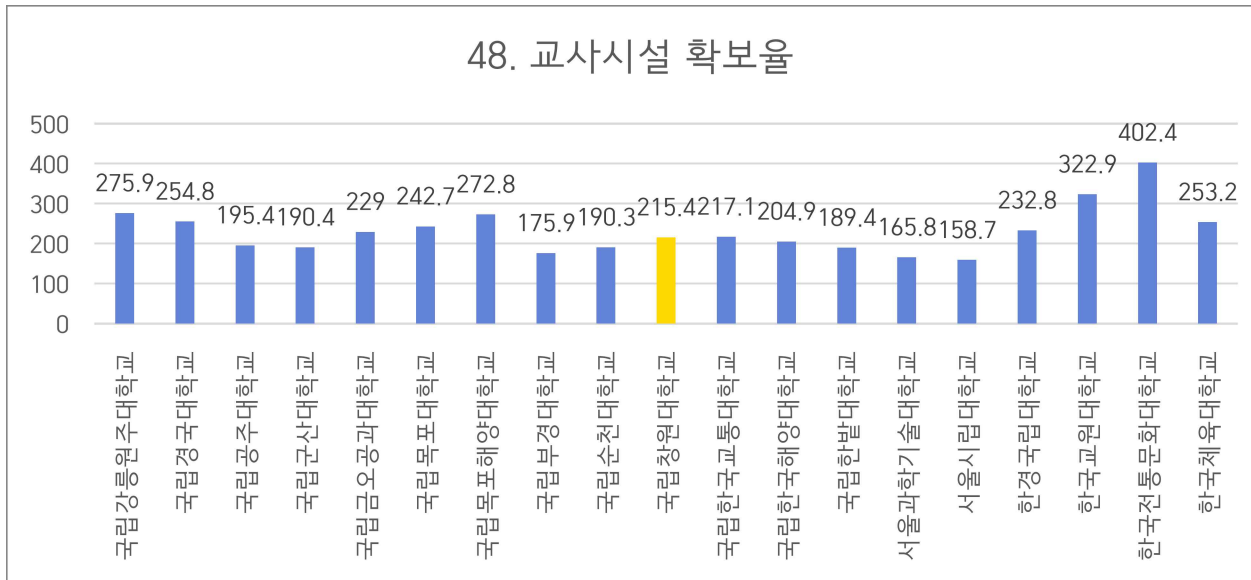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 분	기준면적(㎡)		보유면적(㎡)					교사시설확보율(%)	
	입학정원 기준(A)	재학생 기준(B)	기본시 설(C)	지원시 설(D)	연구시 설(E)	부속시 설	기타시 설	입학정원기준 (C+D+E)/A×1 00	재학생기준 (C+D+E)/B ×100
2023	125,750	126,021	126,645	44,944	30,902	19,325	9,292	161	160.7
2024	101,806	104,458	137,462	53,989	33,552	10,870	15,080	221	215.4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교사시설확보율	30점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1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3위





□ 현황분석

- 전반적으로 국립창원대학교는 교육·연구·지원시설 측면에서 법정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은 비교적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설 확보율의 양적 지표와 별도로 노후 시설 개선, 공간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개선방안

- 교사시설확보율이 이미 법정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시설의 단순 확충보다는 질적 개선과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 노후 교사 및 연구시설에 대한 단계적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 학과별·용도별 공간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휴 공간을 최소화하고, 교육과정 개편 및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재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중장기적으로는 교사시설 확보 및 활용 계획을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여건 유지와 함께 캠퍼스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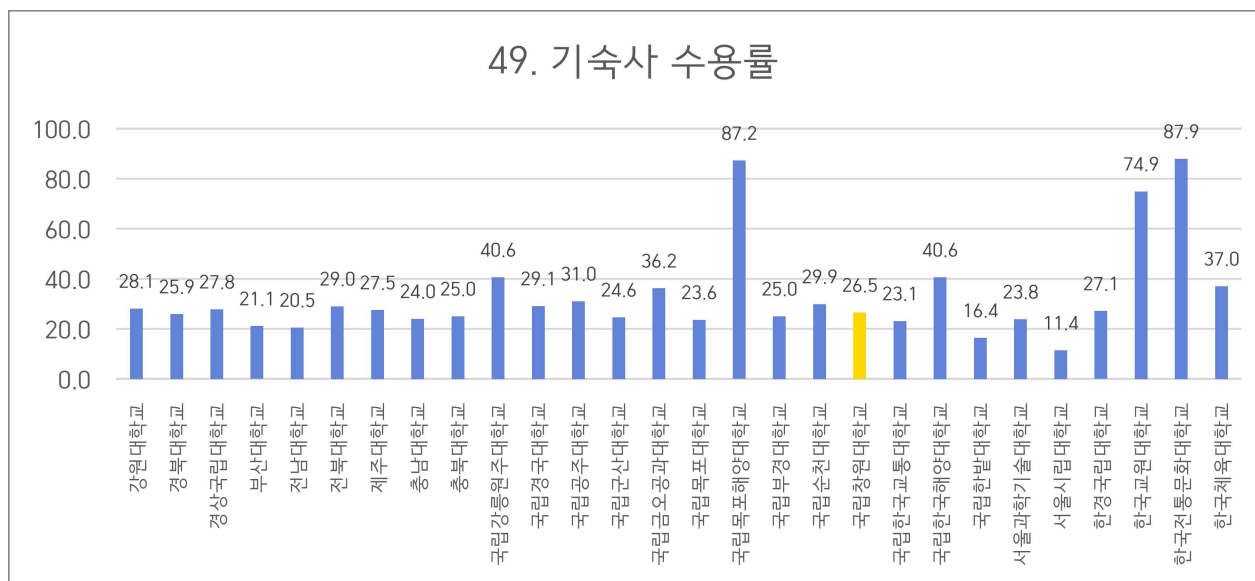
8.49 기숙사수용률(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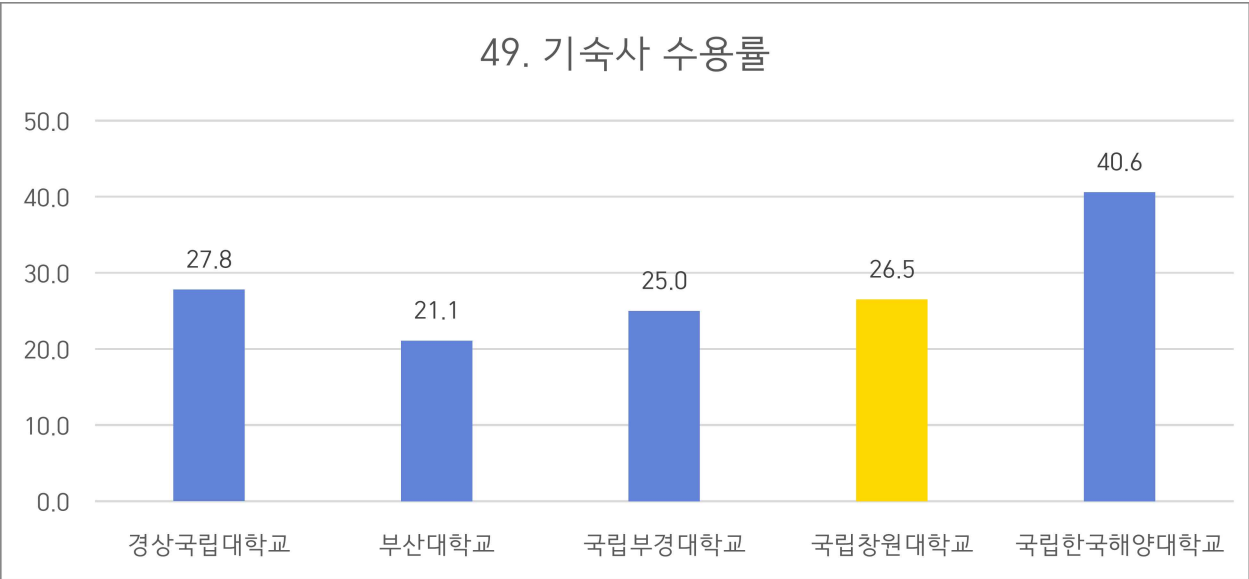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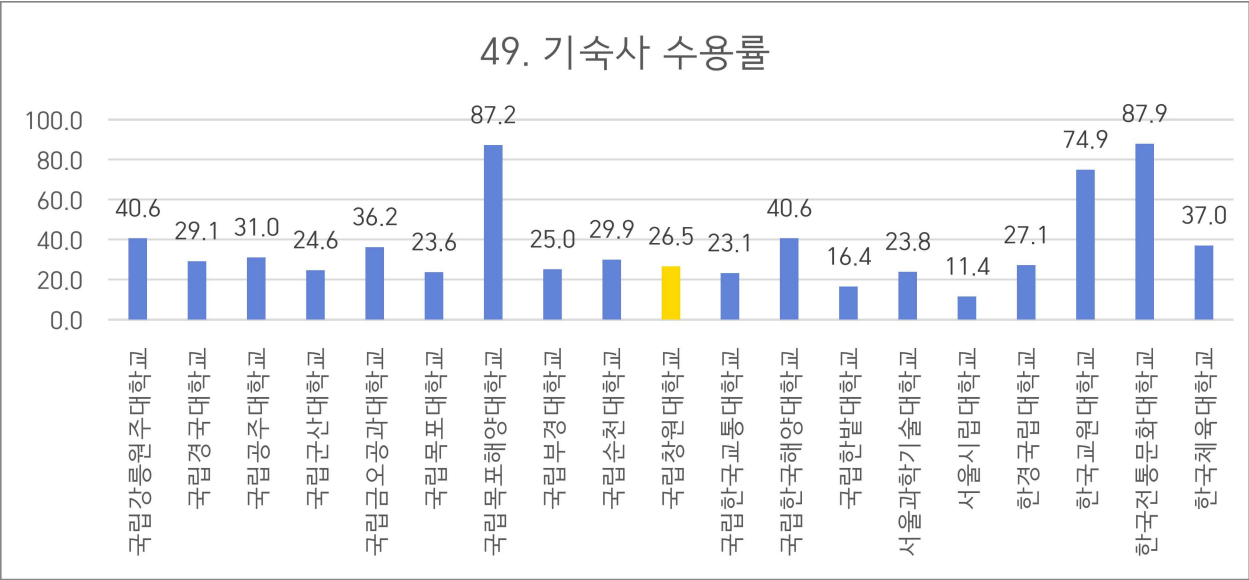
□ 실적현황

구 분	재학생 수(A)	수용 가능 인원(B)	기숙사 수용률(C=B/A)	비고
2023	8,196	2,207	26.9	
2024	8,318	2,207	26.5	

□ 평가결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지표	배점	2024년 기준 순위
기숙사수용률	20점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중 12위
		28개교 국립대학 중 16위







□ 현황분석

- 기숙사 수용률은 2023년 26.9%에서 2024년 26.5%로 소폭 하락하였다. 이는 재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이 동일하게 유지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 2024년 기준 기숙사 수용률은 19개 지역중심국립대학 중 12위, 28개 국립대학 중 16위로, 전체 국립대학 대비 중위권 수준에 해당한다.
- 2024년 기준 기숙사 수용률은 19개 지역중심국립대학 중 12위, 28개 국립대학 중 16위로, 전체 국립대학 대비 중위권 수준에 해당한다.

□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숙사 시설의 운영 효율을 제고하여 실제 수용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학 중 공실 관리 및 탄력적 운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학생 수요, 외국인 유학생 증가, 캠퍼스 통합 등을 고려한 기숙사 확충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수용률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민자기숙사, 지역 연계형 주거시설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검토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학생의 주거 지원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
- 기숙사 입주 기준 및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학생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학생 유치 경쟁력과 재학생 정주 여건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IV

종합 및 제언

1. 평가성적 분석
2. 평가결과 종합 및 활용계획
3.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4. 17개 공통지표 변화 추이



1. 평가 성적 분석

『2025년 국립창원대학교 자체평가』를 통하여 분석된 내용은 평가 종료 후에 우리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확인함으로써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정책추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강점은 발전시켜나가고, 약점과 문제점은 보완 개선하여 대학의 발전방향으로 로드맵을 설정하여 향후 우리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대학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평가는 각 평가 항목별로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 우수 : 75점 이상 ▶ 보통 : 50점 이상 75점 미만 ▶ 미흡 : 50점 미만

1) 학생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4	150	78	52.00
19개 지역중심대			70	46.67

○ 학생 관련 평가지표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학생 비율, 학부생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자체평가 결과에서 학생 영역은 총 배점 150점 대비 28개 국립대학 비교 78점, 19개 지역중심대학 비교 70점을 취득하여, 주요 학생 지표 전반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여건 등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학생 모집력과 유지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신입생 충원율은 지역 국립대 간 경쟁 심화와 입학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일부 학과·전공별로 충원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학생 모집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 마련과 학과 간 균형적 충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재학생 충원을 또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등록 유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간 이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학생 충원율의 단순 유지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만족도 제고, 학생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진로·취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학생 유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중도탈락학생 비율은 대학 교육 서비스 만족도와 직결되는 지표로, 이번 평가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대학의 중도탈락 비율은 일정 수준의 관리 성과가 확인되며, 학생 상담, 학사관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학생관리 체계가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학과에서 여전히 중도탈락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학업부진 학생 조기경보 체계 강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생활·경제·정서 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중도탈락률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학부생 비율은 대학 구조조정, 정원 조정, 대학원 규모 변화 등과 연동되어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학생 구성 측면에서 학부 중심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학부생 수 유지뿐만 아니라 대학원의 질적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학생 수급 체계를 병행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원 교육의 매력도 제고, 장학·재정 지원 확대, 연구 참여 기회 강화 등이 요구된다.
- 종합적으로 볼 때 학생 영역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충원 구조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 유지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 대학 간 경쟁 심화 등 구조적 환경 변화 속에서 우수 신입생 유치 전략 고도화, 재학생 만족도 기반 유지율 제고, 중도탈락률 감소를 위한 체계적 관리 강화가 필수적 과제로 제시된다. 앞으로 학생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학생 경험(academic & campus life) 개선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2) 교원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3	100	50	50.00
19개 지역중심대			44	44.00

- 교원 관련 평가지표는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직원 1인당 학생 수』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자체평가 결과, 교원 영역은 일부 지표에서 전국 국립대 평균 대비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확인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임교원 확보율은 다소 개선이 요구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교육의 기본적인 질적 기반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정원 조정과 재정 여건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타 국립대학과 비교할 때 다소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임교원 충원 정책의 재정비와 학과 간 교원 배분의 합리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임교원의 확보 수준은 직접적으로 교육의 질과 연결되므로, 안정적인 전임교원 확보 전략과 더불어 승진·평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지표는 교육 부담과 학습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우리 대학의 경우 일정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특정 단과대학이나 전공별로 학생 수 편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전임교원 수급계획과 학사 구조조정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원 1인당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개별 학습지원과 면대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직원 1인당 학생 수는 대학 행정 서비스의 적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행정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교육·연구 행정 수요 증가, 국가 정책사업 수행 확대, 학생 지원 서비스 고도화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정원 유지보다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행정 인력 운영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원 본연의 교육·연구 역량이 행정 부담으로부터 과도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종합적으로 볼 때, 교원 영역은 전임교원 확보, 교육 부담 수준, 행정 지원 역량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표는 타 국립대학과 비교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임교원 충원 안정화, 합리적 교원 배분, 교원 연구·교육 활동 여건 개선, 행정지원 체계 고도화를 통해 교육의 질과 연구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 영역은 전략적 투자 및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는 핵심 영역으로 판단된다.

3) 교육여건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7	150	78	52
19개 지역중심대			60	40

- 교육여건 관련 평가지표는 『취업률,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강의규모의 적절성, 소규모 강의비율, 대규모 강의비율,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자체평가 결과, 우리 대학은 일부 지표에서 긍정적인 개선 흐름을 보였으나, 몇몇 지표는 여전히 추가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강의규모 관리와 전임교원 강의 비중은 교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핵심 요소로, 이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환경 관리가 요구된다.
- 취업률은 대학 교육성과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로,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취업성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 유지보다는 질적 취업 확대, 전공 연계형 진로 지원 강화, 현장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고도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이에 따라 현

장실습, 진로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과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대학의 교육 안정성과 직결되는 지표이다.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전임교원 강의 참여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전임교원 강의 비중 확대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의 질 제고와 학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전임교원 강의 참여 확대와 함께 교원 연구·교육 활동 간 균형 유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 강의규모의 적절성, 소규모 강의비율, 대규모 강의비율은 학습 참여도와 교육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다.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소규모 강의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전공에서는 학생 수 집중 현상으로 대규모 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강의 규모 조정, 수업 운영 유연화, 학과별 맞춤형 수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학습지원 인프라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우리 대학은 필수 학습자료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투자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육·연구 환경이 디지털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전자자료 확충, 최신 학술정보 접근성 강화, 학습지원 서비스 다양화 등 질적 개선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교육여건 영역은 취업성과, 강의 운영 체계, 학습 인프라 등 전반에서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임교원 강의 비중 강화, 강의 규모 적정화, 학습지원 인프라 고도화 등 일부 지표는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교육여건은 학생 만족도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으로, 체계적 관리와 전략적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연구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10	160	106	66.25
19개 지역중심대			108	67.50

- 연구 영역의 평가지표는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전임교원 1인당 SCI급/SCOPUS급 논문 실적,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전임교원 1인당 교내·교외 연구비, 기술이전 건수 및 수입료,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총 1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자체평가 결과, 일부 지표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긍정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적 연구성과 확장과 고부가가치 연구성과 창출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학문 분야별 논문 산출 특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단과대학 및 전공 간 편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 지원 정책의 세분화와 맞춤형 연구 환경 조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전임교원 1인당 SCI급/SCOPUS급 논문 실적은 대학의 국제 연구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우리 대학의 경우 일정 수준의 성과는 확보하고 있으나, 상위권 국립대학과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국제공동연구 확대, 연구 네트워크 강화, 고임팩트 저널 게재를 위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의 전략적 운영이 필요하다.
- 전임교원 1인당 교내·교외 연구비 지표는 대학의 연구기반과 외부 경쟁력 확보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연구재원 확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 정책사업 경쟁 심화와 외부 연구재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대형 연구과제 발굴, 산학연 협력 확장, 전략연구분야 집중 육성 등을 통해 연구비 확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기술이전 및 특허(국내·외 출원 및 등록) 관련 지표는 대학 연구성과의 실질적 활용과 산업적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기술사업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용기술 개발, 창업·사업화 연계 구조 강화, 기술이전 수익 확대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연구 영역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연구 활동 기반과 일정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 경쟁력 강화, 고품질 연구성과 확대, 기술사업화 성과 증대라는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연구 지원 체계 고도화, 전략연구분야 집중 육성, 연구성과의 질적·양적 성장 동시 달성을 위한 종합적 관리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재정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5	150	126	84.00
19개 지역중심대			104	69.33

- 재정 영역의 평가지표는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단가, 등록금 비율, 기부금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자체평가 결과, 우리 대학은 교육 투자 및 장학 지원 등 학생 지원 중심 항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 운용 전반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재원 다변화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전략적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비 환원율은 대학이 확보한 재원을 학생 교육 활동에 어느 정도 재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우리 대학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교육비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교육 수요의 다양화 및 첨단 교육환경 구축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 투자 구조의



효율화와 전략적 배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장학금 지급률은 학생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업 지속성 확보와 직결되는 지표로, 우리 대학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장학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만족도 제고와 우수 학생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장학금 지원의 단순 규모 확대를 넘어, 학생 특성·성과·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 제도 운영을 통해 장학금의 실질적 효과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는 강의 운영 구조와 교수학습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지급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 환경 변화와 정책 여건을 고려한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교육과정 다양화와 수업 운영 방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체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등록금 비율과 기부금 비율은 대학 재정구조의 안정성 및 외부재원 확보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로, 우리 대학은 등록금 의존도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부금 확보 또한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가정책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국고사업, 산학협력 수익, 발전기금 확대 등 재원 다변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재정 영역은 교육 투자 및 학생 지원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외부재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대학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전략적 재원 확보와 재정 구조 개선을 통해 교육·연구·산학협력 전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산학협력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12	140	118	84.29
19개 지역중심대			114	81.43

- 산학협력 영역의 평가지표는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교원창업 및 창업성과, 창업 강의 및 재정지원, 창업공간 및 전담인력, 교수 1인당 산학 공동연구 과제 수 및 연구비』 등 총 1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자체평가 결과, 우리 대학은 산학협력 활동 전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산업체와의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 교육·연구 연계 성과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과 산학협력중점교수 지표는 대학의 산학협력 인프라 및 조직 체계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핵심지표로, 우리 대학은 일정 규모의 장비 활용도와 산학 인력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산학협력 활동이 단순 협력 차원을 넘어, 실질적 연구지원 및 기술활용 기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향후 장비 활용 효율성 증대와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과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은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계한 실천 중심 교육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 대학은 비교적 안정적인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 강화와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여 학과 확대와 프로그램 질적 고도화가 요구된다.
- 교원창업 건수·수익, 창업 강의 수, 창업 재정지원 및 공간·인력 지원 지표는 대학의 창업생태계 조성과의 연계된 산학협력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창업 인프라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 및 교원의 창업 활동 지원 체계 또한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창업성과의 실질적 확산과 고부가가치 창업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대상 확대와 맞춤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 교수 1인당 산학 공동연구 과제 수 및 연구비 지표는 산업체와의 실질적 협력 정도를 반영하는 핵심 성과지표로,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공동연구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산업 구조 변화와 국가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전략 산업 분야 중심의 공동연구 확대, 대형 협력과제 발굴,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산학협력 영역은 장비 활용,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창업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와 안정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학협력의 양적 성과를 넘어 질적 성과 확대, 산업체 수요 맞춤형 협력 구조 강화, 기술사업화 성과 증대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고도화 전략이 요구된다. 앞으로 대학은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 산학협력 성과가 교육·연구 경쟁력으로 자연스럽게 환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7) 국제화여건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6	100	74	74.00
19개 지역중심대			80	80.00

- 국제화여건 영역의 평가지표는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교환 학생 비율, 해외 파견 학생 수,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등 총 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자체평가 결과,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국제교류 및 국제화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표에서는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화 역량을 한층 더 확장·고도화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었다.
-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은 대학의 교육·연구 국제화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외국인 교원을 확보하여 교육과 연구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글로벌 수준의 학문 교류 활성화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임 외국인 교원 확충, 특정 분야 집중 유치, 장기 근속 및 학내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 외국인 학생 비율과 교환학생 비율은 대학 구성원의 국제적 다양성과 학생 교류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유학생 유치와 교류학생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제학생 구성의 균형성 확보, 학과별 편중 완화,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제교류의 폭과 질을 함께 확장할 필요가 있다.
- 해외 파견 학생 수와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는 실질적 국제교류 활동의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 대학은 지속적인 교류협정 유지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을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글로벌 대학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실질적 학업 및 연구 교류 강화, 학생들의 참여 동기 제고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가 함께 요구된다.

-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지표는 특정 국가 편중 없이 다양한 국가의 학생을 유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국가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홍보 전략, 전공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유학생 지원서비스 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국제화여건 영역은 외국인 교원 및 학생 확보, 교환학생 운영,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와 안정적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력 선도를 위한 적극적인 확장 전략이 요구된다. 향후 우리 대학은 국제교류 네트워크 고도화, 국제학술·교육 협력 강화, 외국인 구성원의 학내 정착 지원 체계 강화 등을 통해 국제화 역량을 질적·양적으로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8) 기타

구분	평가지표수	배점(A)	취득점수(B)	평가결과 (C=B/A*100)
28개 국립대	2	50	36	72.00
19개 지역중심대			30	60.00

- 기타 영역의 평가지표는 『교사시설 확보율, 기숙사 수용률』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자체평가 결과, 우리 대학은 일부 지표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간 인프라 확충과 학생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학내 물리적 환경은 교육·연구 활동의 기반이 되는 핵심 요소이므로, 지속적 관리와 전략적 투자 방향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 교사시설 확보율은 교육·연구 활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 적정성을 보여주는 지표



로,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교육·연구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일부 지표에서는 타 국립대학과 비교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 여건, 대학 구조조정, 학과 재편 등 복합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 확충 계획과 공간 효율화 전략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환경 고도화와 첨단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물리적 공간 확보를 넘어 교육·연구 활동의 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설 개선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기숙사 수용률은 학생 생활 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로,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수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숙사 인프라 운영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학년·학과 및 특정 시기 수요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시설의 효율적 운영, 이용대상 확대 방안 검토, 생활환경 개선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또한 기숙사 생활 지원 프로그램, 안전·편의시설 확충 등 질적 개선을 통해 학생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기타 영역은 대학의 기본 물리적 기반을 구성하는 시설 환경과 학생 생활지원 환경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교육·연구 환경 변화와 학생 수요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시설 확충과 공간 재배치의 효율화를 병행하고, 학생 생활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교육·연구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평가결과 종합 및 활용계획

1) 평가결과 종합분석 (SWOT)

○ 내부 강점요인

- 우리 대학은 학생 영역에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도탈락률 관리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개선 흐름이 확인되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여건 등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학생 모집력과 유지력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학생 상담, 학사 관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학생지원 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여건 측면에서도 취업률, 강의 운영 구조, 일부 학습지원 지표에서 비교적 안정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교육과 학습 전반에 대한 관리 역량이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재정 영역에서는 교육비 환원율과 장학금 지급률 등 학생 지원 중심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학업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연구 영역에서도 일정 수준의 논문 실적과 연구비 확보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술이전과 특허 등 연구성과 활용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성과 창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단순 유지 수준을 넘어 일정한 질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부 강점으로 평가된다.
- 산학협력 영역에서는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공동연구,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체 연계 교육 및 연구성과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제화여건 영역에서도 일정 수준의 외국인 학생·교환학생 운영 체계가 유지되고, 학생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기숙사 수용률 등 기본 지표가 안정성을 보이고 있어, 대학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기반 요소들이 비교적 균형 있게 작동하고 있는 점이 내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 내부 약점요인

- 교원 영역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과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일부 핵심 지표에서 타 국립대학과 비교할 때 개선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변화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학문 분야 간 교원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일부 교육여건 지표의 경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질적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추가적인 관리와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 영역에서도 전임교원 1인당 SCI/SCOPUS급 논문 실적, 대형 연구과제 확보, 기술사업화 성과 등 국제 경쟁력과 고부가가치 성과 창출 측면에서는 상위권 대학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단순 연구실적의 양적 관리에서 나아가, 질적 경쟁력 강화와 전략 분야 집중 육성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연구지원 체계 정교화와 연구 인프라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 이와 더불어 교사시설 확보율 등 일부 물리적 인프라 지표와 국제화여건의 양적·질적 확장 측면에서도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시설 환경과 국제화 역량은 대학의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에 만족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된다.

○ 대외환경 기회요인

-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기조 변화와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 다양한 국가 재정지원 사업은 우리 대학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환경은 대학이 전략적으로 대응할 경우, 교육혁신, 연구역량 제고, 산학협력 기반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신산업 기반 확대는 산학공동연구,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창업 교육 등과 연계하여 대학 교육의 실용성과 산업적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글로벌 교류 환경의 확장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는 외국인 학생 유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교환학생 프로그램 고도화 등 대

학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대학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외환경 위협요인

- 학령인구 감소는 모든 국립대학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위협요인이며, 특히 지역거점 국립대학 간 학생 모집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유지율 등 학생 영역 전반에 지속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지표 관리 차원을 넘어 대학의 중장기 생존전략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우수 학생 유치와 학생 만족도 기반 유지 역량 강화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 또한 국가 재정지원 체계의 변화, 대학평가 기준의 고도화, 외부 경쟁환경 심화 등은 대학 재정구조 안정성, 연구 경쟁력, 산학협력 성과 전반에 대한 요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글로벌 경쟁 확대와 국제화 기준 강화 역시 대학이 단순 유지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요구하는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위협요인은 일시적 변수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인식해야 하며, 대학 전반의 체계적 대응 전략과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 마련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2) 평가결과 활용계획

○ 내부강점- 대외기회요소의 활용계획

- 우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 충원 구조의 비교적 안정성, 재학생 유지 관리 성과, 장학제도와 교육비 투자 등 교육지원 기반, 그리고 일정 수준의 연구성과 및 산학협력 활동 역량은 정부 고등교육 정책 변화,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 다양한 국가재정지원사업 확대라는 외부 기회요인과 결합될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이러한 내부 강점을 기반으로 국가정책사업 참여를 적극 확대하고, 지역혁신·국립대육성·글로벌 협력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또한 산학협력 활동 기반과 국제교류 운영 체계라는 내부 강점을, 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교류 확대라는 외부 기회요인과 결합하여 실질적 성과 창출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현장실습·캡스톤디자인·공동연구·창업 교육 등을 지역 신산업 및 전략 분야와 연계하고,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내부약점-대외기회요소의 활용계획

-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일부 교원 및 교육여건 지표, 그리고 국제화여건 및 연구의 질적 고도화 측면에서 나타난 내부 약점요인은 국가 재정 지원사업 확대, 국립대학 지원정책, 지역혁신정책 등 외부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사업과 연계한 인력충원, 교육환경 개선, 연구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약점 영역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대형 연구과제 확보,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국제화 역량 확장 등에서 나타난 내부 한계를 외부 지원정책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전략 연구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국제공동연구 및 교환·유학생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내부 약점을 보완하고 대학의 질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내부강점-대외위협요소의 활용계획

- 안정적 학생 충원력, 학생지원 중심 재정지표, 일정 수준의 연구 및 산학협력 성과라는 내부 강점요인은 학령인구 감소, 대학 간 경쟁 심화, 평가 및 재정지원 체계 변화 등 외부 위협요인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어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대학은 이러한 내부 강점을 더욱 공고히 하여 학생 모집 경쟁 심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충원 구조를 유지하고, 교육 및 연구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산학협력 기반과 국제교류 체계라는 내부 강점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역 산업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도 산학협력 성과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학 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완화하고, 외부 위협요인을 내부 성장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내부약점-대외위협요소의 활용계획

- 내부 약점요인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외부 위협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대학 경쟁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영역에 대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교원 확보, 교육여건 고도화, 연구 경쟁력 강화, 국제화 역량 확대 등 내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은 학령인구 감소, 경쟁 심화, 재정·평가 체계 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개선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 이에 대학은 약점 영역을 단기 개선과 중장기 체질개선 과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외부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병행 수립함으로써 위협요인의 누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구조 다변화, 연구성과 질적 강화, 국제화 역량 확장, 물리적 인프라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학 경쟁력 저하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발전 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1) 평가지표 영역별 개선사항

○ 학생 영역

- 학생 영역은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학생 비율, 학부생 비율』 등 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평가되었다. 2025년 자체평가 결과, 학생 영역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표에서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간 경쟁 심화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보다 전략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신입생 충원율의 경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충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계열 및 학과에서 충원 편차가 존재하고 향후 충원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구조적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전형체계 고도화, 입시 데이터 기반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복수전공·전과 기회 확대, 장학 혜택 강화 등 실질적 경쟁력 요소를 강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재학생 충원율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계열 간 격차가 존재하며 중장기적으로 학생 이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학생 만족도를 기반으로 한 유지율 제고 전략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내실화, 취업 및 지역산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진로·상담·비교과 지원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머물고 싶은 대학”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중도탈락학생 비율 지표는 재학생의 학업 지속성과 대학 교육서비스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관리 성과를 확인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여전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사관리뿐 아니라 상담제도 강화,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 학업부진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전주기 학생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환류를 통해 중도탈락률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학부생 비율은 대학 구조조정, 정원 조정, 대학원 학생 수 변화와 연계된 지표로, 현재 수준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학부·대학원 학

생구성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부교육의 질적 고도화와 함께 대학원 충원 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 전략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학생 영역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충원 구조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 유지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충원경쟁 심화, 학생 요구의 다양화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면, 단순 유지 수준을 넘어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신입생 충원 안정화, 재학생 만족도 기반 유지력 강화, 중도탈락률 지속 개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학생지원 체계 고도화와 실질적 교육경험 개선을 통해 학생 영역 지표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교원 영역

- 교원 영역은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직원 1인당 학생 수』 3개의 평가지표로 평가되었다. 2025년 자체평가 결과, 교원 영역은 일부 지표에서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전임교원 확보율과 학생 대비 교원 수급 구조에서 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학문 구조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개선전략이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된다.
- 우선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는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일부 영역에서 전국 평균 대비 개선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은 학문 분야별 특성과 학과 규모를 고려한 합리적인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전임교원 충원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장기 정원조정 및 재정여건을 연계 고려한 계획적 교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지표는 교원의 교육 부담과 학생 개별 학습지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학과 간 편차 가능성과 일부 부담 요인이 확인되는 만큼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교원 배분의 효율화를 통해 특정 계열 및 전공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고, 전임교원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강의 운영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학생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직원 1인당 학생 수 지표 또한 대학의 행정 지원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로, 행정 수요 증가와 정책사업 확대 등 대학 운영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단순 인



력 유지보다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담 행정지원 체계의 안정화와 업무 전문성 제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종합적으로 볼 때, 교원 영역은 전임교원 확보, 교원 1인당 학생 수, 행정지원 역량 등 대학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해당 지표의 개선은 교육의 질 강화와 직결되는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전임교원 충원 안정화, 합리적 교원 배분, 행정지원 체계 고도화 등을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교원 영역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와 환류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교육여건 영역

- 교육여건 영역은 『취업률,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강의규모의 적절성, 소규모 강의비율, 대규모 강의비율, 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2025년 자체평가 결과, 교육여건 영역은 일부 지표에서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육의 질적 고도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취업성과의 질적 확대, 전임교원 강의 참여 확대, 강의규모 적정화, 학습지원 인프라 강화가 향후 개선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 우선 취업률의 경우 일정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고 있으나, 단순 취업률 유지 차원을 넘어 전공 연계성과 취업의 질을 고려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 및 산업체 연계 교육 확대, 진로·취업 상담 내실화, 비교과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학생의 현장 적응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질적 취업성과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과 비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지표는 대학 교육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일부 영역에서 전임교원 강의 참여 확대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임교원이 교육과정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 배분체계를 합리화하고, 연구·교육 활동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강의규모의 적절성, 소규모 강의 및 대규모 강의 비율 지표는 학습 참여도와 교육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일부 전공에서 학생 수 집중으로

인한 강의규모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의규모 조정과 수업 운영의 유연화, 학과별 맞춤형 강의운영 전략을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과 교원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학습지원 인프라 지표는 기본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확대와 최신 학술정보 접근성 강화 요구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 전자자료 및 온라인 학습자원 확충, 전공 특화 학습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종합적으로 볼 때 교육여건 영역은 취업성과, 강의 운영, 학습지원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대학은 전임교원 강의 참여 확대, 강의규모 적정화, 취업 연계 교육 강화, 학습지원 인프라 고도화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교육여건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환류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연구 영역

- 연구 영역은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SCI/SCOPUS 논문 실적, 저역서 실적,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 연구비, 기술이전 및 특허 실적』 등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2025년 자체평가 결과,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연구성과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위권 대학과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국제 수준의 연구성과 확대, 대형 연구과제 확보, 기술사업화 성과의 질적 성장 측면에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및 SCI/SCOPUS 논문 실적의 경우, 기본적인 연구활동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고품질 연구성과 확대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연구 역량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연구군을 구성하고,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고임팩트 저널 투고 지원, 연구성과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논문 실적의 질적·양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 연구비 지표는 대학의 연구 경쟁력과 외부재원 확보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일정 수준은 유지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확장이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국가 대형 과제 및 전략 연구사업 참여 확대, 지역 산업과 연계된 산학공동연구 강화, 연구지원 전담조직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구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기술이전, 특허 출원·등록 등 연구성과 활용 지표는 대학 연구성과가 산업적·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기술사업화 성과의 질적 성장과 고부가가치 성과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 조직의 역할 강화, 산업수요 기반 기술 발굴, 창업·사업화 연계 체계 확충 등을 통해 연구성과가 실질적 성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연구 영역은 현재 일정 수준의 연구활동 기반과 성과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연구성과 확대라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대학은 전략 연구분야 집중 육성, 대형 연구과제 확보, 국제 연구협력 강화, 기술사업화 체계 고도화를 중점 개선과제로 설정하고, 연구지원 인프라의 지속적 강화와 체계적 환류를 통해 연구 영역 지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재정 영역

- 재정 영역은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 등록금 비율, 기부금 비율』 등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2025년 자체평가 결과, 우리 대학은 학생 지원 중심 지표와 교육 투자 지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재정 구조의 장기적 안정성 제고와 외부재원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재정운용의 효율성, 재원 다변화, 학생 체감형 투자 확대가 향후 개선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된다.
- 우선 교육비 환원율은 대학이 확보한 재원을 학생 교육활동과 학습환경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투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우리 대학은 기본적인 안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수요의 다양화와 첨단화에 따른 투자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단순 유지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 구조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이에 교육비 투자가 실제 교육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효율적 예산 배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장학금 지급률은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지표로,

현재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장학제도의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특성화 장학, 성과 기반 장학, 취약계층 지원 장학 등 학생 특성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장학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장학금의 실질적 체감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 지표는 강의 운영과 교수학습 환경의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로,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지급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교육환경 변화와 정책 여건을 고려한 지속 점검과 합리적 조정이 요구된다. 향후 안정적 강의 운영을 위해 강사료 체계의 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고, 강의 품질과 연계된 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등록금 비율과 기부금 비율은 대학 재정 구조의 안정성과 외부재원 확보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로, 현재 일정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가정책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재원 다변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국고지원사업 확대, 산학협력 수익 기반 강화, 발전기금 활성화 등 다양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재정 영역은 교육 투자 및 학생 지원 중심 지표에서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 구축이라는 방향에서 보다 전략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향후 대학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원 다변화, 학생 체감형 투자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정책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 영역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산학협력 영역

- 산학협력 영역은 『현장실습 운영 실적, 캡스톤디자인 운영 실적, 산학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성과, 창업지원 및 기술사업화 성과』 등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2025년 자체평가 결과, 우리 대학은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정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고 있으나, 산업체 연계의 질적 심화, 성과의 실질적 확장,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우선 현장실습 운영 지표는 학생들의 실무역량 강화와 취업 경쟁력 제고에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일정 수준의 참여와 운영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 학과의



균형성 확보, 실습 질 관리, 실무 연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한 실습처 발굴 확대, 실습 프로그램의 체계화, 실습 결과의 학업 및 취업성과와 연계되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캡스톤디자인 운영 실적 또한 교육의 현장 적용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현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젝트의 질적 고도화와 산업체 참여 확대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업 공동과제 발굴 확대, 실수요 기반 주제 설계, 결과물 사업화·특허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단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실질적 성과 창출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산학공동연구 및 기술이전·특허 실적은 대학 연구성과가 산업적 가치창출로 확산되는 과정의 핵심 지표로,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성과 확대를 위해 보다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 및 신산업 분야와 연계한 공동연구 강화,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이전 지원체계 고도화, 기업 맞춤형 연구협력 모델 확산을 통해 연구성과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 창업지원 및 기술사업화 지표의 경우, 기본적인 지원체계는 유지되고 있으나, 학생·교원 창업의 질적 성과 확대와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창업보육 인프라 강화,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단계 지원 확대, 외부 투자·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창업 성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종합적으로 볼 때, 산학협력 영역은 대학의 교육·연구 성과가 산업 및 사회와 연결되는 핵심 영역으로, 우리 대학은 기본적인 운영 기반과 성과를 유지하고 있으나, 질적 성장과 전략적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향후 대학은 현장실습과 캡스톤디자인의 질적 내실화, 산학공동연구 확대, 기술사업화 체계 강화, 지역산업 연계 네트워크 고도화를 중점 개선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 관리와 환류를 통해 산학협력 지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국제화여건 영역

- 국제화여건 영역은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교환학생 파견 및 유치 실적, 국제교류 협정 및 네트워크 운영 실적』 등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2025년 자체평가 결과,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국제교류 기반과 국제화 지표를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화 역량의 양적 확대

와 질적 고도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외국인 구성원의 다양성 확대,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전략적 운영이 향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된다.

-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은 대학의 교육·연구 국제화 수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우리 대학은 일정 수준의 외국인 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 편중 가능성과 장기적 정착 지원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전략 분야 중심의 외국인 교원 유치 확대, 안정적인 연구·교육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학내 적응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 교원이 대학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외국인 학생 비율 및 교환학생(과전·유치) 실적은 대학 구성원의 국제적 다양성과 실질적 국제 교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우리 대학은 기본적인 운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가별 편중 완화, 학생 참여 확대, 전공 연계성 강화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유학생 유치 전략 수립, 학과 연계형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 교류학생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국제학생 구성의 질적 다양성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또한 국제교류 협정 및 네트워크 운영 지표는 대학의 글로벌 협력 기반을 보여주는 지표로, 단순 협정 수의 확대보다 실질적 교류 성과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전략 국가 및 우수 대학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연구, 복수 학위, 단기·중장기 연수 프로그램 등 실질적 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국제화 활동이 교육 및 연구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종합적으로 볼 때, 국제화여건 영역은 일정 수준의 기반과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대학은 외국인 교원 및 학생 유치 확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내실화,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질적 고도화를 중점 개선과제로 설정하고, 국제화 지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 수립과 체계적 환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기타 영역

- 기타 영역은 『교사시설 확보율, 기숙사 수용률』 등 대학의 물리적 인프라와 학생 생활환경을 반영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2025년 자체평가 결과, 우



리 대학은 기본적인 시설 여건과 생활 지원 환경에서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연구 환경 변화와 학생 요구의 다양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사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 활용, 기숙사 환경의 질적 개선이 향후 우선 개선 과제로 제시된다.

- 교사시설 확보율은 교육·연구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현재 일정 수준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 지표에서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확인된다. 이는 재정 여건, 학사 구조 변화, 학과 재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되며, 향후 체계적인 시설 확충 계획과 공간 배치의 효율화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첨단 교육환경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공간 확충을 넘어 교육·연구 활동의 질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기숙사 수용률은 학생 생활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지표로, 우리 대학은 기본적인 안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시기 또는 특정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요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기숙사 수용 여건의 점진적 개선, 운영 효율성 제고, 대상자 확대 방안 검토와 함께, 생활 편의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생활지원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기타 영역은 대학 교육·연구 활동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 인프라와 학생 생활환경을 포괄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현재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학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요구된다. 향후 대학은 시설 확충과 효율적 공간 운영, 기숙사 환경 개선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체계적 관리와 환류를 강화함으로써 기타 영역의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자체평가결과 활용계획

- 본 자체평가 결과는 대학의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대학 발전 방향과 개선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선, 이번 평가를 통해 확인된 강점 영역은 대학의 경쟁력 요소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단과대학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

고, 우수 사례를 학내 전반으로 확산하여 대학 운영 전반에 긍정적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도록 한다.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단계적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특히 학생 충원 및 유지, 교원 확보, 교육여건 고도화, 연구성과 질적 향상, 재정 안정성 강화, 산학협력 성과 확대, 국제화 역량 제고, 시설·생활환경 개선 등 각 영역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평가결과를 단순 참고자료로 한정하지 않고, 학사 운영, 인사·조직 관리, 재정 투자, 연구지원 정책, 산학협력 전략, 국제화 정책 등 세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평가 - 정책 - 성과 - 재평가로 이어지는 지속적 환류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 또한 자체평가 결과는 대학 구성원과 공유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공감대를 확보하고, 단과대학 및 관련 부서에서 자율적 개선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부서별·단과대학별 환류 보고서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운영하여 개선과제의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가 재정지원사업, 지역혁신 정책, 산학협력 네트워크 등 외부 환경과 연계하여 평가결과가 실질적인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도록 한다.
- 종합적으로, 이번 2025년 자체평가 결과는 대학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도록 한다. 대학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핵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키며,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체계적 환류와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교육·연구·산학협력·국제화 등 전 영역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한다.



부 록

1. 평가지표정의서
2. 28개 국립대학 비교자료



1. 평가지표정의서

1. 학생(150점)

1-1. 신입생 충원율 (50점)

■ 지표정의

신입생 입학정원의 안정적 충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학회계 재정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대학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023,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 결과

■ 지표 값

신입생 충원율(%) = (정원내 입학자 수 / 정원내 모집인원) × 100

■ 지표작성양식

구 분	입학 정원 (A)	모집인원			입학자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 D=(C/B)×100
		계	정원내 (B)	정원외	계	정원내(C)		정원외		
						남	여	남	여	
2023										
2024										

■ 작성지침

- 입학정원 : 학칙에서 정한 2023, 2024년도 신입생의 입학정원
- 모집인원 : 입학을 위해 공고되는 모집 요강에서 당해학년도 모집인원 기준(단, 9월 학기 입학자 제외). 총모집계획인원 = 정원내 모집인원 + 정원외 모집인원
- 정원내 모집인원 : 입학정원 + 이월인원 - 모집정지인원 - 당해연도 2+4 약학대학 입학정원
- 정원외 모집인원 : 재외국민 및 외국인(총 입학정원 2%이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전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농어촌학생(총 입학정원 4%이내) + 특성화고교졸업자(총 입학정원의 1.5%이내)+ 특성화고졸재직자(총 입학정원 11%이내) + 서해 5도 학생(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총 입학정원의 1% 이내, 모집단위별 5% 이내)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 전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 산업체위탁학생 + 계약학과 + 장애인 등 대상자 + 기타

- 입학자 : 2023, 2024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모집정원 미달로 추가 모집한 입학자 포함), 정원내와 정원외로 구분
 - ※ 제외 : 재입학 및 편입학, 2+4 약학대학 입학자, 의학과 · 치의학과 · 한의학과 의 본과 진급생 및 교육대학의 계절제 편입생
 - ※ 입학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함
- 정원내 입학자 : 정원내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 수
- 정원외 입학자 : 전형유형에 따라 산업체위탁생, 계약학과, 군위탁생, 농어촌학생, 재외국민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자 등
-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 (정원내 입학자 수 / 정원내 모집인원) × 100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50	40	30	20	10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50	40	30	20	10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1-2. 재학생 충원율 (50점)

■ 지표정의

학생정원의 안정적 충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학회계 재정확충에 기여함을 평가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재학생 충원율(%) = {재학생 수 / (학생정원 - 학생모집정지인원)} × 100

■ 지표작성양식

구 분	계열별	학생정원 (A)	학생 모집정지 인원(B)	재학생			재학생 충원율(%) $D=C/(A-B) \times 100$
				계(C)	정원내	정원외	
2023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합계						
2024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합계						

■ 작성지침

- 계열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계열 구분

대계열	포함되는 소계열
인문사회계열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계열	이학해양농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계열	공학 등
예체능계열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 통합학과 운영으로 계열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최초 전공 또는 계열구분 연도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류

- 재학생 : 2023, 2024. 4. 1. 기준 정원내, 정원외 재학생
- 학생모집정지인원 :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서 행정처분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50	40	30	20	10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50	40	30	20	10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1-3. 중도탈락학생비율 (30점)

■ 지표정의

수요자의 교육서비스 만족도, 진로 선택 등 총체적인 성취도를 측정하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중도탈락률(%) = (학부 제적학생수/학부재적생 수) × 100

■ 지표작성양식

구 분	재적학생 (A)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중도탈락률(%) C=(B/A)×100
		계(B)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 경고	학생 활동	유급 제적	수업연한 초과	기타	
2023											
2024											

■ 작성지침

- 재적학생 : 2023, 2024. 4. 1. 기준 재학생 수와 휴학생 수를 합한 수
- 중도탈락 학생 : 2023. 3. 1. ~ 2025. 2. 28.까지 제적생과 자퇴생의 합
- 미등록 : 등록하지 않아서 제적된 학생
- 미복학 : 휴학 중인 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자
- 자퇴 : 스스로 학적을 포기하여 제적된 자
- 학사경고 : 성적경고 또는 기타 사유로 횡수 누적되어 제적처리된 학생 수
- 학생활동 : 학생활동으로 인해 징계 제적된 자
- 유급제적 : 동일학년 유급횟수 누적으로 제적된 자
- 수업연한 초과 : 수업연한 경과로 제적된 자
- 기타 : 위에 열거한 사유 외의 내용으로 제적된 자
- 중도탈락학생비율(%) : (중도탈락 학생 수/ 재적학생 수) × 100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30	24	18	12	6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30	24	18	12	6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1-4. 학부생 비율 (20점)

■ 지표정의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 재학생 수 중 학부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학부생 비율(%) = 학부 재학생 / (학부 재학생 수 + 일반대학원 재학생 수) × 100

■ 지표작성양식

구 분	학부 재학생(A)	일반대학원 재학생 수(B)	학부생 비율(%) C=A/(A+B)
2023			
2024			

■ 작성지침

- 학부 재학생 : 2023, 2024. 4. 1. 기준
- 대학원 학생 수는 일반대학원에 한하여 산출
- 학과 특성이 산업체 위탁, 계약학과인 경우 포함
- 폐지 인가에 따른 특별편입생(학부재학생, 일반대학원 재학생) 제외
- 일반대학원 재학생 수의 경우 자연인 수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2. 교원(100점)

2-5. 전임교원확보율 (50점)

■ 지표정의

교육의 질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교원의 배정정원(재학생, 편제정원)에 비해 얼마나 전임교원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수 / 교원 배정정원(재학생, 편제정원) × 100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계 열	학생현황						교원 법정정원 (B)		전임 교원 (C)	교원확보율 (D=C/B)	
		학부		대학원		계 (A)						
		편제 정원	재학생	편제 정원	재학생	편제 정원	재학생	편제 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편제 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2023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합계											
2024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합계											

구 분	수업연한별 재학생 수						공식	재학생 환산 인원 계 (A+B+C+E) × 1.5+(C/2) ×1.5
	2년 (4학기) (A)	2.5년(5학기)		3년(6학기) (D)	4년(8학기) (E)	계 (F)		
		올해+ 전년도 입학자(B)	재작년 이전 입학자(C)					
석사과정							1.5	
박사과정							1.5	
석/박사통 합과정							1.5	
소 계								

■ 작성지침

- 학생현황 : 학부 및 대학원 학생정원과 재학생
- 재학생 : 2023, 2024. 4. 1. 현재 재학 중인 자(단, 계약학과 및 원격학과 재학생 수 제외, 원격대학원 재학생 수 제외)
 - ① 대학 : 2023, 2024. 4. 1. 기준 재학 중인 학생 수
 - ② 대학원 : 2023, 2024. 4. 1. 기준 재학생 수를 대학원 종류에 따라 아래 산출공식에 따라 환산 인원 산출

〈대학원 재학생 환산 인원 공식〉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계절제 교육대학원 : $(A+B+D+E) \times 1.5 + (C/2) \times 1.5$

-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2025. 4. 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전임교원 수준의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인문한국사업: HK, 중점연구소사업 등)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
 - ※ 소속학과는 수행하는 업무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
- 국·공립대 기금교수(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임교원에 포함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된 교원

-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교원
- HK교수 : 국·공립대는 ‘HK교수 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 같은 처우로 계약되고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교원, 사립대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국공립대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규정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임용된 교수가 기금교수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임교원으로 포함하며, 사립대는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세부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전임교원으로 포함
- ※ 휴직상태의 교원 중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경우(아래의 사유 외에 기타 청원에 의한 휴직은 교원확보율에서 제외됨)
 - ① 교육공무원법 제 44조(휴직)의 사유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정관에 명시된 사유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 ③ 고용휴직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교에 휴직하고 산업체에서 급여를 받음.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 참고)
- ※ 인정 제외대상 교원
 - ①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②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교원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 ③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 ※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
- ※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의 전임교원 수에서 제외됨
-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 재학생 기준 교원확보율 및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산출 시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에서 안식년/연구년제 교원(국립·공립·사립), 파견 교원(국립·공립) 중 전임교원 조건 미충족자를 제외한 교원 수
- 교원 법정정원
 - ①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술대학 : 학생의 학생정원과 재학생 수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의 “별표5”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학생정원, 재학생별)하되, 소수점이하는 올림하여(예 : 환산인원이 5.2명일 경우 6명) 교원법정정원을 산출
 -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1항의 별표5

대계열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 1인당 학생 수	25	20	20	20	8

- 전임교원확보율 - 학생정원 기준 :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학생정원 기준 교원법정정원×100),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 전임교원확보율 - 재학생 기준 :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재학생 기준 교원법정정원×100),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구분 \ 등급점수	50	40	30	20	10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구분 \ 등급점수	50	40	30	20	10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2-6.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20점)

■ 지표정의

대학의 교육환경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 중 하나로서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수를 파악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명) = (학부 + 대학원 재학생 수) / 전임교원 수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계열	학생현황						전임교원 수(B)	전임교원 학생 수(명)	1인당 C=A/B
		학부		대학원		계(A)				
		학생정원	재학생	학생 정원	재학생	학생 정원	재학생			
2023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합계									
2024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합계									

■ 작성지침

- 재학생 : 2023, 2024.4.1. 현재 재학 중인 학부 및 대학원(일반, 특수대학원 모두 포함)학생 수
(단, 계약학과 및 원격학과 재학생 수 제외, 원격대학원 재학생 수 제외)
- 전임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실제인원을 입력
※ 교원 조사대상 : 휴직교원을 포함한 전체 재직교원
※ 대우, 강의전담 교원 등의 명칭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전임교원에서 조사하지 않음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정원 기준 : (학생정원/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소수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재학생 기준 : (재학생/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소수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둘째자리로 표시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2-7. 직원1인당 학생수 (30점)

■ 지표정의

교수 및 학생에 대한 직원의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 평가대상 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직원 1인당 학생 수(명) = 재학생 수 / 직원 수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재학생 수 (A)	직원 수(B)	직원 1인당 학생 수 $C=A/B$
2023			
2024			

■ 작성지침

- 재학생 수 = 2023, 2024.4.1. 기준 학부 재학생
- 직원 수 = 2023, 2024.4.1. 기준 일반직 + 대학회계 직원 수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30	24	18	12	6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30	24	18	12	6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3. 교육여건(150점)

3-8. 취업률 (50점)

■ 지표정의

대학교육의 결과이자 최종 산출물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대학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 중 하나로서 사후적으로 대학교육의 방향을 제시 또는 수정할 기초가 되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직전연도 8월과 당해연도 2월 졸업자 중 취업자 대상)

■ 지표 값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건강보험제외대상자)} × 100

■ 지표작성양식

구분	졸업자 (A)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B)		해외 취업자 (C)		진학자 (D)		입대 자 (E)	취업 불가능자 (F)		외국인 유학생 (G)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자 (H)	취업률(%) $I = [B+C / \{A - (D + E + F + G + H)\}] \times 10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23															
2024															

■ 작성지침(정보공시지침을 준용함)

- 전년도 8월과 당해 연도 2월 졸업생이 있는 모든 학과의 학생을 대상
- 취업자 : 전년도 8월과 당해 연도 2월에 졸업자 중 6월 1일 현재 취업하고, 건강보험 DB에 가입된 자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50	40	30	20	10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50	40	30	20	10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3-9.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20점)

■ 지표정의

교육내실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규강의의 강사의존율을 줄여 대학교육 정상화를 기하려는 노력의 척도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 (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 총 개설강의 학점) × 100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총 개설강의 학점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C=(A/B)×100
	1학기	2학기	계(A)	1학기	2학기	계(B)	
2023							
2024							

■ 작성지침

- 학기: 학사규정에 따른 연간 운영되는 정규학기 단위이며, 계절학기는 입력에서 제외
- 총 개설 강의학점 : 학과에서 학기별로 개설한 강의에 부여되는 학점의 총합
 - ※ 학과에 개설이 되었고 학점도 있지만 담당 교원이 없거나, 담당교원이 있어도 실제 강의를 진행하지 않아 교원의 강의시수가 없는 강의의 경우, 총 개설 강의학점, 교원 강의 담당학점 대상이 아님. 단, 담당교원의 강의시수가 없어도 교원이 실제로 한 학기동안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포함
- 교원 강의 담당학점 : 총 개설 강의학점 중 해당 직급의 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3-10.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20점)

■ 지표정의

교육내실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규강의의 강사의존율을 줄여 대학교육 정상화를 기하려는 노력의 척도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 총 개설 강의학점 × 100

■ 지표작성양식

구분	학기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					총 개설강의 학점(B)	비전임교원강의담당 비율(%) C=(A/B)×100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 비전임교원	계(A)		
2023	1							
	2							
	합계							
2024	1							
	2							
	합계							

■ 작성지침

- 겸임교원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호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4항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교원
 - 원소속(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유사경력이 3년이상)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단, 전일근무를 하는 겸임교원은 원소속(본직)기관의 휴직자도 포함 가능)
- * 정규직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직원을 의미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계약된 교원
- 담당 과목이 겸임교원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인정 제외대상 교원(기타 비전임교원으로 분류)

- ① 겸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② 강의를 담당하지 않는 교원
- ③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담당과목이 부합되지 아니한 자(순수 학술이론을 강의하는 자)
- ④ 본직기관의 비상근 근무자,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전임연구원

- 초빙교원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4호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 근무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약된 교원
-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 받는 교원
- 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교원
- 2023, 2024. 해당학기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대학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

※ 인정 제외대상 교원(기타 비전임교원으로 분류)

- ① 초빙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②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전임연구원

- 시간강사 : 2023, 2024년 해당학기 현재 재직 중인 시간강사
- 기타 비전임 : 전임교원 및 겸·초빙교원, 시간강사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으로, 전임교원 및 겸·초빙교원의 인정제외자를 포함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3-11. 강의 규모의 적절성 (20점)

■ 지표정의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수업 관리 노력의 척도가 되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강의규모의 적절성(점) = $0.4 \times (20\text{명이하규모강의비율}) + 0.3 \times (21\sim50\text{명 규모강의비율}) + 0.2 \times (51\sim100\text{명규모강의비율}) + 0.1 \times (101\text{명 이상 강의비율})$

■ 지표작성양식

구분	학기	학생 규모별 강의 수				전체강의 수(E)	강의 규모의 적절성 $F=0.4 \times (A/E) + 0.3 \times (B/E) + 0.2 \times (C/E) + 0.1 \times (D/E)$
		20명 이하(A)	21~50명 (B)	51~100명(C)	101~200명(D)		
2023	1						
	2						
2024	1						
	2						

■ 작성지침

- 학기 : 각 학교의 학사규정에 따른 연간 운영되는 정규학기 단위이며, 계절학기는 입력에서 제외
- 학생 규모별 강의 수 : 2023, 2024학년도 1, 2학기에 강의한 강의 중 학생 규모별 강의 수
- 전체 강의 수 : 2023, 2024학년도 1, 2학기에 강의한 강의 전체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3-12. 소규모강의 비율 (10점)

■ 지표정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 향상과 원활한 수업진행을 도모하여 학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소규모 강의 비율(%) = (20명 이하 강의 수 / 전체 강의 수) × 100

■ 지표 작성양식

구분	소규모 강의 수(A)	전체 강의 수(B)	소규모강의 비율(%) $C=(A/B) \times 100$
2023			
2024			

■ 작성지침

- 소규모 강의 수 : 2023, 2024학년도 1, 2학기에 강의한 강의 중 학생 수 20명 이하인 강의 수
- 전체 강의 수 : 2023, 2024학년도 1, 2학기에 강의한 강의 전체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3-13. 대규모강의 비율 (10점)

■ 지표정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 향상과 원활한 수업진행을 도모하여 학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대규모 강의 비율(%) = 101명 이상 개설 강의 수 / 전체 강의 수 × 100

■ 지표작성양식

구분	대규모 강의 수(A)	전체 강의 수(B)	대규모강의 비율(%) $C=A/B \times 100$
2023			
2024			

■ 작성지침

- 대규모 강의 수 : 2023, 2024학년도 1, 2학기에 강의한 강의 중 학생 수 101명 이상인 강의 수
- 전체 강의 수 : 2023, 2024학년도 1, 2학기에 강의한 강의 전체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3-14. 도서관 연간자료구입비 (20점)

■ 지표정의

연구 및 교육자료 확충비의 일부분으로 대학의 연구 및 교육의 기본적 인프라에 투자한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도서관 연간자료구입비(천원) = 자료구입비 / (학부 정원 내외 + 대학원)재학생수

■ 지표 작성양식

(단위 : 천원)

구 분	재학생 수(A)	자료구입비(B)	도서관 연간 자료구입비(C=B/A)
2023			
2024			

■ 작성지침

- 재학생수 : 2023, 2024. 4. 1. 기준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의 합
- 도서구입비 : 도서자료,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구입을 포함한 순수 도서구입비 관련 2023, 2024년도 결산자료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4. 연구(160점)

4-15.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 실적 (20점)

■ 지표정의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전임교원 1인당 국내 논문 수.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표 값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지 논문실적(건)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건수 / 전임교원 수

■ 지표작성양식

구 분	연구재단 등재(후보포함)지 게재 건수(A)	전임교원 수(B)	전임교원 1인당 등재(후보포함)지 논문 실적(건) (C=A/B)
2023			
2024			

■ 작성지침

- 전임교원 : 2023, 2024. 4. 1. 현재 재직 중인 전임교원(휴직교원 포함)을 말하며,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분류, 외국인 전임교원 포함
- ※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재단 등재지(후보포함) : 소속대학 전임교원이 2023. 1. 1. ~ 2024. 12. 31. 기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국내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는 제외)에 게재한 논문 수
- 논문게재실적 : 논문게재 실적 산정 기준에 따라 산출
 - ※ 논문게재 실적 산정 기준
 - 단독저자인 경우 실적은 1건이며
 - 논문저자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주저자=2/(n+2), 교신저자=2/(n+2), 공동저자=1/(n+2)
 - * n = 논문저자 수, 논문저자 수가 15명 이상일 경우 n=15로 처리
 - 전임교원 1인당 논문실적 : 학과별 논문실적/전임교원 수, 소수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넷째자리까지 표시
 - 저자의 구분(학문분야나 학술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아래의 지침을 따름)
 - 주저자 :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의 저자 목록 중 첫 번째로 표기된 제1저자나 논문 작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
 - 교신저자 : 학술지의 편집자와 서신 등을 주고받으며 논문 출판에 최종적으로 기여한 자 또는 연구프로젝트 책임자
 - 공동저자 :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공동 참여 저자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4-16. 전임교원 1인당 SCI급/SCOPUS급 논문 실적 (30점)

■ 지표정의

전임교원 1인당 국외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표 값

전임교원 1인당 SCI급/SCOPUS급 논문 실적(건) = {SCI급 학술지 게재(논문수) + SCOPUS 학술지 게재(논문수)} / 전임교원수

■ 지표작성양식

구 분	SCI급/SCOPUS급 학술지(A)	전임교원 수(B)	전임교원 1인당 SCI급/SCOPUS급 논문 실적 (C=A/B)
2023			
2024			

■ 작성지침

- 전임교원 : 2023, 2024. 4. 1. 현재 재직 중인 전임교원(휴직교원 포함)을 말하며,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분류, 외국인 전임교원 포함
※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
- SCI급/SCOPUS 학술지 : 소속대학 전임교원이 2023. 1. 1. ~ 2024.12. 31. 기간에 국제전문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에 게재한 논문 수, 국내에서 발행되는 SCI급/SCOPUS 학술지 게재 논문을 포함
※ SCOPUS의 문서 유형 중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 survey는 SCI급/SCOPUS학술지에서 제외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30	24	18	12	6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30	24	18	12	6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4-17.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20점)

■ 지표정의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 실적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표 값

저역서 실적(건) = 저역서수 / 전임교원 수

■ 지표작성양식

구 분	전임교원 수(A)	저역서			전임교원 1인당 저역서(건) C=B/A
		계(B)	저서	역서	
2023					
2024					

■ 작성지침

- 전임교원 : 2023, 2024. 4. 1. 현재 재직 중인 전임교원(휴직교원 포함)을 말하며,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분류, 외국인 전임교원 포함
 - ※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
- 저·역서 : 2023, 2024. 4. 1. 기준 소속대학 전임교원이 2023. 1. 1. ~ 2024.12. 31. 기간에 출판한 단행본 저술실적(단위: 건수)을 의미하며, 저·역서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출
 - ※ ISBN이 수록된 출판물만 인정
 - ※ 제외 :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정증보판, 저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편집저자 등
 - ※ 저·역서 수 산정 기준
 - 단독저술 실적은 1건이며,

· 공동저술의 경우 : $\frac{1}{n}$

* n = 저술에 참여한 인원수, 연구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10으로 처리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4-18.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 연구비 (20점)

■ 지표정의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 연구비 수혜실적을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표 값

전임교원 1인당 교내·외 연구비(천원) = (교내·외 연구비 + 대응자금) / 전임교원 수

■ 지표작성양식

(단위 : 천원)

구분	전임교원 (A)	연구비 자원						대응자금 (연구비) (C)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D=(B+C)/A
		계(B)	교내	교외					
				중앙정부	자체	민간	외국		
2023									
2024									



■ 작성지침

- 전임교원 : 2023, 2024. 4. 1. 현재 재직 중인 전임교원(휴직교원 포함)을 말하며,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분류, 외국인 전임교원 포함
 - ※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비
 - ① 2023, 2024년도 계약(협약)된 금액으로, ‘현금’만 포함 (다년과제인 경우, ④번 참고)
 - ② 연구비에는 간접비를 포함하되 KRI 입력시, 반드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함
 - ③ 연구비에는 교내·외 대응자금을 포함하지 말고, 대응자금은 별도로 입력
 - ④ 연구과제가 다년 과제인 경우, 2023, 2024년 연구비만 계산
 - ※ 총 연구비 4억 원에 3년 과제가 2차년도인 2023, 2024년도에 연구비가 1억 원으로 책정 되면 연구비는 1억 원으로 기재)
 - ※ 제외 : 현물 (자료의 정확성 검증 불가)
 - ⑤ 총괄과제에 포함되는 세부과제일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해당 연구비 입력
- 연구비 지원구분: 교내/ 교외(중앙정부/ 지자체/ 외국/ 민간)로 구분
 - 교내 : 대학자체(교내)에서 지원한 연구비
 - 중앙정부 : 중앙정부(지자체 제외) 및 각 부처 산하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
 - 외국 : 외국정부, 민간 관계없이 외국에서 지원된 연구비를 의미함
 - 민간 : 정부 이외의 민간 사업체, 연구소 등에서 지원한 연구비
 - ※ 재원과 지원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 : 지원기관을 기준으로 입력
- 대응자금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협약)된 대응자금 금액
 - ※ 제외 : 현물 (자료의 정확성 검증 불가)
 - 교내 : 해당 과제의 지원연구비에 대응되는 교내의 계약(협약)된 대응자금 (자금 출처 -교내)
 - 교외 : 해당 과제의 지원연구비에 대응되는 교외의 계약(협약)된 대응자금 (자금 출처 - 교내 이외의 기관)
-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 교내 : (교내연구비+교내대응자금)/전임교원 수
 - 교외 : (교외연구비+교외대응자금)/전임교원 수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4-19. 기술이전 건수 (10점)

■ 지표정의

기술이전 계약 건수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표 값

기술이전 계약 건수(건)

■ 지표작성양식

구 분	건 수(A)	수입료(천원)	비고
2023			
2024			

■ 작성지침

-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한함.
- 기술이전 : 기술이전계약서 체결을 근거로 작성.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매매하거나 실시권 허여(허락)를 한 경우에 한함.

※ 제외대상 : 기술자문(컨설팅 포함), 산업체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술이전

- 건 수 : 조사연도(2023. 1. 1. ~ 2024. 12. 31.)에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서를 근거로 한 기술이전 건수를 말함. 기술료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1개의 계약서 내에 다수의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도 1건으로 봄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4-20. 기술이전 수입료 (20점)

■ 지표정의

기술이전에 따른 대학 기술력 향상 및 수익 창출 기여도를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표 값

기술이전 수입료(천원)

■ 지표작성양식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수입료(A)	비고
2023			
2024			

■ 작성지침

-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한함.
- 기술이전 : 기술이전계약서 체결을 근거로 작성.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매매하거나 실시권 허여(허락)를 한 경우에 한함.
 ※ 제외대상 : 기술자문(컨설팅 포함), 산업체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술이전
- 수입료 :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근거로 조사연도(2023. 1. 1. ~ 2024. 12. 31.)에 수취한 실수입료를 말하며, 계약을 체결한 연도와는 상관없이 조사연도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입력하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4-21. 국내특허 출원 (10점)

■ 지표정의

지적재산권 보유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와 수입창출 기반 조성실적을 나타내는 국내특허 관련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표 값

국내특허 출원 건수(건)



■ 지표작성양식

구 분	국내특허		비고
	출원(A)	등록	
2023			
2024			

■ 작성지침

- 국내 특허 건수는 특허청이 제공한 특허 정보의 출원일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출
- 출원 : 특허가 출원된 이후에 거절되었거나 취하, 공개된 건이라도 일단 출원이 되었다면 모두 포함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4-22. 국내특허 등록 (10점)

■ 지표정의

지적재산권 보유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와 수입창출 기반 조성실적을 나타내는 국내특허 관련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표 값

국내특허 등록 건수(건)

■ 지표작성양식

구 분	국내특허		비고
	출원	등록(A)	
2023			
2024			

■ 작성지침

- 국내 특허 건수는 특허청이 제공한 특허 정보의 출원일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출
- 등록 : 특허가 출원된 이후에 실제 등록된 것만 포함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4-23. 국외특허 출원 (10점)

■ 지표정의

지적재산권 보유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와 수입창출 기반 조성실적을 나타내는 국내특허 관련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표 값

국외특허 출원 건수(건)



■ 지표작성양식

구 분	국외특허		비고
	출원(A)	등록	
2023			
2024			

■ 작성지침

- 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는 개별 국가건수를 기준으로 산출
- 동일 기술이 다수의 국가로 출원·등록된 경우, 출원·등록된 번호를 기준으로 번호 1개당 특허 1건으로 산출
- 출원 : 특허가 출원된 이후에 거절되었거나 취하, 공개된 건이라도 일단 출원이 되었다면 모두 포함함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4-24. 국외특허 등록 (10점)

■ 지표정의

지적재산권 보유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와 수입창출 기반 조성실적을 나타내는 국내특허 관련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표 값

국외특허 등록 건수(건)

■ 지표작성양식

구 분	국내특허		비고
	출원	등록(A)	
2023			
2024			

■ 작성지침

- 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는 개별 국가건수를 기준으로 산출
- 동일 기술이 다수의 국가로 출원·등록된 경우, 출원·등록된 번호를 기준으로 번호 1개당 특허 1건으로 산출
- 등록 : 특허가 출원된 이후에 실제 등록된 것만 포함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5. 재정(150점)

5-25. 교육비 환원율 (50점)

■ 지표정의

등록금 대비 교육원가 비율로 학생들의 교육 수혜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교육비 환원율(%) = 총 교육비 / 등록금수입총액 × 100

■ 지표 작성양식

(단위 : 천원)

구 분	등록금수입총액(A)	교육비(B)	교육비 환원율 C=B/A×100
2023			
2024			

■ 작성지침

- 회계별 회계기간에 대해 적용(전년도 결산자료)
- 등록금 : 대학회계 세입 중 회비 + 일반회계 입학금과 수업료
- 교육비 : 일반회계(인건비+물건비), 대학회계(인건비+운영비+경상이전비+수입대체경비), 발전기금회계(운영비+목적사업비(교육기자재 및 시설확충비 제외), 산단회계(산학협력비+보조사업비+일반관리비+운영외 비용)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50	40	30	20	10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50	40	30	20	10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5- 26. 장학금 지급률 (50점)

■ 지표정의

재학생의 등록금 대비 교내 장학금 및 교외 장학금 지급액 비율로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장학금 지급률(%) = (교내·외 장학금/등록금 수입 총액) × 100

■ 지표작성양식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등록금 수입총액(A)	교내·외 장학금(B)	장학금 지급률 C=B/A×100
2023			
2024			

■ 작성지침

- 등록금수입총액 : 전년도 1, 2학기를 통산하여 수납한 등록금액에 감면된 장학금을 더한 금액
- 교내·외 장학금 :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산정시의 교내장학금 지급액과 교외장학금 지급액의 합계
- 장학금 지급률 : (교내·외 장학금/등록금 수입 총액) × 100(%)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50	40	30	20	10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50	40	30	20	10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5-27.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 (10점)

■ 지표정의

시간강사의 처우 및 복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천원) = (등급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 총 강의시간 수)의 총합 / 총 강의시간 수의 총합

■ 지표작성양식

(단위 : 천원)

구 분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A)	총 강의시간 수(B)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 $C=\Sigma(A \times B) / \Sigma B$
2023			
2024			

■ 작성지침

- 시간강사 : 2023, 2024년 4월 기준, 대학(학부, 대학원) 소속으로 학부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
- 시간당 지급기준 단가 : 2023, 2024년 4월 강의료 지급 기준 1인 1시간의 지급기준 단가
- 총 강의시간 수 : 각 단가별 시간강사가 1학기 중 담당하는 총 강의시간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5-28. 등록금 비율 (20점)

■ 지표정의

등록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등록금 비율(%) =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등) / 세입 × 100

■ 지표작성양식

(단위 : 천원)

구 분	등록금(A)	총 세입(B)	등록금 비율 C=A/B×100
2023			
2024			

■ 작성지침

- 등록금 : 교육활동수입(입학금 + 수업료 등)
 - 총 세입 : 대학회계(국가 및 지방단체 지원금 + 자체수입금)
- ※ 세출로 확인, 2023, 2024년 결산 기준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5-29. 기부금 비율 (20점)

■ 지표정의

기부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 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기부금 비율(%) = 기부금 총액 / 세입총액 × 100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기부금 총액(A)	세입총액(B)	기부금 비율 (C=A/B)
2023			
2024			

■ 작성지침

- 총 세입 : 대학회계(국가 및 지방단체 지원금 + 자체수입금)
※ 세출로 확인, 2023, 2024년 결산 기준
- 기부금 비율(%) = 기부금 총액 / 세입총액 × 100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6. 산학협력(150점)

6-30.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 (20점)

■ 지표정의

대학이 보유한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활용으로 산출된 운영 수익금을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천원)

■ 지표 작성양식

(단위 : 천원)

구 분	장비명	설비자산사용료 수익				
		합계(A)	일반회계	교비회계	산단회계	기타
2023						
2024						

■ 작성지침

- 대학이 보유한 공동활용 연구장비에 한해 기재함
- 설비자산사용료 수익 :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설비 임대 등)을 통해 거둔 수익을 기재하되 장비의 소관별 회계 비목 중 ‘설비자산 사용료’ 비목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의 합계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6-31.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10점)

■ 지표정의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및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받는 교원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명) = $1.0 \times (\text{채용형 전임교원 수}) + 0.25 \times (\text{채용형 비전임교원 수}) + 0.2 \times (\text{지정형 전임교원 수})$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산학협력중점 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명) $D=(1.0 \times A)+(0.25 \times B)+(0.2 \times C)$
	채용형 전임(A)	채용형 비전임(B)	지정형 전임(C)	
2023				
2024				

■ 작성지침

- 채용형 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 최초 임용 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전임교원 형태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수를 입력
- 지정형 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 최초 임용 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전임교원 수를 입력
-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 최초 임용 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비전임교원 형태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수를 입력

※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시에는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6-32.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20점)

■ 지표정의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쌍방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학생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명) / 재학생수(명) × 100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학기	실습 기간			합계
		4주 이상(160~320시간)	8주 이상(320~480시간)	12주 이상(480시간이상)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2023	1				
	2				
	하계방학				
	동계방학				
	합 계				
2024	1				
	2				
	하계방학				
	동계방학				
	합 계				

■ 작성지침

-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 : 정원내 학생 중 2023, 2024학년도에 현장실습을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 수



- 이수 학생의 범위는 정원내 학생 중 4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으로 함
 - ※ 2023, 2024년 3월에 입학하여 2024년 12월 현재 4학기를 정상적으로 수료하였다면 당해 동계방학에 실시한 현장실습의 실적은 이수 학생 수에 포함 가능
 - ※ 1년에 3학기 이상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3학기 이상의 이수학생 수는 2학기에 합산
- 정규학위과정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어학연수생, 방문학생, 그 외 기타)은 현장실습 이수 학생 수에서 제외
-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은 대상에서 제외
- 학과에서 개설한 현장실습 외에 대학 내 취업지원 부서 및 교무처 등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해외 현장실습 포함)도 상기 현장실습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으로 인정
 - ※ 대학의 취업지원센터, 학교기업 등에서 개설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현장실습이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학생의 원소속 학과 실적으로 인정
 - ※ 현장실습 제외대상 학과에 소속한 학생이 본인의 학과에서 개설한 현장실습 과목 이외에 대학 내 취업지원 부서 및 교무처 등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해외 현장실습 포함. 단, 현장실습의 성격이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일 경우 제외)도 상기 현장실습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으로 인정
 - ※ 한 학생이 여러 학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또는 복수의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해당 학기별로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 학기별로 실적 인정 가능하나, 1개 학기 기준 1회의 실적만 인정함
 - ※ 현장실습을 개설한 학과의 학생은 아니나 부전공 등으로 타 학과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한 경우, 해당 학생의 원소속 학과 실적으로 인정
 - ※ 학과에서 개설하여 Pass/Fail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실습도 실적으로 인정
- 실습기간과 학점인정(부여) 시점이 다른 경우, 실습기간을 기준으로 실적 인정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6-33.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10점)

■ 지표정의

1~2학년동안 배운 전공교과목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과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 등을 배양하도록 하는 학교의 지원을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 사업단 참여학과의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수 / 재학생 수 × 100

■ 지표 작성양식

구분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수(A)	재학생 수(B)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C=A/B)
2023			
2024			

■ 작성지침

- 대상 학생 수
 - ① 1학기 : 2023, 2024. 4. 1. 현재 재학 중인 4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 수를 입력
 - ② 2학기 : 2023, 2024년 10월 1일 현재 재학 중인 4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 수를 입력
- 이수 학생 수 : 대상 학생 중 캡스톤디자인을 이수하여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 수를 입력
 - ※ 여름 계절학기는 1학기에, 겨울 계절학기는 2학기에 포함하여 입력
 - ※ 한 학생이 복수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중복 인정 가능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6-34. 교원창업 건수 (10점)

■ 지표정의

교원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기업의 총수를 의미하여 교원 창업은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교원이 직접 창업에 나서는 것으로 대학의 기술 사업화 성과를 평가하고 교원창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표 값

교원창업 건수(건)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교원창업 건수(A)	매출액(천원)	비고
2023			
2024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6-35. 교원 창업 기업 수익(10점)

■ 지표정의

교원이 창업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은 총수입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상의 ‘매출액’ 정의를 따른다고 볼 수 있으며 대학의 기술 사업화 성과를 평가하고 교원창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표 값

교원 창업 기업 수익(건)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교원창업 건수(A)	매출액(천원)	비고
2023			
2024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6-36. 창업 강의 수 (10점)

■ 지표정의

학생의 기업가마인드 향상과 창업 및 경영 능력 배양을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창업 강의 수(건)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창업강의 현황				창업 강의 수 C=A+B
	교양과목(A)		전공과목(B)		
	이론형 과목 강의 수	실습형 과목 강의 수	이론형 과목 강의 수	실습형 과목 강의 수	
2023					
2024					

■ 작성지침

- 교양과목 :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창업강의
- 전공과목 :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창업강의
- 이론형과목 : 수업내용의 절반이상이 창업 이론 등 창업 일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편성된 교과목
- 실습형과목 : 수업내용의 절반이상이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조별 모의창업 실습, 시제품 개발 등의 실습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편성된 교과목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6-37. 창업 재정 지원 (10점)

■ 지표정의

창업을 위해 필요한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창업 재정 지원(천원) = 창업동아리 지원 + 학생 창업 기업 지원 + 기타 학생 창업 지원 금액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전용공간 (㎡)	학생창업 지원 현황				
		지원액(천원)			창업 전담인력	
		교비	정부지원	계(A)	교원 수	직원 수
2023						
2024						

■ 작성지침

- 지원액 : (2023, 2024년도 결산 기준) 학생의 창업동아리 운영비, 학생창업기업 준비금, 창업 강의 운영, 워크숍 등 대학에서 지원한 창업관련 지원액
 - 창업동아리 : 학생의 창업동아리 운영을 위해 대학에서 지원한 금액
 - 학생창업기업 : 학생이 기업 창업을 위해 필요한 창업준비금 등 대학에서 지원한 금액
 - 기타 학생창업지원 : 창업강의 운영, 워크숍, 멘토링, 경진대회 운영 등 대학에서 지원한 금액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6-38. 창업공간 지원 (10점)

■ 지표정의

창업을 위해 필요한 활동에 대한 공간적 지원을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창업공간지원(㎡) = 창업동아리 공간 + 예비창업 전용공간 + 학생창업 기업공간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전용공간 (㎡) (A)	학생창업 지원 현황				
		지원액(천원)			창업 전담인력	
		교비	정부지원	계	교원 수	직원 수
2023						
2024						

■ 작성지침

- 전용공간 : 학생창업을 위한 창업동아리방, 예비창업전용공간, 학생창업기업공간(실험실 내 창업은 제외)을 위해 대학에서 지원·제공한 면적(창업자가 대학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

로 마련한 면적은 제외)

- 창업동아리방 : 대학에 등록을 하고 지도교수가 있으면서 전용공간 또는 대학의 예산지원을 받는 동아리에 제공된 공간
- 예비창업 전용공간 : 학생들이 창업관련 아이디어 공유 및 실험 등을 위해 일과 중에 창업 준비 학생에게 제공된 전용공간
- 학생창업 기업공간 : 창업한 학생들을 위해 제공된 공간(창업보육센터 등)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6-39. 창업지원인력 (10점)

■ 지표정의

창업을 위해 필요한 활동에 대한 인력적 지원을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창업지원인력(명) = 창업 전담교수 + 창업 전담 행정 인력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전용공간 (㎡)	학생창업 지원 현황				
		지원액(천원)			창업 전담인력(A)	
		교비	정부지원	계	교원 수	직원 수
2023						
2024						

■ 작성지침

• 전담인력

- 교원 수 : 전임교원 중 창업교육 및 지원을 전담(담당업무 중 50% 이상)하는 인력의 수(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별도의 창업교육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교육지원 포함)
- 직원 수 : 대학의 직원 중 창업교육 및 지원을 전담(담당업무 중 50% 이상)하는 인력의 수(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별도의 창업교육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교육지원 포함)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6-40. 교수 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 수 (10점)

■ 지표정의

사업단 참여 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서의 수행 과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 수(건) = 민간산업체, 연구소 등 민간, 외국에서 지원한 연구과제 수 / 전임교원 수

■ 지표 작성양식

구분	전임교원 (A)	교내		교외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 D=B+C/A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외국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B)	연구비	과제 (C)	연구비	
2023												
2024												

■ 작성지침

- 전임교원 : 2023, 2024. 4. 1. 현재 재직 중인 전임교원(휴직교원 포함)을 말하며,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분류, 외국인 전임교원 포함
※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
- 과제 : 2023, 2024. 4. 1. 기준 소속대학 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서 2024년도에 수행한 과제의 계약(협약) 건수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6-41.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 (10점)

■ 지표정의

사업단 참여 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서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천원) = 민간산업체, 연구소 등 민간, 외국에서 지원한 연구비 총액 / 전임교원 수

■ 지표 작성양식

구분	전임교원 (A)	교내		교외								교수1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 D=(B+C)/A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외국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B)	과제	연구비 (C)	
2023												
2024												



■ 작성지침

- 전임교원 : 2023, 2024. 4. 1. 현재 재직 중인 전임교원(휴직교원 포함)을 말하며,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분류, 외국인 전임교원 포함
※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비
 - ① 2023, 2024년도 계약(협약)된 금액으로, ‘현금’ 만 포함 (다년과제인 경우, ④번 참고)
 - ② 연구비에는 간접비를 포함하되 KRI 입력시, 반드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함
 - ③ 연구비에는 교내·외 대응자금을 포함하지 말고, 대응자금은 별도로 입력
 - ④ 연구과제가 다년 과제인 경우, 2023, 2024년 연구비만 계산
(총 연구비 4억 원에 3년 과제가 2차년도인 2023, 2024년도에 연구비가 1억 원으로 책정되면 연구비는 1억 원으로 기재 ※ 제외 : 현물 (자료의 정확성 검증 불가)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7. 국제화여건(100점)

7-42. 외국인 전임 교원 비율 (30점)

■ 지표정의

외국인 전임교원 채용 실적으로 대학교육의 국제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지표 값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 외국인 전임교원 수 / 전체 전임교원 수 × 100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전임교원(A)	외국인 전임교원 수(B)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C=B/A×100)
2023			
2024			

■ 작성지침

- 2023, 2024.4.1일 기준 교원수
- 전임교원 : 휴직교원을 포함한 전임교원 수
- 외국인 전임교원 : 외국국적의 전임교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받은 교원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30	24	18	12	6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30	24	18	12	6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7-43.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10점)

■ 지표정의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로 대학의 국제화 정도의 일면을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비율(%) = 외국인 학생 수/(학부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 × 100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외국인 학생 수(A)	재학생 수(B)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C=A/B×100)
2023			
2024			

■ 작성 지침

- 재학생 : 2023, 2024.4.1일 기준의 학부 학생 수의 합
- 외국인 학생
 - ① 당해 연도 4월 1일 현재 학부에 재적 중인 외국 국적의 학생 (등록 후 휴학한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
 -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제2항 2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동항의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를 포함하되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및 편입생 등을 포함
- 어학연수생 : 대학부설 어학원 등 비학위과정(Non-degree Program)인 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지만 학점은 취득하지 않는 유학생
- 기타연수생 : 정규 학위과정(Degree Program)이나 어학연수생(Language Training Student)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학생(교환학생, 방문학생 등을 모두 포함)
 - ※ 교환학생(Exchange Student) :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해서 1:1의 학생 상호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 ※ 방문 학생(Visiting Student) : 학교간의 협정이 아닌 개인의 대학 방문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 외국인 학생 비율 : (외국인 유학생 수/재학생수) × 100%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7-44. 교환학생 비율 (10점)

■ 지표정의

교환학생의 비율로 대학교육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교환학생 비율(%) = (해외 파견 교환학생 수+외국인 교환학생 수)/(학부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100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파견학생 수(A)	교환학생 수(B)	재학생 수(C)	교환학생 비율(D=(A+B)/C×100)
2023				
2024				

■ 작성지침

- 기준연도 : 교류 기간이 2개년에 걸쳐 진행된 경우 시작 연도의 교류실적에 포함
※ 2024년 2학기부터 2025년 1학기까지 교류 시 2024년도에 작성



- 파견인원 : 자 대학교→타 대학교, 타 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 타 대학교의 어학연수 과정이 자 대학교의 정규 학점으로 인정될 경우 포함하여 입력함
- 유치인원 : 타 대학교→자 대학교, 해당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타 대학교 학생 수
- 재학생 수 : 2023, 2024.4.1.기준 학부학생, 대학원 재학생 수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7-45. 해외파견 학생 수 (20점)

■ 지표정의

해외파견 학생 수로 대학교육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해외파견 학생 수(명)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파견학생 수(A) (자 대학교 → 타 대학교)	교환학생 수 (타 대학교 → 자 대학교)	비고
2023			
2024			

■ 작성지침

- 기준연도 : 교류 기간이 2개년에 걸쳐 진행된 경우 시작 연도의 교류실적에 포함
※ 2024년 2학기부터 2025년 1학기까지 교류 시 2024년도에 작성
- 파견인원 : 자 대학교→타 대학교, 타 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 타 대학교의 어학연수 과정이 자 대학교의 정규 학점으로 인정될 경우 포함하여 입력함
- 유치인원 : 타 대학교→자 대학교, 해당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타 대학교 학생 수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7-46.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20점)

■ 지표정의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로 대학교육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명)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파견학생 수 (자 대학교 → 타 대학교)	교환학생 수(A) (타 대학교 → 자 대학교)	비고
2023			
2024			

■ 작성지침

- 기준연도 : 교류 기간이 2개년에 걸쳐 진행된 경우 시작 연도의 교류실적에 포함
※ 2024년 2학기부터 2025년 1학기까지 교류 시 2024년도에 작성
- 파견인원 : 자 대학교→타 대학교, 타 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 타 대학교의 어학연수 과정이 자 대학교의 정규 학점으로 인정될 경우 포함하여 입력함
- 유치인원 : 타 대학교→자 대학교, 해당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타 대학교 학생 수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7-47.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0점)

■ 지표정의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와 교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 $(1 - (\text{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 / \text{전체 유학생 수})) \times 100$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유학생 최다 국가	유학생 최다국가의 학생 수(A)	전체 유학생 수(B)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 - (A/B) \times 100$
2023				
2024				

■ 작성지침

- 유학생 최다 국가 : 유학생이 가장 많은 국가
-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 $(1 - (\text{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 / \text{전체 유학생 수})) \times 100$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10	8	6	4	2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8. 기타(50점)

8-48. 교사시설 확보율 (30점)

■ 지표정의

교사시설 확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년(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지표 값

교사시설 확보율(%) = (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기준면적(㎡) × 100

■ 지표 작성양식

구 분	기준면적(㎡)		보유면적(㎡)					교사시설확보율(%)	
	입학정원 기준(A)	재학생 기준(B)	기본시 설(C)	지원시 설(D)	연구시 설(E)	부속 시설	기타 시설	입학정원기준(C+D+E)/A×1 00	재학생기준(C+D+E)/B ×100
2023									
2024									

■ 작성지침

- 기준면적 : 대학설립·운영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사 기준 면적
- 입학정원기준 : 정원내 학부(계열별 학과 주·야별 입학정원 중 최댓값 × 수업연한(2년, 3년, 4년, 5년 이상) + 정원내 대학원(주간 입학정원 × 수업연한)
- ※ 대학원을 계열별로 구분할 수 없을 경우 당해연도 3월에 입학한 정원내 신입생의 4.1. 기준 대학원 재학생 비율로 안분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30	24	18	12	6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30	24	18	12	6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8-49. 기숙사 수용률 (20점)

■ 지표정의

학생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한 지원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재학생의 기숙사 수용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023, 2024. 4. 1. 기준

■ 지표 값

기숙사 수용률 = 수용인원 / (학부 정원 내외 + 대학원(주간) 재학생 수) × 100

■ 지표작성양식

구 분	재학생 수(A)	수용 가능 인원(B)	기숙사 수용률(C=B/A)	비고
2023				
2024				

■ 작성지침

- 재학생 : 2023, 2024. 4. 1. 기준 학부(주간+야간) 및 대학원(주간) 재학생 수
- 수용 가능 인원 : 학교 기숙사 건물대장에 기재된 수용 가능 인원 수(총장·교직원·일반인 등이 사용하는 기숙사 수용 분은 제외함)
- 기숙사 수용률(%) : (수용 가능 인원 / 재학생 수) × 100

■ 평가기준

1. 19개교 지역 중심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4위	5위~8위	9위~12위	13위~16위	17위~19위

2. 28개교 국립대학 순위 기준

등급점수 구분	20	16	12	8	4
지표 값	1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6위~28위



2. 28개 국립대학 및 유사규모대학과의 비교자료

1) 28개 국립대학 비교자료

1. 학생(28개 국립대학)						
연도	대학명	분류	1. 신입생충원율(%)	2. 재학생충원율(%)	3. 중도탈락학생비율(%)	4. 학부생비율(%)
2024	강원대학교	거점대학	100	108.8	3.1	87.7
2024	경북대학교	거점대학	99.9	110.5	3.6	85.1
2024	경상국립대학교	거점대학	100	93	5.5	89.5
2024	부산대학교	거점대학	99.7	109.9	3.8	82.2
2024	전남대학교	거점대학	100	111.1	3.7	84.4
2024	전북대학교	거점대학	99.8	108.2	3.9	87.1
2024	제주대학교	거점대학	100	107	5.7	91.1
2024	충남대학교	거점대학	99.8	117.8	4	84.9
2024	충북대학교	거점대학	100	112.4	4.4	84.2
202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8.4	95	6.4	92.8
2024	국립경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6.3	85.1	6.6	92.4
2024	국립공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00	108.7	5	89.0
2024	국립군산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9.4	91.2	8	89.4
202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00	101.4	5.5	91.5
2024	국립목포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6.8	92.8	7.5	93.2
2024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9.7	92.8	6.4	96.9
2024	국립부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9.8	117.1	4.4	90.1
2024	국립순천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8.9	97.4	6.7	92.4
2024	국립창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8.7	106.5	5.8	89.9
202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9.9	103.2	5.1	96.3
202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9.9	113.4	4.7	91.5
2024	국립한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8.8	108.9	5.3	96.3
2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00	116.9	4.1	90.2
2024	서울시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00	125.9	3.3	87.7
2024	한경국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9.1	112.3	5.7	94.7
2024	한국교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9.5	105.3	3.2	71.8
20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00	100.4	3	82.8
2024	한국체육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00	110.8	1.7	91.4

2. 교원(28개 국립대학)					
연도	대학명	분류	5. 전임교원확보율_재학생 기준(%)	6. 전임교원 1인당_재학생 기준	7. 직원 1인당 학생수
2024	강원대학교	거점대학	97.3	21.1	22.1
2024	경북대학교	거점대학	95.3	21.1	28.4
2024	경상국립대학교	거점대학	115.0	18.0	21.9
2024	부산대학교	거점대학	97.6	20.2	30.5
2024	전남대학교	거점대학	99.1	19.7	31.6
2024	전북대학교	거점대학	94.6	21.3	30.3
2024	제주대학교	거점대학	112.5	18.3	22.1
2024	충남대학교	거점대학	85.9	23.3	29.1
2024	충북대학교	거점대학	86.9	22.9	25.9
202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6.4	20.9	14.0
2024	국립경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04.2	20.4	16.1
2024	국립공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8.8	27.1	25.4
2024	국립군산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3.1	22.7	23.8
202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84.1	23.9	18.6
2024	국립목포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04.7	20.8	24.0
2024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2.7	21.2	13.6
2024	국립부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1.6	29.8	30.2
2024	국립순천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1.7	23.2	22.4
2024	국립창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9.2	27.5	26.3
202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8.4	26.6	24.8
202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9.3	26.2	22.6
2024	국립한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1.7	29.1	30.5
2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1.1	28.8	22.8
2024	서울시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80.3	27.5	19.7
2024	한경국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0.2	22.8	17.5
2024	한국교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3.0	31.1	18.9
20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3.5	27.9	14.1
2024	한국체육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6.1	26.2	19.7

3. 교육여건(28개 국립대학)									
연도	대학명	분류	8. 취업률	9.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10.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11. 강의 규모의 적절성	12. 소규모 강의	13. 대규모 강의	14. 도서관 연간 자료 구입비
2024	강원대학교	거점대학	57.6	58.6	41.4	32.7	36.8	0.9	187,041
2024	경북대학교	거점대학	60.1	59.3	40.7	31.5	39.2	0.9	198,683
2024	경상국립대학교	거점대학	52.1	68.7	31.3	33.3	45.8	0.9	216,673
2024	부산대학교	거점대학	59.8	55.3	44.7	32.8	38.1	0.7	195,785
2024	전남대학교	거점대학	58.3	60.2	39.8	32.4	43.2	0.7	163,805
2024	전북대학교	거점대학	62.8	54.7	45.3	34.8	57.1	0.4	180,962
2024	제주대학교	거점대학	64.5	65.4	34.6	34.4	52.2	0.5	163,196
2024	충남대학교	거점대학	64.1	62.0	38.0	32.5	42.0	1.3	189,138
2024	충북대학교	거점대학	59.7	62.0	38.0	32.1	36.1	0.6	195,185
202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2.0	58.5	41.5	33.6	41.8	1.5	113,640
2024	국립경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6.1	66.6	33.4	34.4	51.0	0.5	105,930
2024	국립공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9.1	66.7	33.3	34.2	46.4	0.9	96,928
2024	국립군산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0.2	73.2	26.8	34.0	46.1	0.0	120,877
202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7.6	72.0	28.0	32.3	30.3	0.2	196,732
2024	국립목포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5.8	76.9	23.1	34.2	50.5	0.1	94,602
2024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86.2	71.2	28.8	32.0	21.5	0.1	89,846
2024	국립부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6.6	67.1	32.9	31.9	28.4	1.0	139,862
2024	국립순천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9.9	67.6	32.4	34.6	54.1	0.2	164,580
2024	국립창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7.6	58.7	41.3	33.8	45.3	0.8	135,282
202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5.0	64.5	35.5	33.0	37.1	0.4	121,674
202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3.4	66.3	33.7	34.8	51.4	0.0	142,438
2024	국립한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3.1	61.7	38.3	32.5	29.3	0.1	141,844
2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7.2	62.8	37.2	32.2	32.1	0.7	188,694
2024	서울시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7.2	52.2	47.8	33.9	51.7	1.6	284,022
2024	한경국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7.7	63.3	36.7	33.6	39.5	0.3	126,157
2024	한국교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9.3	54.3	45.7	34.9	52.0	0.9	126,520
20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3.0	30.1	69.9	38.5	84.9	0.0	284,136
2024	한국체육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8.6	60.8	39.2	30.6	17.8	0.2	79,056

[illegible]

5. 재정(28개 국립대학)							
연도	대학명	분류	25. 교육비 환원율	26. 장학금 지급률	27.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	28. 등록금 비율	29. 기부금 비율
2024	강원대학교	거점대학	640.7	49.9	95.2	17.6	0.9
2024	경북대학교	거점대학	675.4	58.7	98.6	17.9	0.9
2024	경상국립대학교	거점대학	673.9	68.0	100.5	14.4	0.7
2024	부산대학교	거점대학	675.1	56.0	98.3	19.2	1.1
2024	전남대학교	거점대학	678.6	54.3	94.0	17.4	1.3
2024	전북대학교	거점대학	656.0	66.2	94.1	16.6	1.1
2024	제주대학교	거점대학	776.7	71.8	92.2	15.2	0.8
2024	충남대학교	거점대학	639.5	53.4	93.9	19.5	1.5
2024	충북대학교	거점대학	669.3	62.6	91.0	17.1	1.2
202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37.6	62.1	95.7	15.3	0.5
2024	국립경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802.4	122.6	86.9	11.6	0.2
2024	국립공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52.0	73.3	98.9	16.7	0.4
2024	국립군산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51.7	79.8	83.8	15.3	0.2
202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74.1	85.8	96.1	18.0	0.5
2024	국립목포대학교	지역중심대학	844.3	106.8	87.8	12.1	0.7
2024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841.0	81.5	99.0	9.2	1.0
2024	국립부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95.1	79.1	87.7	20.1	0.7
2024	국립순천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35.2	74.7	85.3	15.5	0.7
2024	국립창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59.1	79.3	94.6	16.9	0.7
202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19.9	88.4	89.0	15.7	0.5
202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822.9	83.8	93.1	12.3	2.2
2024	국립한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29.7	77.7	98.9	20.3	0.8
2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역중심대학	450.6	57.0	98.0	23.5	1.0
2024	서울시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57.1	57.1	78.7	23.8	1.3
2024	한경국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93.6	80.9	89.6	12.4	0.2
2024	한국교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499.8	32.1	97.7	13.4	0.2
20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0	0.0	83.0	0.0	0.0
2024	한국체육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05.3	64.7	98.9	13.0	0.6

6. 신원협력(28개 국립대학)														
연도	대학명	분류	30. 공동육성 연구장비 운영수입 ¹⁾	신원협력종합교수 인건비 ²⁾	신원협력종합교수 인건비 ³⁾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⁴⁾	캠퍼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⁵⁾	교원정액 간수 ⁶⁾	교원정액 지원 ⁷⁾	정원외 교원 ⁸⁾	교수 인당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 ⁹⁾	교수 인당 산업체 공동연구비 ¹⁰⁾		
2024	강원대학교	거점대학	364,616	16.9	1.23	5.17	13	524,129	188	4,461,419	4,260	79	0.12	5,730
2024	경북대학교	거점대학	2,502,886	17.25	1.24	6.71	5	0	77	3,102,881	1,839	31	0.12	6,558
2024	경상국립대학교	거점대학	414,970	9	1.11	8.09	8	376,864	106	8,522,155	2,149	40	0.13	5,720
2024	부산대학교	거점대학	2,288,212	9.3	1.59	8.73	2	36,364	62	658,107	3,119	22	0.19	11,089
2024	전남대학교	거점대학	1,041,172	16	0.61	7.51	8	73,977	63	2,395,140	1,681	20	0.12	6,633
2024	전북대학교	거점대학	670,518	22.25	1.16	6.16	10	15,000	72	11,951,500	867	26	0.15	11,245
2024	제주대학교	거점대학	21,948	4.75	1.55	9.17	2	59,987	79	502,050	855	13	0.14	8,237
2024	충남대학교	거점대학	1,555,071	20.95	1.89	10.95	9	104,737	83	2,201,017	1,427	15	0.38	21,371
2024	충북대학교	거점대학	745,940	17.75	0.82	10.48	9	36,163	54	299,499	2,119	11	0.20	17,706
202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지역성립대학	333,767	21.4	1.53	14.72	4	52,727	36	472,260	678	7	0.13	3,489
2024	국립경남대학교	지역성립대학	266,216	7.5	0.88	13.65	1	0	22	377,016	33	2	0.13	4,529
2024	국립공주대학교	지역성립대학	1,435,009	17.45	0.79	1.05	4	0	58	234,381	328	7	0.23	7,800
2024	국립군산대학교	지역성립대학	861,020	9.5	0.80	12.10	0	0	22	989,400	1,261	8	0.10	8,569
2024	국립금오과학대학교	지역성립대학	201,863	17.25	2.67	17.53	4	0	44	0	220	2	0.44	14,234
2024	국립목포대학교	지역성립대학	631,280	10.2	3.02	16.31	1	18,000	13	365,000	539	5	0.21	11,644
2024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성립대학	383,331	0.75	0.34	8.99	1	0	5	0	68	3	0.32	9,303
2024	국립부경대학교	지역성립대학	782,444	18.25	1.65	17.79	6	39,130	46	145,078	920	11	0.39	17,340
2024	국립순천대학교	지역성립대학	137,850	6.2	1.30	9.83	0	0	40	3,377,950	2,937	10	0.18	7,774
2024	국립철원대학교	지역성립대학	443,410	5.95	1.96	20.71	1	16,000	48	261,125	3,044	14	0.36	12,682
2024	국립한라대학교	지역성립대학	1,834,976	7	3.80	30.36	1	0	52	457,305	1,057	7	0.13	5,743
2024	국립한양대학교	지역성립대학	68,551	5.25	1.47	19.24	3	0	45	197,550	481	6	0.24	15,180
2024	국립한림대학교	지역성립대학	1,059,402	18	1.46	22.30	5	63,010	74	136,000	154	19	0.30	9,803
2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역성립대학	283,510	10.5	4.35	19.75	7	67,000	88	6,447,170	3,856	26	0.34	17,790
2024	서울시립대학교	지역성립대학	581,397	2.25	1.66	7.23	8	0	54	1,671,596	182	20	0.17	9,706
2024	한경국립대학교	지역성립대학	114,933	5	0.80	3.43	1	0	31	81,463	348	1	0.05	3,873
2024	한국고려대학교	지역성립대학	0	0	0.00	0.00	0	0	0	287,000	0	4	0.06	3,744
20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역성립대학	0	0	3.19	0.00	0	0	2	5,070	134	3	1.03	46,386
2024	한국체육대학교	지역성립대학	0	5	0.00	0.00	0	0	1	31,243	60	1	0.09	2,538

7. 국제화(28개 국립대학)

연도	대학명	분류	43.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44. 외국인 학생 비율	45. 교환학생 비율	46. 해외 파견 학생수	47.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48.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2024	강원대학교	거점대학	1.7	1.2	2.9	136	371	73.7
2024	경북대학교	거점대학	2.0	1.8	3.3	568	412	65.5
2024	경상국립대학교	거점대학	0.7	0.5	1.8	124	211	69.9
2024	부산대학교	거점대학	8.7	1.9	3.5	608	412	70.1
2024	전남대학교	거점대학	3.0	1.6	4.0	455	437	68.7
2024	전북대학교	거점대학	2.8	2.7	5.4	709	513	65.0
2024	제주대학교	거점대학	0.3	1.4	2.7	236	86	46.5
2024	충남대학교	거점대학	1.4	1.2	3.0	435	309	70.7
2024	충북대학교	거점대학	2.0	2.0	1.7	147	154	63.1
202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0	2.6	0.6	19	14	21.0
2024	국립경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4	0.4	0.4	10	11	55.2
2024	국립공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8	0.9	0.3	50	3	57.3
2024	국립군산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2	4.0	0.8	23	38	21.9
202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3	0.6	0.6	22	11	67.2
2024	국립목포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8	0.6	0.9	7	52	67.5
2024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0	0.2	0.0	0	0	37.3
2024	국립부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4.1	3.5	4.6	458	413	62.6
2024	국립순천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8	2.0	1.4	78	30	69.0
2024	국립창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9	1.5	0.9	55	30	33.2
202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6	0.4	0.9	26	53	15.7
202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9	0.8	3.3	182	57	22.6
2024	국립한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3	0.9	1.2	19	84	45.7
2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역중심대학	3.0	3.6	3.1	190	193	66.2
2024	서울시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5	1.9	6.2	332	450	76.5
2024	한경국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1	1.2	0.3	16	0	54.7
2024	한국국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3	0.0	0.2	10	1	0.0
20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0	0.3	1.5	0	15	0.0
2024	한국체육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8	0.3	0.0	1	0	12.5

8. 기타(28개 국립대학)				
연도	대학명	분류	49. 교사시설 확보율	50. 기숙사 수용률
2024	강원대학교	거점대학	183.3	28.1
2024	경북대학교	거점대학	202.3	25.9
2024	경상국립대학교	거점대학	219.1	27.8
2024	부산대학교	거점대학	190.2	21.1
2024	전남대학교	거점대학	191	20.5
2024	전북대학교	거점대학	217.7	29.0
2024	제주대학교	거점대학	212.8	27.5
2024	충남대학교	거점대학	173.3	24.0
2024	충북대학교	거점대학	198	25.0
202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75.9	40.6
2024	국립경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54.8	29.1
2024	국립공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95.4	31.0
2024	국립군산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90.4	24.6
202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29	36.2
2024	국립목포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42.7	23.6
2024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72.8	87.2
2024	국립부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75.9	25.0
2024	국립순천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90.3	29.9
2024	국립창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15.4	26.5
202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17.1	23.1
202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04.9	40.6
2024	국립한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89.4	16.4
2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65.8	23.8
2024	서울시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58.7	11.4
2024	한경국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32.8	27.1
2024	한국교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322.9	74.9
20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역중심대학	402.4	87.9
2024	한국체육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53.2	37.0

2) 19개 지역중심국립대학비교자료

1. 학생(19개 지역중심국립대학)						
연도	대학명	분류	1. 신입생증원율(%)	2. 재학생증원율(%)	3. 중도탈락학생비율(%)	4. 학부생비율(%)
202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8.4	95	6.4	92.8
2024	국립경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6.3	85.1	6.6	92.4
2024	국립공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00	108.7	5	89.0
2024	국립군산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9.4	91.2	8	89.4
202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00	101.4	5.5	91.5
2024	국립목포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6.8	92.8	7.5	93.2
2024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9.7	92.8	6.4	96.9
2024	국립부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9.8	117.1	4.4	90.1
2024	국립순천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8.9	97.4	6.7	92.4
2024	국립창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8.7	106.5	5.8	89.9
202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9.9	103.2	5.1	96.3
202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9.9	113.4	4.7	91.5
2024	국립한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8.8	108.9	5.3	96.3
2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00	116.9	4.1	90.2
2024	서울시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00	125.9	3.3	87.7
2024	한경국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9.1	112.3	5.7	94.7
2024	한국교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9.5	105.3	3.2	71.8
20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00	100.4	3	82.8
2024	한국체육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00	110.8	1.7	91.4

2. 교원(19개 지역중심국립대학)					
연도	대학명	분류	5. 전임교원확보율_재학생 기준(%)	6. 전임교원 1인당_재학생 기준	7. 직원 1인당 학생수
202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6.4	20.9	14.0
2024	국립경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04.2	20.4	16.1
2024	국립공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8.8	27.1	25.4
2024	국립군산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3.1	22.7	23.8
202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84.1	23.9	18.6
2024	국립목포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04.7	20.8	24.0
2024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2.7	21.2	13.6
2024	국립부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1.6	29.8	30.2
2024	국립순천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1.7	23.2	22.4
2024	국립창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9.2	27.5	26.3
202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8.4	26.6	24.8
202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9.3	26.2	22.6
2024	국립한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1.7	29.1	30.5
2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1.1	28.8	22.8
2024	서울시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80.3	27.5	19.7
2024	한경국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90.2	22.8	17.5
2024	한국교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3.0	31.1	18.9
20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3.5	27.9	14.1
2024	한국체육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6.1	26.2	19.7

3. 교육여건(19개 지역중심국립)									
연도	대학명	분류	8. 취업률	9.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10.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11. 강의 규모의 적절성	12. 소규모 강의	13. 대규모 강의	14. 도서관 연간 자료 구입비
202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2.0	58.5	41.5	33.6	41.8	1.5	113,640
2024	국립경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6.1	66.6	33.4	34.4	51.0	0.5	105,930
2024	국립공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9.1	66.7	33.3	34.2	46.4	0.9	96,928
2024	국립군산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0.2	73.2	26.8	34.0	46.1	0.0	120,877
202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7.6	72.0	28.0	32.3	30.3	0.2	196,732
2024	국립목포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5.8	76.9	23.1	34.2	50.5	0.1	94,602
2024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86.2	71.2	28.8	32.0	21.5	0.1	89,846
2024	국립부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6.6	67.1	32.9	31.9	28.4	1.0	139,862
2024	국립순천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9.9	67.6	32.4	34.6	54.1	0.2	164,580
2024	국립청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7.6	58.7	41.3	33.8	45.3	0.8	135,282
202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5.0	64.5	35.5	33.0	37.1	0.4	121,674
202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3.4	66.3	33.7	34.8	51.4	0.0	142,438
2024	국립한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3.1	61.7	38.3	32.5	29.3	0.1	141,844
2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7.2	62.8	37.2	32.2	32.1	0.7	188,694
2024	서울시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7.2	52.2	47.8	33.9	51.7	1.6	284,022
2024	한경국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7.7	63.3	36.7	33.6	39.5	0.3	126,157
2024	한국교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9.3	54.3	45.7	34.9	52.0	0.9	126,520
20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3.0	30.1	69.9	38.5	84.9	0.0	284,136
2024	한국체육대학교	지역중심대학	78.6	60.8	39.2	30.6	17.8	0.2	79,056

4. 연구(연구)지중심구분별:

연도	대학명	분류	15. 전년도 연구용역비(연구비 포함)	16. 전년도 연구비(연구비 포함)	17. 전년도 연구비(연구비 포함)	18. 전년도 연구비(연구비 포함)	18. 전년도 연구비(연구비 포함)	18. 전년도 연구비(연구비 포함)	18. 전년도 연구비(연구비 포함)	19. 기입한 연구비(연구비 포함)	20. 기입한 연구비(연구비 포함)	21. 기입한 연구비(연구비 포함)	22. 기입한 연구비(연구비 포함)	23. 기입한 연구비(연구비 포함)	24. 기입한 연구비(연구비 포함)
2024	국립서울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566	0.3388	0.0522	1,417.60	48,098.20	82,521	50	322,064	100	17	5	2	2
2024	국립전남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7928	0.2629	0.1143	3,048.40	77,988.40	143,880	20	174,720	100	44	12	2	2
2024	국립광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6862	0.4106	0.0795	2,482.50	98,881.70	149,905	72	530,357	212	127	12	3	3
2024	국립강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5637	0.3235	0.0894	5,190.90	96,019.80	140,724	60	485,849	109	51	1	0	0
2024	국립오송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524	0.511	0.0542	6,286.00	119,994.80	162,827	99	830,200	245	90	32	5	5
2024	국립포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7123	0.2983	0.0949	2,110.80	143,796.50	160,403	86	448,827	89	35	3	0	0
2024	국립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5153	0.2161	0.097	1,738.50	99,835.70	135,215	13	50,000	41	13	2	0	0
2024	국립부천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6708	0.6472	0.1236	11,717.60	148,064.50	250,053	140	686,747	212	97	59	18	18
2024	국립순천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555	0.3618	0.0502	3,930.70	111,654.90	141,692	84	546,358	108	31	9	0	0
2024	국립청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7337	0.3451	0.053	2,797.50	103,855.40	126,976	66	635,782	123	81	18	1	1
2024	국립국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6046	0.2568	0.0658	10,583.40	106,018.80	234,265	62	482,797	147	60	71	9	9
2024	국립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6618	0.4167	0.0728	3,143.80	138,461.10	207,216	56	1,254,513	122	59	5	3	3
2024	국립한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4093	0.3762	0.0519	3,182.70	96,630.00	123,283	67	575,523	189	75	28	7	7
2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362	0.768	0.0585	7,812.40	137,968.70	224,899	67	856,164	253	94	39	8	8
2024	서울시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5302	0.4363	0.08	12,129.50	123,884.40	234,839	29	825,182	149	92	29	12	12
2024	한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4156	0.3906	0.0809	1,291.80	52,042.70	68,194	15	168,245	32	13	1	0	0
2024	한국교통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41	0.19	0.114			215,133	0	0	1	0	0	0	0
2024	한국기술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5962	0.1257	0.0974			419,757	0	10,000	2	2	0	0	0
2024	한국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9822	0.0757	0.0685	1,554.00	46,803.00	30,646	0	0	0	1	0	0	0



5. 재정(19개 지역중심국립대학)

연도	대학명	분류	25. 교육비 환원율	26. 장학금 지급률	27.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	28. 등록금 비율	29. 기부금 비율
202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37.6	62.1	95.7	15.3	0.5
2024	국립경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802.4	122.6	86.9	11.6	0.2
2024	국립공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52.0	73.3	98.9	16.7	0.4
2024	국립군산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51.7	79.8	83.8	15.3	0.2
202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74.1	85.8	96.1	18.0	0.5
2024	국립목포대학교	지역중심대학	844.3	106.8	87.8	12.1	0.7
2024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841.0	81.5	99.0	9.2	1.0
2024	국립부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95.1	79.1	87.7	20.1	0.7
2024	국립순천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35.2	74.7	85.3	15.5	0.7
2024	국립창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59.1	79.3	94.6	16.9	0.7
202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19.9	88.4	89.0	15.7	0.5
202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822.9	83.8	93.1	12.3	2.2
2024	국립한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29.7	77.7	98.9	20.3	0.8
2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역중심대학	450.6	57.0	98.0	23.5	1.0
2024	서울시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657.1	57.1	78.7	23.8	1.3
2024	한경국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93.6	80.9	89.6	12.4	0.2
2024	한국교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499.8	32.1	97.7	13.4	0.2
20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0	0.0	83.0	0.0	0.0
2024	한국체육대학교	지역중심대학	505.3	64.7	98.9	13.0	0.6

7. 국제화(19개 지역중심국립대학)								
연도	대학명	분류	43.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44. 외국인 학생 비율	45. 교환학생 비율	46. 해외 파견 학생수	47.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48.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202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0	2.6	0.6	19	14	21.0
2024	국립경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4	0.4	0.4	10	11	55.2
2024	국립공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8	0.9	0.3	50	3	57.3
2024	국립군산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2	4.0	0.8	23	38	21.9
202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3	0.6	0.6	22	11	67.2
2024	국립목포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8	0.6	0.9	7	52	67.5
2024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0	0.2	0.0	0	0	37.3
2024	국립부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4.1	3.5	4.6	458	413	62.6
2024	국립순천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8	2.0	1.4	78	30	69.0
2024	국립창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9	1.5	0.9	55	30	33.2
202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6	0.4	0.9	26	53	15.7
202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9	0.8	3.3	182	57	22.6
2024	국립한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3	0.9	1.2	19	84	45.7
2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역중심대학	3.0	3.6	3.1	190	193	66.2
2024	서울시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5	1.9	6.2	332	450	76.5
2024	한경국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1	1.2	0.3	16	0	54.7
2024	한국교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3	0.0	0.2	10	1	0.0
20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0	0.3	1.5	0	15	0.0
2024	한국체육대학교	지역중심대학	0.8	0.3	0.0	1	0	12.5

8. 기타(19개 지역중심국립대학)				
연도	대학명	분류	49. 교사시설 확보율	50. 기숙사 수용률
2024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75.9	40.6
2024	국립경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54.8	29.1
2024	국립공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95.4	31.0
2024	국립군산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90.4	24.6
2024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29	36.2
2024	국립목포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42.7	23.6
2024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72.8	87.2
2024	국립부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75.9	25.0
2024	국립순천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90.3	29.9
2024	국립창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15.4	26.5
202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17.1	23.1
2024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04.9	40.6
2024	국립한밭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89.4	16.4
2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65.8	23.8
2024	서울시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158.7	11.4
2024	한경국립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32.8	27.1
2024	한국교원대학교	지역중심대학	322.9	74.9
202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역중심대학	402.4	87.9
2024	한국체육대학교	지역중심대학	253.2	37.0